

동강, 뗏목

DONGGANG, RAFT

2025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25



동강, 뗏목

DONGGANG, RAFT

동강뗏목축제 결과자료집

2025



동강, 뗏목

DONGGANG, RAFT

동강뗏목축제 결과자료집

2025 제2호

제27회 동강뗏목축제 결과자료집 “동강, 뗏목”

발행일 2025년 9월 15일

발행 (재)영월문화관광재단

기획 영월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부 김성진, 오명훈, 김민소, 지혜인, 백은지

인터뷰 상지윤, 신경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

전화 033-375-6353

팩스 033-374-6353

* 본 책은 2025년 영월문화관광재단
제27회 동강뗏목축제 기록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3

첫 기록 결과자료집<동강, 뗏목>

Open Note

- 006 영월군수 최명서
- 008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상헌

7

영월 X 뗏목 뗏목이야기

Basic Story

- 012 뗏목이야기
- 019 영월의 뗏목
- 021 영월, 마지막 때꾼 이야기 홍원도
- 022 강과 시간 위를 흐르는 영월 뗏목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 김중기 회장
- 024 마을이 함께 띄우는 뗏목
영월 거운리마을 조후연 이장



21

동강, 그 여름의 약속

제27회 동강뗏목축제

Main Story

- 026 동강뗏목축제
Essay : 영월주민이 바라본 동강뗏목축제
- 046 내 손안의 뗏목
- 050 동강 밀당대회
- 052 동강파크, 뗏목탐험대
- 055 떼돈을 벌다. 떼돈이벤트
- 056 공연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썸머나잇, 불꽃놀이, 드론쇼
- 060 동강청소년댄스대회

81

달달영월 영월이야기

People Story

- 064 전통을 잇는 뜨거운 손길
- 065 동강나루터 체험
- 069 아름다운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 072 전산옥주막
전산옥 주막을 되살리다
축제의 색을 만들어온 긴 시간
젊은 감각으로 만드는 풍성한 축제
더운 여름의 오아시스
- 076 축제를 통해 공단을 알리다
영터리마켓 X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079 부록 영월군 전승 뗏목의 문화적 가치 조사

제27회 동강뗏목축제

결과자료집

〈동강,뗏목〉

OPEN NOTE

여는글 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영월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과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계절의 한 가운데 맑고 힘찬 물줄기가 흐르는 동강 위에서 제 27회 동강뗏목축제가 다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동강, 그 여름의 약속’입니다. 해마다 이 강에서, 이 자리에서 이어온 우리의 약속, 전통을 지키고 사람을 잇고 마을을 살리는 그 소중한 약속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67년, 대원군은 병화로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강원도 일대의 울창한 금강송을 베어 뗏목으로 엮어 한양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 영월 동강이었습니다.

그 위를 떠다녔던 뗏목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실린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동강은 영월의 젓줄이자 영월을 영월답게 만드는 자연의 중심입니다. 동강을 따라 흐르던 그 길 위에는 지금 우리 축제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올해 27회를 맞은 동강뗏목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뗏목 시연, 동강 썸머나잇, 동강 밀당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성껏 구성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으로 영월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이제 축제는 단지 즐거움의 자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희망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공동체가 하나로 엮이며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이 돌아오는 변화가 영월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강뗏목축제는 바로 그 중심에서 전통의 계승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오랜 세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노력과 마음이 있습니다. 제1회 축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민 여러분과 지역 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행정이 함께 작은 뗏목 하나, 작은 공연 하나에도 정성과 열정을 담아왔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해 폭염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월의 여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27회 동강뗏목축제가 우리 고장의 문화적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자연과 전통, 공동체가 어우러진 대표 여름 축제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을 가슴에 담으며 오늘처럼 이 강 위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수

최병석



제27회 동강뗏목축제

결과자료집

〈동강,뗏목〉

OPEN NOTE

여는글 ②

제27회 동강뗏목축제를 마치며

매년 동강뗏목축제 개최 시기가 되면 걱정해야했던 여름철 장마가 올해는 마른 장마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27회 동강뗏목축제를 맞이하였다. 동강 둔치 주무대에는 대형TFS를 설치하고 선풍기를 가동하여 무더위대체도 강구하였으나 40℃에 육박하는 기온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도 동강 둔치의 잔디구장을 활용하여 부스가 설치되어 콘크리트의 복사열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축제장을 찾아주신 영월군민과 관광객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TFS를 설치하여 난방시설도 가동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좁은 공간에 음향과 무대도 마련하여 음식을 드시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무대도 마련하였으나 좁은 공간이다 보니 쾌적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산만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의 축제장은 짜임새 있게 배치가 잘 되었다는 호평도 받았으나 동강뗏목축제의 본질인 뗏목과 관련된 동강에서의 프로그램 미흡, 뗏목 제작과 관련된 잡음, 폐막식 참여자 미흡 등은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모두 아우르는 성과자료집을 출간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성과자료집을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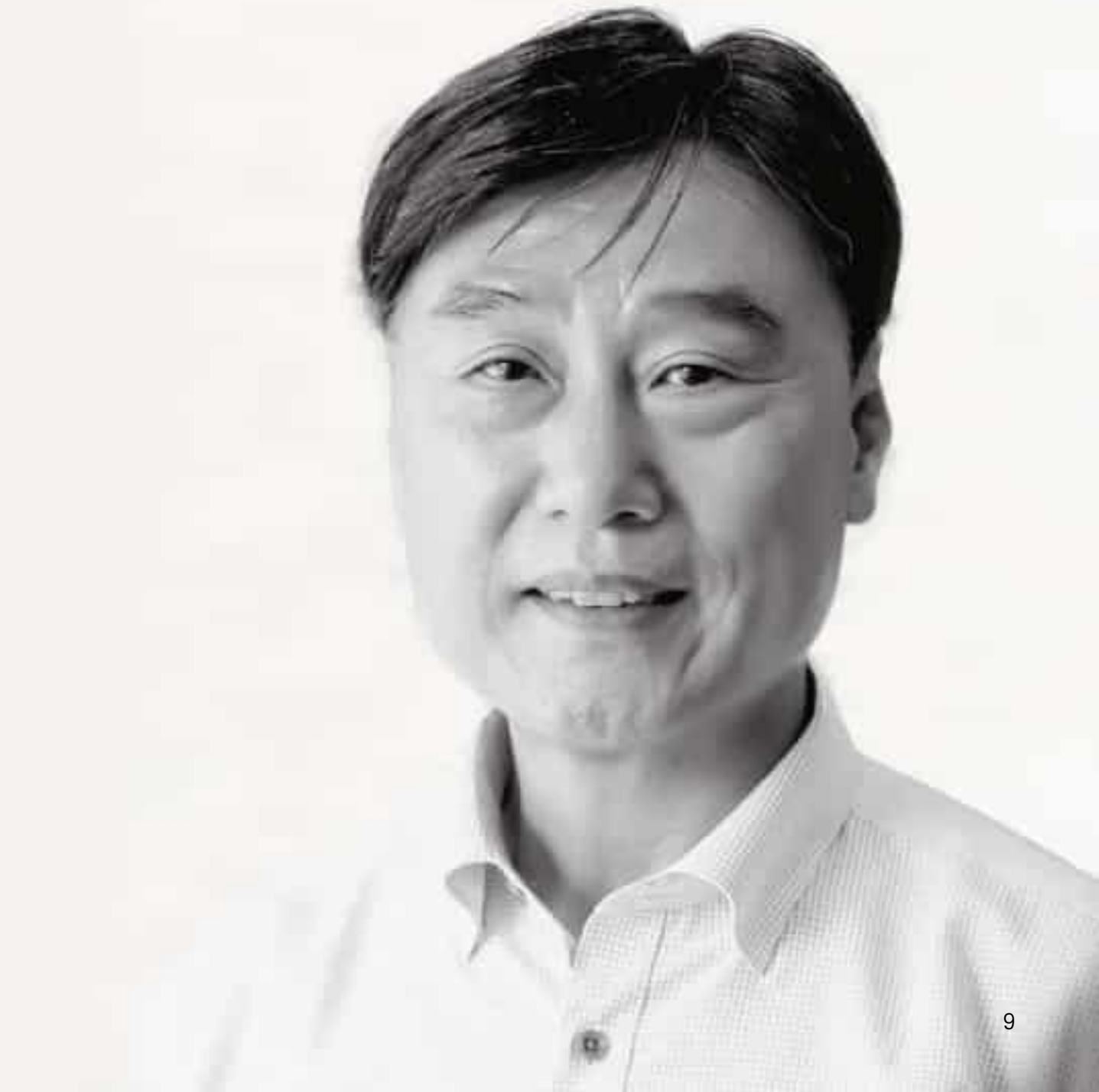
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광축제부나 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차없는 축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참아주신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더위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주신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영월청년회의소, 영월중앙로타리클럽, 영월은하수로타리클럽, 음향 및 조명, 영상, 중계, 무대 장치 등에 협조하여 주신 단체와 관계자, 안전한 축제장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영월경찰서, 한국 1339 응급환자이송단, 영월카누협회, 영월레프팅협회 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귀중한 전시자료를 제공해주신 동강뗏목보존회 김준기 회장님과 뗏목제작에 도움을 주신 거운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하여 보다 개선된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강뗏목축제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상근



7

영월 X 뗏목

뗏목이야기

Basic Story



펄목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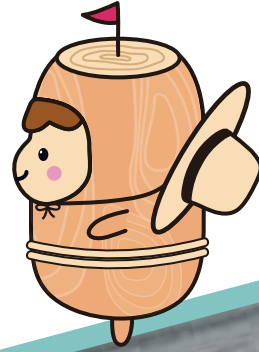
뗏목의 사전적 정의는 “통나무를 때로 가지런히 엮어서 물에 띄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과거 동강 주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강물을 건너기 위한 수단으로 센다리를 세우거나 뗏목을 사용하였다. 또한 뗏목은 정선 지역에서 벌목된 나무를 남한강의 물길을 이용해 서울까지 운반하는 일을 뜻하기도 하였다.

뗏목을 엮고, 서울까지 물길을 따라가는 일꾼들을 ‘떼꾼’이라 불렀고, 일이 고된 대신 보수가 넉넉하여 ‘떼돈을 번다’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떼꾼들은 목질이 단단한 음력 10월에서 이듬해 2월경까지 벌목한 나무를 강가에 쌓아두었다가 우수, 경칩이 지나 얼음이 녹고 강물이 불어나면 뗏목을 엮어 떠날 준비를 하였다. 뗏목은 느릅나무 껍질, 칩졸, 새끼줄 등으로 묶었으며 통나무 25~35개의 한 동가리(동(棟))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닻동가리를 한 바닥으로 엮는다. 대개 정선의 굴암리, 가수리 등에서 출발하여 동강을 통하여 영월을 거쳐 단양, 충주 등 남한강으로 흘러 서울까지 가는데, 정선에서 영월 덕포까지의 동강 줄기를 내리는 뗏길을 ‘골안떼’라고 하였다. 영월은 골안떼의 험한 물길을 지나 떼꾼들이 잠시 쉬어 가며, 뗏목을 네 바닥 혹은 다섯 바닥으로 크게 엮어 큰 강을 향해할 준비를 하는 장소였다.

영월에서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떼꾼들이 술 한 잔에 고단한 몸을 달래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던 객집짓 ‘전산옥 주막’은 비록 지금은 사라졌지만, “황새여울 뒀고까리에 떼를 지어 놓았네 만지산의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게”하는 「정선아리랑」 가사를 통하여 그 흥성하였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 팔당댐이 착공되고 철도 및 육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뗏목은 사라졌다. 그러나 뗏목은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여 여전히 사람들의 곁에 있다.



영월 뗏목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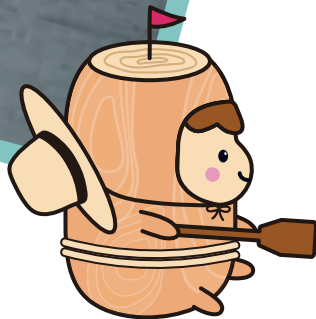
뗏목배, 뗏배라고 부르기도하고, 제주도에서는 티우라고도 한다. 강원도 영주군 정동진에서는 토막배라고 한다. 뗏목은 산간에 있는 통나무 목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졌고, 뗏목배는 통나무 3, 4개를 엮어서 토막배를 만들어 물에 띄워 노를 저으며 타고 다닌 것에서 유래한다. 이와 함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돛을 달아 섬과 섬 사이를 왕래하였다.

뗏목 한국 미의 재발견
과학문화, 2004.12.31., 김민덕, 서성호, 오삼학 오영선



뗏목은 강원도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운송수단이자 문화유산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뗏목 문화는 강을 이용한 이동과 물자 운송수단으로써 지역 경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나무가 주요 자원인 강원도 지역 주민의 생활상과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영월 뗏목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 자료, 2024.11.25., 김준기





뗏목의 구성



원목

원목은 소나무로서 곡재가 섞이지 않은 직재가 좋으며, 벌채한지 6~8개월이 경과되어 잘 건조된 원목을 물에 띄워서 2분의 1정도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이 최적이다. 또한 수피를 벗긴 것이 좋으며, 규격은 나무 굵기가 15~25cm, 길이는 2.7~3.6m가 이상적이다.



띠그레(노)

띠그레는 뗏의 좌우 방향을 조정하는 노를 말하며 뗏목 한바닥(1기)에 2개(앞, 뒤)가 사용된다. 너무 건조되지 않은 탄력성이 있는 참나무가 좋으며, 나무의 굵기는 말구 8~10cm정도, 길이는 뗏목의 길이가 20m 안팎일 경우 5.5~6m정도면 된다. 원구 쪽으로 길이의 3분의 2정도 널빤지 모양으로 가운데는 두껍고 바깥쪽으로 3~4cm두께로 하여 깎고, 반대쪽은 사공의 손잡이가 될 수 있게 5cm정도 직경으로 둥글게 깎으면 된다.



뗏목

뗏목은 원목토막을 연결할 때 당타래와 새끼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나무에 박을 때 구부러지지 않는 강철 재질의 10번 선 20cm 정도의 철사를 받은 30°정도 휘어 사용한다.



새끼

원목 토막을 엮어주는 것으로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6mm정도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새끼와 칩을 사용하였다.



당타래

원목 토막을 연결 시 원목에 가로로 놓고 새끼로 엮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뗏목이 물 위에서 유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벤지 10일 이내의 탄력이 양호한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좋다. 굵기는 5cm정도이며, 길이는 뗏목 1동의 폭을 3m로 할 경우 3.5m정도면 된다.



도비

원목 토막을 근거리로 운반할 때 손으로 잡지 않고 찍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갈퀴리 모양이다.



버리줄

목을 운반할 때 중간 기착 지점이나 운반 도중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임시로 매어주는 끈이다. 굵기는 16~20mm정도면 되고, 길이는 뗏목 1바닥에 30~50m가 소요된다.



강다리(노 고정틀)

뗏목 바닥에 노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 틀로서 소나무 원목의 직경은 15~20cm, 길이 130~150cm 정도로 원구 쪽 15~20cm정도에 사각형으로 구멍을 내어 4~5cm 참나무 2개를 V자형 참나무 높이는 30~100cm가 되면 좋다.



영월의 뗏목



영월의 뗏목



영월군은 한강의 상류인 남한강을 끼고 있어 뗏목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지역이다. 강원도 지역 가운데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영월군 및 정선군, 평창군 일대와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대 그리고 홍천군 일대 지역이 특히 나무가 울창하였다. 더욱이 나무들을 서울로 운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는 한강과 북한강 홍천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 위에 목재를 띄워 띄우는 것은 전통사회에서는 육로와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뗏목은 그 자체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으며, 나무를 베어서 판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종사했던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하였다. 영월군 지역에서 뗏목이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선 건국과 함께 한양이 도읍으로 전해지면서 영월군 관내의 목재들이 뗏목을 통해 한강 물길로 운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 지역의 뗏목이 가장 활성화되던 때는 1867년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부터다. 이때 중건에 필요한 목재를 얻고자 산림자원이 풍부한 영월에서 벌목한 소나무를 물길을 이용해 서울로 운송하였다.

영월군 지역의 마지막 뗏꾼들은 약 1960년대 말까지 활동하였으며 영월읍 덕포리와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출발하는 서울떼를 운행했다. 전국적으로 뗏목을 재현해 제작하는 마을은 영월읍 거운리가 유일한데 거운리에는 1960년대까지 뗏목을 탔던 뗏꾼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 마지막 뗏꾼인 홍원도는 정선에서 영월읍 덕포리까지 내려오는 골안떼는 물론 1960년대 영월읍 덕포리에서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갔던 뗏꾼이다. 이러한 뗏목 전승자를 통해 영월의 뗏목 역사와 전승이 지속되어 현재는 '영월 전통동강뗏목 보존회'에서 그 계보를 잇고 있다.

골안떼: 정선군에서 영월군까지 동강을 물길로 내려온 뗏목

〈영월뗏목-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자료, 2024. 11.25.〉

영월 뗏목의 가치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조20년(1438년)에 강원도에서 궁궐 건축물에 사용하던 목재를 벌채하여 뗏목으로 운송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그로 인해 영월 뗏목문화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는 강원 영월, 정선, 평창, 인제 등 소나무 산지 주민들이 '떼꾼뗏목꾼'공동체를 형성 하였으며, 1960년대 팔당댐 착공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마지막 떼꾼들을 통해 뗏목 제작 기술을 간헐적으로 유지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영월군의 주도로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뗏목문화의 전승을 위한 노력들

을 이어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매년 7~8월 경에 '영월 동강뗏목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영월군은 영월 뗏목의 전통 기술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영월전통동강뗏목'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영월전통동강뗏목'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영월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 위에서 보낸 날들

홍원도 (거운리, 92세)



내가 젊었을 땐 뗏목 타고 강을 내려가는 때꾼이었지. 해가 길던 여름이면, 물살 가르며 며칠이고 강 위에서 잤지. 나무 위에서 밥도 먹고 강바람 맞으며 서울까지 갔어. 햇볕이 이글거릴 때도, 비가 억수같이 퍼부을 때도 뗏목 위에 있었어. 강물은 늘 거스르지 않고 제 길로만 흘러갔지.

그 시절 뗏목은 우리에게 돈벌이고, 또 삶이었어. 위험했지만, 도착하면 송아지 한 마리 값은 벌었거든.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던지 몰라. 같이 가던 때꾼들은 서로 웃고, 같이 걱정하며 물살을 헤쳐 나갔지. 물살이 세면 목숨을 걸고 노를 붙잡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

이젠 다들 세월 따라 흘러가고 나 혼자 남았네. 사람들은 나를 ‘마지막 때꾼’이라고 불러. 그 말이 참 묘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쓸쓸하기도 하지. 그래도 축제에서 뗏목이 옛날 그대로 강물에 뜨는 걸 보면, 맘 하나 없이 자유롭던 그 강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

나는 이 전통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네. 젊은 사람들이 동강 물살에 발을 담그고 나무를 묶고 강을 건넌다면 해.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 뗏목도 그 강물처럼 오래 오래 자유롭게 흘러가면 좋겠어. 뗏목은 나한테 그냥 나무가 아니거든. 우리 강, 영월 사람들의 숨과 맘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이지. 그래서, 강 위에 뗏목이 뜨는 그날만큼은 내 마음도 젊었을 때처럼 다시 떠오른다네. 내년에도 강 위에서, 뗏목 위에서, 그대들을 기다리겠네.



강과 시간 위를 흐르는 영월 떼목

강물처럼 흘러,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과 나무의 여정

- 영월전통동강떼목보존회 김종기 회장 -

시작, 떼목을 다시 띄우다

강물 위에 묵직한 나무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서로의 어깨를 맞댄 듯 붙은 나무들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이며, 점점 하나의 몸이 된다. 나무 사이에는 강물 소리가 배어 있고 그 위를 오가는 손길에는 세월이 묻어 있다. 이 풍경을 28년째 지켜온 사람이 있다. 영월 전통 동강떼목보존회 김종기 회장이다.

“군청 산림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건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1997년, 그는 직접 기획안을 쓰고 거운리 주민들을 모았다.

그렇게 제1회 동강떼목축제가 열렸다. 처음엔 문산리와 삼계리도 함께했지만, 세 개 마을이 힘을 합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음 해부터 거운리가 중심이 됐다. 지금도 거운리 주민 100여 명 중 약 40명은 강물에 들어가 떼목을 만들고, 나머지는 밥을 짓거나 도구를 준비하며 뒤에서 손을 보탠다.

김 회장은 군청에서 38년간 산림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명예퇴직 후에는 산림조합장으로 11년째 일하고 있다. 마흔 두 살에 처음 떼목머리를 잡아 ‘앞사공’이 된 그는, 지난 28년간 떼목의 원형 보존을 위해 힘써 왔다. 올해도 그는 직접 물살을 읽으며 방향을 잡았다. “잘하진 못해도, 계속 노력함

니다.” 그 담담한 말 속에 시간과 강물이 함께 흘러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원형을 지키는 힘

뗏목의 원형 재현에는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92세, 우리나라 마지막 떼꾼인 홍원도 어르신이다. 서울 강나루까지 뗏목을 몰았던 그가 있었기에 영월 뗏목은 옛 모습에 가장 가깝게 재현될 수 있었다.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만드는 뗏목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김 회장은 이 말을 전하며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영월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고 급물살과 여울을 지나야 하는 험한 물길이었다. 물이 많을 때는 일주일, 가뭄이 심하면 보름이 걸렸다. 그 대가로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벌 수 있었고, 위험한 일을 하고 큰돈을 벌었다는 뜻에서 ‘떼돈 번다’는 말이 생겼다. 목숨을 잃는 이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뗏목은 ‘동새’라는 단위로 묶인다. 나무토막 열네댓 개가 한 동새이고, 올해는 여덟 동새를 이어 한 바닥을 만들었다. 앞사공과 뒷사공이 방향을 잡고, 속도는 강물에 맡긴다. 뗏목의 주 구조를 이루는 대목에는 송진이 많아 썩지 않고 오래가는 황장목이 전통적으로 쓰였다. 영월 무릉도원면에서 자라는 황장목은 궁궐 건축에도 쓰였으며, 200년을 넘게 산 나무도 있다. 예전에는 국가가 특별 관리해 ‘황장금표’를 새겨두었고, 일반인은 손도 댈 수 없었다. 황장목은 현재도 귀해 구하기 어려워 지금은 큰 참나무도 함께 사용한다. 대목과 대목을 가로로 연결하는 ‘당타이’ 역시 참나무로 만들어 바위에 부딪혀도 완충 역할을 하게 한다. 당타이는 벌목한 지 20일 이내의 나무여야 하고, 대목으로 쓰이는 큰 원목은 최소 6개월 이상 건조해야 강물 위에 잘 뜬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월만의 뗏목, 내일로 흐르다

뗏목은 반드시 물 위에서 만든다. 물에 띄우면 나무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 균형을 맞춘다. 물에서 만든 뒤 강에 넣으면, 나무가 뒤틀리며 새끼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 망치 대신 돌을 쓰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다. 돌이 단단하고 넓어 작업이 더 안전하다.

정선에도 뗏목 축제가 있지만, 영월과 다르다. 정선은 짧은 구간에서 관광용으로만 운행한다. 반면 영월은 옛날처럼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데미 없으면 지금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홍원도 어르신의 고증 덕에 영월 뗏목이 단순한 축제 장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기술임을 자부했다.

올해 축제는 김 회장에게 특별하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잘하면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납니다. 등재가 되면 전수관을 세워서 후대에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회원 대부분이 50~70대이고, 40대는 드물다. 젊은 일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행사 때 젊은 주민들이 물 위에서 제작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 그들이 뗏목머리를 잡을 날이 올 거라 믿는다. 그날이 오면, 그의 지난 28년은 또 다른 이야기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뗏목축제는 떼꾼의 애환이 서린 행사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보람이 큼니다. 반년을 준비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지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강물처럼 이어진 세월과 뗏목을 띄우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마을이 함께 띄우는 뗏목

거운리 사람들의 손끝에서 강 위로 피어나는 전통

거운리 마을 조후연 이장

마을이 움직이는 날

동강뗏목축제가 가까워지면 거운리는 분주해진다. 마을 입구에 베어낸 나무들이 쌓이고, 강가에는 물살을 살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남자들은 강물 속에서 대목을 맞추고, 여자들은 밥과 음식을 준비한다. 어르신은 경험을, 청년은 힘을 보태고, 학생들까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다.

뗏목을 만드는 날은 그 자체로 마을의 큰 행사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손을 보태야 완성할 수 있기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일한다. 땀을 흘리며 나무를 묶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강 위로 시선이 쏠린다. 강물 위에 서서히 모양을 갖춰 가는 뗏목을 보는 순간,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주민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진다.

물살 위에서 이어지는 전통

거운리에서 뗏목을 만드는 방식은 옛날 그대로다. 나무를 강물에 띄운 채 제작하느라 작업 내내 물살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나무를 묶는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검증된 지혜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

오래 가는 방법이에요.” 이장 조후연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애정이 함께 묻어난다.

축제 당일, 강 위에 완성된 뗏목이 떠오르면 거운리 사람들의 얼굴엔 같은 표정이 번진다. 함께 되살린 전통이기에 자부심이 담긴 미소가 뗏목만큼이나 멋지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구경하는 모습은 그들의 가장 큰 보람이다.

“우리 마을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고, 뗏목이 영월의 대표 전통이 됐다는 게 자랑스럽죠.”

조 이장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강물에 들어가 나무를 묶는 젊은 손들을 볼 때면 언젠가 그들이 앞사공이 되어 뗏목을 이끌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거운리의 뗏목은 나무와 강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온 마을의 손길과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강 위를 천천히 흘러가는 뗏목은 물 위에 피어난 그들의 자부심과 전통에 대한 애정이 피어난 풍경이었다. 이 풍경은 언젠가 강물 위에서 뗏목머리를 잡을 젊은 손들에 닿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1

동강, 그 여름의 약속

제27회 동강뗏목축제

Main Story

동강뗏목축제

‘동강뗏목축제’는 1997년 영월 동강 둔치에서 시작된 영월의 대표 여름 축제이다. 이 축제는 과거 남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이 교통수단이자 생활수단으로 활용하던 뗏목 문화를 재현한 행사로, 그 기원은 1867년 경복궁 중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월의 뗏목은 목재와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왔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일간 시원한 동강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뗏목 체험, 퍼레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뗏목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때 ‘동강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기도 했으나, 2017년부터는 동강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동강뗏목축제’라는 명칭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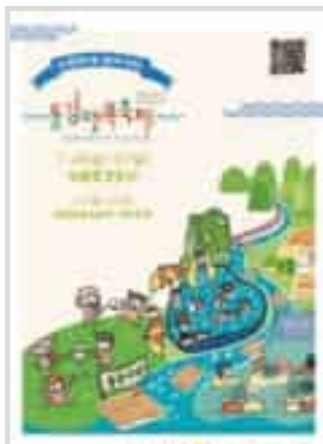
2018



2019



2022



2023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25

제27회

동강 페 목 축 축제

DONGGANG
RAFT
FESTIVAL

2025.08.01(금) - 03(일)

영월동강둔치 일원



주최·주관 | 영월문화관광재단
www.yeongweol.or.kr

후원 | 영월군
YEONGWOL COUNTY

KANGWON LAND
주식회사 강원랜드

동강뗏목에 담긴 그 사연

‘동강뗏목축제’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예전의 많은 사연을 담고 진행된다. 1592년 일본 왜군은 고요하게 살고 있는 조선을 공격했다. 임진왜란이었다. 이어서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이때 우리 삶의 터전은 모조리 쑥대밭이 되었다.

죄 없는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녀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집은 불타버렸다. 그때 조선의 궁궐도 타버렸으니, 그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275년이 지난 1867년 대원군은 경복궁을 재건하였다. 엄청난 물자가 드는 일이었다.

그때 목재는 모두 강원도에서 조달했다.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펼쳐있는 고을에서 최고의 금강송을 베어 뗏목으로 날랐다. 나무를 물에 띄워 길게 엮어 뗏목을 만들고, 뗏목 위에는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밤낮 며칠을 가야 마포나루에 도착할 수 있으니, 그 고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가다가 힘들면 떼를 매어두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또 떠났다. 그렇게 경복궁이 복원되었다. 서울의 큰 집들은 모두 강원도 나무로 지어졌으니, 강원도의 떼꾼들은 설새 없이 뗏목을 꾸렸다. 이 뗏목은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어졌으니, 1960년대 초까지는 이어졌다. 그러나 댐으로 물길이 막히자 이제 더이상 뗏목은 흘러갈 수 없었다. 뗏목 대신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철길이 놓여져 기차가 다니면서 뗏목은 완전히 사라졌다. 동강뗏목축제는 호황을 누렸던 옛 시절을 회상하면서 1997년에 만들어졌다. 벌써 꽤 오랜 세월 동안 동강뗏목축제는 이어졌다.

떼꾼의 행복한 미소 속, 영월동강뗏목축제의 즐거움

‘동강뗏목축제’에 가면 동강에 띄워진 뗏목을 볼 수 있다. 영월동강뗏목축제의 백미는 단연 뗏목 띄우기다. 떼꾼이 부르는 아리랑 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뗏목 위에서 노래하는 떼꾼은 마냥 즐거운 몸짓이다. 그 몸짓에 천 리 물길을 따라 목숨을 내걸고 나섰던 떼꾼의 애환이 녹아 있다. 떼꾼을 벌여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예쁜 옷을 사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즐거워하던 떼꾼들의 행복한 얼굴이 가득하다. 힘차게 강을 가르며 나아가는 뗏목 위에는 옛 선조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이 함께 흐르고 있다.

강가에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한다. 뗏목 시연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 물놀이장, DJ 파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고, 밀당대회·뗏목탐험대·동강나루터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또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축제의 즐거움은 맛으로 이어진다. 전통 전산옥 주막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에서는 뗏목 전사와 함께 영월의 별미를 맛볼 수 있어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아리랑으로 흐르는 동강뗏목

‘동강뗏목축제’의 캐릭터 ‘협동이’를 보면 참 재미있다. 네 명의 떼꾼을 형상화했는데, 맑은 동강 위에 둥둥 떠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이다. 머리에는 깃발을 달고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며 노를 젓고, 소리하니 흥겨운 모습이다. 모든 시름을 잊고 흥겹게 아리랑을 부른다. 물론 이때 부르는 아리랑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이다. 애조(哀調)와 흥조(興調)를 넘나드는 소리가 정선

동강뗏목축제

- 행사기간 매년 8월 개최

- 행사장소 영월동강둔치

- 행사내용 동강뗏목축제는 1960년대까지 남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단이자 교통수단이었던 뗏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 여름 축제다. 1997년 처음 시작된 이후, 뗏목 문화의 재현과 계승은 물론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뗏목 시연으로, 동강 주변의 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띄우고, 이를 따라 이동하던 뗏꾼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이와 함께 워터파크, 체험·참여 프로그램, 공연,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여름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

- 주최주관 (재)영월문화관광재단

- 홈페이지 <http://ywfestival.com/>

- SNS

·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ywdonggan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wdonggang/?ref=pages_you_manage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wdonggang?igshid=YmMyMTA2M2Y%3D>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Bv1YaAd8K9Ww43yM0L_qQ



아라리와 강원도아리랑이다. 정말 슬프고 정말 흥겹다. 고개 너머 대처로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고개를 넘을 수 없어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라 한다. 가슴 저 밑에서 울려오는 처절한 울음이 노랫말마다 담겨 나온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역수장마 질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우리댁에 서방님은 잘나선지 못나선지 엮어매고 짝어매고 장지다리 곱배팔이 노가주나무 지게에 엮전 닷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굽이굽이 부디 잘 다녀오세요.” 정말 가락마다 노랫말마다

이렇게 순수하고 애절하게 다가오는 소리는 드물다. 그래서 정선아리리를 들으면 저절로 슬퍼지고 가슴 저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이 꾸역꾸역 밀고 올라온다. 그래도 강원도아리랑은 그 소리가 경쾌하다. 비록 애환을 노래해도 소리가 흥이 있으니 흥조(興調)이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 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배만 왜 여는가” 동강 위로 뗏목을 띄워 서울 마포나루까지 가면서 뗏꾼들이 불렀던 소리이다. 처량하게 소리가 강을 타고 주막까지 흘러 들어가면 주모는 술상부터 차렸다.

동강뗏목축제 BI 메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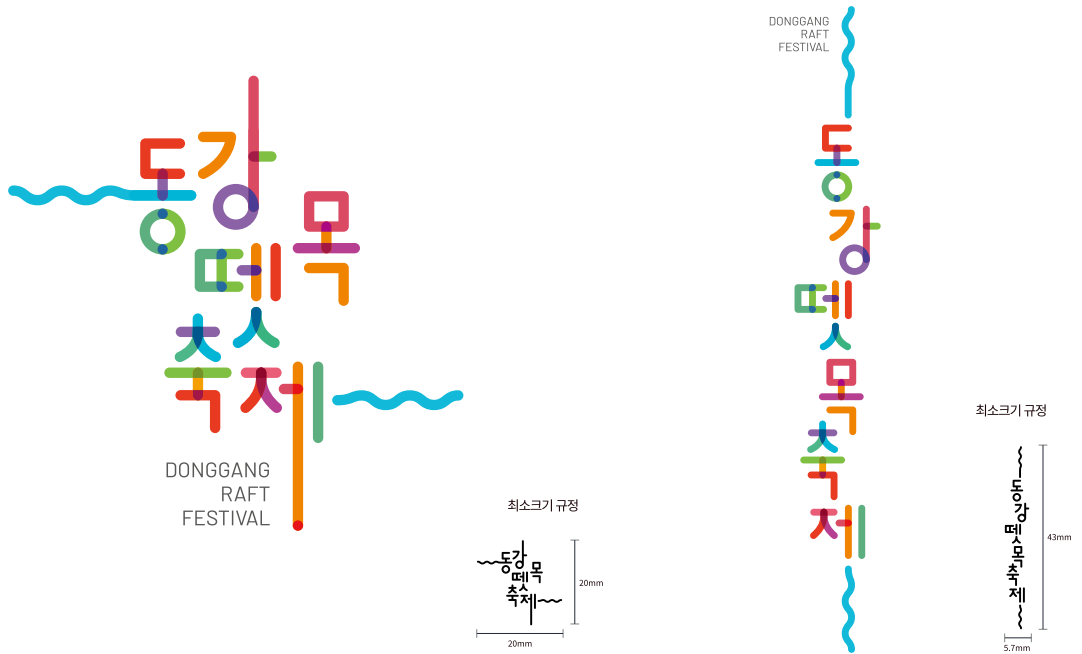
Brand identification standard manual



본 Graphic Standards 가이드라인은 동강뗏목축제 BI(Brand Identity) System에 대한 그래픽디자인 규정으로서 동강뗏목축제의 모든 시각 표현을 제작 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각의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항목 적용시에는 매체별 세부 규정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부 항목 적용 시 의문사항은 반드시 BI 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올바른 적용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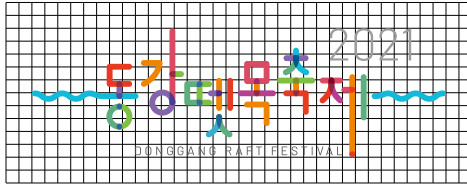
심볼마크



동강과 뗏목의 이미지를 한글로고에 반영하여 즐거움과 활기찬 축제를 표현하였습니다.
서브 패턴과 그래픽 이미지를 추가하여 동강뗏목축제를 좀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로고마크의 그래픽 이미지를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매해 새로운 느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심볼마크 그리드 & 공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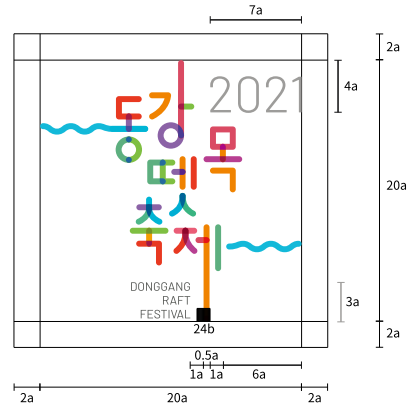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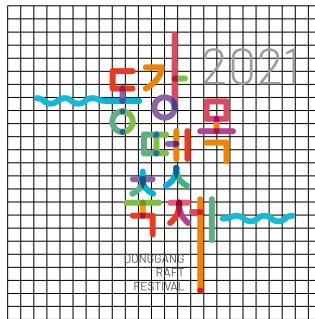
Positive Type



Negative Type



Positive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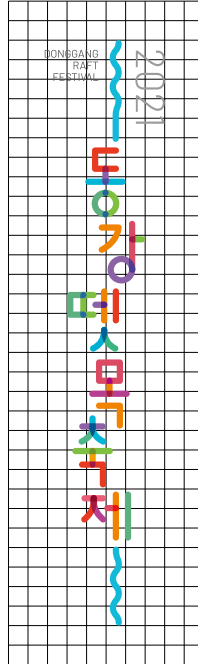
Negative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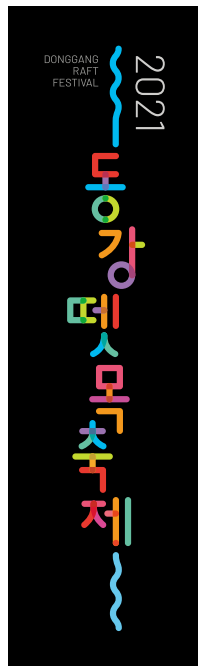
* 주의 : Positive Type와 Negative Type 은 별도로 작업되었습니다.
Positive Type의 컬러 로고는 절대 어두운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egative Type의 컬러 로고 또한 화이트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단색 로고 또한 컬러 로고를 단색 변형하여 쓰면 안됩니다.

* 주의: Positive Type와 Negative Type 은 별도로 작업되었습니다.
 Positive Type의 컬러 로고는 절대 어두운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egative Type의 컬러 로고 또한 또한 화이트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단색 로고 또한 컬러 로고를 단색 변형하여 쓰면 안됩니다.

Positive Type



Negative Type



전용색상

SUB POINT COLOR



PANTONE 298C
CMYK 67 8 2 0
RGB 60 180 229

SUB COLOR



PANTONE 325C
CMYK 59 0 27 0
RGB 98 20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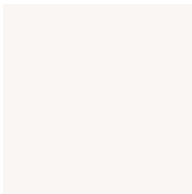
PANTONE 368C
CMYK 60 0 100 0
RGB 118 18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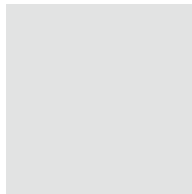
PANTONE 3945C
CMYK 10 0 95 0
RGB 234 229 0



PANTONE 185C
CMYK 0 100 81 0
RGB 234 0 41



PANTONE 434C 40%
CMYK 9 9 8 0
RGB 235 230 231



PANTONE Cool Gray 3C
CMYK 25 18 19 1
RGB 200 200 200



White
CMYK 0 0 0 0
RGB 255 255 255



PANTONE Black 6C
CMYK 100 61 32 96
RGB 16 24 32

색상 활용 규정

배경 색상 활용은 축제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 마크의 색상과 배경색은 기본 색상 외에 본 항에 수록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시인성을 위해 배경색이 없는 White 배경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배경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지 왜곡 및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의 배경색 사용규정을 준수하여 오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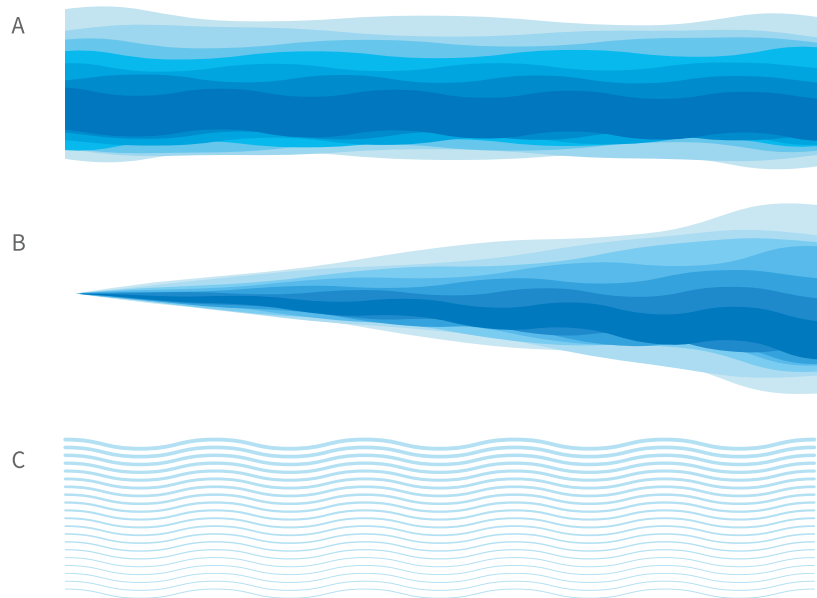
* 주의 : Positive Type와 Negative Type 은 별도로 작업되었습니다. Positive Type 의 컬러 로고는 절대 어두운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egative Type 의 컬러 로고 또한 화이트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단색 로고 또한 컬러 로고를 단색 변형하여 쓰면 안됩니다.

	Full color01	Full color02	Blue	Negative
white background				
main color background				
sub-color background				
point color background				
light cold/blue background				
warm orange background				
gray background				
gold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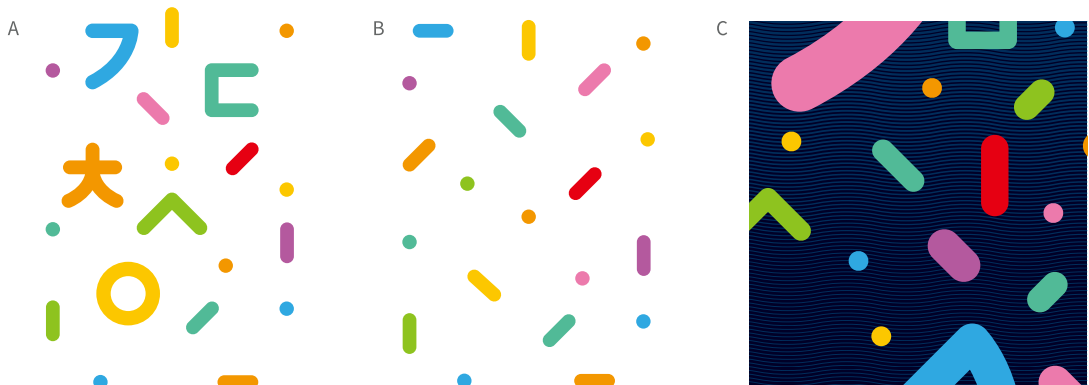
그래픽 모티프 Graphic Motif

그래픽 모티프는 심볼 등의 공식적인 표시와는 달리 별도로 디자인된 요소입니다. 각종 응용매체에 적용되어 앰블럼을 보조하고 적용매체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용시 활용되는 매체에 따라 기능에 맞추어 활용합니다.

main motif



pattern



전용서체 Typeface

국문 전용서체는 로고타입 혹은 로고타입을 보조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서체로 Noto Sans(본고딕)를 사용합니다. 적용매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전용 서체는 Barlow를 사용합니다. 로고 옆 년도표시 숫자는 반드시 Barlow를 사용합니다.

국문 TYPE

본고딕 | 본문용 (자간 -80px), 25pt 이상 (자간 -100px)

- REGULAR 옛날 한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되던 뗏목을 소재로 동강뗏목이 철도 등 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연료사용이 장작에서 연탄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으나 60년대까지 남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수단이자 교통수단으로 술한 사람들의 땀과 애환이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1997년 첫회를 시작으로 2019년 2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천혜의 비경 동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단종대왕, 김삿갓에 얽힌 역사 및 문화 탐방과 래프팅, 패러글라이딩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관광도시 영월을 적극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BOLD **옛날 한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되던 뗏목을 소재로 동강뗏목이 철도 등 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연료사용이 장작에서 연탄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으나 60년대까지 남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수단이자 교통수단으로 술한 사람들의 땀과 애환이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1997년 첫회를 시작으로 2019년 2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천혜의 비경 동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단종대왕, 김삿갓에 얽힌 역사 및 문화 탐방과 래프팅, 패러글라이딩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관광도시 영월을 적극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문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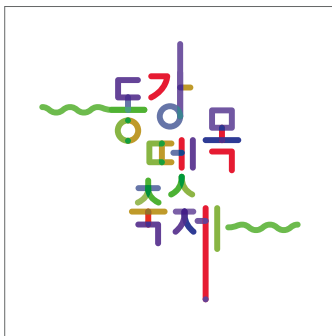
Barlow

- Regular The Donggang raft, which used to be transported along the Han River to Hanyang in the past, dis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such as railroads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by the 1960s, many people's sweat and sorrow were imbued in the Namhangang River.
- Bold** **The Donggang raft, which used to be transported along the Han River to Hanyang in the past, dis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such as railroads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by the 1960s, many people's sweat and sorrow were imbued in the Namhangang River.**

사용금지 규정

로고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 할 경우 로고가 본래 지니고 있는 축제 이미지나 커뮤니케이션을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측의 예시된 예를 참고해 로고의 형태를 왜곡시키거나 로고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주의 : Positive Type와 Negative Type 은 별도로 작업되었습니다.
Positive Type 의 컬러 로고는 절대 어두운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egative Type 의 컬러 로고 또한 화이트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단색 로고 또한 컬러 로고를 단색 변형하여 쓰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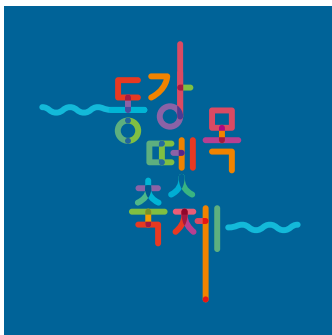
⊘ 규정되어 있지 않은 컬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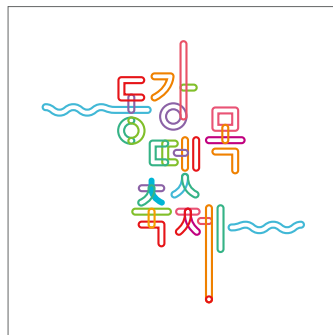
⊘ 임의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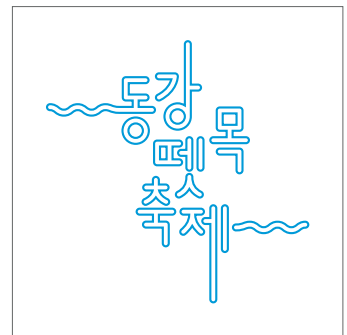
⊘ 어두운 배경의 로고를 화이트 배경에 사용하는 경우



⊘ 유사한 색상, 명도, 채도의 바탕에 사용하는 경우. 원본 로고를 어두운 바탕에 사용하는 경우



⊘ 테두리 효과를 활용하는 경우



⊘ 임의로 로고타입에 라인을 적용시켜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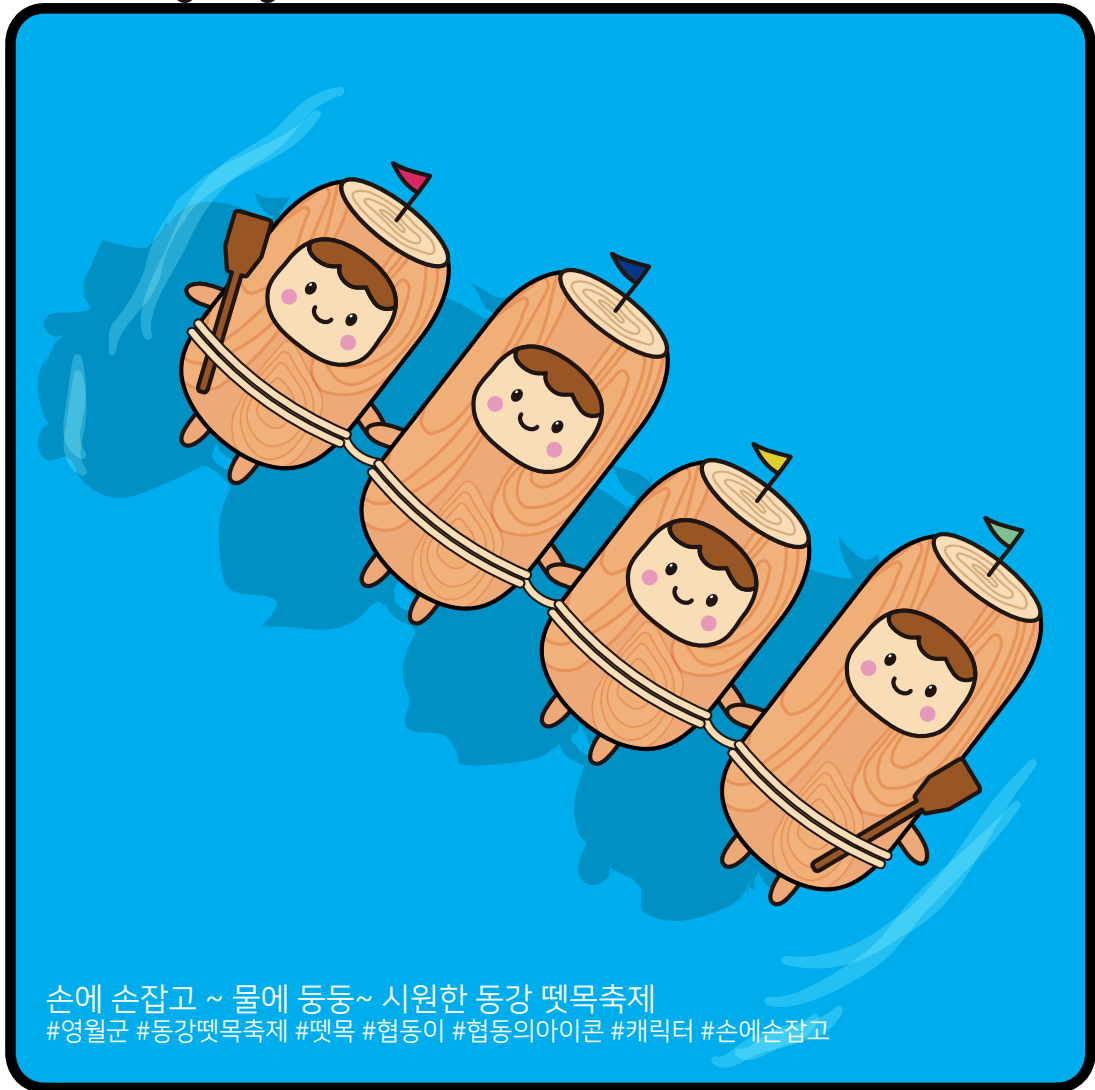
동강뗏목축제

DONGGANG RAFT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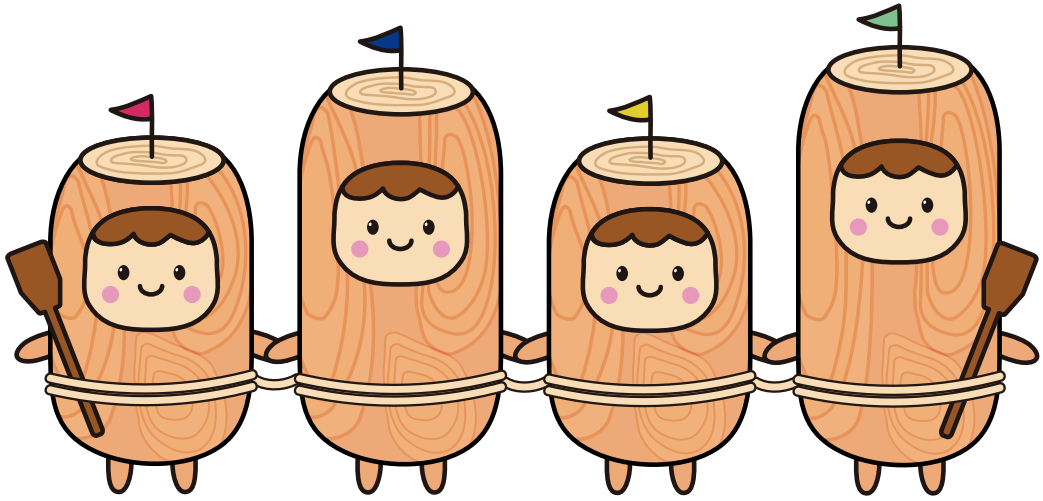
협동이

영월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동강뗏목축제를 대표하는 캐릭터 협동이.

협동심의 아이콘이며, 혼자보다 친구와 힘을 합하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가 합해졌을 때 힘은 강해진다.



손에 손잡고 ~ 물에 등등~ 시원한 동강 뗏목축제
 #영월군 #동강뗏목축제 #뗏목 #협동이 #협동의아이콘 #캐릭터 #손에손잡고



Color Guide



#E5A576



#F6DAB6



#955424



#DC96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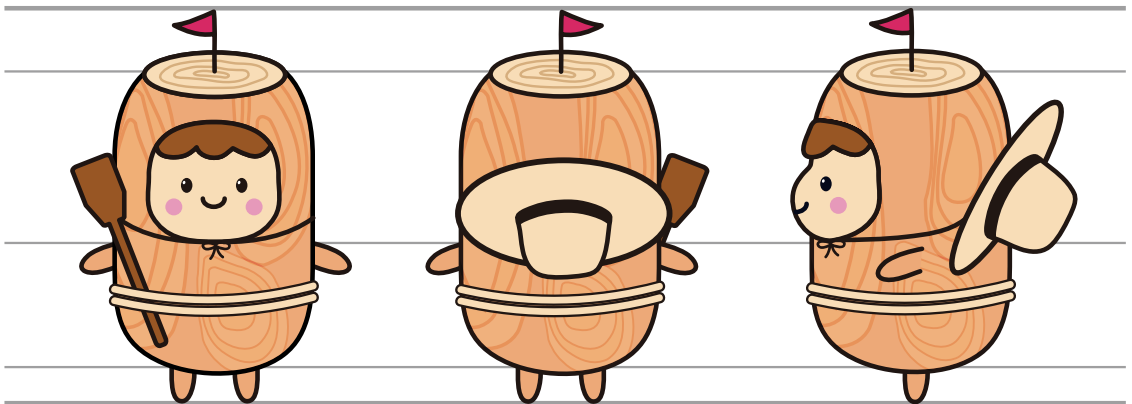
#C8245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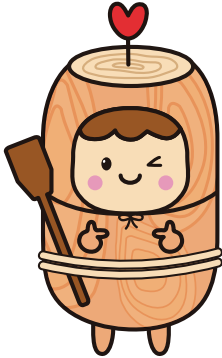
#201211

Basic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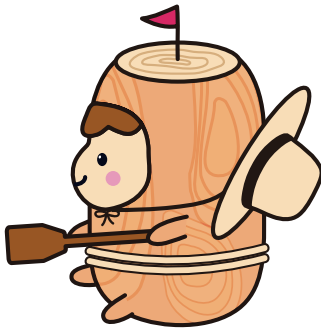
Turn a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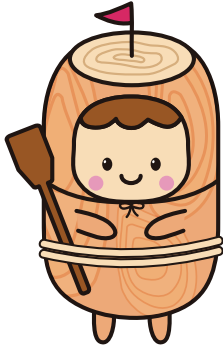
Various Ex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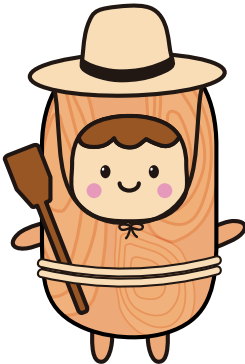
하트 협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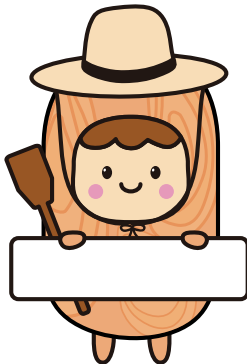
노를 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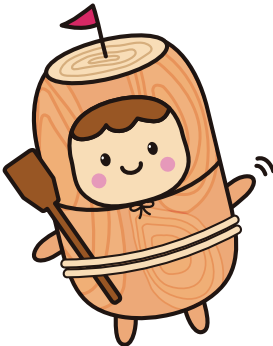
부끄 협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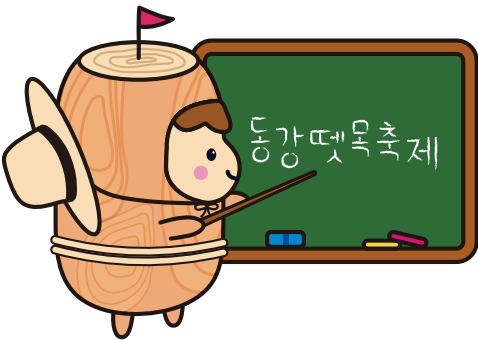
나는! 협동이



표지판 협동이



안녕 협동이



협동이 선생님



빵빠레~협동이

‘동강, 그 여름의 약속’

제27회 동강뗏목축제

2025년, 제27회 동강뗏목축제는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으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 축제를 맞아 동강둔치 일원은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중앙 공연장 옆 물놀이장에서는 좀 더 활동성이 좋은 넓은 공간을 구성하여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최고의 물놀이터 “동강(水)파크”를 조성한다. 동강파크 안에서는 뗏목 OX 퀴즈, 징검다리건너기, 페이스페인팅 등 뗏목탐험대와 동강“밀!당! 대회”가 함께 진행되며 이번 동강파크는 무료입장이었다.

영월만의 독특한 특산물과 먹거리, 다양한 상품들과 식음료를 만날 수 있는 동강둔치 초입에는 뗏목을 타고 오가던 사람들의 옛 주막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산옥주막’이 있었다. 또 지역특산물(감자, 옥수수 등) 훈증방식의 고유민속 의례인 삼굿 체험이 다시 부활하였다. 동강뗏목축제는 매년 여름, 영월의 아름다운 동강에서 펼쳐지는 자연 친화적

인 축제로, 뗏목을타고 강을 내려가는 뗏목 시연, 뗏목고사 등 지역 자원을 보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요소와 지역주민 참여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사회 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동강뗏목축제를 통해 지역 뗏목의 역사 문화를 보전 및 증진하고자 하며 동강 뗏목이 새로운 강원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한다.



동강, 그 여름의 약속

영월동강뗏목축제

‘2025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문화관광축제 부문 선정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에서 영월동강뗏목축제가 문화관광축제 부문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영월의 뗏목 문화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선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매년 개최되는 영월동강뗏목축제는 이러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내고 있다.

이번 선정은 영월동강뗏목축제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축제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또한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은 영월동강뗏목축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민 인터뷰

함께 만드는 강의 풍경 김형철(거운리)

우리 마을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축제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나무를 베어오고, 강가로 옮기고, 물에 띄워 뗏목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저는 주로 나무를 옮기거나 묶는 일을 맡습니다. 물살 속에서 나무를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다 같이 웃고 떠들며 하다 보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축제 때 강 위를 떠가는 뗏목을 보면 뿌듯하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거나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강뗏목축제에서 뗏목 시연은 우리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보여주는 무대인 만큼 후손들에게도 꼭 이어지고 지켜졌으면 합니다.

네팔에서 온 영월 사람 라마 (영월읍)

네팔에도 강은 많지만, 이렇게 큰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드는 건 영월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매력에 이끌려 해마다 축제를 찾습니다.

무엇보다 강물 위를 천천히 흘러가는 뗏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영월에 살면 이런 전통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이 뗏목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어서 뗏목 축제는 여름 휴가로 최고입니다.

영월 주민이 바라본 동강뗏목축제

내 손안의 뗏목

대 상

정박 가변 대 삼각

팀명: 행복 삶 산림치유

팀 구성원: 홍성래, 박재규, 강현숙 (영월·제천·영주)

사람과 이야기를 잇는 변형 뗏목

세 명의 팀원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모두 산림치유지도사로 숲과 사람을 잇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활동지는 달라도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치유’라는 목표는 같다.”는 말처럼, 이번 도전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었다.

작품명 ‘정박 가변 대 삼각’은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족형 뗏목이다. 평소에는 세 대를 나란히 이어 직사각형으로 사용하다가, 한쪽을 풀면 삼각형으로 변형된다. 홍성래 씨는 “세대가 함께 모여 강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가족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리며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료는 멀리 담양에서 가져온 대나무다. “대나무는 물에 잘 뜨고 곧게 뻗습니다. 동강 백성들이 대나무처럼 곧고 쪽쪽 뻗어 자라길 바라는 뜻을 담았어요. 영월만의 재료를 쓰지 않고 담양 대나무를 가져온 건 지역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함께 대나무를 고르고 구조를 맞추며 웃음을 나눴던 순간들은 팀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만든 뗏목을 타게 될 사

람들이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며, 준비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관람객으로만 축제를 즐기다가 올해 처음 뗏목을 제작하며 직접 참여한 결과 ‘행복 삶 산림치유’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 중 100만 원은 영월군 장학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동료들과 뜻깊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원들은 “이번 수상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린 모든 이와 나누고 싶은 성과”라며 환하게 웃음 지었다.

동강 별마로천문대 뗏목

팀명 : High 윤준

팀 구성원 : 안상임, 한승구, 한준우 (경기도)



천문대 추억을 뗏목에 담다

경기도에서 여름휴가를 겸해 영월을 찾은 High 윤준 팀은 동강 별마로천문대에서의 추억을 뗏목에 담았다. “가족끼리 다녀온 천문대가 정말 좋은 추억이라 그걸 모티브로 삼았죠.” 아이가 어릴 적 쓰던 놀이용 하우스를 재활용하며 의미를 더했다. 제작 기간은 약 일주일이 걸렸다. 한준우 군은 풍선을 불어 장식을 달았다. 하늘로 띄울 거라며 신나게 뗏목 제작에 참여하는 모습은 가족의 또 다른 추억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추억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High 윤준팀은 영월이 생각보다 멀지 않고 올 때마다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늘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며, 주변에 영월 여행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바람따라 희망따라

팀명 : 랑랑이네

팀 구성원 : 김난희, 정치고 (성남)

딸에게 띄운 희망의 풍선

김난희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바람따라 희망따라’ 뗏목은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풍선으로 가득 꾸며졌다. 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었다. 남편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축제 소식을 접하며 참여를 결심했다. 무더위와 풍선 기계 고장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을 재활용하며 추억에 젖는 시간이었다.

영월을 처음 찾은 김 씨 가족은 “작은 지역일 줄 알았는데 시설과 공간 구성이 정말 잘 되어 놀랐다. 서울이나 경기도 못지않다.”라며 놀라움을 전했다.

동수리

팀명 : 혜조원정대
팀 구성원 : 홍지호, 최혜원 (서울)



동강 위를 나는 마음

‘동수리’는 동강에 사는 독수리를 뜻한다. 뗏목 제작에 필요한 재료 준비부터 만만치 않았다는 동수리팀은 힘들어도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고집했다. 집 앞 재활용품 수거 날에 나온 자재들을 모으고 골라 뗏목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가져 오고, 붙이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무더운 날씨 속 하루 7~8시간씩 작업하며 땀을 흘렸지만, “이렇게 큰 걸 직접 디자인해 만든 건 처음이에요.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라며 만족해했다.

이틀간 짧은 일정이었지만, 영월의 공기와 동강의 아름다움은 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꼭 다시 놀러 오고 싶다며 뗏목에 담긴 청춘의 자유로움을 전했다.



동강아라리

팀명 : 만경대산 숲 해설가팀
팀 구성원 : 이범석, 김경희,
송행심, 유길호 (영월)



숲에서 온 나무, 강 위에서 노래하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에서 활동하는 숲 해설가 네 명은 여름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내 손 안의 뗏목’을 알게 됐다. “영월 하면 뗏목이죠.”라며, 휴양림 가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다고 한다. 재료는 모두 숲에서 주운 고목과 부러진 나무, 낙엽송 등 버려진 자재였다. “새로 베지 않고, 숲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다시 살린 거예요. 재생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완성 후 계곡에서 실제로 띄워보기도 했다. 제작한 뗏목을 응용해 휴양림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작은 뗏목 체험을 운영 중이다.

강의 전통과 노래의 정취가 담긴 ‘동강 아라리’ 뗏목처럼 숲에서 온 나무는 만경대산 숲 해설가팀 덕에 강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강려 R_001호

팀명 : 강려 R

팀 구성원 : 정해욱, 현근호, 정우영 (인천·양평)



동강을 지키는 수호신



정해욱 씨는 아들과 후배와 함께 영월을 찾았다. 지인을 통해 축제를 알게 되어 휴가를 겸해 ‘동강을 지키는 수호신’ 콘셉트로 뗏목을 제작했다.

부서진 뗏목 조각과 쓰레기를 모아 만든 재활용 뗏목은 동강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인 청소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들 정우영 군은 인테리어 작업을 맡았다. “아빠가 못질하면 저는 예쁘게 꾸미는 걸 담당해요.”라며 부자가 함께 뗏목을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용한 재료는 쓰레기통, 보드판, 폐청소기, 프로펠러 등 모두 재활용품이다. 이름 ‘강려 R_001호’도 이런 의미에서 붙였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치가 좋아 영월에 머무는 시간이 즐겁다는 이들은 환경에 진심이었다. 작은 뗏목이지만, 그들의 진심은 이미 아름다운 동강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사계절 함께 떠나는 영월 뗏목 여행

팀명 : 동강갈매기

팀 구성원 : 남광태, 신경희,
김시형, 문승재 (영월·부산)



영월의 사계절 매력을 뗏목에 신다

부산에 본사를 둔 직장 동료들이 모여 영월에서 뗏목을 제작했다. 팀명 ‘동강갈매기’는 영월의 동강과 부산의 갈매기를 합친 이름이다.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많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도 많아요.”라는 영월살이 5년 차인 팀원 말처럼 영월이 가진 사계절 매력을 뗏목에 담았다. 드릴과 파이프 자르기 같은 낯선 작업도 직접 하며 재미와 성취감을 느꼈다. 현장에서 재료를 제공받아 제한 시간 내에 만드는 방식도 있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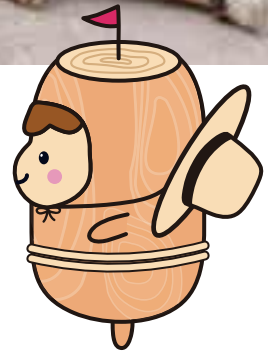
동강갈매기팀은 영월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라며, 뗏목에 영월의 매력을 담아 모두를 초대했다.





동강, 그 여름의 약속

동강 밀당대회



남자부 1등, 막국수 원정대

보트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결성한 '막국수 원정대'는 올해 밀당대회 남자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평소 함께 보트를 타며 물살을 가르던 팀원들은 "힘든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웃었다. 훈련을 따로 하진 않았

지만, 꾸준히 함께한 물 위의 경험이 자연스레 힘을 모아주었다. 영월에 도착하자마자 막국수부터 맛본 원정대는 영월 막국수가 정말 맛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강에서 보트를 타던 때보다 동강의 깨끗한 물 위에서 함께할 수 있어 더 즐거웠다는 소감도 전했다.

남자부 3등, 하이런

남자부에서 3등을 차지한 하이런 팀은 이름만큼이나 힘차게 경기를 즐겼다. 태백과 정선에서 친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으로 출발 신호가 울리자 호흡이 척척 맞았다. “영월은 덥지만, 이렇게 시원한 축제가 있어서 정말 좋다”며 처음 와본 뗏목축제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고생한 만큼 “영월에서 소고기를 먹는데 상금을 다 쓰겠다.”며 뒷풀이에 대한 유쾌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자부 1등, 에겐너

여자부 1등을 차지한 팀은 영월군청 육상 선수들이었다. 육상으로 다져진 기본 체력 덕분에 별도의 훈련은 필요 없었다. “즐기면서 하자!”라는 각오로 나선 경기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다. 상금은 팀원 전체가 함께 회식할 예정이라고 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 소고기로 보상받아야죠.”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끈끈한 팀워크를 갖추었는지 알 수 있었다.

여자부 2등, 뗏요정

직장 래프팅 동호회에서 만난 이들이 모여 ‘뗏요정’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서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 영월을 찾은 이들은 물살을 가르며 함께 힘을 모으는 경험을 즐겼다. 작년에 알게 되어 올해는 꼭 참가해야겠다는 싶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며 뗏목축제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다. 영월의 시원한 동강과 감자, 옥수수의 맛까지 팀원들은 지역의 매력을 이미 한껏 즐겼다고 전했다.

참여자 인터뷰 모음



“외국인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물 위에서 힘을 합치니 금세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죠. 축제를 통해 영월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_코모로 환경 외국인 직원팀

“토끼띠 엄마들이 모여 재미삼아 도전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맘 흘리며 함께하는 모습 자체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_강릉

“물 만난 農心으로 직원들이 뚝뚝 뭉쳐 참가했어요. 지역 축제에 직접 참여해 보니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는 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_영월 농협

“친구들과 ‘우리도 한 번 해보자’며 나왔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밀고 당기다 보니 더 끈끈해졌어요. 동강 위에서 마음껏 웃고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_동강 사내들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어 참가했어요. 물살 따라 호흡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웃게 되더라고요. 축제의 재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_아메리카누

“평소 야구로 다진 체력으로 도전했는데, 팀워크를 다지는 또 다른 경험이 됐습니다. 지역 축제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_상동고 야구부

동강파크 뗏목탐험대

“가족이 함께하니 그게 행복이죠”

버티기 1등 _ 송대규 가족(강원도)

강원도에서 온 송대규 씨는 아내와 아들 종우 군과 함께 뗏목 탐험대에 참여했다. “물놀이나 게임도 재밌지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라 행복해요.”라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송 씨는 가족이 함께 신나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전했다.

“아이와 함께라 더 행복합니다”

징검다리 1등 _ 엄두찬 가족(영월)

영월 읍내에 사는 엄두찬 씨는 청령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매년 축제장을 찾는다. 이번 징검다리 게임에서 1등을 차지한 그는 “아이들이 워낙 물놀이를 좋아해서 항상 즐겁게 참여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열심히 놀러 다니고 싶어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람도, 경치도, 자연도 다 좋아요”

징검다리 1등 _ 이수 가족(영월)

영월 주민인 이수 씨 가족은 징검다리에서 무려 14칸을 건너 1등을 차지했다. 아이들과 물놀이, 공연, 불꽃놀이까지 함께





즐긴 이번 축제에 크게 만족하며, “사람도, 경치도, 자연도 다 좋아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관광객을 초대했다.

“아이들과 즐기다 보니 하루가 만족스러워요”

징검다리 1등 _ 강수빈 가족(경기도 광주)

강수빈 씨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은 잘 안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즐기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라며 미소를 보였다. 남편 이지승 씨는 “저는 두 칸밖에 못 갔는데 아내 덕분에 상도 받네요.”라며 가족 모두 만족스럽게 축제를 즐겼다고 전했다.

“영월에 살아서 신나요!”

OX 퀴즈 1등 _ 한들(영월)

성정여중에 다니는 한들 양은 OX 퀴즈에서 1등을 차지했다. “사실 문제 하나는 찍어서 맞았어요.”라며 솔직하게 웃었다. “시골이어도 놀 게 많아서 좋아요. 특히 워터밤이 제일 재밌었어요. 물대포 맞으면서 친구들과 춤추던 게 최고였어요.”

한 양은 영월의 축제마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무엇보다 즐겁다고 말했다.

“영월 여행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참여자 _ 김홍희·최지윤 가족(부천)

영월에 거주하는 언니 덕분에 축제를 알게 된 가족은 축제 전부터 영월 곳곳을 먼저 즐겼다. “날씨가 더울까 걱정했는데, 물속에서 즐기니 시원하고 진행자분 덕분에 더 재미있었어요.”라며 축제에 대한 만족감도 전했다. 고씨굴 탐방과 도토리묵, 감자전, 칼국수까지 맛본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월 여행’ 그 자체였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즐거웠어요”

참여자 _ 김유나 가족(서울)

아버지가 영월에 거주해 매년 찾지만, 뗏목 축제는 처음이라는 김 씨 가족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좋고,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했다며 축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에도 일 년에 두세 번은 꼭 영월을 찾는다며 내년에도 꼭 뗏목 축제에 다시 오고 싶다고 전했다.



놀다 보니 1등!

50만 원 당첨 _ 이충희(강릉)

“시원하게 놀다 가려고 왔는데 1등까지 됐어요.”
현장에서 떼돈 이벤트를 알고, 참여하고자 아이들 핫도그·닭꼬치를 사주며 영수증을 모아 응모했다. 아이들은 수영장부터 축제를 마음껏 즐겼고, 엄마는 행운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들 웃고 즐기는 분위기라 오가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영월은 힐링입니다.”

알차고 재밌는 축제

50만 원 당첨 _ 오금순(영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매년 오는데 올해도 알차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잘 노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았고, 주현미 공연까지 봐서 정말 행복했다는 오 씨는 상금을 생활필수품과 아이들 옷을 사는데 쓰겠다고 했다. 영월은 청정지역인데다 수려한 풍경에 공기도 참 좋다며, 많은 사람이 영월에 여행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곡차곡 모은 영수증

30만 원 _ 이경진(영월)

“에어컨 사는 데 보태 쓰려고요.”
이 씨는 떼돈 이벤트를 미리 알고 영수증을 모아 응모했다. “작년에도 참여했어요. 영월 축제는 정말 퍼주는 축제 같아요.” 아이 농촌 유학을 계기로 귀촌했다며, 영월 축제는 동강뱃목 뿐 아니라 언제나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여행에 더해진 선물

감자 한 박스 _ 장세희(경기 평택)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남편과 함께 축제를 찾았다가 감자에 당첨된 장 씨는 가족과 찌서 저녁에 나눠 먹으면, 저녁 준비가 한결 쉬워지겠다고 기뻐했다.

신난 아이들

옥수수 한 박스 _ 송민희(영월 주천)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읍내에 나온 송 씨는 축제 자체도 즐거웠는데 옥수수까지 당첨돼서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며, 축제가 풍성해서 참 좋다고 전했다.



공연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섬머나잇, 불꽃놀이, 드론쇼

친구들과 즐긴 여름밤

“친구들이랑 와서 공연 보고 물 맞으면서 노니까 행복했어요. 다른 지역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진 공연이에요. 영월에 매년 이런 큰 축제가 열린다는 게 좋아요.”

김영수 (영월중)

올 때마다 즐거운 축제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 공연은 더 재밌었어요. 국카스텐 무대도 좋았고, 아이도 잘 놀았어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이위사 (스리랑카 출신, 영월 거주)

우리 고향의 여름밤

“영월에서 이렇게 물대포 맞으면서 공연 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신나고 내년에도 또 오려고요!”

조성숙 (영월, 30대)

신나는 축제란 이런 것

“가족이랑 왔는데 이렇게 신날 줄 몰랐어요. 공연도 재밌고 분위기도 좋아서 마냥 신나기만 하네요. 또 이런 공연 있으면 꼭 오고 싶어요.”

김영기 씨 가족 (인천, 40대)

일흔에도 설레는 무대

“캠핑으로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신나는 공연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음식도 좋고,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음악까지 최고예요. 너무 잘해냈어요.”

김동진 (서울, 70대)

한국 축제의 매력

“일하러 영월에 왔는데, 뗏목 축제는 처음이에요. 친구가 많지 않은데, 같이 춤추며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말레이시아, 20대

빛나는 여름밤

“친구랑 같이 왔어요. 평소에도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디제이 공연도 재밌고 국카스텐 무대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년에도 꼭 올 거예요.”

김미주 (마차중)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밤

“아이들이 수영장을 무료로 즐기고, 저녁엔 가족이 함께 국카스텐 공연도 보고 춤도 추고... 정말 행복했어요. 내년에 또 오자고 벌써 약속했답니다.”

김선형 씨 가족(인천, 40대)

부산 청춘이 받은 여름 선물

“부산에서 여행 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알게 됐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부모님과 함께 물을 맞으며 놀다니! 마지막 밤이 정말 특별하네요.”

유시현 (부산, 21세)

인생에 멋진 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무대를 영월에서 볼 줄이야! 완전히 힐링이 됐습니다. 물 맞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자랑할 만한 하루였어요.”

최은옥 (원주, 69세)

저녁 바람 따라 즐기는 축제

“낮에는 더워서 못 나왔는데, 저녁엔 시원해서 좋네요. 주현미 무대도 보고 사람들 춤추는 것도 보니 즐거웠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축제라 더 기대돼요.”

영월 주민 (70대)

뜻밖의 즐거움

“언니 따라서 처음 와봤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놀러니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근데 물에 흠뻑 젖으니까 오히려 더 신나고 자유로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축제인데,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황순아 자매 (경기도, 60대)

친구랑 즐긴 워터밤

“경산에서 친구랑 왔어요. 원래 산에 가려다 더워서 축제장으로 왔는데, 물대포 기다리며 공연 보니까 너무 신나네요. 다음엔 여유 있게 또 오고 싶어요.”

김수경 (경산, 60대)

하루가 행복한 축제

“가족이랑 휴가 왔어요. 뗏목축제가 있어서 영월에 왔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즐길 게 많아 행복하네요. 친구들한테도 내년엔 꼭 같이 오자고 하려고요.”

장미 (남양주)

별이 반짝이는 영월

“가족이랑 영월에 처음 왔어요. 낮에는 체험도 하고, 저녁엔 워터밤까지 즐겼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별마로천문대에서 별도 많이 보여서 더 특별했어요.”
황경아 씨 가족 (동탄)

즐길 게 많은 축제

“엄마랑 같이 디제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드론쇼도 꼭 보고 싶던 건데, 진짜 멋지네요. 공기도 좋고 한적한데 축제까지 있어서 더 특별해요.”
이소희 씨 가족 (수원)

신나는 여름밤

“낮에는 더워서 못 놀았는데, 밤에 아이들이랑 나오니 함께 춤도 추고, 워터밤도 처음이라 신나네요. 내년에도 오려고요.”
윤지혜 씨 가족 (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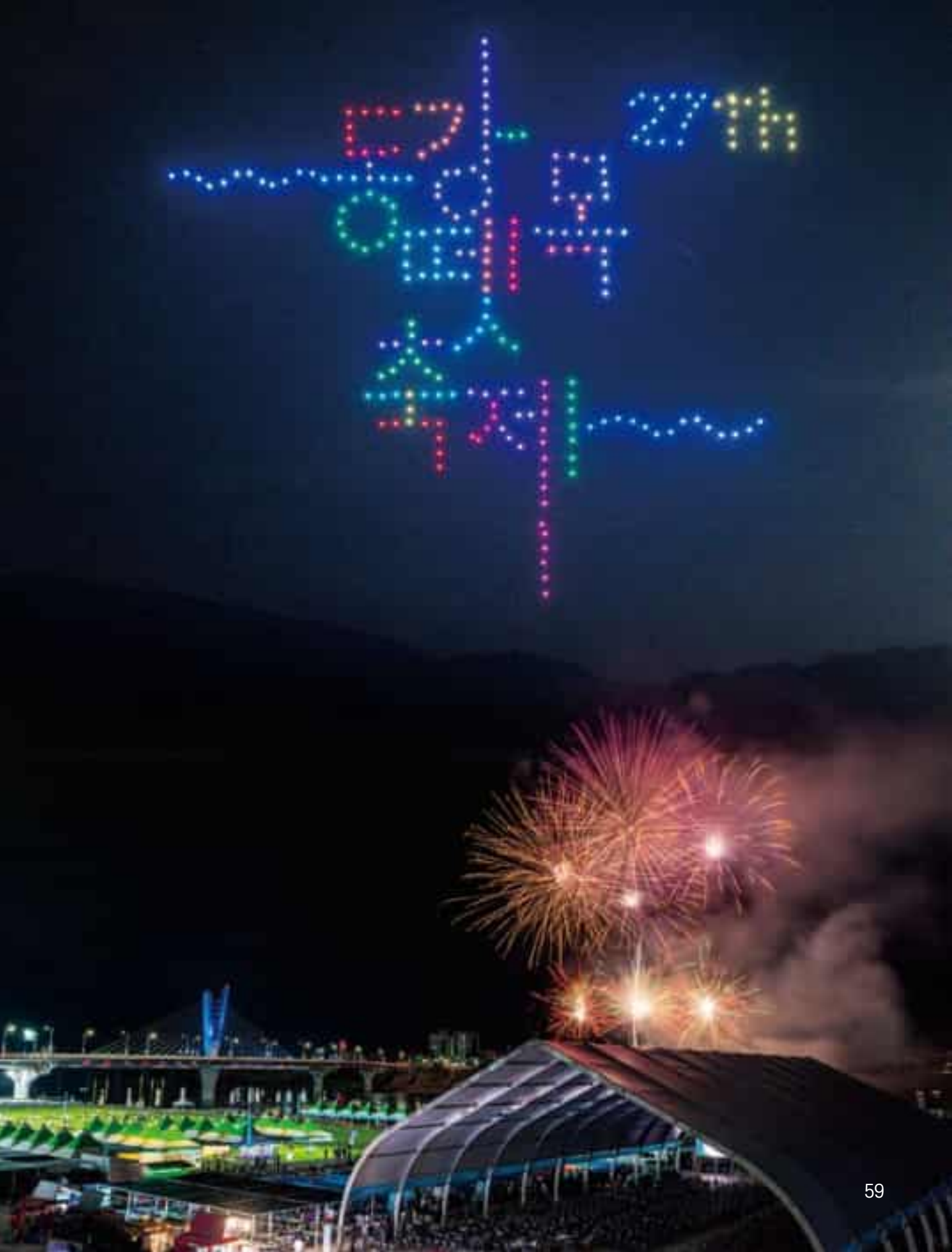
초대받은 축제

“영월 사는 지인 소개로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영월 축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윤미성 씨 가족 (인천)

영월의 여유

“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이 좋네요. 축제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월은 ‘여유’있어 좋은데, 축제가 있어 더 좋네요.”

김현 씨 가족 (영월 귀촌 15년차)



동강청소년댄스대회

수상자 인터뷰

대상 _수플레

땀과 웃음의 결실

강릉 누에보 댄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모여 1년 반 전 결성한 팀 '수플레'는 이번 대회를 위해 두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했다. 평균 하루 1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3시간씩 호흡을 맞추며 안무를 외웠다. “합이 딱 맞았을 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라며, 힘든 준비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함께 춤을 추는 순간마다 성취와 즐거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지효(남산초), 이루다(중앙초), 안윤희(명주초), 박채은(명주초), 고다연(경포초), 예슬(울곡초)까지 각기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무대에 오르자 모두 한마음이었다. “긴장되고 떨렸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대상이라고 불렸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번 무대에서 수플레는 ‘어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꼭 댄서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도 교사 김규림 씨는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 대회에 참가했지만, 강원도에서 1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월이 친근한 도시라 꼭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 참 뜻깊습니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동상 _해피 키즈

무대에 서는 기쁨

평창에서 모인 초등학생들로 결성된 ‘해피 키즈’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했다. 팀의 리더인 강유민 군(검은초)은 “동생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웠다.”며 함께해 준 친구들과 덕분에 힘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수민 양(단원초 2)은 첫 무대에 오른 거라 “너무 떨렸지만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서 정말 기뻐다.”고 말했다. 긴장과 설렘 속에서도 무대를 즐겼던 아이들은 “동상, 해피 키즈!”라는 호명이 울리자 환호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학부모 김정은 씨는 “평창 아이들이 이렇게 큰 축제 무대에 서서 상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며 흐뭇해했다. 먼 길을 달려와 용기 있게 무대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학부모와 지도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81

달달영월

영월이야기

People Story



전통을 잇는 뜨거운 손길

유정리 삼굿 체험 마을(최종호 사무국장)



“삼굿은 삼베 옷을 짤 때 쓰이는 대마를 삶아 껍질을 벗기고 실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대마를 삶았지만, 지금은 감자, 옥수수, 계란 등을 삶아 시연하고 있죠.”

영월 유정리 삼굿 체험마을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뗏목 축제 현장에서 삼굿 시연을 이끈 최종호 사무국장은 삼굿을 쉽게 설명했다.

삼굿 시연은 큰 구덩이를 파고 자갈을 채운 뒤 불로 달궈 뜨겁게 만든다. 그 위에 다양한 음식을 넣고 풀이나 흙, 보온재로 덮은 후, 구멍을 뚫어 물을 붓는다.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해 음식이 익는 방식이다.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라 이날도 아침 7시부터 불을 지펴 돌을 달궈다고 한다. 사용하

는 돌은 산술포석회석으로 열에도 갈라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특징이 있다.

“제가 다섯 살 무렵까지는 실제 삼굿을 보았지만,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러다 2001년 새농촌 건설 운동을 계기로 마을 어른들이 먼저 ‘삼굿을 재현하자’고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됐죠.”

이후 매년 9월 마을에서 삼굿 축제를 열어왔으며, 코로나로 중단했던 2년을 제외하고 올해로 23회째 이어오고 있다. 첫 재현한 해부터 삼굿 체험은 옥수수·감자·계란은 물론 마을 고유의 ‘돌구이’까지 더해져 관광객이 체험할 것이 풍성하다.

“삼굿을 하면 연기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상징적이죠.” 그는 축제에서 삼굿이 시작되면 연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유정리에는 현재 약 55가구에 11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축제 시연에는 젊은 주민이라면 대부분 참여한다고 한다.

특히 마을은 2009년 동강뗏목축제에서 옥수수 1만 통 찌기에 성공해 한국기록원 인증도 받았다. 지금도 마을에 인증비가 세워져 있다. 그는 “사실 3만 통도 할 수 있었지만, 혹시 안 익을까 봐 만 통만 시도했어요. 나중에 5만 통으로 해외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라며 삼굿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동강나루터 체험

젓가락 체험 부스

나무향 나는 동강

목성 스튜디오(김한수 대표)

영월 무릉도원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한수 대표(34)는 올해 1월 영월로 이주해 ‘목성 스튜디오’를 열었다.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여유롭게 이어가기 위해 영월을 선택했다. 이번 동강땃목축제는 김 대표가 처음으로 참가한 축제였다.

그는 젓가락 만들기 체험 부스를 열고 3일간 많은 관람객을 맞이했다. “여행 오셔서 물놀이도 하고, 젓가락도 만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만족해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동안 부모들이 부스를 찾아 체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체험에서는 월넛, 메이플, 업나무 세 가지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해 젓가락을 만들 수 있었다. 2천 원이라는 부담 없는 체험비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많은 참여가 이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역에 이런 큰 무대가 자주 열리니, 공방도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축제 참여에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그는 젓가락뿐 아니라 도마, 스톨, 협탁 등 다양한 목공 체험을 준비해 펜션과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까지 구상하고 있다. “축제에 자주 참여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대로 나무 향이 묻어나는 작은 체험 부스는 올해 동강땃목 축제에 특별한 여유와 추억을 선사했다.

(체험자 인터뷰)

피서지 부산에서도 놀러오는 영월

“청령포랑 한반도 지형 보러 왔다가 땃목축제가 열리는 걸 알고 들렀어요. 부산보다 시원하고, 막국수도 맛있네요. 젓가락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더 재밌어요.”

박혜관 씨 가족(부산)

열 번 찾은 영월, 처음 만난 땃목축제

“영월엔 열 번쯤 왔어요. 여름엔 물놀이, 겨울엔 눈싸움하기 제일 좋아요. 이번엔 젓가락이랑 디퓨저 만들기도 했는데, 제 방에 두려고요. 워터밤도 너무 신났어요. 땃목축제는 처음인데,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

한 군(수원 고색초 3학년)

여름에 더 활기찬 영월

“땃목축제는 매년 오지만 늘 즐거워요. 이런 체험 부스가 더 많아지면 외지 분들에게 영월의 매력을 알리기 좋을 것 같아요. 영월은 여름에 특히 활기 넘치고, 물놀이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조현수 씨(영월 주민)



우드 버닝 부스

나무에 새기는 특별한 추억

우드 앤 힐링 스토리 (최윤철·강선영 대표)

영월 주천면에서 ‘우드 앤 힐링 스토리’를 삼 년째 운영하는 최윤철·강선영 부부는 이번 뗏목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공방은 우리나라 자생 원목을 활용해 다양한 소품과 주얼리를 제작하며, 특히 다름나무로 만든 목걸이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같은 하얗고 속은 까맣다고 해서 이름 붙은 다름나무는 무늬가 참 고와요. 직접 주얼리로 만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나무에 대한 오랜 관심에서 공방을 시작한 부부는 올해 축제가 부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생동감 넘치고, 여름 축제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단종제도 참여했었지만, 뗏목 축제는 확실히 여름의 특색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체험을 마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다만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약 40분이 걸려, 내년에는 시간을 10~15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와 캐릭터 위주의 디자인을 준비

(체험자 인터뷰)

쉽이 있는 축제

“이번이 세 번째 뗏목축제인데, 아이들과 체험하는 건 늘 특별해요. 우드 버닝도 하고, 불꽃놀이랑 드론쇼도 멋졌습니다. 사람에 치이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동강에서 발 담그고 쉬어가는 시간도 꼭 추천합니다.”

임종현 씨 가족(인천)

우연히 만난 영월의 매력

“양양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렀는데 뗏목축제를 처음 알게 됐어요. 날씨는 덥지만, 아이들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 울챙이국수랑 메밀전병도 맛있게 먹었어요. 동강 풍경이 특히 인상 깊어서 다시 오고 싶네요.”

신용후 씨 가족(김포)

할 계획이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며 부부는 미소를 지었다.



디퓨저 체험 부스

동강의 향을 담다

자연과 향기를 더하다

올해 처음 뗏목 축제에 참가한 자연과 동강의 향기를 더하는 홈스쿨 공방은 직접 만드는 디퓨저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참여하신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병 속에 동강의 향기를 담아가시니 다들 만족하셨어요.”라며 부스 운영에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이번 디퓨저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천연 로즈마리를 사용해 시간이 지나면 녹색으로 변해 동강의 강물과 영월의 숲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방문객들은 작은 병 속에 ‘나만의 동강’을 담아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뗏목에 작은 디퓨저를 띄운다고 상상하며 준비했어요. 레시

피를 짜고 재료를 고르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죠.”라며 뗏목 축제에서 한뫼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올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편안히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으며 지속적인 참여 의사도 밝혔다.

(체험자 인터뷰)

아이와 함께한 여름의 추억

“딸아이가 직접 재료를 고르고 디퓨저를 만들었는데, 향기롭다며 무척 좋아했어요. 영월이 고향이라 매년 오는데, 이런 체험이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석은설 씨 가족(원주)

북극곰 부스

N~ICE 영월

문화도시영월 & 사소한기록소협동조합

영월문화도시센터와 사소한기록소협동조합이 운영한 ‘나~아 이스 영월’은 진달래장에서 열리던 문화놀이터 프로그램 <보자보자 녹여보자>에서 출발했다. 오래된 창고 공간에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달래면서 지구의 뜨거워지는 환경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처음 기획했다.

이번 동강뗏목축제에서는 참가자가 미션을 뽑아 수행한 뒤 북극곰 미니어처가 들어 있는 얼음을 받아 손으로 녹여 꺼내는 체험을 진행했다. “북극곰을 구해내는 순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크게 환호했어요.”

세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이 체험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영월의 여름을 오래 기억하고, 지구의 뜨거움도 잠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부스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참여하신 분들이 얼음을 손에 쥐고 집중하는 모습, 북극곰을 꺼내며 보여준 흥미진진한 표정은 정말 잊기 힘들 거예요.”

(체험자인터뷰)

항상 좋은 영월

“얼음을 깨서 북극곰을 구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손 시리긴 했지만, 아빠랑 같이해서 더 즐거웠어요. 산이 많고 공기가 맑아서 영월에 올 때마다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영월은 좋으니까 많이 놀러 오라’고 하고 싶어요.” 김혜정 씨 가족(분당)

특별하게 시원한 추억

“뗏목도 타고 OX 퀴즈도 하고, 얼음 안에 북극곰 깨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시원해서 자꾸 하게 돼요. 캠핑만 했을 때보다 훨씬 특별한 추억이에요”

최다일·최나일 어린이(용인)

함께 운영했던 동료들의 뜨거운 에너지와 참여자들의 웃음이 이번 축제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며 운영자들은 더운 여름 의미 있는 부스를 통해 영월이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환경도 생각하는 지역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동강래프팅협회 대회 담당자 박건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가족부와 일반부 두 팀으로 나눠 이틀간 하루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어요.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이고요.”

동강뗏목축제와 함께 열린 동강 래프팅 레이싱 대회는 영월을 떠올리면, 먼저 동강이 떠오르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박 씨는 동강은 래프팅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 영월에서 즐기

는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고 전했다. 홍보를 위해 무료로 진행했는데, 참여율이나 만족도 모두 매우 높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래프팅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라 힘이 없든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마음만 가져오면 동강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고 김 씨는 자신있게 동강 래프팅을 권했다.



일반부 1등_0.1톤

포근한 영월에서 만든 짜릿한 추억

“친구, 선후배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는데, 멤버들 몸무게가 다 0.1톤이 넘어가서 붙인 팀명입니다.”

영월에는 몇 번 와봤다는 이들은 박물관을 둘러본 기억은 있지만 래프팅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래프팅을 다른 데서 해본 적은 있는데, 영월 동강은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처음 뗏목 축제에 참여했다는 이들은 영월에 대해 “동네가 되게 포근하다”는 인상을 전했다.

1등은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영월에서 상금으로 함께 밥 먹고 즐겁게 보내겠다는 0.1톤 팀은 대회 참여로 웃음 가득했던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가족부 1등_최진남 씨 가족

가족이 함께한 최고의 여름

할아버지랑 아빠, 삼촌, 사촌 언니랑 같이 왔다는 김 군은 래프팅이 처음이지만 전혀 안 무섭고 엄청 시원하고 재미있었다며,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에도 뗏목축제에 왔었지만, 그땐 래프팅을 못 했다며 올해는 꼭 해보고 싶어 참여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온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노를 잡았다.

“69년 만에 타봤는데, 올해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말 신나네요. 영월은 서울 사람들에게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단체들에 영월을 많이 알려야겠어요! 래프팅, 경치, 공기까지 모두 최고예요. 여기 살고 싶네요.”

가족부 1등을 차지한 이들은 영월에서 식구끼리 식사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데 상금을 다 쓰겠다고 전했다.

환상적인 경험

“저희는 한강에서 드래곤보트를 타는 동호회 ‘하랑’인데, 래프팅은 처음이거든요.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풍경도 환상적이었어요. 한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도 깨끗하고 산도 너무 멋져요. 영월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자주 오고 싶습니다.” **전병수 씨(서울)**

래프팅 체험운영



■ 아름다운 별과 강

“래프팅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무섭긴 했는데 안전하게 해서 괜찮았어요. 영월은 별 보러 오는 곳이라 별마로천문대에서 본 하늘 가득한 별도 너무 예뻐요” **박경환 씨 가족(용인)**

■ 특별한 첫 래프팅

“제천에 여행왔다가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손녀랑 같이 래프팅을 처음 타봤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가족이 함께하니깐 더 좋았어요. 영월 오길 정말 잘했다 싶네요.” **김병각 가족(서울)**

■ 힐링의 도시 영월

“부모님이 영월에 계셔서 휴가 겸 내려왔다가 축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풍경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시간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영월은 시계를 안 보게 되는 힐링의 도시 같아요.” **이지수·조슬기 씨 가족(서울)**

■ 우리 고장의 자랑, 래프팅

“사촌 언니, 할머니, 고모랑 같이 래프팅을 처음 탔어요. 하나도 안 무섭고 꼭 다음에 또 타고 싶어요.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 래프팅하러 놀러 오라고 하고 싶어요.” **고라는 양 가족(영월)**

■ 잊지 못할 행운의 순간

“동생들이랑 같이 무료 래프팅 체험을 했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금 한 돈 추첨에 1등도 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3일 동안 축제에 다 참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래프팅도, 금 당첨도 잊지 못할 거예요.” **원준희 군(영월초 4) & 어머니 유성현 씨**

■ 매년 찾는 즐거움

“할머니 댁이 영월에 있어서 매년 와요. 래프팅은 처음 탔는데, 무섭지 않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일도 또 타려고요. 시설도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먹을 것도 많아서 즐거웠어요.” **이유준, 강수빈(경기 광주)**

■ 잊지 못할 여름방학

“가족이 래프팅을 처음 타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시원해서 래프팅이 제일 좋았어요. 생선구이, 배추전, 닭강정까지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영월은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이준서 군 가족(수원)**

■ 색다른 재미

“영월에 살면서도 동강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어제도 타고 오늘 또 왔습니다. 색다른 체험이라 가족 모두 즐거웠어요. 영월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유성현 씨 가족(영월)**

■ 유연히 만난 즐거움

“집에 돌아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유연히 들렀는데, 너무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시원한 강바람과 탁 트인 풍경이 참 좋았어요. 다음엔 꼭 숙박하면서 영월 관광도 제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김용희·주민철 가족(인천)**

■ 가족이 행복한 영월

“할아버지가 영월에 계셔서 자주 오긴 했지만, 뗏목 축제는 처음이에요.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래프팅까지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들 벌써 또 오자네요. 영월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박지현 씨 가족(경기 광주)**



전산옥주막

전산옥 주막을 되살리다

김미자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축제 초창기부터 꾸준히 참여해 온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새로운 전산옥 주막 형태로 부스를 선보였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영업 허가도 받고 보건소 위생 검사까지 거쳐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큼니다.” 김 회장은 올해 특히 새 물품과 위생 설비까지 준비해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가 모여 있으며 회원 수만 해도 1천 명이 넘는다. 실제 운영은 오전·오후 교대제로 나눠 봉사자들이 이어갔다. “샌드위치 같은 건 회원 단체에서 여성 회관 조리실을 활용해 깨끗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인건비는 안 받지만, 재료비만큼 판매 대금이 맞춰지는 구조예요.”

“옛날 때꾼들이 들렸던 전산옥 주막은 아리랑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했죠. 몇 해 전 한 차례 재현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운영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 ‘전산옥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도 많지만,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단이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은 앞으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 전산옥 주막이 축제에서 더욱 뚜렷한 색깔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의 색을 만들어 온 긴 시간

김명수 영월중앙로타리클럽 회장

영월 중앙로타리클럽도 동강뗏목축제 초창기부터 꾸준히 참여 온 단체다. “축제 시작 때부터 함께했는데, 어느덧 횡수가 꽤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김 회장은 긴 시간 이어진 인연을 돌아봤다.

올해 시도한 ‘전산옥 주막’에 대해 김 회장은 지역 색깔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원래 뗏목은 왕의 진상품 같은 걸 강물을 따라 실어 나르던 데서 유래했잖아요. 전산옥 주막도 그 맥락에서 재현한 거라 축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팬데믹 후로 관광객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짚

었다.

“예전보다 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진 것 같아 아쉬워요. 하지만 뗏목축제에서 전산옥을 운영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사 공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야외 주막이 운영되면 의미도 있고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점점 좋은 프로그램들을 늘려가면, 분명 관광객도 더 늘어날 거라 봅니다.”

아직 많은 이가 전산옥의 역사적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김 회장은 이번 시도가 앞으로 축제의 색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젊은 감각으로 만드는 풍성한 축제

전영선 영월청년회의소 내무부회장

올해 전산옥 주막 운영에 참여한 영월청년회의소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다 보니 안주나 방식이 조금 젊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다른 단체 부스와 함께하면서 더 빛이 나고 효과가 좋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만 ‘전산옥’의 역사적 의미를 잘 모르는 방문객이 많아 아쉬움도 있었다.

“입구 한쪽에 안내가 있지만, 많은 분이 주 출입구로 들어오시다 보니 잘 못 보시더라고요. 사전 홍보나 현장 안내가 좀

더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영월청년회의소는 현재 20세에서 45세까지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신입 회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장 운영에 회원들이 파트 타임으로 참여했고, 각자의 사업장에서 준비한 음식을 안주로 내놓으며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뗏목축제는 영월을 대표하는 축제잖아요. 저희도 영월의 청년 단체로서 힘닿는 데까지 함께할 겁니다. 이번이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 더운 여름의 오아시스

영월 은하수로타리클럽

작년에는 띄약별과 비를 오가며 3일 내내 야외에서 운영했던 뗏목 축제 부스가 회원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천막 안에 공간이 마련되고 에어컨까지 가동해 주셔서 작년 대비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손님들도 시원하게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들 하셨어요.”

클럽 회원들은 재료가 일찍 소진돼 저녁에 부득이하게 문을 닫은 날도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메뉴와 재료를 풍성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산옥의 역사와 의미가 함께 전달되면 축제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산옥이 단순히 먹는 공간이 아니라 옛 주막 문화를 되살린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더 알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역 전통주도 매칭했으면 전통적인 분위기가 더 살았을 것 같아요.”라며 전산옥 주막이 앞으로 ‘먹거리 공간’을 넘어 축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눴다.

부스 운영으로 바쁜 탓에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지만, 회원들은 시원한 쉼터 같은 주막 운영으로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여름의 기억, 영월

“영월은 처음인데, 지인이 뗏목축제가 재밌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너무 더워서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전산옥 주막이네요. 둘러보기 전에 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김혜연 씨 가족(부천)

나날이 애정이 느는 축제

“매년 오는데 올해 전산옥 부스가 생기니 시원한 게 좋네요. 사실 전산옥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있으니 축제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 더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영월 20대 토박이(영월)

또다시 오고 싶은 축제

“축제 구경하러 왔다가 전산옥 주막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뽑기도 있어서 해봤거든요. 간장이랑 집된장 당첨됐어요!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내일은 남편이 래프팅 대회도 나갑니다. 응원하러 또 올 거예요.” 진주영 씨 가족(정선 신동)

영월 사람의 꾸준한 마음

“그간 뗏목 축제에 절반은 나온 것 같아요. 관광객들에게 영월이 정 많고 볼거리 많은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영월 살지만, 축제에 올 때마다 매년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권혜정(영월)

축제를 통해 공단을 알리다

영터리마켓 : 시설관리공단

“올해 단종제 때 처음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규모는 단종제 때보다 작지만 그래도 시골벽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영터리 굿즈샵이 단순한 판매 부스가 아니라고 했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지과 문화시설을 알리고 그 공간에서 탄생한 굿즈들을 축제 현장에 선보이는 자리라 많은 사람이 들러 구경하길 바랐다.

“키링, 도자기, 마그넷, 수세미 같은 생활용품부터 시집, 만화책, 막걸리잔까지 연령대별로 고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작은 기념품을 통해 영월의 추억을 간직하고, 다시 방문할 계기가 되면 더 좋죠.”

공단은 평소에도 김삿갓문학관, 천문대, 생태관 등 영월의 대표 관광지과 문화시설을 관리하며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지켜오고 있다. 굿즈샵은 이 시설들을 단순한 관람지가 아닌 ‘영월다운 이야기와 감성을 담은 공간’으로 확장해주는 매개체였다.

공단 담당자는 축제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공단의 존재를 친근하게 알릴 수 있어서 좋았으며, 축제에 오신 김에 영월의 다양한 관광지과 문화시설도 마음껏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축제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관광객을 만나는 건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월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을 만나 영월 곳곳에 있는 시설과 이야기를 굿즈를 통해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25

제27회

동강 목 떼 축제 속서

DONGGANG
RAFT
FESTIVAL

2025.08.01(금) - 03(일)

영월동강둔치 일원



주최 · 주관 |



후원 |



영월군 전승 메트릭의 문화적 가치 조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 책임 : 이창식(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최명환(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원)

남종현(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강사)

남강연(원주어리랑보존회 회장)

— 목 차 —

제 I 장 영월군 뗏목 전승 기반	83
1. 영월군의 자연환경	84
2. 영월군의 사회환경	91
제 II 장 한강 물길 전승과 기능	96
1. 한강 상류의 문화 전통	97
2. 한강 물길의 형성과 확대 그리고 쇠퇴	99
3. 한강 나루와 사선(私船)	104
제 III 장 영월군 뗏목 전승의 실제	112
1. 뗏목의 어원과 기원	113
2. 뗏목 운송을 위한 별목	126
3. 뗏목 운송을 위한 나무 옮기기	132
4. 뗏목 제작 시기와 준비	138
5. 뗏목 엮는 과정	151
6. 뗏목 운송 과정	162
제 IV 장 아라리와 뗏목 민속	171
1. 한강 여울과 주막	172
2. 떼꾼 전승의 소리	177
3. 떼꾼 관련 옛말	181
제 V 장 영월군 전승 뗏목의 가치	188
1. 영월군 전승 뗏목의 문화적 가치	189
2. 영월군 전승 뗏목의 유지와 노력	197
3. 영월군 전승 뗏목의 관리를 위한 방안	198
참고문헌	201
부록1 : 떼꾼 흥원도 구술 기록	203
부록2 : 영월 뗏목 제작 관련 신문 기사	239
부록3 : 2005년 뗏목 시연 사진	260

부록4 : 2021년 그레 및 당타래, 강다리 제작 사진	261
부록5 : 2021년 뗏목 제작 사진	263

— 표 목 차 —

<표 1> 영월군 관내의 산지 현황	85
<표 2> 조선 시대 전기 한강의 나루 분포	105
<표 3> 영월군 관내의 주요 나루터	107
<표 4>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대상	190
<표 5>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	190

— 그 림 목 차 —

<그림 1> 영월군 관내의 수계 현황	87
<그림 2> 그레(노)	140
<그림 3> 강다리	142
<그림 4> 떼뭇	143
<그림 5>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도끼	146
<그림 6>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낫	147
<그림 7>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자귀	148
<그림 8> 나무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짚쇠[도비]	149
<그림 9> 강다리 제작에 사용하는 끌	150
<그림10> 한 동새	154
<그림11> 나무와 당타래를 묶고, 떼뭇을 박은 모습	156
<그림12> 강다리에 끼울 ‘V’ 자 형의 그레 거치대	159
<그림13> 강다리를 설치한 모습	160
<그림14> 강다리에 그레를 올린 모습	160
<그림15> 그레 손잡이에 새끼줄로 연결해 고정한 모습	161
<그림16> 완성한 한 바닥의 뗏목	162

사 진 목 차

<사진 1> 전산옥 주모의 딸 김금자씨	94
<사진 2> 도담삼봉을 바라보는 홍원도 떼꾼	98
<사진 3> 한강을 오르내리던 뚝단배	102
<사진 4>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황장금표	126
<사진 5> 그레 만들기1	141
<사진 6> 그레 만들기2	141
<사진 7> 강다리 만들기1	143
<사진 8> 강다리 만들기2	143
<사진 9> 떼못 만들기1	144
<사진10> 떼못 만들기2	144
<사진11> 당타래로 쓸 나무를 하는 거운리 주민들	144
<사진12> 뗏목 제작에 사용하는 새끼줄1	145
<사진13> 뗏목 제작에 사용하는 새끼줄2	145
<사진14> 떼못 제작을 위해 만든 틀1	151
<사진15> 뗏목 출발 전에 지내는 고사	164
<사진16> 단양 꽃거리 전경	176

제 1 장

영월군 뗏목 전승 기반

1. 영월군의 자연환경
 2. 영월군의 사회환경
-

1

영월군의 자연환경

1.1 산지(山地)와 고갯길

- 강원도 영월군은 위도상으로 북위 37°01'32"에서 북위 37°24'32" 사이에 위치하며, 경도상으로는 동경 128°06'35"에서 동경 128°54'46" 사이에 위치한다. 남북 간의 거리는 약 51km이고, 동서 간의 거리는 약 86km로 동서로 긴 편에 해당한다.
- 또한 영월군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만나는 내륙에 위치한 산간 분지이기도 하다.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높이 솟아 남북으로 길게 가로막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태백산맥에서 뺏어 나온 차령산맥의 산지들이 발달해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의 산지들이 가로막고 있다. 영월군의 주요 산지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산	내용
동부	장산(壯山:1,408m)	상동읍 구래리와 천평리에 걸쳐 태백시와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백두대간의 함백산이 서쪽으로 뺏어 웅장하게 솟구친 산으로 남쪽과 서쪽은 급경사이며, 북쪽과 동쪽은 완사면을 이룸. 동쪽으로 해발 1,000m 내외의 지역에서 고랭지 농업이 행해지며, 서북쪽의 구래리에 상동 중석 광산이 위치해 있음.
	두위봉(斗圍峰:1,465m)	영월군 관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중동면 직동리와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매봉산(梅峰山:1,268m)	상동읍과 중동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산정 부근에 고위평탄면이 발달하였음.
남부	어래산(御來山:1,063m)	김삿갓면과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남대천이 김삿갓면 예밀리에서 옥동천과 합류함.
	마대산(馬垓山:1,052m)	김삿갓면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경계에 위치함. 동쪽으로 김삿갓계곡이 흐름.
	태화산(太華山:1,027m)	남면 홍월리와 김삿갓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걸쳐 있음. 풍수지리적으로 영월읍의 안산에 해당하며, 동쪽 기슭으로 남한강이 흐름.
북부	백덕산(白德山:1,350m)	무릉도원면 범흥리와 평창읍 원당리 사이에 있으며, 남서쪽 기슭으로 범흥천이 흐름.
	삿갓봉(1,029m)	무릉도원면 운학리와 횡성군 안흥면의 경계에 있음.
	접산(接山:823m)	영월읍 거운리와 북면 마치리 경계에 있음.
중앙	계족산(鷄足山:889m)	영월읍 덕포리 동쪽에 있으며, 산 아래로 남한강이 흐름.
	완택산(莞澤山:916m)	영월읍 연하리와 삼옥리 사이에 있으며, 연하리 방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그 기슭으로 함백에서 발원한 연하천이 서쪽으로 흘러 동강으로 합류함.
	봉래산(蓬萊山:799m)	영월읍 영흥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 아래로 동강이 흐름.
	발산(鉢山:667m)	삼각산이라고 부르며 장릉이 자리하고 있음. 풍수지리적으로 영월읍의 진산으로 여김.

<표 1> 영월군 관내의 산지 현황

- 영월군은 산지의 비율이 80%가 넘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월군의 동쪽, 남쪽, 북쪽이 장산, 두위봉, 매봉산, 마대산, 태화산, 백덕산, 삿갓봉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산들 사이로 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동강과 서강이 북쪽으로부터 흘러들어 영월 관내 곳곳을 두루 돌아 영월읍에서 합류하여 한강(남한강)을 이룬다. 그리고 하천 유역 중적 평야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

- 지형적으로 높고 험한 산지로 둘러싸인 영월군은 주민들의 통행이나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와 같이 도로 및 철도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강이나 하천을 이용하거나 산지의 낮은 고갯길을 이용해 외지와 소통해야만 했다.
- 먼저, 영월군 관내에서 이용하던 주요 고갯길은 삼동치(상동읍 구름재마을~중동면 녹전리 양지마을), 싸리재(중동면 화원리 소미원마을~김삿갓 예밀리 싸릿재마을), 수라리재(중동면 화원리 가이천마을~이목리 화골마을), 자령치(김삿갓면 예밀리 자재터마을~중동면 연상리 내손돌목마을), 소나기재(영월읍 방절리 선돌마을~북면 문곡리 삼거리마을), 밤재(북면 밤치마을~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분덕재(북면 문곡리 덕우마을~영월읍 영흥리 물암골마을), 고덕재(북면 덕상리 원동마을~평창읍 마지리), 자라고개(주천면 관우리 상관운마을~평창읍 입탄리), 배일재(남면 북쌍리 빨치마을~한반도면 옹정리 배일치마을), 무덤재(남면 창원리 술론마을~단양군 어상천면 명전마을), 느릅재(한반도면 입석리 쇠골마을~한반도면 쌍용리 산막동), 솔치고개(주천면 신일리 성낙개마을~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서운재(무릉도원면 운학리 서운마을~횡성군 강림면 덕초현마을), 미고개(주천면 금마리 미고개마을~제천시 송학면 교촌마을) 등이다.

1.2 강(江)과 물길

- 영월군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외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 가운데 영월군 지역민들이 넘을 수 있도록 낮은 부분을 이용해 고갯길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또한 높은 산들이 만든 하천과 강을 통한 물길도 영월군 관내에서의 이동 및 외지와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 특히 영월군에서는 한강이 시작된다. 한강은 정선군에서 조양강과 만난 후 영월읍에서 주천강과 평창강 등과 합류해,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유입된다. 영월 사람들은 영월읍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흘러드는 강을 ‘동강’으로 서쪽에서 유입하는 주천강과 평창강이 합류한 강을 ‘서강’ 등으로 부른다.



<그림 1> 영월군의 수계 현황(출처 : 『영월군지』)

1) 동강(東江)

- 동강은 한강의 본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강은 먼저, 대관령 부근에서 발원한 평창군의 ‘오대천’과 삼척시 대덕산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들어오는 ‘골지천’, 강릉시의 석병산에서 발원해 북쪽에서 들어오는 ‘임계천’이 북면 여량리에서 만나 조양강이 된다.
- 조양강은 남쪽을 향해 흐르다가 정선읍 시가지 부근에서 정선군 동면 백전리에서 흘러내리는 어천과 합류하고, 다시 고한읍·사북읍을 거쳐 남면에서 흘러드는 지장천이 합류한다. 지장천이 조양강에서 합류되는 지점부터 그 하류를 동강이라고 한다.
- 동강은 영월 쪽으로 빠져나가 평창군에서 흘러내리는 평창강과 합류하여 한강을 이룬다. 동강에 대해서 『정선읍지』에 “본래 이름은 대음(大陰)이었는데 동강이라고 바꿨다. 그 음(陰)자를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원래는 ‘대음강’이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음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지리지』에는 ‘동강’으로 표기되어 있다.
- 동강은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다가 영월읍 문산리에서 남쪽의 덕포리로 이어지고, 이 지점에서 연하천 지류와 합류한다. 그리고 하송리에서 서강과 합류하여 한강이 된다. 또한, 한강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김삿갓면 각동리에서 옥동천

과 합류한다. 동강을 정선군에서는 ‘대음강’ 등으로도 불렀으나, 『영월부읍지』에는 ‘금장강(錦障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부의 동쪽 1리에 있다. 오대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정선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한다. 『영월군읍지』에는 ‘금강(錦江)’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장강으로 기재하고 “군의 동쪽 1리에 있는데, 평창군 연촌진(淵村津)의 하류이다.”라고 설명한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동계(東溪)와 동강진(東江津)이 나오는데 군내면 영흥리에 소재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

2) 서강(西江)

“서강 지류에는 광천천, 문곡천, 문곡천의 지류인 마차천, 솔치천, 연덕천, 덕상천이 있고, 연당천과 평창강이 있다. 평창강의 지류로서 범흥천, 서만이강, 운학천 등이 있다.”

- 서강의 행정 명칭은 ‘평창강(平昌江)’이다. 서강은 ‘주천강(酒泉江)’과 ‘평창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천강은 평창군과 횡성군의 태기산(泰岐山)에서 발원하여 둔내, 안흥, 강림 등을 거쳐 무릉도원면의 배향산 동쪽으로 흘러 영월군 주천면으로 유입된다. 이후 무릉도원면, 주천면, 한반도면, 남면 등을 거쳐 영월읍에 이른다.
- 무릉도원면 운학리를 거치면서, 삿갓봉 남쪽에서 발원한 ‘운학천’을 합류하고, 무릉도원면 두산리에서 배향산의 남쪽으로 흐르는 작은 지류 등을 합쳐 흐른다. 주천면 도천리를 지나며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서 흐르는 ‘황둔천’과 만나 ‘섬안이강’이 되고,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이르러 사자산 남쪽과 백덕산 서쪽에서 발원한 ‘범흥천’과 합류해서 동남쪽으로 흐른다. 주천면 용석리의 한전마을에서 주천면 금마리에서 발원한 ‘송학천’과 합류해 동쪽으로 흘러 한반도면 웅정리에서 ‘평창강’과 합류해 서강이 된다.
- 주천강의 지명은 “옛날 주천면 지역에 술이 솟는 바위샘이 있었는데, 양반이 잔을 들이대면 청주(淸酒)가, 천민이 잔을 대면 탁주(濁酒)가 솟았다. 어느 날 한 천민이 양반 복장을 하고 잔을 대며 청주를 기대했지만, 바위샘이 이를 알아채고 탁주를 쏟아 냈다. 천민이 화가 나서 샘을 부숴 버리자 이후부터는 술 대신 맑은 물만 흘러나와 강이 되었다”라는 설화에서 유래하였다.
- 한편, 평창강은 평창군의 북쪽에 위치한 계방산에서 발원한다. ‘속사천(東沙川)’

이라 부르며, 남서로 흐르다가 봉평면에서 흥정산과 태기산에서 발원한 '흥정천(興亭川)'과 합류하여 평창강을 이룬다. 그리고 '대화천(大和川)'과 백덕산에서 흘러 내려온 '계촌천(桂村川)' 등의 지류를 합쳐 남쪽으로 곡류한다. 평창읍을 지나 영월군 한반도면에서 주천강과 합류해 서강으로도 불리며, 물길을 동쪽으로 바꿔 계속 흐른다.

- 평창강은 직선거리가 약 60km밖에 되지 않지만, 유로 연장은 약 220km가 될 만큼 심하게 곡류하는 대표적인 사행하천이다. 『평창군신지』에는 영월로 들어가는 서강으로 표현했으나, 평창읍을 설명하면서는 '남대천(南大川)' 혹은 '사수(泗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 주천강과 평창강이 합류한 서강은 한반도면 후탄리에서 남면 토교리에서 발원해 한반도면 쌍룡리를 지나 북으로 흐르는 '토교천'과 합류하고, 동쪽으로 흘러 남면 연당리에서 '연당천'을 합류한다. 북면 문곡리에서 삼방산 남쪽 북면 공기리에서 발원한 공기천과 만나고, 연덕천이 마차리에서 골지천과 학전천을 포함해 서강으로 흐르는 강구천과 합류한다. 이후 동남쪽으로 흘러 청령포를 지나며 영월읍 하송리에서 동강과 합류한다.

3) 한강(漢江, 한강의 본류)

- 영월군에서는 동강과 서강이 만나 '남한강'을 이룬다고 하나, 지명으로 보면 '한강'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강은 한강의 지류이다. 그렇기에 이후부터는 '남한강'을 '한강'으로 쓰고자 한다. 한강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영월읍 하송리의 '합수머리' 또는 '합수거리'에서 시작한다.
- 영월군에서는 합수머리가 있는 곳을 '금봉연(錦鳳淵)'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금봉연은 명주실 한 꾸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으며, 용으로 승천할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이 있어 영월군 사람들이 접근하기 두려워했던 곳이기도 하였다. 옛날 하송리에서 태어난 장수가 죽자, 주인을 기다리던 큰 칼이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해서 '검부연'이라 부르다가 금봉연이 되었다"라고 한다.
- 합수머리에서 강을 따라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영월읍 덕포리에 '부싯돌배리' 또는 '부싯돌배기'라 부르는 곳이 있다. "부싯돌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싯돌은 석질이 단단하고 강도가 높아 성냥이 귀했던 시절 마른 쭉과 함께 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부싯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벼랑이기에

부싯돌배리라 부른다”라고 한다. 부싯돌배리는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곳이기에 물살이 항상 거칠었다. 그래서 한강을 내려가는 뗏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장소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였다.

-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서 시작한 한강은 유역이 우리나라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으며, 하천의 유로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다음으로 긴 편이다. 한강을 중국 한나라와 위나라 때의 사료에는 ‘대수(帶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광대토대왕릉비에는 ‘아리수(阿利水)’, 백제 관련 문헌 등에는 ‘옥리하(郁里河)’ 등으로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신라 관련 문헌에서는 상류를 ‘이하(泥河)’라 하고 하류를 ‘왕봉하(王逢河)’라고 하였다. 고려 때에는 ‘열수(洌水)’ 등으로도 불렀다.
- ‘한수(漢水)’ 또는 ‘한강(漢江)’으로 부른 것은 현재의 서울 일대를 ‘한성(漢城)’으로 불렀던 삼국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은 영월읍 정양리 천연가스발전소 앞을 지나 김삿갓면 각동리에서 ‘옥동천(玉洞川)’을 합류한 후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들어가게 된다.
- 옥동천을 ‘하동천(下東川)’이라고도 부른다. 상동읍 구운산에서 발원하여 태백시와 상동읍의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 흐르다가 칠량마을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내덕리에서 ‘덕구천(德邱川)’ 등을 합류한 다음, 심하게 교류하면서 하천 양쪽에 비교적 넓은 하안단구를 이루고, 중동면 녹전리를 지나 김삿갓면 외룡리에서 내리천을 합류하며, 서쪽으로 흘러 김삿갓면 주문리에 이르러 곡동천을 다시 합류해 김삿갓면 각동리와 대야리 사이인 ‘맛밭’에서 한강과 만난다. 옥동천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봉들 사이를 지나므로 수량이 매우 풍부하다.
-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유입된 한강은 충주시의 달천과 합류한다. 다시 경기도에 이르러 이천시 청미천, 여주시 북하천, 양화천 등과 합류되고, 양수리에 이르러서는 경안천과 합류되어 서울에 이른다. 합류된 한강은 청계천과 만나면서 서울을 동서로 흘러 하류에서 임진강과 합류되어 서해의 강화만으로 유입한다.

1.3 강수량(降水量)

- 영월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0~1,200mm 내외로 전국적으로 볼 때 약간 소우지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 강수량 1,000mm 이하는 소우지

역으로, 연 강수량 1,300mm 이상은 다우지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 영월군은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며, 6~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내린다. 이렇게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것은 6~9월 기간에 장마전선이 장기간 머물기 때문이며,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지나가기도 한다.
- 한편, 겨울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15% 미만인데, 다설지역에 속하지는 않으나 많은 양의 눈이 가끔 내리기도 한다.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평창군 일대에 싸여 있던 눈은 봄철이 되면 흐르기 시작하여 계곡에서부터 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뗏목 운행과 수운 교통에 매우 중요한 자원을 형성하게 된다.

2

영월군의 사회환경

2.1 영월군의 지리적 위치

- 영월군은 강원도 남쪽 끝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북쪽으로는 강원도의 평창군, 정선군과 접하고, 동쪽은 태백시, 서쪽은 원주시와 횡성군과 접한다. 또한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및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 등에 접한다.
- 강원도 남부지역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등과 접하고 있는 영월군은 행정구역으로 볼 때 2읍(영월읍, 상동읍) 7면(무릉도원면, 주천면, 한반도면, 남면, 북면, 김삿갓면, 중동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127.62km²이다.
- 영월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정선군, 평창군 등과 함께 흔히 '영정평'으로 불리며, 강원도 남부지역 내륙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다만, 영월군은 정선군 및 평창군보다 상대적으로 원주시와 제천시 등과 교통망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있어서 '영정평' 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특히, 1980년대까지 석탄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인근 지역인 제천시를 통해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등을 연결하는 교통망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2.2 영월군의 역원과 도로

- 조선 시대 사람이 이동하는 주요 교통로는 역원(驛院)을 이용한 육상 교통로이다. 조선 시대 영월에는 보안도찰방(保安道察訪, 춘천) 소속으로 양연역(楊淵驛, 현 남면 소재지)과 연평역(延平驛, 현 북면 연덕리)이 있었다. 양연역은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30리(120km) 지점에 있으며, 대마(大馬) 2필, 기마(騎馬) 3필, 복마(卜馬) 3필과 역리(驛吏) 29명, 노(奴) 19명, 비(婢) 20명이 종사하였다”라고 한다. 또한 연평역은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40리(160km) 지점에 있는 역으로 대마 1필, 기마 2필, 복마 1필, 역리 24명, 노 15명, 비 5명 등이 종사하였다”라고 기록한다.
- 한편, 한양(漢陽, 서울)에서 영월로 오는 역로(驛路)는 서울에서 강릉을 거쳐 평해(平海, 현재 울진)로 이어지는 제3로(第三路)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주에서 간선으로 갈라져 영월에 이른다. 곧 “한양에서 출발한 역로를 살펴보면, 한양 → 망우리(忘憂里) → 왕산역(王山驛) → 평구(平丘) → 봉안(奉安) → 고랑진(高浪津) → 월계(月溪) → 양근(楊根, 현재 양평) → 지평(砥平) → 전양원(前陽院) → 안창(安昌,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원주(原州) → 오원참(현재 횡성) → 주천(酒泉) → 영월(寧越)”에 이른다.
- 조선 시대에 형성된 역로를 따라서 현대의 국도와 지방도도 연결되어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시를 거쳐 양평에 이르는 길은 6번 국도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는 331번과 88번 지방도가,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서 원주시 동지역으로는 5번 국도가, 원주시에서 영월군 주천면은 88번 지방도가, 주천면에서 영월읍까지는 38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군내의 동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와 남북 방향을 연결하는 31번 국도가 주요 교통로로 이용된다.
- 철도 교통으로 영월군에 태백선이 지난다. 태백선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제천역과 강원도 태백시의 백산역을 잇는 철도 노선으로 총 길이 103.8km의 산업철도이며, 영월에 건설된 발전소를 위해 만든 ‘영월선(또는 영월발전소선)’과 영동선에서 황지(현 태백시)일대의 탄광 개발을 위해 만든 황지지선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탄광 개발을 위해 함백선, 정선선, 고한선 등이 영월선의 연장선이 되면서 영월선과 황지지선이 점차 근접하게 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동서 횡단 노선의 확충 필요, 교통두절의 예방과 선로용량 증가를 위해 고한~황지간 연결

선을 완공하고 1975년 각 노선을 모두 통합하여 태백선이라 하였다.

2.3 영월군의 하천과 나루

- 현재와 달리 도로 및 철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강이나 하천의 수로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나라와 주민 생활에 큰 역할과 교통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상류 지역에서 하류 지역으로 이동하는 물류 운송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영월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는 산이 높고 많아 소나 말이 수레를 끌고 이동하기에 어려웠다.
- 특히 한강은 고대부터 내륙 수로로서 중요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을 한양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기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였다.
- 영월군 일대에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지가 많아 골짜기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깊고 큰 골짜기 안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계곡과 하천이 발달하여 중요한 내륙 수로인 뱃길을 형성하였다.
- 한강과 지류를 따라 형성된 뱃길은 영월군 관내의 내륙 지역은 물론, 영월군과 강원도의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등과 충청북도의 제천시, 단양군, 그리고 경기도 일대를 연결해 주는 주요 내륙 수상 교통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 특히 강원도의 세곡은 한강(강원도 북쪽 지역에서는 북한강)을 통해 현재의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경창'으로 운반되었으며,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춘천의 소양강창과 한강의 원주 흥원창에는 배로 실어나를 세곡을 모아두었던 조창(漕倉) 등이 있었다.
- 세곡은 주로 관선(官船)이 날랐으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사선(私船)과 뗏목도 한강을 오르내렸다. 한강의 최상류 나루터는 골지천과 송천이 합류하는 정선의 '아우라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우라지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5일 이상 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영월군에서는 '염선(鹽船)' 또는 '소금배' 등으로 부른다. 염선은 소금이나 간조기 등과 같은 생선 종류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도구 등을 싣고 한강 상류의 나루터까지 올라왔으며, 한강에 있는 나루터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배나 뗏목에는 짐을 짓거

나 땀감으로 사용하는 목재와 화목(火木)을 비롯한 고령토, 산삼, 버섯, 산나물 등의 임산물과 감자, 옥수수, 조, 기장, 쌀 등과 같은 곡식을 싣고 한강 하류의 서울로 운송하였다.

- 조선 시대 영월군 관내에 소재한 창고는 ‘읍창(邑倉)’, ‘동창(東倉)’, ‘두창(杜倉)’, ‘서창(西倉)’ 등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읍창은 규모가 커서 26칸이었고, 동창은 관문으로부터 60리 지점인 산솔면 이목리에 있었으며, 두창은 관문으로부터 40리 지점인 김삿갓면 예밀리에 있었다. 서창은 관문으로부터 30리 지점인 남면 창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
- 이 네 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그다음 해 2월경 한강의 물이 불어나면 배에 싣고 한강을 따라 하류에 있는 원주 흥원창으로 이송하였다.
- 영월군 관내 소재했던 창고와 관련해서 내륙과 한강, 그리고 그 지류를 연결해주는 곳에는 나루터들도 있었다. 영월군 관내의 주요 나루터에는 동강의 상류인 거운리 만지마을에 ‘만지나루터’, 동강 상류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평창군과 경계를 이루는 문산리 진탄마을에 ‘진탄나루터’ 등이 있었다.
- 그리고 한강 지류인 서강 연안의 남면 연당리와 광천리 사이에 ‘서강나루터’, 남면 북쌍리 아랫들골 마을에 ‘등골나루터’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강과 옥동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영월읍 팔괴리에 ‘큰팔괴나루터’가 있었으며, 동강 끝부분에 소재한 덕포나루터 등도 있었다.



<사진 1> 전산옥 주모의 딸
김금자씨(2001.07.19.)

- 영월군 관내 나루터 가운데 '만지나루터'는 영월읍 거운리 만지마을에 있는 나루터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면 거운리 길운마을에 닿게 된다. 예전에 만지나루터에는 '전산옥'이라는 주모가 정선 아우라지에서 조양강과 동강을 따라 뗏목을 타고 내려오는 뗏꾼들을 상대로 운영했던 유명한 주막집이 있었다.
- 동강을 따라 영월읍 소재지인 덕포리까지 내려가는 뗏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험한 물길인 '뒀꼬까리'를 지나야 만지나루터에 도착한다. 그래서 뗏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던 곳이 만지나루터다. 전산옥 주모가 운영하는 주막집은 뗏꾼들이 항상 들리던 주막이었다. 전산옥 주모가 운영하던 주막은 1936년 수해로 떠내려갔고, 현재는 그 자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영월군 관내에서 한강과 지류를 따라 목재와 뽕감, 곡식, 소금과 생선 등을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실어나르던 배나 뗏목은 1955년 제천~영월 구간의 38.1km의 영월선 철도 개통과 그 이후 1957년에 개통한 영월선, 정선선, 고한선 등을 통합한 태백선 철도, 그리고 도로 교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나루터 자리에는 대부분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제 II 장

한강 물길 전승과 기능

1. 한강 상류의 문화 전통
 2. 한강 물길의 형성과 확대 그리고 쇠퇴
 3. 한강 나루와 사선(私船)
-

1

한강 상류의 문화 전통

-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한강은 정선군에 이르러 ‘아라리’를 만들고 다시 흘러 단종이 유배되었던 영월군에 닿는다. 영월군 한반도면에는 한강 지류가 만든 ‘한반도 지형’을 만들고, 선돌을 지나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에 이르러 비운의 왕 단종을 추억하게 한다.
- 영월읍 합수머리에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 한강은 그 본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본류를 형성한 한강은 김삿갓면 진별리에 위치한 ‘고씨굴’을 지난다. 고씨굴은 원래 ‘노리곡석굴(魯里谷石窟)’이라 불렀으나 의병장 고종원(高宗遠) 일가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했으므로 ‘고씨동굴’이라 불렀다고 한다. 4억 년의 신비를 자랑하는 고씨굴은 호수, 폭포수, 광장 등과 24여 종의 미생물이 서식한다. 굴 안에는 고종원 일가가 피난하면서 밥을 지었던 흔적과 솔을 걸었던 자리가 남아 있다.
- 한강이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들어서면 영춘면에서 ‘북벽(北壁)’과 ‘온달산성’을 지난다. 영춘면은 “길게 흐르는 강, 옷깃을 여민 듯하고, 수많은 산을 감싸서 도는 형세”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한강이 휘돌아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언제나 봄이라는 뜻을 지닌 영춘에서 봄가을에 배를 타고 절벽을 끼고 돌면서 바라보는 경치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즐겼던 선경 가운데 한 가지였다.
- 영춘면 북쪽에 있는 북벽은 “절벽이 우뚝 솟아있어 기묘한 경치”를 보인다. 북벽에는 태수를 지냈던 이보상이 암각한 ‘북벽(北壁)’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다. 강 건너편 ‘쉬는 돌’이라는 마을에는 온달장군이 성을 빼앗기고 후퇴하다가 바위에 옷판을 그려놓고 쉬어갔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 영춘면 소재지에서 소백산 쪽을 바라보면 ‘온달산성’이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590년(영양왕 1)에 온달이 왕에게 “신라가 우리 한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으나 그곳 백성들은 통한하여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겠습니다”라고 한 뒤, “계림령과 죽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출정하였으나 “아단성(阿旦那城) 아래에서 신라군과 접전을 벌이다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양군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온달장군이 신라가 침입해오자 산성을 쌓고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달산성이다.

- 온달산성 아래에는 온달장군이 수양했다는 전설을 지닌 온달동굴(남굴이라고도 부름)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성산 아래에 석굴이 있어 높이가 열 척이 넘고, 넓이가 열 척쯤 되며, 깊숙이 들어가 있어 끝이 없고 물이 철철 나와 깊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기가 얼음과 같다. 읍 사람이 햇불 열 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해가 다하매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강 변의 물이 휘돌아가는 곳에 동굴 입구가 있어 수위가 높아지면 동굴에 물이 차기도 한다.



<사진 2> 도담삼봉을 바라보는 흥원도 때꾼

- 한강 줄기가 소백산 기슭을 돌아 단양읍 도담리에 이르면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세 봉우리, 곧 ‘도담삼봉(島潭三峰)’에 이른다. 도담삼봉은 세 개로 이루어진 바위섬이다. “본래 강원도 정선 땅에 있던 것인데 어느 해 큰 홍수로 이곳까지 떠내려왔다”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매년 세금을 받아 갔으나 지역에 살던 한 아이의 기지로 세금을 물지 않게 되었다”라는 설화도 함께 전한다.
- 한강이 새롭게 조성한 단양읍을 지나면, 중기와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수양개(垂楊介) 유적지’에 이른다. 수양개 유적지는 한강이 굽이쳐 흘러 강 북쪽으로 긴 반달 모양의 퇴적층이 발달한 지역이다. 1980년대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구석기 유적이 알려진 이래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후기 구석기문화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올린 곳이다.
- 한강이 단양군을 빠져나가기 전에 1980년대 충주댐으로 물에 잠긴 옛 단양읍

지나는데,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로 있었을 때의 유적인 ‘우화교신사비(羽化橋新事碑)’와 ‘탁오대(濯吾臺)’라 새긴 바위가 남아 있다. ‘탁오대’는 강가에 있던 바위로서 조선 시대 명종 때 퇴계 이황이 손수 새긴 글씨라고 한다. 퇴계 이황은 여가를 이용해 단양 산수를 즐기곤 했는데, 특히 우화교(羽化橋)를 지나 탁오대 바위에 이르러 갯끈을 풀어 놓고 한가롭게 놀았다고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강 상류 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지이기도 하고,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격전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유배되었던 장소도 있으며, 선비들이 배를 타고 오르내리며 산천의 아름다움을 문학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 또한 영월군 덕포리와 와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엮은 뗏목과 서울 마포나루에서 강원도로 올라가는 황포돛배가 오르내리던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뗏꾼들이 불렀던 ‘아라리’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승하던 ‘경기소리’가 중첩되는 나타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2

한강 물길의 형성과 확대, 그리고 쇠퇴

2.1 한강(漢江)

-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북동부와 경기도 남동부를 흘러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한강의 길이는 375km이며, 유역 면적은 12,577km²이다.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에서 발원한 한강은 한반도의 등줄기 산맥인 태백산맥의 서사면을 지나면서 많은 지류가 합류되고, 충청북도를 거쳐 경기도로 흘러 들어간다.
-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정선군·영월군·횡성군·원주시 등을 충청북도 북동부에서는 제천시·단양군·괴산군·음성군·충주시 등을, 경기도 남동부에서는 여주시·이천시·양평군·광주시 등을 지나게 된다.
- 한강 상류 구간은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를 지나기에 급류천 형태로 흐르는데, 특히 오대천과 평창강(平昌江, 220km)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태백산맥 준령 사이를 통과하여 500m 이상의 고원지대를 지난다. 반면에 한강의 하류 구

간은 대략 200m 내외의 구릉지대를 흐른다.

- 따라서 한강은 하천 유로의 성격이 구간별로 큰 차이가 있다. 곧 정선군·평창군·영월군·체천시·단양군 등을 지나는 상류부 하천은 높은 산지 사이를 심하게 사행하여 흐르는 감입곡류(嵌入曲流, incised meander)를 이루지만,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충주시를 지나 여주시·양평군 등 경기도 남부의 하류 구간에서는 고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사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
- 한강은 강원도 북부 지역을 흐르는 북한강에 비해 유역 규모가 훨씬 커서 많은 지류천을 거느리고 있다. 대표적인 지류천으로는 오대천을 시점으로 송천, 골지천, 동대천, 남동천, 창리천, 위림천, 평창강, 옥동천, 매포천, 죽령천, 단양천, 고교천, 제천천, 덕산천, 달천, 구룡천, 영덕천, 섬강, 청미천, 금당천, 양화천, 곡수천, 북한천, 금사천, 향리천, 원계천, 흑천 등이 해당한다.
- 영월읍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흐르는 강을 각각 ‘동강’과 ‘서강’ 등으로 부른다. 특히 동강 유역은 한국에서 감입곡류하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곡률도(曲率度)는 무려 2.5에 이른다. 서강은 주천강과 평창강이 합쳐 이루어지는데, 동강보다 물길이 순한 편이어서 ‘암강’이라고도 불린다. 여름철 장마 때 ‘숫강(동강)’의 물이 암강인 서강보다 많아야 큰물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도 전한다.
- 동강과 서강이 합류되면서 유량이 많이 증가하고, 충청북도 단양군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 충주댐 건설로 형성된 충주호에 유입된다. 충주시에서는 북쪽으로 흐르는 달천이 합류하고, 여주에서는 섬강이 합류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난다.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서 발원한 한강이기에 하천의 경사가 급한 산지와 깊은 하곡을 만든다. 그러나 충청북도 단양군을 지나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수량도 많아지면서 비교적 완만한 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 한강 물길의 형성

- 우리나라에서 한강을 물길로 이용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사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강가에 거주하면서 강에 나무를 띄우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고, 강이 무거운 물건들을 손쉽게 이동시

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서 알았을 것이다.

- 곧 인류가 강을 물길로 이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나무를 띄어 강을 건너거나 물건을 옮기는 선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강을 본격적인 수송로로 이용한 것은 고려 시대에 조운제(漕運制)를 실시한 이후부터이다. 고려 시대 초기 세곡(稅穀)을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다. 이때 강에 설치한 조창은 모두 두 곳으로 모두 한강에 소재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강원도 원주시의 흥원창(興原倉)이고 충청북도 충주시의 덕흥창(德興倉)이다. 곧 한강의 물길 이용은 고려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흥원창’은 현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 있으며, ‘덕흥창’은 충주시 가금면 창동에 있었다. 덕흥창은 ‘금천창(金遷倉)’이라고도 하였는데, 조선 시대 초기에는 ‘경원창(慶原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461년(세조7)에 하류인 가흥리로 옮겨 가흥창(可興倉)이라 하였다.¹⁾
- 고려 시대에 세워진 ‘흥원창’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진다. 조선 시대 소양강창(昭陽江倉), 가흥창과 함께 좌수참(左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稅穀)을 운송하였다. 좌수참에는 51척의 참선(站船)이 배치되어 있었다. 흥원창에서는 영월군을 비롯한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등 강원도 영서지방 남부 5개 고을의 세곡과 강릉시, 삼척시, 울진과 평해 등 영동지방 남부 4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고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 그 후, 1413년(태종13) 영동지방의 세곡을 주창(主倉 : 그 지역의 세곡을 모두 한곳으로 모으는 조창)에 남겨두고, 군사용의 물자로 사용하게 하면서 영서지방의 세곡만 운송하였다. 그 운송항로는 한강의 수로를 따라 서울의 용산 강변에 이르는 것이었다.
- 고려 시대에 세운 가흥창은 조선 시대에 와서 하류로 옮기며, 이름이 바뀌었다. 충주시 목계(牧溪)나루를 건너 가흥 방면으로 가면 충주에서 장미산(長尾山, 薔薇山) 앞을 지나오는 세 갈래의 길과 만나는데, 이 길에서 양성(仰城) 쪽으로 들어서서 오른편 강가에 있었다. 가흥창에서는 곡식 200섬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으며, 경상도의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함창(현 상주시 함창읍), 용궁(현 예천군 용궁면), 봉화군, 풍기(현 영주시 풍기읍), 순흥(영주시 순흥면), 영천시, 예안(현 안동시 예안면) 등과 충청도의 영춘(현 단양군 영춘면), 단양군, 제천시, 청풍(현 제천시 청풍면), 충주시 연풍(현 괴산군 연

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유역사연구』, 산책, 1999, 279쪽.

풍면), 괴산군, 음성군, 천안시, 보은군, 청산(현 옥천군 청산면), 영동군, 황간(현 영동군 황간면) 등의 조세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 가흥창에서 서울까지 수로로 260리였으며, 수운관관이 최고책임자였다. 가흥창의 크기는 1879년 당시 70여 칸이었으나, 육상교통의 발달로 창고는 폐허가 되고 흔적만 남아 있다.
- 한편, 고려 시대 말에서 조선 시대 초기에는 왜구들의 출몰로 조운 체계에 변화가 생겨 바닷길을 이용한 운송은 중단되고, 내륙의 물길을 위주로 바뀌었다. 세곡은 낙동강-계림령, 죽령-한강-동강포로 이어지는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였는데, 죽령은 경북 풍기에서 충북 단양으로 이어져 한강과 연결되고, 계림령(거림재, 하늘재) 역시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에서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를 잇는 고개였으므로 고려 시대에 이어 조선 시대 초기에도 남한강 물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한 것도 이러한 한강 물길의 중요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한강을 오르내리던 뗏단배(충주시 목계나루)

2.3 한강 물길의 확대

- 조선 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곡의 운송은 주로 관선(官船)을 이용하였다. 그렇기에 한강의 나루들을 중심으로 관선이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오면서 사선(私船)으로 대체된다. 물길을 이용한 세곡 운반이 사선으로 확대

되면서 한강 물길 이용도 점차 늘어난다. 곧 사선은 조선 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소작료의 운송과 소규모의 물물교환 정도를 담당하였지만, 16세기에 오면서 세곡 운송에도 관여한다. 그렇게 해서 사선은 한강 물길의 주된 담당층으로 대두하게 된다.

- 사선이 한강 물길의 주된 담당층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강을 오르내리는 선박의 규모나 대수가 늘어나고, 세곡 운송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이윤 창출을 모색하면서 상품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그 후 경강선인(京江船人)과 지방선인(地方船人)들이 주도하던 한강 세운(稅運)은 경강선인들의 부정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17세기 이후에는 지방선인들에게 이양되었다. 한강 세운의 담당층이 지방 선주들로 옮겨지자, 당시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지방의 선주들은 해당 지역의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 이러한 지방 선주들의 성장과 18세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상품 증대가 맞물리면서 한강 물길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조선 시대 후기 생산력의 확대는 잉여 생산품을 남기고, 이 잉여 생산품을 교환하기 위해 한강 주위의 장시(場市)와 나루가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돛단배와 같은 운송체계의 발달은 나루를 원격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한강 유역의 중심 나루들은 상업 포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 19세기 『대동지지』에 의하면, 한강에는 43곳에 나루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5~6km마다 나루가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양근(현 양평군) 8곳, 광주 8곳, 여주 6곳, 충주 8곳 등으로 서울에서 충주까지의 한강 변에 집중되어 있었다.²⁾ 그 가운데 갈산, 이포, 홍호, 목계, 금천, 황강, 청풍, 단양, 영춘 등의 중심 나루는 장이 서는 상업 포구였다.

2.4 한강 물길의 쇠퇴

-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문호를 구미 열강 국가들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 특히 개항 직후에는 일본이 조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독점하게 된다. 한편, 청나라 상인들도 가담해 전국의 개항장과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의 점포 개설이 늘어난다. 이에 국내 상인들도 개항장을 중심

2) 김종혁,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한강 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호, 경제사학회, 2001. 20쪽.

으로 몰려들었다.

- 한강에서 세곡의 조운을 담당하던 경강선인들도 기선(汽船)을 구입하고 일본인 선원들을 고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한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 수운에는 외국선박의 침탈이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그리고 지방선인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경강상인들의 몰락은 한강 전체 수운에도 점차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더구나, 일제강점기 이후 경부선과 중앙선 등의 철도가 개통되고, 한강 주변에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그간 물길을 통해 유통되던 물품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한강의 중심 나루를 지탱하던 지방선인과 상인들의 규모는 작아지고, 대신 생계를 위해서 소규모로 개인 배를 이용해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 이렇게 이어지던 한강 물길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하다가, 팔당댐과 충주댐 등의 건설로 물길이 막힌 후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 한강의 물길 쇠퇴에 영향을 직접 준 것은 팔당댐이다. 팔당댐은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과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를 잇는 한강 본류에 만든 댐이다.
- 팔당댐은 1966년에 착공하여 1973년에 완공되었다. 댐의 높이는 29m, 제방의 길이는 575m, 총저수용량은 2억 4,400만이며, 유역 면적은 2만 3,800km²이다. 1차 담수는 1972년 11월에, 2차 담수는 1973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팔당댐의 건립은 한강 물길을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

한강 나루와 사선(私船)

3.1 한강의 나루

- 한강에 나루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을 배경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 강을 건너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강을 건너기 쉬운 곳에 나루를 만들어 이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삼국시대가 되면서 한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따라서 한반도 주도권을 쥐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한강을 통해서 대규모의 군대가 이동했을 것이고,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도 나루가 필요하였다. 그때부터 나루의 기능이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조선이 건국되면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서 통치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 조직이 정비되었다. 이는 교통망의 정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지방 통제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통망은 한양 곧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 전기 한강의 나루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	나루
정선	광탄진(廣灘津), 여량진(餘糧津), 동강진(東江津)
영월	금강진(錦江津), 후진(後津)
영춘	남진(南津)
단양	상진(上津), 하진(下津)
청풍	북강진(北江津), 황강진(黃江津)
충주	포탄진(浦灘津), 신당진(新塘津), 목계진(木溪津), 청룡진(靑龍津), 북강진(北江津), 하연진(荷淵津), 가흥진(可興津)
원주	흥원진(興原津)
여주	여강진(驪江津), 이포진(梨浦津)
양근	대난진(大難津), 사포진(蛇浦津), 용진도(龍津渡), 마점진(麻岾津), 두미진(斗迷津), 미음진(湑音津)
한양	광진(廣津), 삼전도(三田渡), 송파진(松坡津), 신처진(新川津), 두모포(頭毛浦), 한강진(漢江津), 서빙고진(西氷庫津), 동작진(銅雀津), 흑석진(黑石津), 노량진(露梁津), 용산진(龍山津), 마포진(麻浦津), 서강진(西江津), 울도진(栗島津), 양화도(楊花渡), 공암진(孔岩津), 철관진(鐵串津), 조강진(祖江津)

<표 2> 조선 시대 전기 한강의 나루 분포

- 위의 표를 통해 조선 시대 한강에 있었던 나루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위에서 제시한 나루터 외에도 한강에는 작은 나루들이 곳곳에 소재해 있었다. 한편, 조선 시대 나루의 존재는 국가의 중앙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편리함을 돕는 역할도 충분히 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루를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강을 건널 수 있게 국가에서 나루터를 지어준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또한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강 물길을 통한 조운은 관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선(私船)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주로 고기잡이를 하며 생활을 하다가 국가의 차출에 응하여 배를 부역하였다. 사선은 관선보다 선체가 작지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선들의 활동은 조선 시대 초기부터 이미 정착하였으며, 조선 시대 후기에 와서는 한강 일대에서의 사선 활동이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 조선 시대 전기에서 후기로 오면서 한강 물길은 관선 중심에서 사선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나루의 운영은 마을이나 일반인들도 직접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나루에서는 입찰을 거쳐 선정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도 발생하였다. 뱃사공들은 외지인들에게는 뱃삯으로 돈을 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개 봄철에 보리 한 말, 가을철에 벼 한 말, 혹은 쌀 한 말씩을 받는 식으로 ‘나루 주렴’을 하였다.
- 나룻배는 돛을 달지 않고 물이 적을 때는 삿대로 밀고, 물이 많을 때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 대개 나루터마다 두 척을 운영하였는데, 한 척은 작은 배로 사람을 태우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척은 큰 배로 자동차나 우마차를 실어 나르던 것이었다.
- 한편, 육로가 발달한 곳이나 강에 여울이 험한 곳 주변의 나루들에는 도강(渡江)의 기능뿐 아니라, 한강을 오르내리던 뚝단배와 뗏목이 정박하여 물건을 내리거나 쉬어갔으므로, 이런 나루들에는 객주와 주막이 발달해 있었다. 또한 한강에서 올라온 뚝단배가 머무르면 소규모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해 나루는 교역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영월군 관내의 대표적인 나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루	내용
거운리 나루터	- 영월읍 거운리에 소재하던 나루터. - 뱃삯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모곡을 건였으며, 일 년에

	<p>곡식 한 말 정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화분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였기에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두 말을 걸었음. - 거운리의 나룻배는 목선이었고, 1972년 수해 이후 없어졌음. - 거운리에서 덕포까지 가는 짐배도 있었음. - 1톤짜리 목선으로 폭이 2m에 길이가 4m 정도였음. - 3~4톤 실을 수 있는 황포돛단배가 덕포나루 등지에 짐을 풀어 놓으면 작은 배가 상류 지역까지 짐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함.
삼옥리 나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읍 삼옥리에 소재하던 나루터. - 일제강점기 무렵 뗏목이 내려갈 수 있게 바위 일부를 폭파함. - 그 후 소금을 실은 배가 올라가고, 뗏목은 통과해서 내려감. -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동글바위 인근에 주막집이 있었음.
덕포 나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읍 덕포리를 ‘덕개’라고도 부름. - 정선이나 영월군 상동읍 방면에서 내려온 뗏목을 다시 엮는 곳임. - 일제강점기 정양리 소수력발전소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소금과 어물 등을 싣고 올라오는 황포돛단배의 최종 종착점. - 덕포 나루 자체에서 운영하는 짐배들도 있었음. - 짐배들은 영월 특산물인 담배 등을 싣고, 서울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음. - 돛단배는 여름철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을 때 출발하게 되는데, 배에다 담배와 콩 등 농산물을 싣고 고사를 지낸 다음 출발함.
맛밭나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삿갓면 대야리에 소재하던 나루. - 각동리에 있는 느티나무로 건넌. - 면에서 입찰을 받은 뱃사공이 운영. - 나룻배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벼, 보리 등을 모곡으로 건음. - 나룻배는 두 척으로 한 척은 3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인도선이었고, 다른 한 척은 트럭 두 대를 실을 수 있는 찻배였음. - 각동교가 생기면서 없어짐.

<표 3> 영월군 관내의 주요 나루터

- 특히, 김삿갓면 대야리와 각동리 사이에 있던 맛밭나루는 도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장시의 역할도 하던 나루터였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접경지역이기도 하였기에 일제강점기 무렵인 1930년~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황포돛배가 올라와 어물, 소금 등을 곡식과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 또한 맛밭나루는 정선에서 영월에 이르는 골안떼의 중착지이기도 하였으며, 평창강을 통해 서강에서 내려온 뗏목이 서울을 가기 위해 준비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서강과 동강에서 내려오던 뗏목은 맛밭 위인 정양리 소수력발전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은 뗏목이 한참 동안 잠겼다가 떠오르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인명 피해도 잇달았다.
- 앞 사공은 떼가 물살에 쏠려 앞 동새가 잠기면 뒤 사공 있는 쪽으로 달려가거나 ‘버리줄’을 붙잡고 떼에서 떨어지지 않게 물속에서 잘 버텨야 했다. 정양리 소수력발전소를 지나면 떼가 부서질 만한 위험한 여울은 없으므로, 옥동천과 만나는 맛밭나루에서 뗏목을 고쳐 매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고 한다.

3.2 한강 사선(私船) 운영

- 한강에서 항시 돛단배가 다닐 수 있었던 곳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단양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돛단배의 운영은 그 이상 상류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서울에서 올라온 돛단배의 운항 한계점을 영월군 덕포리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 돛단배의 운항은 수심과 운항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돛단배는 강의 수심이 깊고 바람이 있으면 돛을 펴서 운항하게 된다. 이렇게 돛을 달고 배가 운항할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치부는 바람은 하늬바람인 서풍이고, 반대로 부는 바람은 늙새(녹새)바람인 동풍이다. 돛단배가 상류를 올라가려면 서풍을 받아야 하는데, 바람만 잘 받으면 돛단배는 거의 시속 60km 정도가 나올 때도 있다.³⁾
- 한강에는 수심이 얇고 여울이 곳곳에 있어서, 돛단배의 운항을 위해 ‘뱃골’을 파곤 하였다. 여기서 뱃골은 여울이 있는 지역의 지역민들이 갈수기에 삽이나 가래 등의 농기구를 이용해 폭 10~15m, 깊이 3m 정도로 파서 물길을 만든 것

3) 이정재 외,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176쪽.

이다. 뱃골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돛단배를 운항하는 선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골세’를 지급하였다.

- 뱃골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여울을 통과하기 위해 칩줄 등을 사용하여 돛단배를 끌어 올리기도 했다. 이때 배는 강 중심이 아니라 강가에 붙여서 올라가게 되고, 돛단배를 끄는 사람들은 강변에서 줄을 잡아당겼다. 이러한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돛단배는 한 척이 올라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3척~5척 선단을 구성하여 올라가다가 여울을 만나면 뱃사공들이 힘을 모아 선두의 배부터 차례대로 여울을 통과시켰다.⁴⁾
- 만약, 선단이 없을 때는 여울이 소재한 마을 주민들을 ‘끈잡이’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한진겸의 『입협기(入峽記)』에 의하면 “내가 탄 배는 큰 배에 비하면 한 잎의 갈대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23인을 써서 끌고 5인이 배를 밀어서 거의 한나절에야 올라갔다.”⁵⁾라고 해서 돛단배가 어떻게 한강 상류로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통과하기 어려운 여울의 경우 물길을 잘 아는 그 지역의 뱃사공들이 돛단배를 부러 통과시켜 주고 대가를 받기도 했다. 곧 돛단배의 운영은 선주나 뱃사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과의 공조로 가능했고, 지역 주민들은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 한강에서 운행하던 사선들은 마포나 서강, 용산 등지에서 소금, 새우젓과 석유, 직물, 설탕 등의 생필품을 싣고, 영월까지 올라오면서 짐을 풀어놓았다. 돛단배가 정박하면 그때마다 나루 근처에 장이 서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여기도 염선이 올라왔었는데. 소금배가 올라왔었는데.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 소금배를 가지고 두 번이나 왔다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배에 싣고 올라오면. 부락에 돌아댁기며 판단 말이야. 사면은 그냥 주소 성명 물건명만 적어 놓고 그냥 주고 바로 올라가. 쪽 팔면서 여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걷어 가지고 가는 거여. 그래 인제 무거운 걸 싣고 올라올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돈이. 염선 다니고 이럴 때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바꾸고 그랬지.”(홍원도, 2021.05.12.)

- 한편, 봄에 짐을 싣고 올라간 배는 장마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붙어야

4) 최영준, 「남한강수운연구」, 『지리학』 제35호, 대한지리학회, 1987, 55~56쪽.

5) 김종혁,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호, 경제사학회, 2001, 19쪽.

내려갔다. 그렇기에 사공들의 뱃길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3 동강 일대 마을과 나룻배

“거운리로 넘어오는 길은 원래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 땡기는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넓힌 게. 그 밀가루 가지고 새마을 사업할 때. 밀가루 가지고 할 때 그때 인제. 길을 뚫어가지고, 그 길이 나면서 배가 없어진 거지. 그 목선은 오래 했어. 70년대 초까지 했어. 왜냐하면 이 다리를 새마을 사업으로 놓을 때 72년도에 놓았거든. 그때까지 배가 다녔으니까.”(홍원도, 2021.05.12.)

- 뗏목 전승이 유지되는 거운리(巨雲里)를 비롯한 동강 일대 마을인 삼옥리, 문산리 등지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및 개인이 운영하던 나룻배가 유지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도로 확장 및 다리 설치 등을 하기 전에는 영월읍 소재지를 가기 위해서는 고개나 소로길을 이용해야 했기에,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영월장에서 구매한 생필품들은 배를 이용해서 운송하였다.

“목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바다 배 하고는 틀리고. 바다 배는 주로 인제 뒤편. 이 밑이 이런데. 여기는 바닥이 넓적 하고. 앞으로는 뛰어나왔는데. 밑으로는 뽕족하지 않단 말이지. 배 만드는 사람을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집 짓는 것만 대목이 아니라. 배 만드는 것도 대목이라고 있었어요. 거운에는 없었고. 번재 부근에 엄중완이라고. 영월 등골바위 주변 번재에 엄중완이라고 그 양반이 대목이었었지. 한 배 만드는데 주인이 협조해 가면서 해도 한 사일. 소나무로 만드는데. 한 사 일 걸러.”(홍원도, 2021.05.12.)

- 동강 일대 마을이나 개인이 운영하던 목선은 마을에서 직접 만들었다. 목선을 만드는 기술자를 ‘대목’이라 불렀다. 1970년대까지 삼옥리 번재에 목선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다고 한다. 목선은 소나무로 만들었으며, 목선 만드는 자재가 모두 준비되면 조립하는데 사흘 정도 걸렸다. 물론 마을 주민들 개개인이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서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 목선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배가 없는 집에서는 뱃삿을 내고 빌려서 짐을 운반하였다.

“내려갈 때는 두 사람이 가지고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짐을 실었으면 네 사람이 올려야 돼. 배에다 짐을 싣고 올라오니깐. 여기서는 뭐 옥수수, 콩 이런 거 싣고 내려가지. 올라올 때는 두 사람이 강변에서 요런 줄을 가지고. 강변에서 다리고. 두 사람은 배에 붙어서 물이 안 되면 배 안에서 샷대를 질러서 슬슬 가다가 급류 여울이라는 데 가면은 둘 다 내려서서 배를 붙들고. 배가 가에 안 닿게 바우를 피해 가기 위해서 밀구. 그리고 올라왔지.”(홍원도, 2021.05.12.)

- 나룻배에 짐을 싣고 하류로 내려갈 때는 사공이 두 명이면 가능하지만, 짐을 싣고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네 명이 필요하다. 두 명은 배에서 샷대로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고, 두 명은 줄을 어깨에 짊어지고 끌어야 한다. 그러다가 여울을 올라올 때는 두 명마저 배에서 내려 배를 밀어야 여울을 지날 수 있었다.

제 III 장

영월군 뗏목 전승의 실제

-
1. 뗏목의 어원과 기원
 2. 뗏목 운송을 위한 벌목
 3. 뗏목 운송을 위한 나무 옮기기
 4. 뗏목 제작 시기와 준비
 5. 뗏목 엮는 과정
 6. 뗏목 운항 과정
-

1

뗏목의 어원과 기능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쌍방향으로 운항하던 황포돛배가 있었고, 오로지 나무를 엮어 내려보내던 일방향적인 운항도 있었는데, 일방향적인 운항이 바로 뗏목이다. 뗏목은 한강 물길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운항 가운데 한 가지였다.
- 뗏목은 그 자체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 나무를 베어서 판매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는 한강을 따라서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통 지식이자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 현재까지 강원도 뗏목과 관련한 조사는 '인제 뗏목'¹⁾과 '정선 뗏목'²⁾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북한강 뗏목'과 '남한강 뗏목'으로 구별되지만, 결국 '한강 뗏목'으로 다시 집결된다. 한편 영월지역 뗏목 조사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³⁾ 뗏목 관련 문화는 나무의 벌목에서부터 뗏목의 운항으로 서울 도착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1.1 뗏목의 어원

- 뗏목:[목재나 죽재 따위] 배를 엮어 물에 띄워 내리는 나무.
- 뗏목: ① 물에 띄워 나르기 위하여 엮어 묶은 나무, 사람이 타고 물거나 배로 끈다.
② 물에 띄워 내린 통나무 같은 것.
- 뗏목: 통나무를 떼로 가지런히 엮어서 물에 띄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만든 것.
- 뗏목 : 육로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하천의 흐름을 이용, 떼로 엮어 물에 띄워 운반하는 목재. 우리나라의 뗏목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한강의 상류에서 띄워 내려보내는 것이 유명하였다. 압록강은 백두산 일대에서 신의주까지, 두만강은 무산 지역에서 회령까지, 한강은 강원도 일대의 임산자원을 옮기는 데에 이용되었다. 특히 1908년 1월 26일 러시아로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그리고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넘겨받은 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뗏목을 결빙기를 제외한 시기에 줄을 잇다시피 하

1) 인제 뗏목에 대한 조사는 최승순 외, 『인제 뗏목』(인제문화원, 1985), 인제문화원, 『인제 뗏목(증보판)』(2002), 장정룡 외, 『인제 뗏목과 뗏꾼들』(인제군, 1985)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정선 뗏목에 대한 조사는 진용선, 『정선 뗏목』(정선문화원, 2001) 등에서 이루어졌다.
3) 이한길 외, 「남한강 영월지역의 떼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5권 3호(도서문화연구소, 2013).

여 띄웠으며, 1943년 수풍댐이 건설된 뒤에도 이곳에서 일단 해체하였다가 다시 띄워 내려보내기까지 하였다. 한편 물줄기가 남북으로 갈라진 한강의 경우, 뗏목에 의한 목재 운반은 더욱 손쉬워서 태백산맥을 낀 인제지역의 목재는 북한강으로, 오대산을 낀 평창과 영월 등지의 목재는 남한강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뗏목에 의한 임산자원의 운반도 육로교통의 발달과 함께 차츰 줄어들었으며, 북한강 뗏목은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됨에 따라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 뗏목은 '나무토막 따위를 엮어 물에 띄워서 타고 다니거나 물을 건너게 된 물건'으로 때에 사람이 타고 물고 가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

- 이상의 뗏목 정의를 살펴보면, 뗏목의 재료는 나무 혹은 대나무였다. 한강에서는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지 않고, 소나무나 기타 목재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한강 일대에서는 '때'와 '뗏목'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특히 정선군에서 영월군까지 동강의 물길로 내려온 뗏목을 '골안때'라고 한다.
- 인류가 언제부터 뗏목을 만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시대에도 강이나 좁은 바다를 건널 때 이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에는 뗏목을 이용해 고인들의 뒹개들을 옮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⁵⁾ 곧 2021년인 현재에도 영월군 거운리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작 및 전승하는 뗏목은 선사시대 때부터 강이나 하천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날랐던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이다.
- 강원도 지역은 전통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도 산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산과 물이 많은 곳이기에 당연히 나무도 무성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임산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곳이다. 그 가운데 목재와 관련 자원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 건축 재료와 연료 등을 광물성으로 대체해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 194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물은 나무를 이용하였고, 음식물을 조리해 먹는 연료와 난방을 하는 데도 나무를 사용하였다. 특히 수도인 서울에서는 많은 건축용 목재와 뿔 나무가 필요하였다. 건축용 목재와 뿔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구하기도 하였지만, 특히 건축용 목재는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강원도 깊은 산촌에서 벌목해 뗏목으로 운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공급원이었다.
- 이렇듯이 서울의 각종 산업에 필요한 목재의 수요를 담당하였던 강원도의 산림

4)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11쪽.

5) 강원대학교박물관, 『인제 뗏목』, 1986, 13~14쪽.

은 지금은 그 울창함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하늘을 가리도록 굽고 높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 특히 강원도 지역 가운데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영월군 및 정선군, 평창군 일대와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대, 그리고 홍천군 일대 지역이 나무가 울창하였으며, 그와 함께 나무들을 서울로 운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길을 제공해 주는 한강과 북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 목재를 운반할 때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은 목재로 사용할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다. 강물에 띄운 뗏목은 물의 흐름이 빠르고 많으면 4~5일이면 서울에 도착하기도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그 운반 속도는 육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빨랐다. 그리고 그 수송량 또한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강 물길을 이용한 뗏목은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2 뗏목의 역사적 배경

-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뗏목의 어원은 ‘떼’에서 왔다. 떼는 “나무토막이나 대나무 풀 따위를 엮어 물에 띄워서 타고 다니거나 물을 건너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곧 뗏목은 나무를 이용해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물을 건너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 뗏목은 과거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강이나 하천, 바다 등을 이용한 운송 수단이었다. 뗏목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주로 무거운 물건이나 목재를 수송하는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뗏목을 타고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었다. 때로는 돛을 달아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기도 하였다.
- 뗏목은 크게 영월군에서처럼 목재를 이송하는 ‘뗏목’ 형태와 통나무 3~4개를 엮어서 만든 ‘토막배’ 형태로 구분된다. 토막배는 제주도에서는 ‘티우’, 동해안 일대에서는 ‘테우’, ‘토막배’ 등으로도 부르며, 노를 저어서 타고 다니면서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였다. 섬에서는 돛을 달아 섬과 섬 사이를 왕래하거나 육지와 섬을 왕래하기도 하였다.¹⁾

1) 최승순 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1985, 13쪽.

- 우리나라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 지역에서 ‘이층으로 된 뗏목’도 있었다고 한다. 영국의 화보 주간지인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87년 11월 26일자에 거문도에서 사용하던 ‘이층 형태의 뗏목’을 그린 그림을 수록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일본에서 발간한 신지 니시무라의 『일본의 옛 뗏목』(1925년)에 우리나라 뗏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거론하고 있다.²⁾

“조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 운반 도구가 있으며, 이 중 뗏목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층 뗏목은 주로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 지역에서 제작되었는데, 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통나무를 통째로 사용했다. 이층 구조로 된 갑판은 어부와 어구가 과도에 휩쓸리거나 젓지 않도록 독특하게 고안되었는데, 갑판에는 대나무를 돛자리처럼 바닥에 깔아 물이 잘 빠지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배려했다.”³⁾

-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테우’라는 뗏목이 사용되고 있다. 테우는 나무토막 여러 개를 나란히 퍼놓고 묶은 원시적인 형태의 배로 그 연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쓰시마섬의 ‘오가리부테’라 불리는 뗏목과 유사하여 일본 학계에서는 오가리부테 뗏목의 원형이 테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뗏목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나무토막을 엮어 만든 뗏목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사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거쳐 고대국가로 이어졌다. 특히 고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계급구조가 형성되면서 권력의 상징인 다양한 목조 건물들이 건축되었고, 이때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뗏목을 이용하였다.
- 기록에 남아 있는 뗏목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400년경의 것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모양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는 갈대를 묶어서 만든 ‘폴 뗏목’이 있었고,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파피루스 뗏목’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는 쇠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쇠가죽 뗏목’ 있었다. 특히 중국 양쯔강에는 뗏목 위에서 닭과 돼지를 사육하고, 발을 만들었을 만큼 큰 뗏목도 있었다고 한다.
-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원시적인 형태의 뗏목이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의 태국

2)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12쪽 재인용.

3) 백성현 외,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1999, 156쪽.

이나 필리핀 등의 국가에는 참대로 만든 떼배(竹筏船)를 아직도 사용하며,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도 풀 뗏목을 사용한다.⁴⁾

-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각 나라의 수도가 모두 강이나 하천에 인접해 있었다. 또한, 고려 시대의 수도 개성의 경우 예성강을 끼고 있어 강과 바다를 이용한 수운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조선 시대의 한양 또한 한강이 옆에 있어 강원도 곳곳에서 건축용 목재와 뽕감을 실어 오기 수월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뗏목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나 오래된 뗏목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는 않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록은 조선 시대인 1461년(세조7)에 편찬한 불교 경전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이며, ‘벌(筏)’을 ‘떼’로 읽는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1482)와 최세진이 저술한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도 ‘떼’라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 뗏목을 많이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1.3 뗏목의 용도와 기능

- 우리나라에서 뗏목 용도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뗏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을 건너기 위한 운송 수단이고, 두 번째는 목재 운반 수단으로 뗏목을 제작하는 지역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① “5월 대군(大軍)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제에서 목 배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洲中)에 머물러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五月, 大軍渡鴨綠江, 次威化島, 亡卒絡繹於道. 禍命所在斬之, 不能止. 左、右軍都統使上言: “臣等乘桴過鴨江, 前有大川, 因雨水漲, 第一灘漂溺者數百, 第二灘益深, 留屯洲中, 徒費糧餉. …”(『태조실록』 1권 총서 84번째 기가)

② “교주도(交州道) 작목별감(斫木別監) 노상(盧湘)이 아뢰었다. 벌채해 놓은 재목 1만여 개를 지금 곧 운반하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비 온 뒤에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交州道

4) 최승순 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1985, 13쪽.

5) 최승순 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1985, 13쪽.

斫木別監盧湘啓曰: "所斫材木萬餘條, 若於此時, 刻日盡輸, 其弊甚鉅。 願待雨作結桴流下便。" 上從之。"(『태조실록』 7권, 태조4년 2월 19일 계미 3번째 기사)

③ "... 임금이 말하였다. "본궁(本宮)을 짓고자 하나 농사를 방해할까 두렵다. 일찍이 사사로이 고용(雇傭)한 번(番) 내려간 대장(隊長) 60명에게 사랍마다 의포(衣布)와 구량(口糧)을 주어서, 낭천(狼川)에 이르러 나무 1천여 그루를 베어 뗏목[桴]으로 묶어서 내려 보내라." 하였다. ... 上曰: "欲營本宮, 慮恐妨農, 曾私雇番下隊長六十名, 人給衣布口糧, 至狼川伐木千餘條, 結桴以下。"(『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기사 4번째 기사)

④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강원도 백성들이 언제나 농한기만 되면, 목재를 벌채하여 뗏목[桴]을 만들어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와서, 서울의 강구(江口)에 이르게 되면 이를 매각하는데, 혹은 순전히 이것으로 업을 삼는 자도 있다 하니, 비록 그 생활을 영위하는 한 수단도 되겠지만, 이는 실상 곧 국가의 이익이기도 한 것이다... 傳旨漢城府: 江原道之民, 每當農隙, 斫材作桴, 沿流而下, 至京江賣之, 或有全以此爲業者, 雖其營生之資, 實是國家之利也。"(『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14일 병인 2번째 기사)

⑤ "...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우선 동구(洞口) 좌우(左右)에 극성(棘城)을 설치하고 또 겹질 벗긴 뗏목을 냇물 가운데에 세워서 적이 오는 길을 막았다가, 점차로 돌을 주워다가 쌓되, 막아야 할 곳을 친히 살펴서 서로 떨어진 거리를 채어서 아뢰라. ... 若不得已, 則姑設棘城于洞口左右, 且樹削皮杙木于川中, 以防賊路,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29일 병신 3번째 기사)

- ①과 ⑤의 기록을 통해서 뗏목이 강을 건너는 기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을 건너는 수단으로 이용한 뗏목은 ①과 같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뗏목의 기능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면서 ⑤와 같이 "뗏목을 강바닥에 설치해 강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목책(木柵)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②와 ③의 기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궁궐의 재목을 충당하는 방편으로 뗏목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필요한 목재를 산간의 재목들을 이용해 충당한 것으로 특히 강과 인접한 지역에서 강을 이용해 뗏목을 엮어 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쉬운 목재 운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의 기록은 목재를 이용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

다. 대량의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뗏목을 이용하였는데, 여기서 확대되어 상업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1.3 조선 건국과 한강 뗏목

- 한강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에 4세기 무렵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써서 한강의 수로를 통해 군사와 물자를 수송하였으며, 신라에서도 한강의 물길을 병참 수송로로 활용하였다.
- 특히, 조선의 건국과 함께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면서 궁궐 및 관청 개인 주택 등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강 상류 지역의 풍부한 원목 자원이 ‘한강 뗏목’을 이용해 운송되었다. 이처럼 한강 뗏목은 한강 최상류 지역인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평창군 일대의 이름드러 소나무를 운송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

①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함부림(咸傅霖)을 강원도에 보내어 장생전(長生殿)의 재목을 감독하게 하고, 인하여 원주 목사 조박을 문병하도록 명하고는 또한 궁내에서 쓰는 약을 하사하였다. 遣判校書監事咸傅霖於江原道, 監督長生殿材木。 仍命問疾原州牧使趙璞, 且賜內藥”(『태조실록』 태조 4년 8월 8일 기사 2번째 기사)

② “재인(梓人) 오덕해(吳德海)를 강원도에 보내어 선군(船軍) 6백 명을 거느리고 원주(原州)·영월(寧越)·인제(麟蹄)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으니, 장차 창덕궁(昌德宮)을 수축(修葺)하려는 때문이었다. 癸巳/遣梓人吳德海于江原道, 率船軍六百名, 斫木於原州、寧越、麟蹄等處, 將以修葺昌德宮也。”(『태종실록』 35권 18년 6월 14일 기사 1번째 기사)

- 조선 시대 초기부터 강원도의 목재가 뗏목으로 엮여져 한강을 통해 내려갔다는 것을 ①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②의 기록을 통해서 궁궐(창덕궁) 수리를 위해 영월을 비롯해 원주 그리고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어 보냈음도 확인된다. 곧 ①과 ②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 건국 이후부터 한강 물길을 통해 목재의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강의 물길은 본류와 지류를 합쳐 663.4km로 압록강 다음

으로 길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 초기부터 한강 상류에서 벌목한 나무를 서울로 실어 내리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이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한편, 조선 건국 이후 한강의 조운 기능이 강화되면서 한강은 짐을 실은 배들이 오르내리고, 상류 지역에서는 목재로 엮은 뗏목들이 서울로 이송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세조 무렵 대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한강을 통해 오가던 물품들을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의 영서(嶺西)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하니, 경기의 회계(會計)에 붙인 소금 8백 석(石)을 참선(站船)을 사용하여 전수(轉輸)하고, 강원도 회계(會計)에 붙인 소금 2백 석(石)을 여러 고을로 하여금 차례차례 인제(麟蹄)·양구(楊口)·홍천(洪川)·춘천(春川)·원주(原州)·정선(旌善) 등지에 전수(轉輸)하여서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우대하여 지급(支給)하고 재목(材木)과 교환(交換)하여 조선소(造船所)로 수송하여 배를 만들게 하소서. 江原道嶺西鹽甚貴，京畿會計付鹽八百石用站船轉輸，江原道會計付鹽二百石令諸邑次轉輸於麟蹄、楊口、洪川、春川、原州、旌善等處從民情願優給，貿易材木，輸造船所造作。”(『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30일 을미 3번째 기사)

- 위의 기록을 통해서 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서울에서 배로 소금이 올라왔으며, 강원도에서 생산된 목재가 서울로 운송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목재와 소금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이었음도 알 수 있다.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강원도 백성들이 언제나 농한기만 되면, 목재를 벌채하여 뗏목[桴]을 만들어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와서, 서울의 강구(江口)에 이르게 되면 이를 매각하는데, 혹은 순전히 이것으로 업을 삼는 자도 있다 하니, 비록 그 생활을 영위하는 한 수단도 되겠지만, 이는 실상 곧 국가의 이익이기도 한 것이다… 傳旨漢城府：江原道之民，每當農隙，斫材作桴，沿流而下，至京江賣之，或有全以此爲業者，雖其營生之資，實是國家之利也。”(『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14일 병인 2번째 기사)

- 또한 위의 기록을 통해서도 조선 시대 초기부터 이미 뗏목을 이용해 한강 상류에서 벌목한 목재를 운송하는 전문적인 ‘떼꾼’이 존재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조선 건국 이후 이루어진 한양으로의 수도 천도로 인해 많은 양의 원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뗏목을 엮은 목재의 수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곧 황장목(黃腸木) 등의 질 좋은 소나무가 조선 시대 초기부터 뗏목을 이용해 한강 물길로 서울까지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경북궁 중수와 한강 뗏목

- 한강이 목재를 운송하는 물길로 활성화 된 때는 1876년 대원군이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된 경북궁을 다시 중수하면서부터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273년 동안 방치되었던 경북궁을 중수하면서 공사 초기에는 신분의 구별 없이 고른 원납전 징수와 부역으로 공사가 순조로웠다.
- 그러나, 1877년 재목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목재가 모두 타서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원목 산지에 목재를 급히 보낼 것을 명했고, 한강 상류인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인제군 등지에서 뗏목으로 엮은 소나무 수송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경북궁 중수 당시의 기록을 담은 『영건일람(營建日覽)』에 “정선과 인제 등지에서 송금 정책으로 보호받고 있던 목재 대부분이 운송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인부들을 위로할 겸 종종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였다.

1.5 영월군 뗏목의 형성 배경

- 영월군 지역에서 뗏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건국과 함께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영월군 관내의 목재들이 한강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을 추측할 수 있다.
- 영월군 일대의 나무가 궁궐을 짓는 목재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기사 1번째 기사’이다.

“재인(梓人) 오덕해(吳德海)를 강원도에 보내어 선군(船軍) 6백 명을 거느리고 원주(原州)·영월(寧越)·인제(麟蹄)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으니, 장차 창덕궁(昌德宮)을 수축(修葺)하려는 때문이었다. 癸巳/遣梓人吳德海于江原道, 率船軍六百名, 斫木於原州、寧越、麟蹄等處, 將以修葺昌德宮也.”(『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기사 1번째 기사)

- 위위 기록을 통해 1418년에 창덕궁을 보수하기 위해 재인(才人)을 강원도로 직접 보내, 영월군을 비롯한 원주 및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위의 자료에는 나무를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때부터 영월군 관내에서 떼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한강이 물길을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영월 관내 목재들도 한강을 통해 운송되었으며, 이때부터 뗏목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당초에 베어온 추녀용 나무는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감독관을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며, 종이를 잘라 견본을 만들어 내려보내서 견본대로 잘라 보내게 하였습니다. 영월군(寧越郡)에서 보낸 추녀용 나무 30개 중에 대목(大木)들이 2개만 고르고 그 밖의 28개는 모두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혹시 대목들이 너물을 주지 않는다 하여 이처럼 퇴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재목색 제조(材木色提調)더러 낭청과 감역관을 데리고 강가로 나가 직접 적간하게 했더니, 그 재목은 뽕죽하고 가늘고 굵어서 과연 쓸 수 없었습니다. 이끌고 온 사람에게 물었더니 물이 얕아서 뗏목을 만들어 띄워보내지 못하고 백성을 징발하여 한 개씩 끌어내렸다고 하였습니다. … 추녀용 나무 28개는 얼음이 풀리는 대로 곧 다시 마련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 쓰지 못할 나무는 본 고을로 돌려보내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갓 수령들의 사용물(私用物)이 되고 말 것이니, 그대로 받아두었다가 안팎의 행랑을 짓는 재목으로 쓰도록 하소서. 그리고 강원도에 더 배정한 재목 수량 중에서 영월군은 작은 재목 28개를 감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江原道當初斫來衝椽，多不中用，故監斫官請推，剪紙爲見樣下送，使之依樣斫送矣。寧越郡所送衝椽三十條內，大不等只擇二條，其後 餘二十八條，竝皆不用云。臣等慮或大木等，以其不給人情，而如是點退，材木色提調，率郎廳、監役官，出往江山，躬親摘奸，其材尖小屈曲，果不可用。問諸領來之人，則水淺不能作筏流下，發民箇箇曳來云。…衝椽二十八條，解冰即時着令改備上送。而其不用衝椽，雖還給本官，民未蒙惠而徒爲守令私用之資。仍爲捧置，以爲月廊行閣之材。而江原道加定材木元數內，寧越小材二十八條，計減宜當”(『광해군일기』 121권, 광해 9년 11월 17일 무인 12번째 기사)

- 한편 위의 기록을 통해 영월군 전승 뗏목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17년(광해군9)에 영월군에서 내려간 “추녀용 목재 30개 가운데 대목들이 2개만 고르고, 28개의 목재를 쓸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에 조사해 보니, 실제로 목재들이 “뽕죽하고 가늘고 굵어서” 쓸 수 없었다. 나무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으니, “물이 얕아서 뗏목을 만들어 띄워 보내지 못하고, 한 개씩 끌

어내려” 서울까지 왔다고 한다.

- 곧 초가를 무렵 한강의 수량이 적어서 뗏목을 띄우지 못해 적심 형태로 나무를 서울까지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기록을 통해 한강 물길을 통한 영월 군에서의 뗏목 제작, 적심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황장금산(黃腸禁山)이 이미 모두 민둥산이 되었고, 오직 삼척(三陟)·강릉(江陵)에만 약간 쓸 만한 재목(材木)이 있는데, 판상(板商)들이 인연하여 들어오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 재목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산찰방(高山察訪)이 철령(鐵嶺)을 지키는 예(例)에 의거하여 수령(守令) 가운데에서 차원(差員)을 정하여 정선(旌善)·영월(寧越) 사이의 뗏목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소서. 黃腸禁山, 已盡濯濯, 惟三陟、江陵, 有若干可合之材, 而板商夤緣圖入, 致有侵犯之患。 請依高山察訪守鐵嶺之例, 守令中定差員, 以守旌善、寧越間浮下之路。”(『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8월 30일 을미 1번째 기사)

- 또한 위의 기록을 통해 1699년(숙종25)에 이르러 목재 벌목으로 인해 강원도 내 황장금산(黃腸禁山) 곧 국가에서 소나무를 보호하는 산이 민둥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삼척과 강릉 지역에 일부 쓸만한 소나무가 남아 있는데, 판상(板商)들이 벌목해 서울로 내릴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선과 영월 사이의 뗏목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1699년 무렵 국가에서 보호하는 소나무의 형태와 소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한강 물길을 이용해 서울로 내려보냈던 것을 확인된다.
- 한편, 영월지역의 뗏목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는 1867년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부터다. 이때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얻고자 산림 자원이 풍부한 영월에서 벌목한 소나무가 물길을 이용해 서울로 운송하였다.

“궁궐 중수할 때. 그때 동강의 뗏목이 제일 처음 내려갔어. 그때. 때 내려간 사람이. 그때는 궁궐을 중수하는 나무는 굵기도 이렇게 굵어야 하고. 곧기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 그 산마다 없는데 가 많고. 있어도 한두 개나 이렇거든. 그래서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로 내려간 사람이 정자 대자 용자 하는 사람이야. 고무래 정자야. 그런데 그 양반이 제일 첫 번 갔는데. 그 양반이 돈 좀 먹었지 뭐. 그 산주한테 가서 나무를 얻는 거야. 얻어. 궁궐 중수한다는데. 거기 협조해 다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얻으면. 한 산에 그런 게 있는 산도 있고. 없는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도 달구. 사람도 여럿이 꺼내 가지고 강가에까지 꺼내 가지고.”(홍원도, 2021.04.22.)

- 현재 영월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갔던 때꾼 홍원도도 영월에서 뗏목이 처음 내려간 것을 ‘경복궁 중수’ 때로 알고 있으며, 당시 궁궐 짓는 재목을 이곳저곳에서 모아 뗏목으로 엮어 내려간 사람이 ‘정대용’이라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때꾼 홍원도의 말에 의하면, “정대용은 자식이 없으며, 홍원도가 젊었을 때 정대용의 집에서 벼를 털어주는 등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한다.
- 현대에 들어와 영월군 관내의 때꾼들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도 활동하였다. 동강은 물론 서강에서도 1950년대 초반까지도 뗏목이 내려갔다. “뗏목 내려간다 그러면 강가에 나가서 보았는데, 뗏목이 강에 자작하게 내려갈 정도였다”⁶⁾라고 한다. 반면 때꾼 홍원도는 1962~1963년도에 한강 물길을 따라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갔었다.
- 북한강 유역에서 서울 가는 뗏목은 1947년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물길이 막혀 운행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영월군에서 서울로 가는 뗏목은 청평댐 하류의 팔당댐이 1966년 착공되기 전까지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선군에서 동강을 따라 영월까지 내려오던 ‘골안떼’도 1960년대 철도 부설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와 문산리 일대에서 출발하는 골안떼는 1970년대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

1.6 조선 시대의 송금(松禁) 정책

- 소나무는 다른 어느 나무보다 우리 민족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집을 지을 때는 좋은 목재가 되었고, 난방용으로도 이용되었으며, 흥년이 든 해에는 소나무 껍질 안쪽이 구황식품이 되기도 하였다.
-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푸른 생솔가지를 쫓는 금줄에서부터 마지막 길에 사용하는 칠성판(七星板)의 재료도 소나무이다. 심지어 강원도 사람들은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잡목’이라고 한다. 곧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 조선의 개국과 함께 도읍이 송도에서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궁궐과 관청을 신축하거나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집을 지을 때, 세곡을 운반하는 배를 만드는 데 소

6) 최동인, 남·77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2021년 10월 19일 채록.

나무가 널리 쓰였다. 이처럼 소나무의 수요가 급증하자 조선 시대에는 ‘송목금벌(松木禁伐)’이라는 송금 정책을 펼치게 된다.

-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5)과 『대전통편(大典通編)』(1785) 등의 문헌에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산림정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보면, 1424년(세종6)에는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었고, 1488년(세종30)에는 ‘송목금벌지법(松木禁伐之法)’을 시행하였다.
- 조선 시대 산림정책은 소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 인해 소나무 양육(養育)을 목적으로 입산을 금하는 ‘금산(禁山)’과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금하는 ‘봉산(封山)’ 등의 용어가 생겼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1808)에는 저명송산(著名松山)과 각도의 봉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저명송산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이 지정되었다.
- 조선 시대 송금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황장목(黃腸木)’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황장목은 몸통 부분이 누르고 재질이 단단한 소나무로 왕실의 관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쓰였고, 왕실 무덤의 재실을 조성하는데도 쓰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황장봉산(黃腸封山)은 황장목을 양육하는 산 가운데 봉산으로 정해진 산으로 일반 백성들의 벌목을 금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의 기록에 따르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 60곳의 황장봉산이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강릉, 삼척, 고성, 회양, 정선, 영월, 평창 등에 각각 한 곳씩을 포함하여 강원도에만 43곳의 황장봉산이 있었다. 이들 봉산은 대부분 강 가까이에 인접해 있어서 목재 운송의 편리함도 고려되었다.
- 그러나 황장목이 비싼 값에 거래되자 목재 상인들과 관원이 결탁하여 도벌하는 피해가 날로 심해졌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의 상황은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이 숙종에게 황장목의 단속을 청하는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장금산이 벌써 모두 민등산이 되었고, 오직 삼척, 강릉에만 약간 쓸만한 재목이 있는데, 관상들이 인연하여 들어오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 재목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산찰방이 철령을 지키는 예에 의거하여 수령 가운데 차원을 정하여, 영월, 정선 사이의 뗏목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소서.”

- 위의 내용처럼 황장목의 도별이 극심해지자 조정에서는 황장금표를 설치해 왕명으로 출입을 금하고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북궁 중수 때 황장목이 사용되면서 금표 자체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 현재 영월군 관내의 황장금표는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황장골에 높이 110cm, 폭 53cm의 크기로, 1802년(순조2)에 세운 것이다. 또한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에도 황장금표가 소재하고 있는데, ‘원주사자황장산금표(原州獅子黃腸山禁標)’라고 새겨져 있다.



<사진 4>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황장금표

2

뗏목 운송을 위한 벌목

2.1 수종의 선별

- 벌목 대상의 나무 선정부터 벌목, 뗏목을 통한 서울로의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과 권한은 목상(木商)에게 있다. 목상은 나무를 도매로 파는 사람으로 목상이 나무의 수종과 수량 등을 파악해서 벌목지를 선정한다. 이때 벌목한 나무의 운송까지도 염두에 둔다.
- 영월군 및 정선군, 평창군 등지에서 1960년대까지 활동하던 목상들은 흔히 ‘큰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보다는 강과 계곡이 인접해 있는 야산(野山)을 벌목지

로 선정하였다. 1,000m가 넘는 큰 산은 바람의 영향으로 곧게 자라는 나무가 많지 않고, 벌목 이후 목재를 운반하는데도 힘들기 때문이다. 곧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수도 있다.

- 벌목(伐木)하기 전 목재의 용도에 따라 알맞은 수종의 삼림을 선별한다. 목상이 원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면적 대비 충분한 나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벌목지를 결정한다.
- 현재 영월지역의 임야 면적은 2017년 기준 89,874ha로서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29,963ha, 활엽수가 29,796ha, 혼효림이 28,624ha로 되어 있다. 영월군은 물론 전통적으로 목재로 사용한 나무는 침엽수 가운데 소나무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강원도 사람들은 나무를 구분할 때 ‘소나무’와 ‘잡목’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만큼 소나무를 특별하게 여겼으며, 그렇게 하는 데는 소나무의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로 소나무지 뭐. 참나무는 쓰지를 않으니까. 안되지. 참나무는 잘 안 때. 가라앉어.”(홍원도, 2021.04.22.)

- 영월에서 서울까지 뗏목으로 운송된 것은 ‘소나무’ 단일 종이다. 따라서 밀집해 있는 소나무를 뗏목으로 운송하게 되는데, 영월군 관내 황장금표가 세워져 있던 곳들의 소나무가 특히 질이 좋은 소나무다. 목상이 삼림을 선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나무 균락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벌목, 운목(나무의 옮김) 등의 작업상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월에 정선 사람으로는 김성대라고. 김성대 목상이 컸는데. 그 사람 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연당 가서 잡업을 했어. 근데 그 양반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잡업을 하려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갔거든. 빌려 가서 잡업을 했는데. 나중에 본전만 가지고 아버지를 갚다주었거든. 갚다주고서. 왜 이자를 안 받았느냐. 아들한테. 아버지 돈도 니가 필요해서 꺾간 거는 반드시 이자를 줘라. 그래야지. 아버지 돈이라고 이자 안 주고 써버리면은 잘못하면 길을 잘못 간다 이거야. 김성대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 그 아들이. 그 연당서 잡업하다가. 영월 산림조합 거제도 관계가 있어. 우린 그 아들과 만나고 얘기도 하고. 성대도 알고. 성대 아들도 알고. 그리고 또 전 뭐이더라. 그 사람하고. 정선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목상을 크게 했어요. 정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목상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물길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 인부를 써도 알고서 쓰는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홍원도, 2021.04.22.)

- 목상이 벌목할 장소가 결정되면, 산 소유자와 협상을 해 관청에서 벌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림의 경우 과거 영림서(산림청)에서, 사유림일 경우 해당 군청 산림과나 산림계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벌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960년대 영월군에서는 정선 출신의 ‘김성대’라는 목상이 크게 하였다고 한다.

2.2 벌목 시기와 크기

- 벌목은 ‘목재를 베는 일’을 가리킨다. 벌목은 목재가 필요한 시점과 나무의 이동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무가 물이 내렸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무에 수분이 있을 때 벌목하면 나무로 도구를 만드는 과정 곧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변형되기도 하며,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할 때도 휘거나 굽는 등 도구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음력 10월부터 다음 해 2월이 벌목의 적기였다. 이는 아래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년 가을과 겨울에 비록 다시 요량하여 마련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름 장마에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린 뒤에 뗏목을 만들어 올려 와야 할 것이니,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 다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형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재목을 모집하여 들이는 일은 누처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지만, 재목은 포목과 같이 부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터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 금년 겨울철에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물가로 끌어내려 내년에 물이 불을 때 뗏목을 만들어 올려 오도록 하며 … 今年秋冬，雖更料理措辦，而必夏潦水漲，作筏上來，則明春日暖後，雖欲更爲始役，勢末由也。材木募納之事，累承聖教，而材木非如木布富民恒有之物，故自前絕無願納之人。… 俾於今年冬節，入山伐木，曳出水邊，以爲明年水漲作筏上來之計。…”(『광해군일기』 153권, 광해군 12년 6월 13일 세 번째 기사)

- 두 번째는 나무가 수분이 없어야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무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벌목하면 수분이 가득 차 있을 때보다 나무가 가볍다. 나무가 가볍기에 벌목 후 산 아래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나무를 뗏목에 의해 이동하던 시

절,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벌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나무가 가벼워야 벌목한 나무를 뗏목을 띄우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인 ‘하산 작업’과 ‘운목 작업’ 등이 편리하다. 또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던 벌목과 뗏목에 의해 이동하던 시절에도 뗏목을 연중(年中) 계속해서 강물에 띄울 수는 없었다. 눈이 녹는 해빙기(解氷期) 무렵부터 강물이 불어날 때가 뗏목을 띄울 수 있는 시기이다.
- 그렇기에 해빙기에 맞추기 위해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이르는 겨울철에 벌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가파른 산지에서 벌목된 나무들을 옮길 수 있는 길을 내기 수월했고, 봄철 강물이 불어날 때까지 충분한 목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겨울철에 벌목하면 나무를 산 아래로 나무를 옮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량이 적고 얼음이 얼어 있어서 뗏목으로 운송할 장소까지 직접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 영월군에서는 일부 벌목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벌목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목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요구되기에 농한기인 겨울철에 벌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겨울철 벌목이 끝난 후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양력 3월 말 정도에 뗏목이 서울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얼음이 얼기 전인 음력 10월 말까지도 뗏목이 출발하였다고 한다.
- 벌목은 나무의 수령과 무관하게 나무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는 뗏목으로 엮어 운송하기 위해서 나무의 크기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월에서 뗏목으로 운반되는 나무의 길이는 4척, 7척, 9척, 12척 등 다양했으며, 보통 9~12척 사이였다고 한다(한 척은 대략 23.7cm 임).

2.3 벌목 전에 지내는 고사

- 영월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는 산에서 소나무를 벌목하기 전에 반드시 산신(山神)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으며, 이를 ‘산치성’ 또는 ‘산신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벌목 전에 지내는 고사는 목상이 주도하였고 벌목 작업에 참여하는 벌목꾼들도 참여하였다. 벌목꾼이 뗏목을 운송하는 뗏목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 고사를 지내는 장소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벌목을 하려는 삼림이 바라다보이

는 곳이나 산림 안에서 넓고 ‘잘생긴 나무’를 선택해, 한지와 북어를 나무에 묶어 놓는다. 이 나무는 ‘절 받은 나무’라고 해서 절대로 벌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산을 향해서 상을 놓고 제물을 올린다. 이때 제물은 고사를 주관하는 목상이나 벌목 장소의 넓이와 참여하는 벌목꾼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돼지머리, 술[酒]과 포(脯), 과일 등으로 차렸으며, 메와 떡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제물이 차려지면 목상이 먼저 술잔을 올리고 축원하였는데, 이때 축문을 낭독하지는 않고 “벌목이 끝날 때까지 무사함” 구술로 빌었다.

- 다른 제의와는 달리 벌목 전에 지내는 고사에는 소지(燒紙)를 올리지 않고 끝나며, 벌목에 참여한 벌목꾼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고 숙련된 벌목꾼이 제물을 올린 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나무를 도끼로 베어 넘겼다. 큰 산일 경우에는 벌목꾼은 도끼질을 시작하기 전에 “어명이오.”라고 크게 외쳤는데, 이는 왕의 명으로 나무를 베는 것이니 동티를 내지 말라는 속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야산에서 벌목할 경우는 특별하게 큰 나무가 아니고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와 같이 나무 한 개를 벤 후, 고사를 지낸 제물로 고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음복(飲福)한다.

2.4 벌목 도구와 방법

- 흔히 ‘산판’이라고 부르는 벌목 현장에는 벌목꾼들이 목상을 찾아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와 목상이 직접 벌목꾼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벌목꾼들 7~8명이 함께 목상을 찾아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벌목꾼들은 목상에게 벌목지로 선정한 산 전체를 벌목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 나무를 벨 때는 산 아래에서 시작해 올라가면서 벌목하며, 벌목하는 것을 ‘작동’이라고 한다. 벌목꾼은 보통 2인 1조로 벌목을 했었다. 벌목꾼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현재 전동 톱을 이용하지만, 예전에 나무가 크면 ‘툼툼’이라 부르는 큰 톱으로 벌목하였다.
- 들툼은 두 사람이 마주 보며 밀고 당겨서 켜는 큰 톱이며, 폭이 좁아 굵은 나무를 켤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거도(鋸刀)’라 부르는 자루를 한쪽에만 박아 혼자 잡아당겨 켜는 톱을 주로 사용해서 벌목을 하였다.
-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켤 때는 톱날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톱날을 잘 세우지 않고 나무를 자르면 힘이 많이 들고, 나무도 잘 베어지지 않는다. 그렇

기에 벌목꾼들은 톱날을 가는 ‘줄’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톱이 잘 들지 않으면 수시로 톱의 날을 세워가며 톱질을 하였다.

- 벌목 방법은 톱이나 도끼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 한쪽은 톱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도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도끼로 자른 나무의 밑동은 톱으로 자른 나무에 비해 손실이 많은 편이고, 면이 거칠어서 다시 톱으로 작업할 때도 많았다.
- 벌목할 때는 나무의 이동을 고려해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벌목할 때 나무를 넘기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무의 지표면 가장 가까운 아랫부분을 도끼로 찍어 틈을 내고, 그 후 반대편에서 먼저 찍어 낸 틈보다 위쪽을 도끼로 찍거나 톱으로 잘라 처음 표시한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보통 산 아래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 벌목이 끝나면 톱이나 도끼를 이용해 ‘가지치기’를 하였다. 벌목한 나무를 가지치기해야 산 아래로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산판에서는 벌목꾼들뿐만 아니라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 목재를 켜는 사람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목재를 켜는 사람들을 ‘노꼬재이’라 부르며, 쇠스랑처럼 생긴 ‘각칼’을 이용해 나무껍질을 벗긴 목재의 사방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

2.5 나무 표식 작업

- 벌목이 끝나면, 벌목한 나무에 ‘표식(標識)’을 하였다. 요즘도 벌목을 허가한 산림청에서 허가된 수량만을 벌목할 수 있게 철로 만든 표지인을 나무마다 표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목상마다 자신 나름의 표지가 되는 ‘인방망이’를 갖고 있어 벌목한 나무마다 도장을 찍어 놓았다. 이 인방망이 표식에 의해 벌목장에서 야적장까지 운반되는 나무는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어서 분실을 막을 수 있었다.

“나무에는 특별한 표시는 없고, 인이라고 나무에 도장을 찍어 놓아요. 그러면 인제 목상이 다르면 도장이 다르거든. 그래 도장을 찍어 놓아요.(홍원도, 2021.04.22.)

- 특히 인방망이는 목상에 따라 그 표식이 모두 달랐다. 그렇기에 자신 소유의 나무 식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벌목 후 반드시 인방망이로 표시를 하였다. 목상은 집사를 시켜 나무마다 인방망이에 검은색 유성 페인트를 묻

혀 망치로 치듯 도장을 찍어 자신만의 표식을 하게 한다. 인방망이는 쇠막대 끝에 지름 5~8cm 내외의 쇠로 양각된 도장으로 전체 길이는 30~40cm 정도의 크기였으나, 작은 것은 10~15cm 되는 것도 있었다.

2.6 벌목꾼의 금기

- 벌목꾼들은 작업할 때 바로 막 자른 나무의 그루터기에 올라앉거나 서는 일을 금기하였다. 벌목 경험이 없는 인부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에 앉으면 경험이 많은 벌목꾼이 다급한 목소리로 내려오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 이는 나무가 잘렸을 때 그루터기를 통해 나오는 기운에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영월, 정선, 평창 등지에서 산관에 종사했던 벌목꾼들은 반드시 이러한 금기사항을 지켰다고 한다.
- 또한, 휘파람을 불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혹여 지나가던 행인이 모르고 휘파람을 불어도 벌목꾼들은 기분 나빠하여 때로는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

뗏목 운송을 위한 나무 옮기기

- 나무를 산 아래에 있는 ‘집하지’로 내려보내는 것을 ‘운목’ 또는 ‘하산’이라고 하였다. 운목은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나 강가로 옮기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무를 옮겨 길이에 맞추어 쌓는 것을 ‘중구’ 또는 ‘중구한다’라고도 한다.
-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옮기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계를 이용해 등짐으로 져 내렸다. 아니면 발구를 이용하거나 소를 이용해 직접 끌어 내리기도 하였다.
-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산관에서는 전문 ‘목도꾼’들에 의해 목도를 하거나 ‘통을 놓는다.’라고 해서 나무를 내릴 수 있는 나뭇길을 만들어 운반하였다.

3.1 ‘통’ 을 이용한 나무 옮기기

- 목재를 옮겨 쌓을 때 현재는 ‘굴착기’를 이용한다. 굴착기 앞에 산판용 일명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집게’라 부르는 장비를 부착해 벌목한 나무를 이동해 쌓거나 차에 실어서 운반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벌목한 나무를 온전히 사람 손에 의해 옮겨야 했다.
- 비탈이 심한 곳에서는 ‘통’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나뭇길을 만들었다. 나뭇길을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을 놓는다.’라고 한다. ‘통’을 이용해 나무를 내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제강점기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북쪽 지역에서 벌목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강원도로 이주한 이후에 통 놓는 기술이 전수되었다고도 한다.
- ‘통’은 산의 경사를 이용해 나무로 길을 놓고, 벌목한 나무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통을 놓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하기도 했지만, 이른 봄철 봄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 많이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지니는 마찰력 때문에 나무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나무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저녁에 물을 뿌려 통을 얼리기도 하였다. 통을 놓으려면 우선 나무가 충분히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가 있어야 한다.

“통짜는 거 알아. 받아 내리는 건데. 이 꼭대기에 나무 놓는데 사람이 있고, 끄트머리에 사람이 조금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도비를 가지고 찍어서 쥐 놓고 하는 거리고. 나무가 많아야 통을 놓지. 나무가 적으면 통도 못 놔. 만든 거는 안 했어도. 나무도 내려도 봤고. 뜯어도 봤고 그랬는데. 원래 통을 큰 산판은 인제 밑에서부터, 우에서부터. 인제 밑에서부터 치 놓거든. 통을. 치 놓으면 조금 놓고. 올라가 놓고. 또 한 단계 올라가 놓고. 놓고. 맨 꼭대기까지 예를 들면 저런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내려도 이 밑으로 단번에 내려 온다구. 통은 치 놓아야지.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놓는 사람들은 이 밑에 놓고. 그 위에 놓을 때는 이 밑에보다 조금 높여가지고 맞춰 놓는다고. 그게 원래는 바닥에는 가느다란 나무 세 개를 놓고 그 위로다 소품을 대고, 그 위에다가 큰 나무로 품을 댄다고. 그리고 나무통이라는 걸. 나무가 일곱 개가 연결되서 딱 가는 거야. 그래 거기도 받침도 한 것도 나무를 도꾸로 찍어 가지고. 그 새간에다가 돌이고 낭구를 깎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다고.”(홍원도, 2021.05.12.)

- 통을 놓을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놓는다. 통 아래에는 나무가 더

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나무를 가로로 먼저 대놓고, 올라가면서 가는 나무들을 경사진 골짜기를 따라서 세로로 놓는 것이다. 그리고 통의 가장자리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아야 한다. 내려가는 나무가 통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을 놓고 나무를 내려보낼 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 있다가 나무가 걸리면 밀어서 내려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통을 잘 놓으면 중간에 사람들이 없어도 가능했다.

- 통은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해 나무가 벗어나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만든 길로, 벌목한 나무를 이용하여 골짜기가 일정한 지형에 만들었다. 나무가 흘러내리는 중심부는 비교적 가는 나무를 놓고, 양쪽으로 굵은 나무를 놓게 되면 우묵한 지형의 특성과 맞물려 둥근 관을 반으로 자른 반월형 형태로 만들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연결하면 나무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도 밖으로 통겨지지 않는 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월지역에서 사용되는 통은 산의 골짜기를 이용해 나무를 땅에 깔아서 만드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지형이 일정하지 않고 파인 곳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밑에 기둥을 세워 통을 받쳐주는 잔교(棧橋)를 만들기도 하였다.
- 벌목한 나무는 밑동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여 통을 통해 내려보냈다. 모든 나무를 다 내려보낸 후, 통을 놓는데 사용했던 나무를 맨 위쪽부터 해체하여 다시 내려보내면 통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산 아래까지 통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중간중간에 원목이 모일 수 임시 야적장인 ‘중간토장(中間土場)’을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통을 만들어 집까지 내려보냈다.

3.2 소를 이용한 나무 옮기기

- 벌목한 나무는 소를 이용해 옮기기도 하였다. 소를 이용해 나무를 옮길 때는 소 뒤에 ‘발구’라는 도구를 달아서 운반하기도 하고, 직접 소를 이용해 나무를 끌어 내리기도 하였다. 발구는 산간 지역에서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반 도구이다.
- 서까래 굽기의 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쪽 끝에는 멩에를 연결한다. 반대쪽에는 썰매처럼 땅에 끌리게 해서 나무를 싣는다. 발구는 산에 눈이 왔을 때나 겨울철 산에서 뽕감 나무나 물건들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우차(牛車)가 다닐 수 없는 곳에서도 발구를 이용해 나무를 내리기도 하였다. 발구

는 바퀴가 달려 있지가 않다. 썰매처럼 눈에서 끌 수 있게 만들어 나무를 내리는 것이다.

- 또한 소를 이용해 직접 나무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소를 이용해 나무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가 나무를 끌 수 있게 미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줄을 넣어서 소에 연결해 나무를 내린다. 이때 밧줄은 주로 칩을 꼬아 만든 줄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피나무 껍질로도 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다음 나무에 연결한 밧줄을 소 등에 연결해 나무를 내렸다. 소를 이용해 나무를 옮기는 것도 주로 눈이 많이 쌓인 겨울철에 할 수 있었다.

3.3 목도를 이용한 나무 옮기기

- 산의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평지가 많은 곳에서는 '목도'에 의해서 나무를 운반하였다. 두 사람 이상이 짝을 맞추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엮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을 '목도' 또는 '목도한다'라고 한다.
- 목도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나무를 운반하는 것으로 목도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2m, 지름 10~15cm 정도의 목도채를 사용하였다. 목도채를 이용하여 나무의 양쪽에 목도 줄을 걸고 나무를 옮겼다. 목도채는 무거운 나무를 들었을 때 부러지지 않게 탄성력이 좋은 사시나무나 고로쇠나무를 주로 썼으며, 목도 줄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칩닝쿨이나 피나무 껍질을 엮어서 사용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밧줄을 사용하였다.
- 일반적으로 목도는 네 명에서 나무를 옮기는 '사목도'를 하였지만, 나무가 크고 무거운 경우에는 '팔목도'까지도 하였다. 목도를 할 때는 '목도 줄'이라고 부르는 다줄[밧줄]에 쇠붙이로 된 갈고리인 '찢조'를 매달아 사용하였다. '선줄꾼'이 나무에 찢조를 대고 줄의 균형을 잡으면, '목도채'를 가진 사람이 목도채를 줄에 끼워 넣고, 선줄꾼의 구령에 맞추어 목도를 해서 나무를 옮기는 것이다.
- 다만, 목도는 험하고 경사가 심한 산에서는 하지 않았다. 목도를 할 때 나무의 길이와 무게에 따라 이목도, 사목도, 육목도, 팔목도 등으로 구별되어 행해졌다. 영월지역에서는 주로 사목도였고, 궁궐의 건축에 이용되었던 큰 나무는 팔목도로 했다고 전한다. 사목도는 체격이 비슷한 목도꾼 4명이 두 조로 나뉘어 나무를 옮기는 것이다.

- 나무를 옮길 때, 목도꾼들이 서로 동작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목도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을 맞추기 위해 ‘목도소리’를 한다. 목도소리는 앞 조가 먼저 소리를 하면 뒷 조가 복창하는 방식으로, 피로를 풀고 나무를 옮기는 능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걸음걸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월군 관내에서 채록한 목도소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허영차소리

어기여 어기여

어여차 어히디여

어쳐야 어차

어여차 히이여

정희열, 남·65세, 영월군 남면 북쌍2리, 2001년 7월 30일 채록.

하영차소리

어기여 어차 아하

이러면 인제 땀벼 드는 기여 목도꾼이

어기여

어차

무겁다

어차

어호호 돌이 무겁다

어기여차 발 맞춰라

어기여 어차 호호

눈치 봐가며 발맞춰라

어기여 어차

놓고

놓고라는 거는 인제 쉬라는겨.

금병철, 남·82세, 영월군 서면 광전2리, 2001년 7월 15일 채록.

“준비하지는 것을 ‘허~정’이라고 하지. 허~정하면 준비하고, ‘차’하면 힘을 쓰는 거야. 같이. 허~정~차 하면 힘을 쓰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발맞추는 거야. ‘허정차~ 허정차~ 허정차~’하지. 네 명이 해도 목도 소리는 똑같아. 발맞추는 노래이니까 발맞추는 시간에 따라 노랫말을 넣지.”(홍원도, 2021.09.17.)

- 목도소리의 사설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거나, 메나리조 리듬의 단순한 반복으로 소리를 주고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영월지역의 목도소리는 위처럼 “오 허이”의 느린 소리로 시작해 “허여차 허여”의 빠른 소리로 이어진다. 간혹 앞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라”, “돌아가라”라는 사설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 놓고”라는 사설과 함께 숨을 가다듬었다.

3.4 물길을 이용한 나무 옮기기

- 벌목한 나무를 뗏목으로 엮을 곳까지 물의 힘을 빌려서 옮기는 것을 ‘적심’ 또는 ‘만강풀이’ 라고 한다. 적심은 강이나 하천에서 뗏목을 만들기 어려우면, 나무를 강에다 밀어 넣어서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영월에서의 적심은 동강 또는 옥동천 등지에서도 많이 하였으며, 주로 뗏목을 띄우기 어려운 시기인 늦가을에 상류에서 적심을 해 하루로 떠내려 보냈다.

적심은 가을에 주로 많이 하지. 가을에, 적심이라는 거는. 그걸 적심이라고도 하고 그냥 만강풀이라고도 하고. 만강풀이. 그러니까. 나무를 강에다 막 쥘 넣는 거야. 그러니까 강이 가득 찬다는 말이야. 찰 만자 만강이거든. 그래 놓고 양쪽으로 사람이 몇 사람 내려가고 하면서. 사람이. 나무가 자꾸 가로 붙거든. 그러면 사람이 양쪽으로 내려 가민. 사람이 내려오면서 자꾸 밀어 넣고. 또 저. 후미져서 나무가 안 내려 가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배를 한 척 가지고. 그 나무를 후리를 해 가지고서. 몰아내서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해본 일인데. 저 와이어 줄. 이런 거를 강을 건내 질러서. 그것도 약간 대각선으로. 강을 건내서 질러 놓고. 땅에다 지팡이 양쪽으로 질러 놓고. 그래놓고 거기다 낭구를 한 토막씩 붙이는 거야. 좀 굵은 나무를 그래 내려오다 나무에 부딪혀 비쪽하게 한 쪽으로 대각선으로 해 놓았으니. 몰린단 말이야. 그럼 가세에서 자꾸 꺼내면은 다 꺼내. 그래 적심을 만강풀이라고. 강을 채워 가지고 간다고 만강이라고.(홍원도, 2021.05.12.)

- ‘적심’을 하는 것도 하도급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영월군에서는 ‘적심’ 하는 사람들을 ‘포리꾼’이라고 불렀다. ‘적심’도 흐르는 강의 수량에 따라서 걸리는 시

간이 다르다. 물의 양이 많으면 일찍 끝나지만, 물의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 하도급을 받은 포리꾼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포리꾼은 보통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 포리꾼은 뗏목으로 엮거나, 도로나 철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으로 실어 운반할 자리에 ‘와이어’를 강 건너로 비스듬하게 걸어 놓는다. 줄을 비스듬하게 걸어 놓는 것은 나무가 한쪽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줄 중간중간에 큰 나무를 매달아 놓는데, 하류로 떠내려오는 나무들이 줄에 매달아 놓은 나무에 부딪히면서 걸리게 하려는 것이다.
- 특히, 나무가 내려오다가 큰 바위에 걸리면 이어서 내려오던 나무들이 차례로 걸려, 큰 덩어리와 같은 ‘더미’를 이루어 더는 내려오지 못하게 된다. 이때 더미를 이룬 나무를 터 주어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덤뽀미’라 한다. 덤뽀미도 포리꾼이 맡아서 했는데, 포리꾼은 강가로 내려가면서 걸린 나무들을 강 안으로 밀어 넣는다. 만약 강가로 내려가는 포리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걸린 나무를 강 한복판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 나무가 아래로 내려오면 강을 건너질러 놓은 줄에 걸린다. 그러면 포리꾼들이 나무들을 올리고, 목상은 수량을 파악한다. 이때 수량이 다르면 포리꾼이 상류로 올라가면서 나무가 걸렸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4

뗏목 제작 시기와 준비

4.1 뗏목 엮는 시기

- 영월의 목상들은 봄이 오기 전 나무를 목적지인 영월 덕포나루나 서울까지 안전하게 옮길 노련한 앞 사공과 뒤 사공을 미리 정해서 알린다. 그리고 봄이 되어 강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린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서 얼었던 강물이 점차 녹는 4월 말경에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면 뗏목을 만들어 떠날 준비를 한다.

“우리 갈 때는 봄에 사월 말일경이나. 그 무렵이 될 거야. 그래서 뗏목이 봄에 일찍 내려가면은 그때는 눈이 많이 쌓였다가 눈이 녹은 물이거든. 제일 빨리 갈 때가 눈 녹은 물에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야. 해마다.”(홍원도, 2021.04.22.)

“한여름에는 위험성이 많지. 왜 그러냐면은 대수가 지면은 그냥 놓칠 수가 있거든. 대수가 지면은 가에 붙여 놓아도. 한여름에는 잘 안 가고. 봄하고 가을로다 많이 가고. 좋기야 가을에 추울까 봐 겁이 좀 나지만은 봄에는 따서 가지고서 사람이 고생을 안 하니까. 봄이 더 낫지 뭐.”(홍원도, 2021.04.22.)

“뗏목 만드는 시기는 목상이.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목상이 시기를 정하는 거지. 사공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지. 만약에 물이 아주 작을 때 하면은 70만 원 하던 거를 100만 원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돼지. 합의해야 해. 가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홍원도, 2021.05.12.)

- 뗏목이 강 하류로 가장 잘 내려갈 때가 장마가 지고 난 후, 한 여름철 수량이 많을 때일 것 같지만. ‘눈 녹은 물’에 뗏목이 가장 잘 내려간다고 한다. 오히려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뗏목을 강변에 부착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비가 내려 ‘대수’ 곧 큰물이 내려올 수 있기에 잘 내려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른 봄이나 늦가을 무렵에 뗏목을 많이 제작해서 하류로 내려간다.
- 뗏목을 엮기 위해서는 먼저, 강변에 쌓아 놓았던 나무를 풀어 내린다. 나무를 풀어 내릴 때는 나무를 하나씩 들어내지 않고 한꺼번에 무너트린다. 이때 경험 이 많은 때꾼이 쌓아 놓은 나무에 올라가 ‘둔장’을 나무 사이에 박아 넣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둔장을 당기면 바깥쪽 나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다. 나무가 강에 풀리면 때꾼들은 두 명씩 한 조가 되어 강물에 들어가 뗏목을 엮기 시작한다.
- 뗏목을 엮을 때는 모든 작업이 물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꾼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를 모으는 사람과 뗏목을 엮는 기술자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한다. 물에서 뗏목을 묶으면 부력을 이용해 뗏목 엮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류로 내려갈 뗏목이기에 때문에 물에서 직접 엮는 것이 효율적이다.

4.2 뗏목 제작 자재와 도구

1) 뗏목 제작 자재

- 뗏목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레(노), 당타래, 강다리, 새끼줄, 때뿔, 샷대,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① 그레(노)



<그림 2> 그레(노)

- 뗏목의 '그레'는 배에서 '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뗏목의 좌우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역할이고, 물을 헤쳐 뗏목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뗏목 한 바닥(1기)에 두 개의 그레를 앞뒤로 설치한다. 다만,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곧 부싯돌배기를 지날 때 뗏목이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앞에 그레 두 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합수머리를 지나고 나서는 그레 한 개를 해체한다.

“그레는 소나무. 소나무. 그러니까. 다른 나무 잡목으로 만들어도 되기는 되겠지. 안되지는 않겠지만. 무거워. 다루기가. 소나무 보다. 그리고 깎기도 잡목 깎는 게 소나무 깎기보다 힘이 더 들고. 길이가 사메타. 아니 아니 오메다 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제. 여개서 인제 여기 동새가 이렇다면은 삼분의 이 정도 넘어와서 사람이 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래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오메다 정도 하지. 서울 가면은 그레 같은 거는 버리고 오지.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아. 떼 내려갈 때 또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가면 이거 화목으로 들어가는 거야.”(홍원도, 2021.04.22.)

- 그레는 너무 마르지 않은 탄력성이 있는 소나무로 깎아서 만든다. 소나무가 깎기가 편하고, 가벼우므로 다루기가 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낙엽송을 이용해 그레를 만든다. 그레는 뗏목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나무 굵기가 7~10cm 정도, 길이는 뗏목의 길이가 20m 안팎일 경우 5.5~6m

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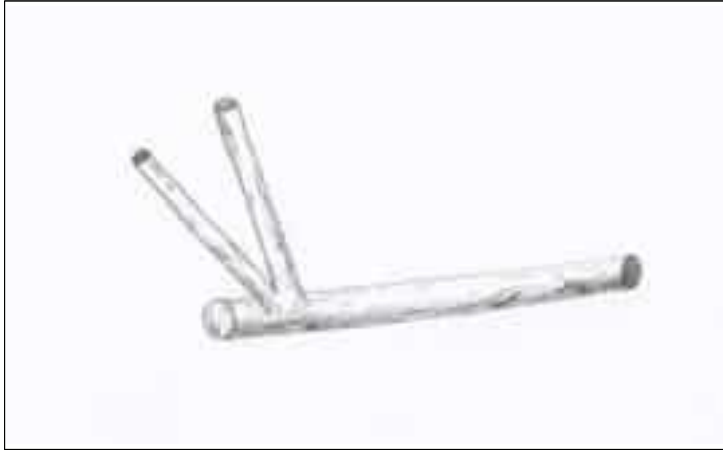
<사진 5> 그레 만들기1



<사진 6> 그레 만들기2

- 그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에서 톱으로 베어 온 소나무(현재 낙엽송)를 낫과 도끼, 도비 등을 이용해 꺾질을 벗겨 고정하고, 자귀(목재를 찍어서 깎고 가공하는 도구)로 그레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나누어 깎아 가면서 모양을 잡는다.
- 그레의 아랫부분은 널빤지 모양으로 양면을 평평하게 하며,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가운데는 두껍고 바깥쪽으로는 3~4cm 두께로 하여 깎는다. 현재는 자귀로 기본 모양을 잡은 후 전동 톱을 이용하기도 한다.
- 한편, 그레의 윗부분인 사공의 손잡이는 굵기가 4~5cm 정도로 낫을 이용해 둥글게 깎는다. 또한 그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아랫부분의 양면을 균형 있게 깎기 위해 먹줄(떡통에 딸린 실줄로 먹을 문혀 곧게 줄을 치는 데 사용)을 이용해 금을 긋고 모양을 잡는다. 다 깎은 그레는 그늘에서 며칠 말려야 하기에 뗏목을 제작하기 전에 때꾼이 직접 만들어 놓아야 한다.

② 강다리(노 고정틀)



<그림 3> 강다리

- 강다리는 뗏목 바닥에 올려놓고 그레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 틀이다. 강다리도 소나무로 만들며, 그레를 만들 때 함께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한다. 또한 뗏목을 엮을 때 만들기도 한다.

“그레 얹히는 나무가 그렇게 긴 게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당타래 위에 얹어가지고 하는 거지. 강다리 구멍 뚫어 가지고. 강다리 얹히는 나무가 한 뿤. 이메다 정도 좌우간 해가지고. 요 그레 얹히는 나무야. 강다리라고 하면 강다리 구멍 뚫은 나무 하면은 이것을 하는 거야.”(홍원도, 2021.04.22.)

- 강다리도 뗏목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길이 1m 50cm~2m, 지름 12~15cm, 둘레 40cm 정도이다. 망치와 끌을 이용해 그레를 거치할 거치대를 끼울 자리, 곧 위에서 5~20cm 정도 되는 부분에 가로 7cm, 세로 9cm로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내고, 껍질을 벗겨서 건조한다. 뗏목을 제작하면서 폭 4~5cm, 길이 90~100cm 크기의 참나무 등의 잡목 2개를 V자형으로 연결한다.



<사진 7> 강다리 만들기1



<사진 8> 강다리 만들기2

③ 땀뿔



<그림 4> 땀뿔

- ‘땀뿔’은 원목을 연결할 때 당타래와 새끼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칩이나 느릅나무 껍질만 이용했는데, 1943년 영월화력발전소 건립 이후 삭도를 움직이는데 사용하던 와이어를 이용해 땀뿔을 만들어 사용한다.



<사진 9> 뗏목 만들기1



<사진 10> 뗏목 만들기2

- 현재, 뗏목은 나무에 박을 때 구부러지지 않는 강철 재질의 20cm 정도 크기의 철사(반생선 10번선)의 가운데를 30° 정도까지 구부려 사용한다. 뗏목은 근래에 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칩줄이나 느릅나무 줄만 사용하던 당시에는 없던 것이다.

④ 당타래



<사진 11> 당타래로 쓸 나무를 하는 거운리 주민들

- 당타래는 목재를 엮는데 사용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뗏목 엮을 나무를 강물에 띄어 놓고, 당타래를 가로로 놓은 후 새끼줄로 연결한다. 뗏목이 물을 타고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해서 탄력이 좋은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흔히 ‘잡목’을 주로 사용한다.

- 뗏목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소나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잡목으로 만드는 것이 당타래이다. 당타래는 뗏목 동세의 길이를 고려해 만들어야 하며, 지름은 5cm 정도이며, 길이는 뗏목의 폭을 3m로 했을 때 당타래의 길이는 3.5m 정도로 해서 준비한다.

⑤ 새끼줄



<사진12> 뗏목 제작에 사용하는 새끼줄1 <사진13> 뗏목 제작에 사용하는 새끼줄2

“썰줄을 이게 썰줄이라면 이쪽에 박고. 이쪽에 박고. 이게 썰줄이라면 원래 거기 당타래라는 나무가 있거든. 당타래를 이쪽에서 박고. 이쪽 넘어가서 박고, 또 이쪽으로 와서 박고. 이거(동채)를 하나하나 만들거든. 둘이 양쪽에서. 동채를 하나는 이쪽에서 못을 박고. 하나는 이쪽에서 못을 박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를 대어 놓고. 저만큼 당타래 한 개씩. 줄 한 개씩 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에 내 박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내 박고. 그래서. 그게 나무가. 굵은 게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한 토막이라도 더 매려고. 그 굵은 거 끼리 이렇게 굵은 거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라면 간격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묶고 이런다고.(홍원도, 2021.04.22.)

- 뗏목을 엮을 때 예전에는 썰 꺾질이나 느릅나무 꺾질을 벗겨서 주로 사용했고, 썰 꺾질에 새끼줄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썰 꺾질 및 느릅나무 꺾질 등을 채취하기가 어렵기에 짚으로 만든 새끼줄과 나일론 줄을 섞어서 뗏목을 엮는다.
- 뗏목을 엮을 때 사용하는 새끼줄은 보통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16mm 정도의 굵기를 사용한다. 새끼줄을 세 가닥으로 꼬아서 사용하는데, 새끼줄은 질기지 못하고 끊어질 우려가 있어 새끼줄 두 가닥에 나일론 줄 1가닥을 섞어서 사용한다. 뗏목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새끼줄과 유사하면서도 튼튼한 ‘녹화끈’을 사

용하기도 한다.

2) 뗏목 제작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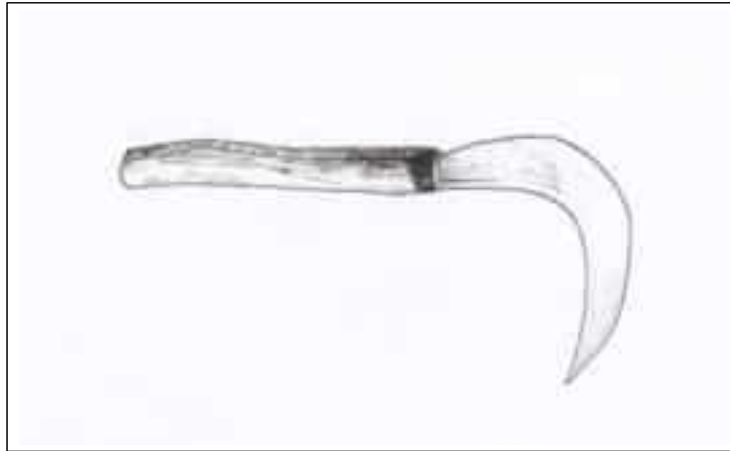
① 도끼



<그림 5>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도끼

- 도끼는 그레를 만들 나무를 베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레 아랫부분의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도끼는 썰기를 닮은 쇠조각 한쪽에 날을 내고, 반대편 두꺼운 쪽에 날과 평행으로 긴 자루를 박았다.
-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용하는 도끼에는 때림도끼, 양날도끼, 손도끼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끼는 ‘때림도끼’에 해당한다. 때림도끼는 볼이 좁고 자루가 긴 형태이다. 도끼날의 길이는 20cm이며, 도끼자루 끝에서 날까지의 길이는 90cm이다.

② 낫



<그림 6>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낫

- 낫은 나뭇가지를 치고 꺾어 넘기는데 쓰는 ‘ㄱ’자 모양의 도구로 자루가 긴 낫과 짧은 낫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낫에는 풀낫, 나무낫, 버들낫 등 종류가 다양한데, 뗏목 제작에는 ‘나무낫’을 사용한다. 나무낫은 날 등이 굽어 있으며, 스펀이 짧은 편이다.
- 낫은 뗏목 제작에서는 당타래로 사용할 나무의 가지를 치거나, 그레로 사용할 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며, 그레 윗부분인 사공이 잡을 손잡이를 다듬는데도 낫을 사용한다. 뗏목 제작할 때 사용하는 낫자루의 길이는 31cm이며, 낫날의 길이는 20cm이다.

③ 자귀



<그림 7> 그레 제작에 사용하는 자귀

- 자귀는 목재를 찍어서 깎고 가공하는 도구로, 원목을 도끼나 큰 톱으로 종횡으로 잘라낸 것을 각재(角材)나 판재(板材)로 가공하는 데 주로 이용한다. 날은 ‘절삭날’이라고도 하며 날의 반대편을 ‘자귀머리’라고 부른다. 자귀는 목재 가공에 오랫동안 사용한 도구로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다.
- 자귀질은 도끼와 같이 큰 힘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굴곡면이나 거친 면을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힘보다는 정확하게 깎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귀는 길이에 따라서 대자귀(길이 1m), 중자귀(길이 50~60cm), 소자귀(길이 30~40cm) 등으로 구분한다.
- 그레 제작을 할 때는 주로 ‘중자귀’를 사용하며, 날에서 자루까지의 길이가 58cm이다. 자귀는 그레와 강다리 제작을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기는데 주로 사용하며, 그레를 도끼나 톱으로 모양을 잡은 후 거친 부분을 다듬거나, 그레 모양을 잡는데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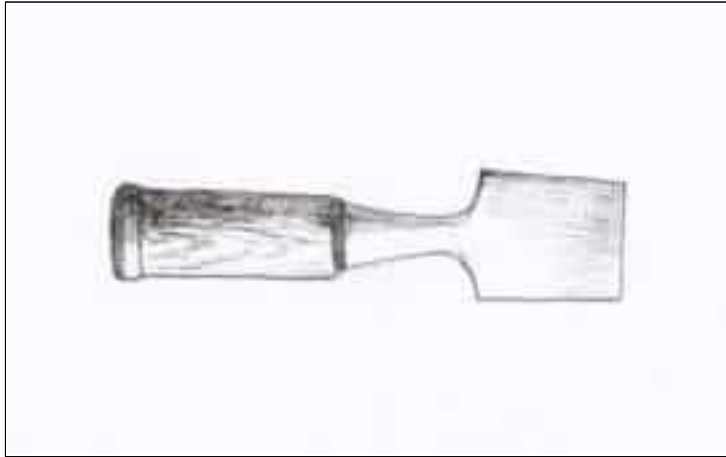
④ 짚쇠[도비]



<그림 8> 나무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짚쇠[도비]

- 짚쇠[도비]는 벌목 현장에서 나무를 옮기거나, 그레 제작을 위해 소나무나 낙엽송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벌목 현장이나 뗏목 제작 현장에서는 보통 '도비'라 부르고 있는데, 도비는 일제강점기 무렵 물건을 옮기거나 하역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다가 옮기는 도구로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벌목 및 뗏목 제작 현장에서 사용하는 짚쇠[도비]는 전체 길이가 140cm이며, 나무를 짚는 부분의 쇠는 16cm이다.

⑤ 끌



<그림 9>강다리 제작에 사용하는 끌

- 끌은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깎고 다듬는 도구이다. 고어로는 ‘착(鑿)’이라는 한자를 쓰고 ‘끌’이라고 읽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하던 도구로 끌의 종류에는 때림끌[날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구멍을 깊게 팔 수 있는 끌], 박이끌[끌을 때려서 파내려는 구멍의 자국만을 내는 데 사용하는 끌], 푼끌[날이 좁고 작은 끌로서 작은 구멍을 파낼 때 사용하는 끌], 쌍장부끌[목재를 맞출 때 만드는 축의 일종인 쌍장부 구멍을 뚫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쌍날이 달린 끌], 손끌[망치로 두드리지 않고 손으로 밀어서 다듬는 데 사용하는 끌] 등 매우 다양하다.
- 뗏목 제작에서 사용하는 끌은 ‘때림끌’에 해당하며, 강다리에 직사각형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한다. 망치로 끌의 한쪽을 때려가면서 강다리에 ‘V’ 모양으로 그레 거치대를 쫓는 구멍을 낸다. 끌의 자루부터 날까지의 길이가 24cm이며, 날의 길이는 8cm, 폭은 4cm이다.

⑥ 뗏목 제작 틀



<사진14> 뗏목 제작을 위해 만든 틀

- 뗏목을 엮을 때 새끼줄을 고정하기 위해서 ‘뗏목’을 사용한다. 뗏목은 일제강점기 후반인 1940년대 후반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뗏목 제작을 앞두고 미리 만들어 두는데, 영월읍 거운리에서는 뗏목을 만들기 위해 뗏목 제작 틀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 뗏목 제작틀은 폭 12cm, 길이 292cm, 두께 5cm로 된 나무판자로 60cm 간격으로 못을 철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그렇게 박아 놓는다. 그리고 3~4명이 앉아서 절단기로 자른 16cm 철사를 구부리는 데 사용한다. 철사를 구부릴 때 뗏목 제작틀에 박아 둔 못에 철사의 절반을 집어넣고, 앞부분을 납작하게 든 30cm 정도의 쇠판에 나머지 부분을 집어넣어 돌리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5

뗏목 엮는 과정

5.1 뗏목 제작 인원 구성

“2인 1조래요. 원래 2인 1조. 정선에서 영월까지 오는 거는 소규모야. 규모가. 그게 폭이 한 3m 50cm. 길이가 한 30m 좌우간 그랬고, 영월에서 절구를 해가지고. 영

월에 서강이 합하니까. 그 밑으로는 갯벌이 넓고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선에 내려온 거를 세 개를 묶어 가지고. 2인 1조가 되어서 서울 가고 그랬어. 때를 절구하는 것도 2인 1조로 묶어. 묶는 것도. 때를 가지고 갈 사람들이 묶지. 본인이 묶어 가지고 내려가지. 초보자는 운제나 익숙한 사람. 때를 타본 사람한테 가서 초보자가 배우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서울 가는 것도 첫 번 가는 사람들은 만날 뒤에 한 다고. 뒷 사공 한다고. 앞에 물골도 모르고. 이러니까. 뒷 사공 하다가. 뒷 사공을 한 번이나 두 번 해보면. 고 다음에 이제 앞 사공을 하고 그러는 거지.”(홍원도, 2021.04.22.)

“부자지간에 저 서울 가는 거는 한 게 없어요. 저 위에 장화동에서 김태순이 하고. 그 아들이 김인동이인데. 그 두 부자가 하면은 돈이 오붓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타는 걸 봤어요. 부자가 하는 거는 우째다가 그런 일이 있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안 대들고 그러니 그렇지. 다른 사람이 사정하면 이웃 간에. 의리적으로 이웃 간에 같이 가지. 위험하니 부자지간에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돈에 욕심이 나가나. 옆에 누가 같이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만약 예를 들어서 때가 세 바닥인데. 사공이 셋밖에 없다. 그러면 세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럴 때는 초보자 원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러지.”(홍원도, 2021.04.22.)

- 뗏목 제작을 위해 강물에 나무를 밀어 넣고 때꾼(사공)들이 2인 1조로 직접 뗏목을 엮는다. 일반적으로 사공은 이웃 간에 같이 하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 나무를 뗏목으로 엮는 것을 ‘결구’라고 한다. 그래서 ‘엮는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결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때꾼들은 자기가 탈 뗏목을 직접 엮었기 때문에 최대한 튼튼하게 엮기 위해 애를 썼다. 뗏목을 엮는 기술도 때꾼에 따라 제각각이었고, 강물에 띄워놓은 나무들 가운데서 크기와 길이가 맞는 나무를 골라 뗏목을 엮는 것도 큰 기술이었다.

5.2 뗏목의 규모

1) 골안떼와 서울떼의 제작 기준

- 영월군에서 제작하는 뗏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곧 정선군에서 동강을 따라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까지 내려오는 ‘골안떼’와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서울까지 한강을 따라 내려가는 ‘서울떼’가7) 그것이다. 영월군 및 정선군 관내에서 동강이 흐르는 마을들에서 엮었다.

7) 정선군에서 영월읍까지 곧 동강을 내려오는 뗏목을 ‘골안떼’라고 부르나,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서울 가는 뗏목을 부르는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 가는 때’ 등으로 부른다. 여기서는 서울떼로

곧 벌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뗏목을 제작하는 장소가 변경된다.

“그런데 기준이 그때만 해도 만사이, 만사이야. 요새 사람도 제재소 가면 사이를 아는데. 한 사이가 뭐냐면 길이 4m에다가 나무 재는 자가 따로 있잖아. 한 치가 4m면 그걸 ‘한 사이’라고 해. 그래서 다섯 치가 되는 나무가 열두 대면 오 오는 이십오라고 해서 스물다섯 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한 토막에 몇 사이 나가느냐지? 분할하는 데 필요한 거지. 서울 가는 데 더 굵은 거나 작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한 바닥이 내려가면 한 바닥이 만 사이를 기준을 한다고. 그래서 정선에서 내려온 것이 삼천 사이 기준이고. 골안때는 삼천 사이 기준이고, 서울 가는 때는 만 사이 기준이야. 세 개를 한군데 묶어서 가는 거니까 만 사이 기준이야. 골안때를 세 개를 묶으니까 만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때를 세 개를 내려가면 두 개를 옆에 붙이면 되고, 하나는 반으로 잘라서 붙이면 돼.”(홍원도, 2021.04.22.)

- 목상과 띠꾼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뗏목의 규모가 있었다. 골안때의 경우 ‘삼천 사이’가 기준이고, 서울때의 경우 ‘만 사이’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사이’는 목재의 부피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위로 한자로 ‘재(才)’로 표기하기도 한다. 다만, ‘사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 목재의 가로*세로*길이가 각각 1치(30.3mm)*1치*12자(3,636mm)가 되는 각재(나무를 벌목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사각으로 가공해서 쪼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의 부피를 한 사이라고 한다.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사이는 30.3mm*30.3mm*3636mm이기에, 0.003338175m³가 된다. 그렇기에 골안때가 삼천 사이가 기준이라면 10m³이며, 서울때는 만 사이가 기준이기에 33m³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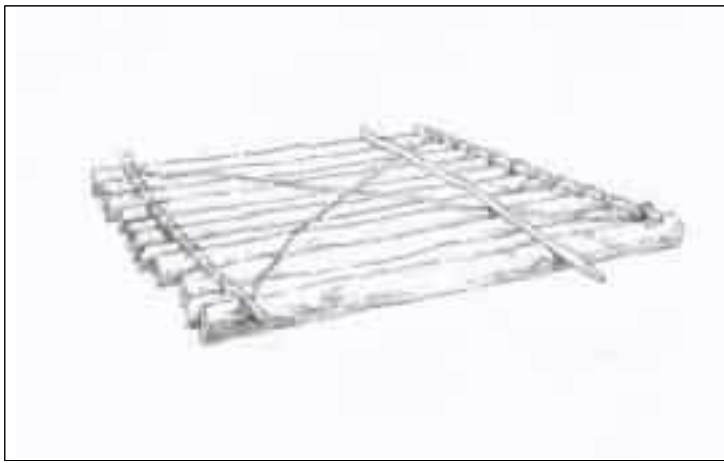
“그러니까.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질고 그러지. 그러면 한 40m. 인제 나무를 열두 자 나무를 4m 잡거든. 그러니까. 열두동 열 세동 잡으면은 뭐 한 50m 나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자 짜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로 서울 가는 거는. 열 몇 동가리 이래 가지고 가지. 동새를. 그게 인제 나무를 요런 거를 인제. 전부 묶어 한 동새라 그러구. 그걸 총 연결 하면 한바닥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동새 수가 기준이 아니라. 길이가 30m는 넘어야지. 동새가 보통 4m고, 그리고 3m, 2m 요렇게 나무를 잘러 가지고 다녔어. 앞애가 크지. 거기는 사람이 서서 운전을 하니까. 그 뒤에 3m도 있고. 2m도 있고. 그리고 맨 뒤에는 커야지. 서울 가는 거는 옆으로도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정선서 내려온 거 두 개를 붙여서 만들고. 나머지 한 개를 쪼개서 옆으로 붙

편의상 표현하기로 한다.

이고.”(홍원도, 2021.04.22.)

- 골안떼는 10㎡의 나무를 운송할 수 있게, ‘한 바닥’으로 만들고, 서울떼는 33㎡의 나무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한 바닥으로 제작한다. 따라서 서울떼 한 바닥은 골안떼 세 바닥을 합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동새’와 ‘바닥’



<그림 10> 한 동새

- 뗏목을 엮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동새[棟]’ 또는 ‘동가리’라고 한다. 동새는 나무를 당타래와 새끼줄 등으로 엮어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나무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둘레 20cm, 길이 270cm 정도의 나무로 제작할 경우, 한 동새를 만드는데, 13~14개 정도의 나무로 엮을 수 있다. 동새의 앞부분이 조금 좁고, 뒷부분이 넓은 형태로 동새 앞부분의 폭은 300cm, 뒷부분의 폭은 340cm 정도가 된다.
- 한편, ‘바닥’은 동새와 동새를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맨 앞 동새와 맨 뒤 동새에 각각 그레를 올려 강 하류로 나무를 운반하게 된다. 골안떼의 경우 5~6동새를 연결해 한 바닥으로 제작하며, 서울떼의 경우 12~13 동새를 연결해 한 바닥을 만든다.

5.3 영월 뗏목의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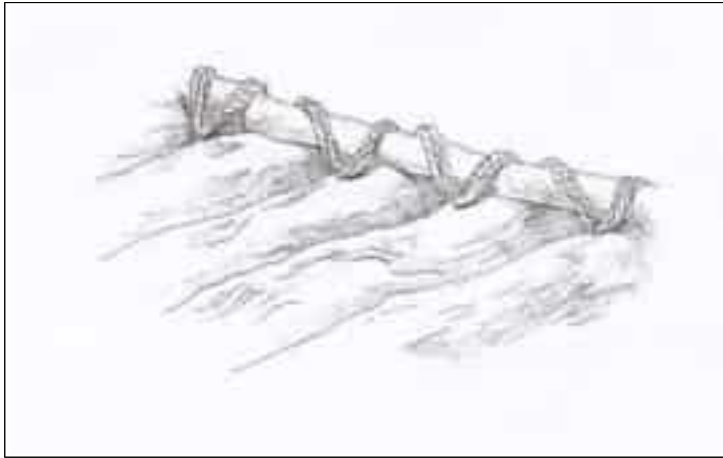
- 뗏목 제작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떼꾼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리꾼이 뗏목을 운행할 수 있으며, 떼꾼이 되기도 한다. 뗏목 제작은 2인 1조로 진행하며, 이미 준비된 나무와 그레, 당타래, 강다리, 새끼줄, 나이론줄, 떼못 등을 이용해 제작한다. 현재는 뗏목 한 바닥을 제작하는데 2인 2조로 제작을 하고 있다.
- 뗏목 제작은 떼꾼들이 강가에 쌓아두었던 나무를 발목에서 무릎 정도 되는 강물에 밀어 넣으면서 시작한다. 이미 뗏목 엮을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나무를 강물에 밀어 넣어 띄어 놓고 새끼줄(현재는 나이론 줄을 섞어서 사용함)과 떼못으로 결합하면서 제작한다.

1) 뗏목 엮는 장소

그렇게 해서도 앞으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영월에 가면 서강이 없지않아. 그러나 넓어지지. 바로 합수 위에 영월에 그 정양 석탄발전소 있을 때, 그 삭도가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삭도 있는 부근에서 절구를 했지. 그 덕포. 옛날에 삭도 있는 데라 그랬어. 신동에서 나온 갯물 있잖아. 그 좀 밑에 내려가면은 거서 절구를 했지. 낙화암 조금 위에.(홍원도, 2021.04.22.)

- 동강을 따라서 영월읍까지 내려가는 골안떼의 경우, 벌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뗏목 엮는 장소가 달라졌다. 그러나 서울떼의 경우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영월읍 관내에서는 영월읍 덕포리, 곧 낙화암 건너편 조금 위에서 서울가는 떼를 엮었으며, 김삿갓면 대야리와 각동리 사이에 있는 '맛밭'에서도 서울 떼를 엮었다고 한다.
- 서강을 따라서도 1950년대 초반까지 뗏목이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서강을 통해 내려온 뗏목을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새로 묶었던 장소는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으로 추정이 되며, 동강을 통해서 내려간 골안떼도 정양리 영월화력발전소 앞에 있던 댐을 무사히 지나고 나서, 맛밭에서 서울떼로 엮었다.

2) 동새 제작



<그림 11> 나무와 당타래를 묶고, 때뭇을 박은 모습

- 동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서 나무 원구(윗부분)는 원구대로, 말구(나무의 아랫부분, 뿌리 근처)는 말구끼리 모이도록 양쪽에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나무 위에 당타래를 놓고, 새끼줄로 지그재그로 연결한 후 때뭇을 박는다.
- 이때 때뭇을 박는 도구는 뭇이 V 자 형태이기 때문에 강에서 주운 돌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새끼줄은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든 굵은 줄을 사용하되, 미리 꼬아둘 필요 없이 뗏목의 동새를 제작 할 때 꼬아 가면서 사용한다. 물 위에 있는 나무를 움직일 때는 짚쇠[도비]를 사용한다.

“여 와서 묶는데 그거는 이런 뭇을 박은 게 아니고, 4m가 필요하면은. 약 4m 50 정도 잘라가지고, 나무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필요한 나무를.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느릅나무 덩굴이나 칩덩굴. 그거를 틀어가지고 당타래에다 묶어가지고 갔어. 그 궁궐 할 때는. 그 때는 뭇을 박은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서울 갔다 주고. 거기서 인제 구멍 뚫은 걸 잘라내야 써 먹으니까. 4m를 써먹으려면 사메타 오십 정도 잘라서. 그래가지고 가져갔어.(홍원도, 2021.04.22.)

- 뗏목을 엮는 줄은 몇 차례에 걸쳐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때꾼 홍원도에 따르면 경복궁 중수 무렵에 제작한 뗏목은 나무 끝에 직접 구멍을 뚫어 당타래와 나무를 느릅나무 껍질이나 칠 껍질로 만든 줄로 엮었다고 한다. 나무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면 구멍 뚫린 부분을 잘라내어 목재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래서 벌목할 때 나무의 길이를 50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랐다. 골안때의 경우, 뗏목 운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엮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때의 경우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엮었다.

- 그 후에는 나무에 구멍을 뚫지 않고 느릅나무나 칩 쩌질만으로 엮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40년 무렵부터는 때뿔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제작하는 뗏목은 짚으로 만든 새끼줄과 때뿔을 가지고 동새를 엮는다.

“이 한 동새라도 앞이 조금 좁아. 왜냐. 그 꼭대기 쪽을 가는 쪽으로 맨다고. 앞을. 앞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이 뒤가 넓어. 예를 들면서 가다가 바위에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도. 요 중간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간다 말이야. 뒤는 뒤가 넓지. 앞 사공은 앞이 좁지 않은. 뒷 사공은 뒤가 넓어. 동새마다 앞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개 동새줄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결 줄을 세 군데 묶어요. 앞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때가 구부러져야 하니까. 앞사공 딱 이 동가리 하고. 이 동가리는 물에 따라서. 간격을 꽤 많이 뒤. 많으면은 한 이십cm 이상 나가지. 왜냐하면. 저 앞에 바위가 있는데. 때가 이리 내려가니까. 핸들을 잡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져야. 앞이 구부러져야. 끌려가지. 앞이 안 구부러지면은 바로 내려가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 둘째것도 간격을 좀 늦춰놓고. 그래서 그레질하면 이게 구부러져야 피해 간다구. 복판에는 몇 동 지나서 그다음에는 꼭 묶어도 되는데. 앞에 두 동까지는 좀.”(홍원도, 2021.04.22.)

- 13~14개의 나무를 엮어서 한 동새를 만들면 원구와 말구가 굽기 차이가 있으므로 한 동새는 앞이 좁고 뒤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이 된다. 그러나 나무를 물 위에서 엮어 가기에 구부러진 상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당타래는 나무 끝에서 20cm 정도 위치에 놓이도록 하되, 당타래 양쪽 끝이 10cm 정도 나오도록 한다. 나무를 묶는 것이 마무리되면, 동새가 일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새의 모양을 바르게 잡기 위해 굵은 새끼줄로 대각선으로 고정하는데 그 줄을 ‘등줄’이라고 한다.
- 앞 동새의 맨 앞에는 당타래를 30cm 간격으로 두 개를 더 결합하며,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동새 뒷부분에도 30cm 간격으로 당타래 두 개를 결합한다. 또한 동새 중간에 207cm의 당타래를 가로질러 한 개를 더 부착하는데, 이는 그레를 올릴 강다리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 중간에 가로질러 설치한 당타래 앞에는 길이 110cm 정도로 당타래를 잘라 20cm 앞에 한 개를 더 부착한다. 이는 그레 손잡이를 연결할 줄을 매기 위함

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맨 앞 동새와 맨 뒤 동새를 동일하게 제작한다. 폭 3~3.3m, 길이 2.7~3.6m 정도의 한 동새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공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

3) 동새 연결하기

- 동새와 동새들을 연결한 것을 ‘한 바닥’이라 부른다. 동새를 연결할 때는 말구 쪽이 앞으로 향하게 한다. 특히 첫 번째 동새와 두 번째 동새를 연결할 때 30~50cm 정도 간격을 두고 연결해야 하는데, 첫 번째 동새에 설치한 그레(노)로 앞 사공이 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새하고 동새를 묶는 줄을 동새줄이라 그레. 이거는 등줄이라고 그러구. 나무와 나무에 대는 것을 당타래라 하고, 동새줄도 멍 굵이나 느릅나무. 파 가지고. 그래서 굵이 한 바닥. 때 하나 묶자고 하면은 정선에서 묶자고 해도. 한 60킬로. 한 짐 들어 가야 해. 한 짐. 내려갈 때 여우로 실고 가지. 운제든지. 저 정선서. 내려오는 기나. 정선 가는 기나. 좀 여우로 실고 가는게. 왜냐하면. 가다 깨지면 수리를 해야 하나까. 못하고. 줄하고 좀 여유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지.”(홍원도, 2021.04.22.)

- 동새의 좁은 쪽 곧 말구 쪽이 앞으로 가도록 동새를 연결하는 것은 뗏목이 내려갈 때 바위 등과 같은 장애물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동새부터 뒤로 연결되는 동새는 10cm 정도 간격을 띄워 연결한다. 동새를 연결하는 동새줄은 세 가닥으로 엮은 굵은 새끼줄로 동새와 동새를 세 번 정도 묶어서 연결하고 때뭇으로 고정한다.
- 만들어 놓은 동새 5~6개를 한 바닥으로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여 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동새를 만들기 시작해서 한 바닥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0~150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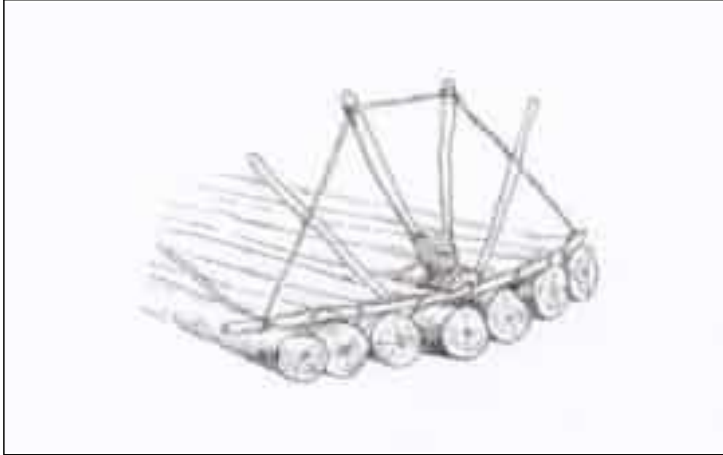
4) 강다리 고정하기



<그림 12> 강다리에 끼울 'V'자 형의 그레 거치대

“유동성이 좀 작게하기 위해서 줄을 지른 거거든. 그건 지르개. 이걸 뽑으면 뽑히고, 나무 새간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안 뽑히는데. 이걸 좀 그냥 쏘아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강다리는 잡목이야. 참나무나 느릅나무나. 이걸 잡목이야. 한쪽만 묶어도 안 되고, 이거를 묶지 않으면은 옆으로 이렇이렇 된다고. 그래니까.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는 거지. 그거를 그냥 강다리줄이라고 그러지. 강다리줄.”(홍원도, 2021.04.22.)

- 강다리는 그레를 뗏목에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V자 형의 그레거치대와 강다리줄, 지르개 등을 포함해서 강다리라고 한다. 강다리는 대략 80cm 되는 참나무나 느릅나무 2개를 V자형으로 미리 만들어 둔 받침대에 뚫은 구멍에 끼워서 고정한다.
- 뗏목 한 바닥에 앞과 뒤, 각각 한 개씩 2개의 강다리를 설치한다. 강다리를 설치할 때, V자 형의 그레거치대가 짧으면 고정하기 어렵고, 고정해도 튼튼하지 않으며, 그레를 저을 때 흔들린다. 반면에 V자 형의 그레거치대가 너무 길면 사공들이 그레 젓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강다리를 설치할 때는 높낮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



<그림 13> 강다리를 설치한 모습

5) 그레(노) 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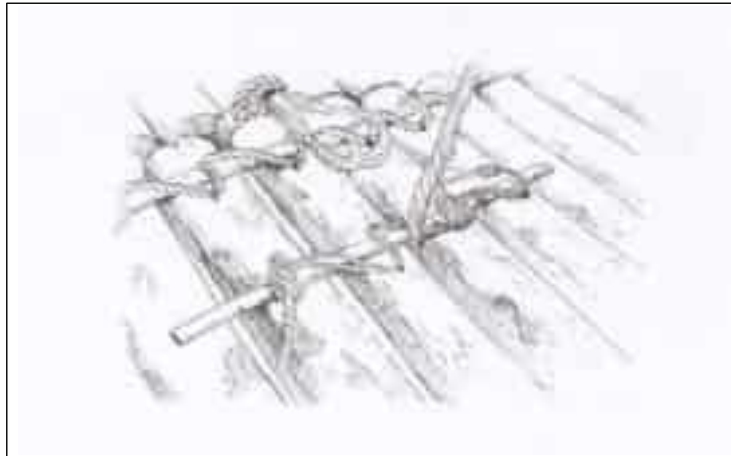
<그림 14> 강다리에 그레를 올린 모습

“줄은 굵이나 느릅나무 껍질로 하고, 그리고 못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요 옆에 그레도 요 옆에 매뚜기라는 걸 옆에다 부착을 시켜서, 그 여 옆에 가서 양쪽 나무에 딱 부착이 되어야 이게 옆으로 돌지를 않는다고.”(홍원도, 2021.04.22.)

- 강다리를 설치하고 나면 강다리 위에 그레를 올려서 고정한다. 그레는 강다리와 마찬가지로 뗏목 한바닥의 맨 앞과 맨 뒤에 설치하여 각각 사공 한 명씩 승

선하고, 뗏목의 좌우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한다.

- 그레는 V자형의 강다리(그레거치대)에 올려놓되 사공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성인의 무릎 높이로, 뗏목 바닥에서 50~60cm 정도의 높이면 적당하다. 그레에는 V자형의 강다리 사이에서 노를 저을 때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V자형의 강다리에 직경 3~4cm 길이 30~40cm의 참나무 메뚜기로 고정한다. 또한, 강다리의 V자 부분에 새끼줄을 감아 노가 이탈되는 것을 막고, 새끼줄을 이용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그레를 고정한다.
- 강다리 위에 그레를 올리고 고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앞뒤 각각 30분 정도이다. 강다리 위에 그레를 올려 고정하면 뗏목 제작은 모두 끝나게 된다.



<그림 15> 그레 손잡에 새끼줄로 연결해 고정한 모습

6

뗏목 운행 과정



<그림 16> 완성한 한 바닥의 뗏목

6.1 사공의 구성과 역할

- 뗏목 한 바닥에 두 명의 사공이 타서 운항한다. 맨 앞 동세에 타는 사람을 ‘앞 사공’이라 부르며, 맨 뒤 동세에 타는 사람을 ‘뒤 사공’이라 부른다. 앞 사공은 물길 곧 ‘물골’을 잘 알아야 하기에 뗏목을 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고, 뒤 사공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탄다.

“앞 사공은 작업 과정을 초보자를 시키 가면서. 시키 가면서 인제. 이게 이 나무가 인제 이게 돌이랴면은 인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앞만 꺾으면은 뒤가 황 자빠진 단 말이야. 그래서 그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돌려주어야. 그레 같이 꾸 부정하게 해 가지고서는 물골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앞 사공이 물길을 당연히 잡지. 뒤 사공은 앞 사공의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있어. 앞이 힘든 장소라고 하면은 앞 사공이 이쪽으로 당기면은 뒤 사공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밀어 주면 앞이 빨리 꺾이거든. 그럼 조금 돌아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레 뒤 사공도 눈치가 빨라야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체리고 그. 도둑그레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인제 앞에 돌이 있어서 꺾어 돌아가지않아. 그럼 먼저 뒤를

뗏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앞이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도둑 그레질이라고 하는데. 앞 사공 모르게 슬슬 하는 거야. 도둑그레질이라고. 이게 바위가 나오니까. 내가 바위에 부딪힐까봐 겁이 나니까. 미리 그 바위를 피할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갈라면은 앞에 거가 먼저 돌아간 뒤에 뗏겨야지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앞사공 몰래 살짝살짝 돌려놓으면 앞 사공은 죽을라고 힘드는 거지 뭐.”(홍원도, 2021.05.12.)

- 앞 사공은 함께 뗏목을 타고 갈 뒤 사공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뗏목의 제작, 운행 등에 관여한다. 한편, 뒤 사공은 앞 사공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앞 사공의 지시에 따라서 뗏목을 함께 제작하고, 앞 사공의 그레질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앞 사공이 그레를 밀면 뒤 사공도 따라서 같이 그레를 밀어주고, 앞 사공이 그레를 당기면 뒤 사공도 같이 그레를 당겨주어야 한다.
- 그런데 뒤 사공이 앞에 다가오는 지형지물을 보고 먼저 그레를 당기거나 밀면 앞 사공이 그레질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뒤 사공이 앞 사공의 지시 없이 먼저 그레질하는 것을 ‘도둑 그레질’이라고 한다.

“정선에서도 두 사람이 내려오니. 서울 갈 사람들은 세 바닥에서 두 사람만 고르면 되지. 여섯 사람 중에서 둘만 고르는 거지. 나머지는 집으로 가고. 정선에서 오는 거는 영월이 중점이기 때문에. 단가가 딱 얼마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결산 보고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선 사람도 서울 가는 사람이 있지. 그 우째다가 두 사람도 맘이 맞는 사람 조를 짜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걸리면 정선 사람도 가고, 영월 사람도 가고. 가지고 온 때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어. 영월에서 다시 제작해 가지고 가요.(홍원도, 2021.04.22.)

-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에서 시작해 동강을 따라 영월읍 덕포리로 내려오는 골안때는 영월읍 덕포리가 ‘중점’이다. 영월읍 덕포리에서는 골안때 세 바닥을 가지고 한 바닥의 서울때를 만든다. 곧 6명의 사공이 세 바닥의 뗏목을 가지고 덕포리에 도착하면, 이제부터는 최소 2명만 서울로 갈 수 있다. 나머지 4명은 목상에게 대가를 받고 정선으로 돌아간다.
- 골안때를 가지고 영월읍 덕포리까지 왔다고 해서 모두 서울때를 가지고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앞 사공과 뒤 사공을 정하고, 마찬가지로 앞 사공의 지시로 서울때를 제작해서 운항하게 된다.

6.2 고사 지내기

- 목상이 뗏목 출발일을 정하고, 정해진 출발일이 되면, 앞 사공의 지시로 뗏목을 제작해서 완성한다. 뗏목 제작이 모두 완성되면, 출발에 앞서서 뗏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강고사’라고도 한다.

“60년대는 강고사, 그 고사라는. 고사 지내는 음식, 사람에 따라서 준비를 더 하고 그랬어. 만약에 서울에 가는 뗏꾼이 여섯이다. 열이다. 스무 명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뗏꾼이 많으면 많이 준비하고 적으면 조금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목상이 하는 거지. 목상이 서울까지 가는 데에 사고 없이 가 주십시오라고 하며 말하자면 용왕제를 지내는 거야.”(홍원도, 2021.07.23.)

“목상 맘대로야. 자기가 맘껏 준비하는 게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조금 더 들여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조금만 가져가는 사람은 조그맣게 지내거나 안 하고 그러지.”(홍원도, 2021.07.23.)



<사진15> 뗏목 출발 전에 지내는 고사

- 뗏목 출발을 앞두고 지내는 고사는 목상이 준비하는데, 목상이 “뗏꾼을 대접한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고사를 지낼 때 차려지는 제물은 뗏꾼들의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뗏꾼 수가 많으면 제물의 양도 많아진다.

“예전에는 때판에 올려놓지 않았어. 강변에서 강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에는 상도 없었고, 포 한 마리, 실 한 타래, 낭계[나무]에 매달고, 술 한잔 퍼 올리고 제사 지낸 거고. 그게 목상이 사람을 많이 쓸 때는 나무가 많은 거야. 사람이 많으면 많이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실컷 먹도록 준비하는 거지. 사람은 많으면 돼지머리 올리고, 떡을 하는데 팔떡을 해. 떡시루 채 올리고, 돼지머리 놓고, 밤, 대추, 꽃감, 복어, 실, 한지를 올려. 한지는 실을 반 갈라서 걸면 걸려서 두 길이가 나와 그러면 나무에 묶는 거야. 포하고 묶는 거야. 살아 있는 나무에 묶는 거야.”(홍원도, 2021.07.23.)

“사람이 많이 모이면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떡도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루 조금씩 준비해서 다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먹고 가는 거를 봐야 기분이 좋지. 뭐 누가 하나도 입에 안 드시고 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 세월이 변해서 잘 살아가면서 제물 올리는 것도 많이 변경됐지.”(홍원도, 2021.07.23.)

- ‘고사’는 강변에서 지낸다. 강을 바라보고 상을 차리고, 상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고사에 놓는 제물은 돼지머리, 팔시루떡, 통복어, 실, 한지, 꽃감, 대추, 밤, 배, 사과, 메밀부치기, 청수(물), 제주(술) 등이다. 또한 향과 향로를 준비해 향을 피운다.
- 제물 진설은 첫 줄에 돼지머리를 놓고, 두 번째 줄에 왼쪽부터 대추, 밤, 꽃감, 배, 사과(모든 과일은 홀수로 진설, 과일 윗부분을 깎지 않음) 등을 놓고, 세 번째 줄에 메밀부치기와 팔시루떡을 놓는다. 그리고 그 옆에 청수(물)와 한지를 올린다. 통복어를 흰 실로 감아 팔시루 위에 올린다.

“첫 잔은 목상이 올리지.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인부가 사고 나면 안 되고, 나무도 잘 가야 해서 목상이 먼저 올리지. 그게 왕에 대한 절은 죽은 왕에 대한 절은 4배를 하고. 그리고 부처한테는 2번, 3번 이상으로 하고 이리지만, 왕이든 제례든 4배를 해야 해. 용왕이니깐 4배를 해야 해. 그래서 일반인 죽으면 2번 하고, 부처한테 가면 3번하고, 왕이나 신한테는 4배를 해야지. 목상이 4배를 하지. 때꾼은 연령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현, 삼현해서 많은 두 사람이 올리는 거지. 원래는 축문이 없었는데. 음복하고, 남은 건 일반 때꾼들이 먹으면 끝나는 거지. 원래 올린 잔을 강에 뿌리는 거야. 강에다 뿌리고, 부정 배긴다고 하지. 만약에 때 타러 온 사람이 사람 죽은 것을 봤다든지, 혹시나 부인네들이 그 경도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부정을 배긴다고 한 마디하고 강에 뿌리지. 주로 사회를 보는 집사가 뿌리지. 집사는 어디를 가도 일꾼이거든.”(홍원도, 2021.07.23.)

- 뗏목이 출발하기 전 고사의 제관은 목상이 초헌관이 되며, 때꾼 가운데 연장자

가 아현관과 중현관을 한다. 예전부터 홀기와 축문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축문의 경우 과거에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1960년대 무렵만 해도 없었다. 고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동강을 향해서 제물 진설
- 사회자의 사회로 고사 진행

① 분향 : 향을 피움

② 초헌례

초헌관이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술을 세 번에 걸쳐 따른 걸 받아서 집사에게 건네준다. 술잔을 받은 집사는 술잔을 진설 상 위에 올리며, 초헌관은 절을 네 번 한다. 초헌관이 절을 마치고 물러나면 집사가 초헌관이 올린 술을 강에 뿌린다.

③ 아헌례

때꾼 가운데 연장자가 술을 세 번에 걸쳐 따른 걸 받은 후, 집사에게 건네준다. 술잔을 받은 집사는 술잔을 진설 상 위에 올리며, 아헌관은 절을 두 번 한다. 아헌관이 절을 마치고 물러나면 집사가 아헌관이 올린 술을 강에 뿌린다.

④ 중헌례

때꾼 가운데 연장자가 술을 세 번에 걸쳐 따른 걸 받은 후, 집사에게 건네준다. 술잔을 받은 집사는 술잔을 진설 상 위에 올리며, 중헌관은 절을 두 번 한다. 중헌관이 절을 마치고 물러나면 집사가 아헌관이 올린 술을 강에 뿌린다.

⑤ 참여자 배례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여러 사람이 같이할 수 있음)이 술을 세 번에 걸쳐 따른 걸 받은 후, 집사에게 건네준다. 술잔을 받은 집사는 술잔을 진설 상 위에 올리며, 참여자가 절을 두 번 한다. 참여자가 절을 마치고 물러나면 집사가 참여자가 올린 술을 강에 뿌린다.

⑥ 한지와 북어 묶어두기(예전에는 고사를 지낸 후 오래된 나무에 묶어 두었으나 현재 나무가 없기에 하지 않음.)

⑦ 음복 및 철상

진설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철상한다.

- 때꾼들은 고사를 ‘용왕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뱃사람들과 같다. 벌목 전에 지내는 고사는 ‘산신을 위하여’ 의미로 지내지만, 뗏목을 제작하고 출발에 앞서

지내는 고사는 뗏목이 ‘물길’에 따라서 운항하기에 ‘용왕을 위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또한 목상 및 떼꾼들이 올린 술을 집사가 받아 강에 뿌리는데, 이는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떼꾼들이 공동 및 개인들이 지닌 각종 부정을 흐르는 강물에 씻어 내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6.3 뗏목의 운행

1) 뗏목 운행 시간

“삼사일 걸리도록 물이 많으면 못가. 왜 못 가느냐 갖다가 부착을 못 시킨다 말이여. 유속이 빨라 가지고. 강변에 갖다가 부착을 못 시켜. 그래서 한 그래도. 일주일 이상 열흘 갈 궁리하고. 떼를 띄우지. 그전에는 안 만들어. 삼사일 안에 서울 갔다왔다는 거는 공갈이야 공갈. 예를 들어 생각해 봐. 하루에 100리씩 가도 서울을 엿새는 가야. 서울을 간단 말이야. 하루에 백리 썩 가도. 북한강보다 여기가 더 멀지. 거기는 여기 만치 안 걸리지.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잡아야 돼.”(홍원도, 2021.05.12.)

- 정선군 지역과 영월읍 문산리, 거운리에서 출발해 영월읍 덕포까지 오는 골안 때는 보통 수준의 사공도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월읍 덕포리에서 서울 마포나루나 뚝섬, 광나루까지는 수준급의 사공이 떼를 운반하였다. 영월 덕포에서 서울까지 강물이 많을 때는 보통 7~10일이 소요되었으며, 갈수기에는 30일 까지 걸렸다.

2) 떼꾼의 의상과 신발

“그때 광목에다가 바지저고리 입고, 수건이지 띠가 있나 수건 두르고 갔지. 그때는 일반 평상복으로 저 맘대로 입고 갔지. 신발은 짚시기[짚신] 신었지. 우리 할 때는 고무신 신었지. 그전에는 궁궐 중수할 때는 짚시기 신고, 좀 잘 사는 사람은 삼 갖고 만든 미투리 신고 그랬지. 고무신은 그렇게 안 미끄러워.”(홍원도, 2021.07.23.)

“평상시에 잘 내려가면은 무릎팍 위에 까지만 걷고 가도 옷이 안 젖어. 그런데 인제. 어테 가서 잘못 부딪치면은 옷이 젖고. 급하면은 옷을 벗어 놓고 들어가서 못 건지거든. 옷 입고 들어가 건지기고 하고, 바쁠 때는 신발은 뭐 그때 짚세기지 뭐. 올

때도 짚새기지 뭐. 짚새기 신고 기차 타고. 그때는 우리가 아마 고무신도 사 신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홍원도, 2021.05.12.)

- 뗏꾼들의 옷은 ‘일상복’을 그대로 입었다. 영월군을 비롯해 정선군, 평창군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곳’이다. 삼나무를 심고, 삼곳을 해 삼베를 짜서 옷을 해 입었다. 그렇기에 전통사회에서 뗏꾼들의 옷은 삼베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였다. 그리고 신발은 짚으로 만든 짚신을 신었다.
- 조선 시대 후기 및 일제강점기, 그리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뗏꾼들은 광목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많이 입었다. 광목은 면직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일반인들은 조선 말 영국인 및 일본인들에 의해 대량으로 광목이 수입된 이후에 옷을 해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광목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뗏꾼들은 뗏목을 탈 때도 광목으로 된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신발은 짚신에서 고무신으로 점차 변하게 되었다.
- 뗏목이 물길을 이용하지만, 뗏목을 타고 내려가는 사공들이 옷을 입은 채 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뗏목을 운행할 때 무릎까지만 걷어도 옷이 젖지 않기에 여분의 옷을 따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

3) 뗏목에 신고 가는 물품

“삿대는 물이 위에서 안 내려갈 때. 삿대가 자라는 데는 땅을 짚고, 때를 밀 수도 있고. 가에 부착할 때나. 새로 출발할 때. 그럴 때 삿대를 쓰는 거지. 때 위에는 삿대하고, 못하고 줄 약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 끊어지면 가다가 매야 하나까.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야.”(홍원도, 2021.05.12.)

- 서울때는 7일~10을 예상하고 영월읍 덕포리를 출발한다. 이때 뗏목 위에는 물살이 잔잔해 뗏목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할 때 뗏목을 밀 수 있고, 강변에 뗏목을 부착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사용하기 위해 ‘삿대’를 한 개 신는다. 또한 내려가면서 있을 수 있는 사고로 뗏목이 파손될 것을 생각해 때를 다시 엮을 수 있는 줄과 때못도 일부 가지고 간다.

4) 뗏목 운전 기술

“기술이라는 게 물막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 옆에 가로곤치는 게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기술이 쪼끔 늦게 하면은 위험성이 많고, 미리 잘 단도리 할 참이면. 내가 일로 갈 참인데. 여기서부터 잘 인체. 조정을 하면은 그길로 가는데. 좀 늦게 시작하면 피하기에 엄청 애를 먹는 거지. 판단을 빨리 해야지.”(홍원도, 2021.05.12.)

“특별한 것은 없어. 그런데 급류를 내려갈 때는 손짓으로 해. 앞 사공이 손짓을 봐서 뒷 사공이 힘을 더 쓰지. 이제 손바닥 쪽으로 들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때는 처음 탔지만, 내려오는 건 구경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했지. 여울이 심하면 소리는 안 지르고 손짓으로 주로 하지.”(홍원도, 2021.09.17.)

- 때꾼 홍원도는 사공이 되어 뗏목을 운전하는데 “특별한 기술은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물막’ 곧 물길을 미리 알고 그레로 좌우 방향을 미리 돌려야 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렇게 해야 갑자기 닥치는 바위나 여울 등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울을 내려갈 때 앞 사공이 뒤 사공에게 수신호를 하는데, 그 수신호를 잘 보고 뒤 사공이 그레를 움직여 주어야 뗏목이 잘 내려간다. 특히 여울이 심하면 말로 하면 늦기에 ‘손짓’으로 한다.

5) 서울 도착 후 뗏목 해체

“해체는 갖고 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인수인계만 하면, 그때 서울의 목상들이 서울에서 팔아먹는 것도 어려운지 서울에 있는 원목조합에 위탁판매를 부탁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해체해서 쌓아 놓고, 집을 짓거나 화목 연료로 팔아먹는 걸로 구분하지. 나무 개수는 거기 사람들이 하지. 그런데 출발할 때 도록을 쓰지. 나무토막 수를 쓰지. 혹시 가다가 때꾼들이 한 토막 빼서 술 사 먹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도록을 쓰지. 근데 간혹 때 아래에 나무를 몇 토막 숨겨 놔. 뗏목에 신고, 숨겨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 도록이라는 것도 도적 도(盜)자나 마찬가지로. 도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지. 숨겨서 몇 토막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별의 별사람이 다 있어. 자는데 와서 나무가 한 토막 필요하다고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은 나무로 바꿔서 갖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굵은 나무를 갖고 와서 좋은 나무로 바꿔가고, 사공은 술 한잔 얻어먹는 거지.”(홍원도, 2021.09.17.)

- 영월읍 덕포리에서 출발해 서울에 도착한 뗏목은 해체한다. 이때 때꾼이 직접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목상들이 ‘원목조합’에 위탁 판매를 맡겼다. 때꾼이 서울 마포나루나 뚝섬 등에 뗏목을 대어 주면, 원목조합 인부들이 뗏목을 해체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때꾼이 가지고 간 ‘도록’과 맞추어 본다. 이후에 나무들을 목재용, 화목용 등으로 분류한다.

뗏목 운반놀이(때 풀기놀이)

“옛날 노들나루(서울시 동작구 노량진(驚梁津)의 조선 시대 이름) 가칠목에 뗏목이 내려오면 뗏목꾼들은 시루떡을 해놓고 뗏목 위에서 용왕제를 지냈다. 이내 물건을 하고나사 때를 풀기 시작한다. 노들 용왕당 옆 가칠목 앞 강에는 나루터가 있고 빨래터가 있었다. 일단 뗏목 위의 물건을 다 부리고 나서는 강 위에 떠 있는 뗏목을 풀어서 땅 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이때 편을 짜서 칩으로 감아 놓은 뗏목의 통나무를 하나씩 풀어가지고 용왕당 옆에 있는 큰 나무까지 메고서 달리는 경주를 하였다.”⁸⁾

- 서울에 도착한 후 뗏목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민속이 한 가지 조사가 된 적이 있다. 바로 때꾼들의 100m 달리기다. 뗏목을 해체 후 육지로 나무를 올리는 과정에서 때꾼들이 시합했다는 것이다. 당시 뗏목을 해체해 달린 거리가 대략 100m 정도 되는데, 진흙밭을 뛰었다고 한다.

8) 김선풍, 「남한강 유역의 민속」, 『동강 뗏목 민속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영월군, 2000, 18~19쪽.

제 IV장

아라리와 뗏목 민속

1. 한강 여울과 주막
 2. 뗏꾼 전승의 소리
 3. 뗏꾼 관련 옛말
-

1

한강 여울과 주막

- 정선군과 평창군 일대에서 내려온 뗏목은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의 황새여울, 영월읍 거운리의 뒀꼬까리 등과 같은 위험한 여울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덕포 나무에서 출발한 뗏목은 영월 정양리를 거쳐 단양군 영춘면으로 접어드는 용탄, 제천시 청풍면 하류의 황공탄 여울을 지난다. 특히 황공탄은 뗏목을 엮은 줄이 끊어질 정도로 뗏목을 파손시켰고, 목숨을 잃은 떼꾼들이 생기기도 했다.
- 한편, 여울을 지나서 있는 주막은 떼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목숨이 위험했던 여울을 지나 뗏목을 고쳐 매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리는 주막은 아라리 뗏목 가사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황새여울’과 ‘뒀꼬까리’와 같은 위험한 여울을 지나고 나서 주막 앞에 뗏목을 대고, 고쳐 매려는 떼꾼들이 많았다.
-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월읍 덕포리에서 서울까지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으면 한 달 가까이도 걸렸다. 그때 갈 길 바쁜 떼꾼들을 붙잡는 것은 강가에 즐비한 주막들이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강은 물론 서울에 이르는 한강변에 주막들이 즐비했다.

1.1 여울

1) 정선에서 영월읍 덕포리까지의 여울

“상투비리(정선군 북면 아우라지 밀) - 소가리골(북평 아래) - 비귀미 여울(정선읍 덕송1리) - 왕바우서리(정선읍 봉양리) - 진펄(정선읍 봉양리) - 범여울(정선읍 용탄리 노미) - 새 범여울(정선읍 덕송리 범여울 아래) - 열두절(정선읍 광하리) - 큰여울(미탄면 마하리 뉘른) - 암반여울(미탄면 마하리 큰여울 아래) - 홍두깨여울(미탄면 마하리 암반여울 아래) - 황새여울(미탄면 마하리) - 개죽이 여울(영월읍 문산리) - 뒀꼬까리(영월읍 거운리 만지) - 궁굴바위(영월읍 삼옥리)”⁹⁾

- 정선에서 영월읍 덕포리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떼꾼들이 가장 위험하게 여긴 여울이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 아래에 있는 상투비리, 용탄의 범여울, 평창 미탄의 황새여울, 그리고 영월읍 거운리의 뒀꼬까리 등이었다.

9)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70쪽.

- ‘상투비리’는 물이 돌아 내려가는 곳에 뽀족하게 상투처럼 솟아있는 날카로운 바위가 서 있어서 뗏목이 내려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출발한 뗏꾼들은 뗏목에다 줄을 매서 물이 굽이도는 안쪽 강변에서 잡아당기며 돌기도 하였다. 그래도 뗏목이 많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1945년 광복 이후 목상들이 아예 스무 자가 넘는 큰 나무들을 아우라지에서 뗏목으로 엮지 않고, 북평면 장열리에서 가평으로 떠내려 보내 뗏목을 엮게 할 정도였다.
- 용탄의 ‘범여울’도 강물 쪽으로 솟아 들어온 바위 아래로 물길이나 있어 뗏목이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동강에 내려와서는 평창군 미탄면에 있는 ‘황새여울’이 물살이 세고, 강 가운데 바위가 있어서 뗏목이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다. 흔히 황새나 청둥오리와 같은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들던 곳이라고 해서 황새여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뗏꾼 홍원도에 의하면 “여울에서 황소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황쇠여울’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해 황새여울이 되었다고 한다.
- 또한 영월읍 거운리 어라연 아래에 있는 ‘된꼬까리’는 물굽이가 심하게 도는 곳에 고깔 모양의 큰 바위가 서 있어서 지나기 어려웠으며,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둥글바위’는 바위로 된 문처럼 생겼던 곳으로 물살이 쏠려 지나가기가 어려워 일제강점기 무렵 일부를 깎았다고 한다.

2) 영월읍 덕포리에서 서울까지의 여울

- 동강을 따라서 내려온 골안때는 영월읍 덕포리에서 재정비를 한 후 한강으로 나설 준비를 한다. 그렇지 않고 맛밭까지 골안때가 내려가기도 했으며, 특히 평창강과 서강을 따라 내려온 뗏목은 맛밭에서 서울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다. 맛밭부터는 물길은 ‘아랫강 물길’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물길이 순탄한 편이었다.
-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를 기점으로 한강이 시작되지만, 영월화력발전소 앞에 있는 소수력발전소는 뗏목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정양 무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땀 흘릴 때 뭐 정선, 뭐 여량 그쪽에서 나무가 많이 나왔거든. 거기서. 거기서 때를 때면, 조붓하게 때요. 반동가리짜리. 그래 그걸 몇 개를 들러서 여기 나오는 게 한 때라고 하면은 네 바닥 반, 다섯 바닥을 조립해야지 그게 때가 된다 이거여. 그래 그걸 어서 하느냐면 영월 덕포서 하거든. 덕포서 해가지고, 거 정양 무넝지를 넘기거든. 거기서 조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때 아주, 그 때만 무넝지를 때 주는 사람이 따

로 있었어.”¹⁰⁾

- 영월읍 덕포리에서 출발한 옛목이 지나는 여울은 충주시 탄금대 합수머리를 기점으로 크게 두 지점으로 나뉜다. 합수머리로 위쪽으로는 여울이 많고 물길이 험하며, 합수머리부터 서울까지는 순탄한 물길이다.

“뭍, 사흘에도 갈 수 있지. 물 많을 때는 그저 세 나절에도 가는데. 그렇게 안 가 거던. 그만 한나절 되면은 대구, 쉬고. 그럼, 안 가 거던. 맛밭에서 물 좋을 때 지금 어딜 가느냐 하면은, 저 지금 탐들 간단 말이어. 충주 탐들. 탐들 알지? 꽃바우. 종댕이 밑에. 거기다 댕단 말이어. 거 가면 인제 거기 저. 덕소 가지. 덕소. 응. 거(거기까지 두 나절에 가고). 거 가서 인제 물이 많으면, 못 대면 그만, 예, 하마 사람이 먼저 가 거던. 거 가선 두 바닥 이래 막 절구[결구]를 해요. 한군데다 없어. 냇다 막 째매뼈려. 째매가주 내리 띄우구섬에, 대기 힘드는 거 기간배[기관배] 가지구 들어오라 그 래가지구 섬에 들어가자. 그래든 뭍. 광나루 델 썸에 다음날 못 대면 그만, 저 뚝섬 가 대구, 뚝섬 가 못대면, 저 마포가 대구 그랬지.”¹¹⁾

-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출발한 옛목은 첫째 날 충주 탐들(현재 가금면 중앙탐 부근) 정도에서 하룻밤을 쉬고, 여주시 덕소를 지나, 서울 광나루에 도착한다. 광나루의 사정에 따라 뚝섬이나 마포나루까지도 내려갔다.

“용탄 윗여울(우여울)- 오사리여울-북벽여울-청태머리여울-남축여울-가재여울-향산여울-암산여울-수염목여울-수리여울-덕천여울-석문여울-도담여울-별곡리여울-노동리여울-상진여울-구두여울-날밭티여울-수양개여울-바메여울-단양여울-축목여울-구무여울-너픈쟁이여울-가재여울-터준댕이여울-장회여울-구담봉여울-고지여울-늪실여울-남매여울-삼니여울-청풍여울-도지여울-대지여울-범의여울-도리채여울-사라여울-문지방여울-창내여울-의주사여울-용구먹여울-수기여울-황공탄[으시시비비미여울]-용수꾸미여울-꽃바위여울-까치여울-누릅꾸지여울-정문이여울-돌바우여울-맛바우여울-골아우여울”

- 영월에서 충주에 이르는 물길에 약 80여 개의 여울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때꾼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여울은 청풍면 소재지에서 8km 하류에 있는 황공탄

10) 제보자, 한상철, 남82세, 충북 제천시 청풍면 광의리, 2002.4.5, 이정재 외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207쪽.

11) 제보자, 한상철, 남82세, 충북 제천시 청풍면 광의리, 2002.4.5, 이정재 외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209쪽.

[으시시비비미여울/비비미여울]이었다. 『여지도서』에 “황공탄은 부의 서쪽 2리, 서창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상하 두 여울이 있는데, 문지방과 같이 가로 누운 바위가 있어 성난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곤 하여 그 기세가 매우 험난한 곳이었다. 아랫여울은 물이 합쳐져 못을 이루었는데, 매우 깊어 검푸른 빛을 띠고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물밑바닥에는 모두 널따란 바위가 있는데, 서너 군데 험한 곳에 가마솔과 같이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어 그 깊이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2 주막

“아우라지-장열-나전-예산리-진필-세대-노미-귀리뺨-광하-굴하-뒗대벌-수미-가탄-해매-고재뺨-수동-점치-갈벌-소골-제장-바새-연포-가정-문화-진탄-그무-만지-섬새-목골-동글바우-덕포”¹²⁾

-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에서 영월읍 덕포리에 이르는 물길에 주막이 100여 곳에 있었다고도 한다. 그 가운데 정선읍 가수리 수미,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점재의 옥쟁이 할머니집,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연포, 영월읍 문산리 그무와 거운리 만지에서 전산옥이 운영하던 주막 등이 비교적 규모가 컸었다고 한다.
- 특히, 만지나무에 있던 전산옥(全山玉: 1909~1987)이 운영하던 주막은 때가 자주 파손되는 황새여울, 뒗꼬까리를 지나 있기에 떼꾼들이 뗏목을 고쳐 매기도 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들리는 목이 좋은 곳이었다. 전산옥이 운영하는 주막은 밀려드는 떼꾼들을 수용할 방이 부족하게 되자, 강변 자갈밭에 돌을 쌓고 싸리나무로 발을 만들어 덮고 방을 대충 꾸미고 영업할 정도였다고 한다.

“옛날 거 골안을 니러가던 사공들 중에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떼를 내려가면서부터 만지산에 전산옥이하고 하루를 보낼려고 안달을 하지요. 그때만 해도 여 골안에 다른 영업집에서는 돈만 보के도 여자들이 쭈루루 달레나와 손을 잡아끌었는데, 전산옥이는 거 수월치 않았지요. 소리도 기가막히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를 니러 가는 떼사공들은 미리 선금을 주고 이제 언제 또 니러가겠다 이러면서 돈을 치루면 그 다음에 나리갈 때 한 번 지낼 수 있지요. 지금으로 하면 그 뭐라하는가. 그 예약이지요. 웃돈 주고 하는...”¹³⁾

12)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72쪽.

13) 제보자 : 신경우, 남77세, 정선군 정선읍 복실리,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74쪽.

- 영월읍 덕포리에서 서울까지도 크고 작은 주막들이 강변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영월에서 충주 사이의 120km 구간은 협곡을 이루며, 약 80여 곳의 여울이 있었다. 그리고 여울 아래로는 주막집이 발달했는데, 충주 상류 쪽으로 주막이 많은 것도 여울이 많고 물길이 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떼꾼들에게 ‘무너네 집’으로 통하는 단양 꽃거리의 주막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여울 용탄 무사히 떼 지워놔네 단양 꽃거리 무너네 집 술 한잔 먹고 가세”라는 아라리 가사가 등장할 정도였다.
- 단양 ‘무너네 집’은 서울에서 소금과 담배 등을 싣고 올라온 뱃사공들과 떼꾼들이 어우러져 항상 시끌벅적했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는 서울에서 온 여자들이 스무 명 가까이 있어 떼꾼들의 발길을 잡았고, 돈이 떨어져도 목상에게 연락하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여서 영월과 정선 떼꾼들의 단골집이기도 하였다. 14)



<사진 16> 단양 꽃거리 전경(2004년 02월 18일)

14) 진용선, 『정선 뗏목』, 정선문화원, 2001, 76쪽.

2

떼꾼 전승의 소리

2.1 아라리

- 정선에서 출발한 뗏목은 영월을 거쳐 서울에 이르게 된다. 영월에서 서울까지 가는 물길은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살이 잔잔한 곳도 있다. 떼꾼들은 위험한 여울을 지내면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 마시기도 했고, 때로는 이틀씩 머무르며 쉬어가기도 하였다.
- 경기도 여주시 푹방 옆에 떼를 대면 ‘날치’라는 물고기가 펄쩍 뛰어 떼판[뗏목] 위에 올라와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면 신발을 벗고 잡아서 막걸리 한 사발씩 하기도 하는데, 막걸리 한 잔에 아라리를 흥얼거리기도 하였다.
- 특히 현재 팔당댐이 있는 ‘팔당호’에 이르러서는 술 파는 아가씨들이 ‘뚝딱선 [거룻배]’에다 막걸리와 장구를 싣고 와서 뗏목에 부착시키고 “오라버니들 술 한잔하고 가세요” 라며, 아라리를 몇 곡씩 부르며 피로를 풀기도 하였다.
- 영월군 관내에서 채록한 떼꾼들의 아라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황새여울 된꼬까리에 떼무사히 왔으니
영월덕포 콩지갈보야 술상차려 놓게
 - 사귀지 못할사람은 아래강에 뗏사공
버리 줄만 끌러놓으면 영이별이라
 - 동강에 떠있는 뗏목 한양서울 가건만
우리는 언제나 서울구경 가나
 -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다지내 왔네
만지깁변에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아라
 -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 내려 온다

만지있는 전산옥이 술상뒤아 놓아라

제보자:홍원도, 2014년 7월 12일 채록.

- 우리서방님 뗏목타고 한양서울 갔는데
황세여울 된꼬까리를 무사히가게 해줘요
- 어러연 된꼬까리에 떼다지나 왔네
만지갱변에 전산옥이야 술상차려 놓아라
- 눈물로 사권정은 오래토록 가지만
떼돈으로 사권정은 우선잠깐 이라네
- 동굴바위 떼사공아 조심조심 저어라
한번까딱 잘못하면 고기밥이 된단다
- 앞구쟁이 뗏사공은 머리를 슬쩍 돌리고
뒷구쟁이 뗏사공은 꿈지를 살짝 들어라
- 한양떠난 우리아버지 떼돈 많이 벌어요
흰밥에 고기국을 실컷한번 먹게요
- 돈도벌고 소금살라고 뗏사공으로 왔는데
허기진배 움켜잡고 고향생각만 해요
- 길이없는 동강따라 천리만리 왔건만
천하일색 경춘기생은 온데간데 없구나
- 동강에 오는비가 장대와도 같은데
떼를 짓는저사공은 안달이 났겠지
- 산수절경 동강마루에 하얀집을 짓고

첫날밤에 이불퍼듯 알콩달콩 살아요

- 조양강을 떠난뗏목 황세어울에 왔는데
사시사철 소리개차(탄 싼어 나르는차)는 쉬지도않고 떠가네
- 금강추월 뗏사공아 어서빨리 오세요
영월덕포 콩지갈보가 애간장이 타요
- 천하절경 어라연에 뗏목놀이나 가볼까
개다리 소반 동동주에 태평가나 불러요
- 해질 적에 집나가서 해 뜰때에 들어와
천만금을 다 쓰고도 돈 쓸곳만 찾네요

제보자:조장환, 남. 72세, 영월군 영월읍 광천리, 2017년 6월 2일 채록.

2.2 뗏목 넘기는 소리

- 뗏목이 내려가다가 바위나 돌에 걸리면 대부분 앞 사공과 뒤 사공이 뗏목에 신고 가던 ‘삿대’를 뗏목 밑에 넣고 들썩거리면 뗏목이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꺾이지 않을 때도 많다. 앞 사공과 뒤 사공만으로 힘이 부치면 지나가던 뗏꾼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지나가던 뗏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다.
- 뗏꾼 여럿이 긴 막대를 밑바닥에 넣고서 힘을 쓰지만 한 번 걸린 뗏목을 꺼내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뗏목 넘기는 것이 힘에 부치면 강제로 넘기려 하지 않고 마지막 동새 가장자리에 매어놓은 한쪽을 풀기도 했다. 나무를 펼쳐놓고 쏘리는 물살의 힘을 받게 하는 것을 ‘뗏봉 단다’라고 한다.
- 바위에 걸린 뗏목을 꺼내기 위해서는 뗏꾼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오호차

이낭구 보게 몸부림을 한다네

어어차
 한 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어어차
 한치두치
 오호차
 이 고개 보게 옛날부턴 소문이 났다네
 오어차
 목상은 보른 혼심 적겠네
 오오차
 우리야 사공들 옛고깁세
 오오차
 여차하니 한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정동같은 팔심으로
 오히차
 삼동허리를 고분 곱상에
 오오차
 어테가 절렀나 저린게 마꿈
 오오차
 이낭기 지나석이 쩍얼어 붙었다네
 오오차
 어테가 절린지 절린데 마꿈
 오오차야
 무지 공산에 잘자란 낭기
 오오차
 이렇게 가도 한양을 간다네¹⁵⁾

15) 진용선, 『정선 옛목』, 정선문화원, 2001, 93~94쪽.

3

뗏목 관련 옛말

3.1 떼돈

“여기서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울 한 번 가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 관계없이.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이상 될 거야. 받는 기.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서울 두 번, 세 번 갔다 오면 송아지 한 마리 살 정도였어. 그래서 떼돈이라 그러는 거. 그 단가가 높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서 떼돈이라 그러는 거야.”(홍원도, 2021.04.22.)

- 떼꾼들이 받는 품삯을 흔히 ‘고전’이라고 불렀다. 한강 물길을 따라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내려가는 것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별이가 좋았다. 1960년대 무렵 뗏목을 2~3번 타면 송아지 한 마리 살 수 있을 정도였다.

3.2 돼지우리 지어라

“돼지우리 지어라. 그러니까. 이 급류에 가서 잘못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선다고 앞이. 거기 왜냐면은 앞에 안 내려 가는데 뒤에서 미니까. 그래 가들이 돼지우리 지라 돼지우리 그러지. 떼꾼들이 들리지. 그래고. 아들이 돼지우리 지라고 할 때는 급류 옆이 아니여. 부락 앞에 애덜이 나와 놀거든. 그러면은. 그때 시절에도. 짓곳은 사람들이 있어. 그때 어떤 아주머니들이 강에 나와. 그땐 강변에 나와 세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 있는 옆에 바짝 가 가지고. 아주머이 아주머이 그러면 대답할 것 아니야. 자들이 그거 달래요. 그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애들한테 욕 먹은 거를 아주머니한테 복수하는 거지.”(홍원도, 2021.04.22.)

- 한강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강변의 있던 사람들이 장난을 걸기도 한다. 떼꾼들이 험한 물길을 내려가면서 가장 많이 들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우리 지어라”라는 말이었다.
- “돼지우리 지어라”라는 말은 뗏목이 여울을 빠져나갈 때 바위에 걸리거나 부딪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뒤엎긴 매우 위험한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짓곳은 떼꾼들은 강변에서 빨래하던 마을 아녀자에게 뗏목을 부쳐서 야한 농담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다.

- 그래서 “돼지우리 지어라”라는 말은 한강 물길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주막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치는 떼꾼들 향해 주모들이 내뱉는 가장 흔한 말이었다.

3.3 파리밥과 골세

- 뗏목을 띄우기 위해서는 영림소(현재의 산림청)에서 발행한 ‘반출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반출증이 없이 벌목해 뗏목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강 물길 곳곳에서 영림소 직원이 반출증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곤 하였다.
- 목상들이 먼저 손을 써 놓으면 별 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괜한 트집을 부리며 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때 생떼를 부리는 순경이나 영림소 직원에게 넣어주는 뒷돈을 ‘파리밥’이라 하였다.
- 또한 강물이 줄어 뗏목이 잘 내려갈 수 없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한쪽으로 물길을 내고 받는 통과세를 ‘골세’라고 불렀다.

3.4 아침밥이 사자밥

- “아침밥이 사자밥”이라는 말은 떼꾼들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먹고 나가는 아침밥이 저승사자를 대접하는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만큼 뗏목을 타는 일은 큰돈을 벌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3.5 거운리 떼꾼 홍원도의 서울행

- 떼꾼 홍원도는 1934년 11월 28일 영월군 영월읍 삼옥2리 201번지, 아버지 홍건호, 어머니 이정옥 사이에서 4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살면서 형제분들을 잃고 1남 3녀만 자랐다. 홍원도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머리가 좋고 영리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생활이라 공부를 못하고 14세부터 호미 들고 밭일을 했다.
- 19세에 처음으로 정선읍 아래에서 영월 덕포까지 내려오는 뗏목을 탔다고 한다. 휴전 직후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는 중간에 1956년(당시 23세)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영자(당시 18세)와 결혼을 하였으며 같은 동네 거운리에서 이사

를 두 번 하였으나 지금까지 거운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 서울때는 제대 후 동네 정진섭 씨라는 분이 “뗏을 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소리에 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한 번 서울을 갔다오고 팔당댐이 생기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 홍원도는 영월에서 서울까지 뗏목을 탔던 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는 뗏꾼이다.
- 홍원도는 뗏목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아라리’를 접하게 되었으며 동네 어르신들이 경사(길사)때나 평상시에도 아라리를 많이 듣고 불렀다. 특히 장모님(정옥순:1916~1992)이 잘 부르셔서 많이 듣고 따라 했으며 장소나 연령에 따라 아라리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동강뗏목축제를 개최하면 거운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뗏목을 만들어 영월읍 동강둔치까지 내려온다.
- 홍원도는 서울뗏을 두 번 경험했다. 골안뗏은 영월 덕포에 오면 끝이 나지만, 영월에서 서울로 갈 뗏목은 다시 세 바닥을 합하여 한 바닥으로 만들어야 했다. 재적이 1만 사이가 기본이다. 영월에서부터는 물길이가 좋아 1만 사이로 만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골안뗏을 끌고 온 뗏꾼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앞뒤 사공을 하고 나머지 네 명은 뒤돌아 갔다. 그리고 도록을 작성했는데, 도록은 한 뗏당 하나씩 작성을 해야 했다.
- 목상은 뗏꾼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고전을 절반 정도 선지급하고, 가는 도중 여비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를 ‘반고전’이라 불렀다. 보통 한 목상이 뗏목을 서울로 보낼 때는 한 바닥만 보내지 않고, 최소한도 열 바닥 이상을 보냈다. 그래도 그들 모두가 한 팀은 아니었지만, 친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여 서울로 향했다. 예를 들어 열 바닥이 서울로 향해 가도 그중에 세 바닥이 친분이 있는 이들이라면 그들끼리 같이 합동 작업을 하면서 서울로 뗏목을 끌고 갔다.
- 서울까지 일정은 대중없는데, 물이 좋으면 7~10일이 걸렸고, 물이 적으면 여울에 자주 걸려서 고생하는데 이 경우 한 달도 걸렸다. 영월 덕포나루에서 출발을 하면 강원도 영월의 정양, 맛밭, 충북 단양의 영춘, 매포, 충북 충주의 목항, 경기도의 양평, 여주 등을 거쳐 팔당, 덕소를 지나 서울로 들어갔다.
- 그 사이에 여울이 많았는데, 맛밭의 범의여울과 뚜꾸지여울, 각동 앞의 우여울, 충주 목항리의 쌍다리삐야(다리빨, 다리기등), 여주의 모래여울 등이 힘들었다고 한다. 범의여울은 경사가 많이 저 물이 많을 때는 뗏이 운행 중에 쑥 들어가서, 앞 사공이 뒤로 도망쳐오는 것처럼 보였다.
- 그 밑에 있는 뚜꾸지여울은 뚜꾸지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졌다. 각동

앞의 우여울은 우여울속정광이라 하여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 가는데 물이 매우 적어 운행이 힘들었다. 이곳을 통과하면 충주 목항리의 다리뺨이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운행할 수가 있었다.

- 단양을 지난 후 충주 목항리의 다리를 지나기가 힘들었다. 다리 앞에 돌맹이가 있는데 이를 비켜서서 다리 교각 사이로 빠져나가야 했는데, 여기에서 다리 교각에 부딪혀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여주의 모래여울은 순전히 물반 모래반으로 구별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떼를 몰고 간다기보다는 끌고 가는 형국이었다.
- 여울은 물이 얇아서 여울이라 부르는데, 여울을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은 ‘된장대(혹은 떼장대)’였음. 된장대는 물푸레나무나 참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150~200cm 정도이고 굵기는 한 오금 반(10cm) 정도로 아무리 힘을 써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보통 4개 정도를 신고 가다가 여울을 만나면 내려서 된장대를 어깨에 대고 떼를 밀었다. 물의 흐름이 약해 떼가 느리게 갈 때 삿대로 바닥을 짚어가며 밀었다. 삿대는 200~250cm 정도 길이였지만 긴 삿대는 3~4m짜리도 있었다.
- 숙식은 강가의 마을에 있는 주막에서 해결했는데, 밤에 나무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는 같이 간 일행 중에 누군가 노름을 하여 팔아먹거나 술값으로 대신 지불했을 가능성이 컸고, 그 외에도 다른 팀에서 훔쳐 갈 때도 있었다. 이 경우 여분으로 뗏목 밑에 숨겨 간 재목으로 보충하기도 했고 때로는 번갈아 밤새도록 번을 서기도 했다.
- 번을 설 경우, 예를 들어 열 바닥이 내려갔다면 20인이므로 20인이 돌아가며 오늘은 누가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번을 썼다. 물론 같이 내려간 일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번을 설 수밖에 없었다. 도록에 적힌 원칙대로라면 목상은 약간의 차이라도 번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대체로 눈감아주곤 하였다.
- 팔당에 가면 조그만 똑딱선이 장고, 술과 안주, 여자를 신고 근처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르면 다가와 내려놓고 멀리 사라지는데, 자기 뗏목만 노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운행하던 다른 뗏목의 떼꾼들도 같이 모여 놀기도 하였다.
- 서울에 도착하면 주로 광나루, 노량진, 뚝섬 등에 뗏목을 대었다. 목상은 언제 올지 모르는 뗏목을 기다리느라 매일같이 나와 있었다. 혹 먼저 오는 다른 목상의 떼꾼들을 만나면 누구 떼꾼이 어디쯤 오고 있느냐며 물어보고 언제쯤 올지

를 짐작하기도 하였다. 뗏꾼들이 도착하면 목상은 도록과 뗏목을 확인하고는 밥을 사주고 고전을 계산해주고 헤어졌다.

- 홍원도는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당시 열차로 6시간 정도면 제천까지 올 수 있었다. 제천에서부터 영월까지는 버스로 돌아왔고, 영월읍내에서 거운리까지는 걸어서 돌아왔다.
- 돌아올 때 광목 등을 많이 사서 돌아왔는데, 당시 의복이 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돈이었으므로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는 뗏꾼들도 꽤 많았다. 당시 1960년대에 서울때를 세 번 정도 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살 수 있었다. 또한, 뗏꾼들이 받는 고전은 앞 사공이나 뒤 사공이 똑같이 받았다.

3.6 삼옥리 뗏꾼 정규근의 서울행

- 삼옥리에 거주하던 뗏꾼 정규근의 서울행이 이한길 외, 「남한강 영월지역의 뗏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5권 3호(도서문화연구소, 2013)에 수록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2007년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 첫째 날

집안 열 촌뺨 되는 정규삼이 사공을 오래 한 기술자였다. 정규근을 뒤 사공으로 데리고 서울로 가고자 하여 따라나섰다. 광나루까지 갔다 주기로 하고 도록을 써 받았다. 뗏고전은 오늘날로 치면 한 20만 원은 실히 될 것 같았다. 10일을 예상하고 10일 치 여비를 받아 챙겼다. 영월발전소를 지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해놓은 보 부근이 갑자기 1m 정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원골에서 1박을 했다. 당시 해가 있어 조금 더 갈 수 있었지만 여럿이 협의하여 그곳에서 숙박하기로 했다. 당시 같은 목상의 뗏가 세 바닥이 같이 내려앉았다.

- 둘째 날

각동 밑의 범의여울에서 정규근이 타고 있던 뗏목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앞동 가리가 수직으로 내려쫓혔다가 쭉 올라오면서 반으로 접혀버렸다. 앞 사공은 어느새 뒤 사공이 있는 곳까지 밀려나 있었다.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힘을 합하여 간신히 정리한 후 단양의 영춘 못미처 오사리라는 곳에서 한참을 쉬었다. 해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해가 떨어져 어둠이 올 때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정규근 일행이 갖고 가던 뗏 3만 사이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허가받지 못한 채 벌목한, 즉 도벌한 재목이었다. 영춘지서에서 수시로 강가를 순시하다가 의심스러운 뗏목이 있으면 검문하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어두워져 경찰들이 퇴근할 때를 기다린 것이었다. 땅거미가 내리면 강가를 감시하던 경찰도 퇴근했다.

우리 일행 중 선도자는 정규삼이었고 그 때의 뒷사공이 정규근이었다. 그런데 어둠을 틈타 영춘지서를 빠져나가려고 운행하던 중 영춘지서를 지나가기도 전에 그만 정규근의 떼가 장광으로 빠져버렸다. 장광이란 물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 정규근의 떼가 물이 없는 곳으로 밀려나면서 물길을 가로질러 장광과 물길 사이에 물벽을 만들어주니 그 물살을 타고 오히려 뒤에 오던 다른 두 떼는 쉽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정규근 십촌 형제들이 장광에 빠진 떼를 간신히 물에 다 띄워놓으니 날이 새고 있었다.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떼와 씨름을 했던 터라 아침을 해결해야 했다. 그때 먼저 내려간 두 떼가 영춘지서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떼를 정박시켜 놓고 정규근 형제를 찾으러 올라왔기에 같이 아침을 해결하고, 그 때에 6명이 타고 같이 내려갔다.

- 셋째 날

충주 목항리 다리를 건너는 일이 힘들었다. 다리 교각 사이로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 물길 정중앙에 바위가 있어 그 바위를 옆으로 돌아서 다리 사이로 빠져나와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보통 이곳에서는 다른 떼의 도움을 받아 4명이 운전을 하여 벗어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정규삼이 자신의 기술을 믿고 정규근과 함께 들어서 이곳을 빠져나왔다. 다른 두 떼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먼저 빠져나온 정규삼 형제는 자신의 떼를 주막에 맡기고 나머지 일행 4명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밤이 깊어 할 수 없이 충주 목항리 다리 근처 주막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다른 두 떼를 운전하여 그 다리 사이를 빠져나왔다. 그 근처는 떼가 나무에 부딪혀 많이 파손되는 곳이었지만, 파손되어 떠내려가는 채목만을 전문적으로 훔쳐 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뽀뽀하게 찾아준 값을 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정규근 형제도 흘러 내려오는 뗏목이 있으면 자기 뗏목에 무조건 올려놓았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 것이 되었다. 그것이 떼꾼들의 법이었다.

- 넷째 날

충주를 지나서 여주에 이르러 숙박을 했다. 별달리 어려운 여율도 없었고 무사히 왔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발생했다. 사람들이 화투를 하고 야단이었다. 시끌벅적한 가운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채목 10토막이 없어진 것이었다. 초보떼꾼 정규근은 당시 10살이나 위었던 선배떼꾼 이강선에게 걱정을 토로했다. “우리 클났어요. 옛저녁에 낭 그를 좋은 거를 열토막을 훔쳐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요. 서울 시세로 공제하면 우리 노임 갖고도 안될 텐데. 어떡해요.” 하니, “아이. 이 사람아. 그게 자네 형님 짓일세.” “가다가 간다지로 주운 거 갖다가 채워 넣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더 구만.

정규근의 10촌형 정규삼이 화투를 좋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날 밤에 그들 일행은 주막집에 부탁하여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반은 주막집에서 소비해주는 조건이니 실은 반 마리를 잡은 셈이었다. 그날 저녁 배가 터지게 실컷 먹고는 남은 것은 각자 나누어 때에 실고는 서울에 갈 때까지 반찬 삼아 먹곤 하였다.

- 다섯째 날

양평 밀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일행 중 다른 때가 물 가운데 있는 바위에 올라탔다. 마침 날이 어두워서 다른 두 때는 운행을 계속하여 2리쯤 내려와 잠을 자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도와주러 올라갔다. 그 때는 당시 환갑을 넘긴 분들이 몰았었는데, 바위 위에 걸린 뗏목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헤엄쳐 들어가 같이 거들어 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여섯째 날

양평을 지나 덕소에 이르니 물이 마치 소(沼)처럼 흘러가지 않는 듯했다. 이곳을 통과하자면 보통 5시간은 실히 걸린다고 했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술 한잔하라고 유혹을 했다. 여자는 20대이지만 배를 운전하는 이는 30대 남자였다. 손짓하여 부르면 오고 다 놀고 가라고 손짓하면 다시 여자를 태우러 달려왔다. 술은 막걸리였고 안주로는 돼지고기도 부탁하면 갖다 주곤 하였다. 그날 광나루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정규삼은 덕소에서 하룻밤을 자자고 했다.

- 일곱째 날

광나루에 도착하였더니 목상이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몇 개 없어진 뗏목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점심을 푸짐히 먹여주고는 잘못하면 서울에서 또 하룻밤을 자야 한다며 청량리로 데려다주곤 빨리 내려가라고 했다. 당시 영월로 오는 기차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이었다. 청량리에서 탄 기차는 5~6시간 만에 영월에 도착했다. 영월역에서 삼육리까지는 산길로 7~8km 정도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당시 도로가 생기기 전이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제 V 장 **영월군 전승 뗏목의 가치**

1. 영월군 전승 뗏목의 문화적 가치
 2. 영월군 전승 뗏목의 유지와 노력
 3. 영월군 전승 뗏목의 관리를 위한 방안
-

1

영월군 전승 뗏목의 문화적 가치

1.1 강원도 무형문화유산 평가 기준

- 영월군 전승 뗏목의 가치는 역사성(전승 기간, 무형문화재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등), 예술성(고유성의 수준, 형식미·내용미의 수준, 표현미의 수준, 기능성 정도 등), 학술성(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등), 지역성(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세대 간의 전승과 전형 유지'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곧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및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에 기여하는 정도로 영월군 전승 뗏목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 현재 강원도에서는 관내에 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항목	내용
지정기준	<p>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의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p> <p>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p> <p>나. 강원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강원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마. 강원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p> <p>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p>

지정대상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아. 가목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	---

<표 4>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대상

○ 아울러 이들 지정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 항목	세부적인 내용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한 기간 · 관련 문헌 자료 및 구술 자료 근거의 신뢰성
학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강원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 가치 ·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예술성(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종목과 비교할 때 고유성의 수준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대표성 수준 ·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한 수준
대표성(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표 5>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

1.2 역사성(歷史性)

- 강원도 전승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사성'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발생 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며, 그 시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멸될 우려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을 말한다.
- 또한, 강원도 사람들의 생활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등을 포함한다. 강원도 전승 무형문화유산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강원도 관내에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많은 무형의 관습과 행위들 중에서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강원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어서 이후에라도 특정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형의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곧 보존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인류가 언제부터 뗏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도 강이나 좁은 바다를 건널 때 이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에는 뗏목을 이용해 고인들의 뗏개들을 옮겼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곧, 2021년 현재에도 영월군 거운리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작 및 전승하는 뗏목은 선사시대 때부터 강이나 하천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날랐던 민속을 전승하는 것이다.
- 선사시대의 전통이 고대국가로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고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계급구조가 형성되면서 권력의 상징인 다양한 목조 건물들이 건축되었고, 이때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뗏목을 이용하였다. 이는 삼국시대 각 나라의 수도가 모두 강이나 하천에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의 수도 개성의 경우 예성강을 끼고 있어 강과 바다를 이용한 수운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조선 시대의 한양 또한 한강이 옆에 있어 강원도 곳곳에서 건축용 목재와 땔감을 실어 오기 수월하였다.
- 특히 한강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에 4세기 무렵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써서 한강의 수로를 통해 군사와 물자를 수송하였으며, 신라에서도 한강의 물길을 병참 수송로로 활용하였다.

- 조선의 건국과 함께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면서 궁궐 및 관청, 개인 주택 등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강 상류 지역의 풍부한 원목 자원이 ‘한강 뗏목’을 이용해 운송되었다. 이처럼 한강 뗏목은 한강 최상류 지역인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평창군 일대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운송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
- 조선 시대 초기부터 강원도의 목재가 뗏목으로 엮어져 한강을 통해 내려갔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초기부터 이미 뗏목을 이용해 한강 상류에서 벌목한 목재를 운송하는 전문적인 ‘떼꾼’이 존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 건국과 함께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많은 양의 원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뗏목을 엮은 목재의 수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곧 황장목(黃腸木) 등의 질 좋은 소나무가 조선 시대 초기부터 뗏목을 이용해 한강 물길로 서울까지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1617년(광해군9) 영월군에서 내려간 “추녀용 목재 30개 가운데 대목들이 2개만 고르고, 28개의 목재를 쓸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에 조사하니 실제로 목재들이 “뽕죽하고 가늘고 굵어서” 쓸 수 없었다. 이에 나무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으니, “물이 알아서 뗏목을 만들어 띄워 보내지 못하고, 한 개씩 끌어 내려” 서울까지 갔다고 한다.
- 곧 초가을 무렵 한강의 수량이 적어지자 뗏목을 띄우지 못해 적심 형태로 나무를 서울까지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한강 물길을 통한 영월군에서의 뗏목 제작, 적심 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
- 한편, 영월지역의 뗏목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는 1867년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부터다. 이때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얻고자 산림 자원이 풍부한 영월에서 벌목한 소나무가 물길을 이용해 서울로 운송되었다.
- 현재 영월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갔던 떼꾼 홍원도도 영월에서 뗏목이 처음 내려간 것을 ‘경복궁 중수’ 때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궁궐 짓는 재목을 이곳저곳에서 모아 뗏목으로 엮어 내려간 사람이 ‘정대용’이라는 분으로 알고 있다. 떼꾼 홍원도의 말에 의하면, “정대용은 자식이 없으며, 내가 젊었을 때 정대용의 집에서 벼를 털어주는 등의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한다.
- 현대에 들어와 영월군 관내의 떼꾼들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도

활동하였다. 동강은 물론 서강에서도 1950년대 초반까지도 뗏목이 내려갔다. “뗏목 내려간다 그러면 강가에 나가서 보았는데, 뗏목이 강에 자작하게 내려갈 정도였다”라고 한다. 반면 폐군 홍원도는 1962~1963년도에 한강 물길을 따라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갔었다.

- 북한강 유역에서 서울 가는 뗏목은 1947년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물길이 막혀 운항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영월군에서 서울로 가는 뗏목은 청평댐 하류의 팔당댐이 1966년 착공되기 전까지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1.3 학술성(學術性)

1) 물길 이용한 수운 사례

- 뗏목은 한강 물길을 이용한 수운 사례를 보여준다는 데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북동부와 경기도 남동부를 흘러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한강의 길이는 375km이며, 유역 면적은 1만 2,577km²이다.
- 선사시대 사람들은 한강 변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강변에 거주하면서 강에 나무를 띄우면 쉽게 건널 수 있고, 강이 무거운 물건이라고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서 알았다. 그러다가 강을 본격적인 수송로로 이용한 것은 고려 시대에 실시한 조운제(漕運制)부터이다. 고려 시대 초기 세곡(稅穀)을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다. 이때 강에 설치한 조창은 모두 두 곳으로 모두 한강에 소재하고 있다.
- 조선 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곡의 운송은 주로 관선(官船)을 이용하였다. 그렇기에 한강의 나루들을 중심으로 관선이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오면서 사선(私船)으로 대체된다. 물길을 이용한 세곡 운반이 사선으로 확대되면서 한강 물길 이용도 점차 늘어난다.
- 사선이 한강 물길의 주된 담당층으로 부각하면서 한강을 오르내리는 선박의 규모나 대수가 늘어나고, 세곡 운송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이윤 창출을 모색하면서 상품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지방 선주들의 성장과 18세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상품 증대와 맞물리면서 한강 물길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조선 시대 후기 생산력의 확대는 잉여 생산품을 남기고, 잉여 생산품을 교환하기 위해 한강 주위의 장시(場市)와

나루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돛단배와 같은 운송체계의 발달은 나루를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한강 유역의 중심 나루들은 상업 포구로 성장하게 된다.

- 한편, 한강의 물길을 이용한 다른 측면이 바로 뗏목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 가운데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영월군 및 정선군, 평창군 일대와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대, 그리고 홍천군 일대 등의 나무가 울창하였으며, 그와 함께 나무들을 서울로 운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길을 제공해 주는 한강과 북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 목재를 운반할 때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은 목재로 사용할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다. 강물에 띄운 뗏목은 물의 흐름이 빠르고 많으면 4~5일이면 서울에 도착하기도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그 운반 속도는 육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빨랐다. 그리고 그 수송량 또한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강 물길을 이용한 뗏목은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었다.
- 우리나라에서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운송 수단이고, 목재 운반 수단으로 뗏목을 제작하는 지역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의 건국과 함께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면서 궁궐 및 관청 개인 주택 등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강 상류 지역의 풍부한 원목 자원이 ‘한강 뗏목’을 이용해 운송되었다. 이처럼 한강 뗏목은 한강 최상류 지역인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평창군 일대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운송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던 것이다.

2)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사례

- 한국 민속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통 지식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지식(傳統知識)’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한다. 협의의 정의는 “집단에 의해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 등의 총체”를 가리킨다.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광의의 정의는 “전통지식 보유자에 의해 창조되고 유래되며, 발전되어 시행되어 온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정의에는 민간전승 표현물, 지리

적 표시, 심볼, 미술 공예품, 민속 역사 자료 등의 유·무형의 문화재 등도 포함시킨다.

- 우리나라에서 전통지식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전통지식이 지니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지식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은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이다. 특히 이들 '지적재산권' 관련 전통지식의 조사와 연구는 의료 및 식물 계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민속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강원도 민속 현장에서 전통지식을 조사하고 관련 전통지식의 보전 및 관리, 지역과 문화적인 관계양상 등을 연구한 논의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 이러한 입장에서 '영월군 전승 뗏목'에는 벌목 과정에서부터 뗏목 제작과 운영 등에 대한 전통지식이 담겨 있다. 벌목 기술과 전통 재료 및 도구의 활용, 뗏목 제작의 과학성과 뗏목 운영의 기술성 등 우리나라 전통지식 자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1.4 예술성(독창성)

- 한강 물길은 산에서 바다로 흐른다는 자연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적층성에 의해 인위적 교류가 일어난다는 문화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물길 곳곳에는 마을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나루가 있었고, 나루는 상품 교역의 교두보이자 생활 터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 영월군 일대의 사람들은 뗏목의 경제적 혜택이 컸고, 뗏목 물산에 집중하는 부류가 생기기도 하였다. 한강은 산간 내륙의 나무를 옮기는 길이며, 동시에 상품 화폐의 항목이 만들어지는 통로였다. 뗏목을 포함한 운송 수단은 산간에서 구하기 힘든 소금 등을 상류로 옮겨주고, 상대적으로 서울 등지에서 요구하는 물산은 하류로 옮겨주는 것이다.
- 영월군 문화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뗏목은 영월군은 물론 강원도 자연 물산의 중심 품목이었으며, 영월군 다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뗏목의 하향식 교류는 강을 끼고 사는 사람들의 민속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영월적인 문화라고 했을 때 뗏목은 수로를 낀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한 모듬살이에서 독특한 문화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 영월군의 독자적인 문화 안에 뗏목이 있었고, 뗏목과 관련한 민속태(民俗態)가

다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뗏목 전승에는 아라리도 살아 있다. 아라리는 강원도 및 영월군 산간 민속을 이해하는 구비전승물이며, 세계인들이 보전하려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 영월군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뗏목을 1997년부터 복원해 시연하고 있다. 그 무렵 영월군 인근 지역인 정선군에서는 ‘아우라지 뗏목 축제’에서 뗏목 복원 및 시연이 있었고,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도 ‘소백산 철쭉제’ 축제 항목에 뗏목을 복원해 도담삼봉 앞에서 시승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2021년 현재에 와서는 영월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뗏목 재현마저도 중단되었다. 뗏목이 지역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에 문화유산으로 복원 재현했지만, 오직 영월군에서만 20여 년이 넘도록 재현이 이어지고 있다. 곧 뗏목 제작은 영월군 사람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똥심’을 보여주는 독자성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1.5 지역성

- 영월군은 강원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북쪽으로는 강원도의 평창군, 정선군과 접하고, 동쪽은 태백시, 서쪽은 원주시와 횡성군과 접한다. 또한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및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 등에 접한다.
- 영월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관내 자체적으로 또는 외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높은 산 가운데 영월군 지역민들이 넘을 수 있도록 낮은 부분을 이용해 고갯길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또한 높은 산들이 만든 하천과 강을 통한 물길도 영월군 관내에서의 이동 및 외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였다.
- 특히 영월군에서는 남한강(한강 본류)이 시작된다. 남한강은 정선군에서 조양강과 만난 후 영월읍에서 주천강과 평창강 등과 합류해,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유입된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흘러드는 강을 ‘동강’으로 서쪽에서 유입하는 주천강과 평창강이 합류한 강을 ‘서강’ 등으로 부른다.
- 영월군이 지나는 험준한 산지이자, 한강의 시작이라는 자연환경 때문에 뗏목은 오랫동안 지역적 기반이자, 생계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영월에서 전승하는 뗏목은 영월 사람들의 ‘치열함’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 영월군 뗏목 전승의 연원을 조선의 건국과 함께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영월군 관내의 목재들이 한강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뗏목을 제작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서 '산고사'와 '강치성' 등과 같은 영월지역 나름의 종교 행위가 뗏목 제작에 수용되어 있으며, 나무를 벌목해 옮기는 과정에서의 도구와 기술, 언어 등도 영월 나름의 지역성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뗏목과 함께 전하는 '아라리'는 영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정서까지도 표현하는 것이다.

2

영월군 전승 뗏목의 유지와 노력

- 현대에 들어서 영월군 지역의 뗏꾼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활동하였다. 영월군과 정선군 지역의 서울페는 1960년대까지는 운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선군의 골안페는 1960년대 철도 부설과 함께 뗏목도 자취를 감췄지만, 영월군의 지역의 골안페는 거운리 일대가 1970년대까지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였기에 뗏목 제작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뗏목은 1970년 이후 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영월군에서는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단이며, 교통수단이었던 옛날 전통 방식의 '뗏목 문화'를 계승하고자 1997년부터 '영월동강축제'를 개최하면서 부대행사로 '전통 뗏목 시연'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8년에 축제의 명칭을 '동강뗏목축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021년으로 동강뗏목축제는 제25회를 맞이하였다. 영월군 관내의 뗏목 전승은 1997년 영월동강축제의 부대행사로 다시 이어졌으며, 2020년에만 코로나19로 인해 뗏목 제작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 비록 동강뗏목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전통 뗏목 시연만은 진행하였다. 그렇기에 현재 24년째 뗏목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영월군에서 뗏목을 만들던 시기는 우수 경칩을 지나 해빙기가 도래하는 시점이었다. 이후 1970년대 초까지도 해빙기 무렵에 뗏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뗏목 제작이 영월동강축제의 부대행사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축제가 개최되는 7월 마지막 주차에서 8월 첫 주차 사이에 뗏목을 제작하고 있다.

- 영월군 관내에는 영월 지역 떼꾼들의 민속과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1970년 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단절되었고, 1997년 영월동강축제의 부대 행사로 부활하여 거운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뗏목 시연을 진행하였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동강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2018년부터는 영월문화재단이 주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뗏목 제작은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이 1960년대 초반 서울떼를 탔던 떼꾼 흥원도를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 이에 2021년 6월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를 조직하였으며, 2021년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에서 주관해 뗏목 제작이 이루어졌다.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 조직은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실질적 전승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3

영월군 전승 뗏목의 관리를 위한 방안

- 우리나라에서 물길을 이용해 목재를 수송했던 뗏목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졌다.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물길을 이용했던 인제군 뗏목이, 강원도 중부 지역에서는 홍천강을 이용한 홍천군 뗏목이, 그리고 강원도 남부지역에서는 영월군을 비롯한 정선군 및 평창군 지역의 뗏목이 운항하였다.
- 그러나 북한강과 홍천강 등지에서의 뗏목 운항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기 청평댐 건설로 중단되었고, 영월군을 비롯한 평창군, 정선군 일대의 뗏목은 1966년 건설이 시작되면서 중단되어 1960년대 초반까지는 운항하였다. 특히 영월군의 뗏목은 정선군 및 평창군 관내에서 제작해 동강과 서강(평창강)의 물길로 영월로 몰려들었고, 영월군에서는 이들 각지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온 뗏목 등을 재조립해서 서울떼를 이루어 출발하던 곳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 이와 같은 상징성을 토대로 실질적인 뗏목 제작이 중단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97년에 뗏목 재현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까지도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뗏목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를 조직해 세대 간의 전승력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전승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서울떼의 재현과 복원

- 영월군의 뗏목은 크게 '골안떼'와 '서울떼'로 양분된다. 1997년 이후 영월군에서 복원 재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뗏목 제작은 '골안떼'에 해당한다. 골안떼는 정선군에서부터 동강을 따라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까지 내려오는 뗏목이다. 반면 영월읍 덕포리나 김삿갓면 대야리 맛밭에서 서울까지 한강을 따라 내려가는 뗏목이 바로 서울떼이다.
- 현재까지 뗏목 재현을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곳 있다. 바로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 단양군 등이다. 다만, 정선군에서의 뗏목 재현을 비롯해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에서의 뗏목 재현, 그리고 북한강의 '인제 뗏목' 재현도 모두 영월군에서 말하는 골안떼 재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영월군은 '서울떼'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그렇기에 영월군으로 들어오는 골안떼를 모아 다시 제작해서 서울로 향했던 서울떼의 제작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의 뗏목 재현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한강 물길을 통해 서울까지 갔던 서울떼의 복원과 재현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 영월읍 거운리에 거주하는 때꾼 홍원도 등이 생존해 있기에 정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떼를 복원 및 재현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진이 때꾼 홍원도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제작하고 있는 골안떼 세 바닥을 한 바닥으로 만든 것이 서울떼이기에 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거운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영월군의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 기반 확보

- 현대사회에서 그 생업적인 가치와 활용적인 가치가 이미 사라진 뗏목을 제작하고 전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뗏목 제작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축제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온 영월군의 노력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 현재 영월군과 영월문화원, 그리고 영월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영월동강축제'를 개최하고 뗏목 제작과 관련한 문화들을 다양한 행사로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효용적인 가치'가 이미 떨어진 전통사회의 문화유산의 전승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 그렇기에 뗏목을 제작하고 실제로 영월읍 삼옥리에서 동강 둔치까지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현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것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에 영월군 및 강원도 차원에서 보존과 계승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 문화유산의 재현이라는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영월군 뗏목 제작은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에 의해 ‘영월동강축제’에서 행사로 재현되고 있다.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과 영월군 관계자들의 협조로 유지가 된다. 현재 강원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뗏목 제작 전승이 이루어 지는 지역은 영월군이 유일하다.
- 그렇기에 영월군에서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의 전승 기반 확보

- 1997년 복원해 재현된 뗏목은 영월읍 거운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영월군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실질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뗏목’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물론 보존회가 2021년에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통 시대의 뗏목이 유지되고, 1960년대 초반 뗏목을 타고 서울로 갔던 때꾼이 생존하며,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뗏목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회를 조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승 주체로서 거운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이끌어 내고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의 역할과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통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영월군 전승 뗏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회의 구심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만으로 뗏목 전승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전승 기반적인 차원에서 영월군의 협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4 영월군 전승 뗏목 관련 기·예능 전수 활동

-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에서는 영월군 전승 뗏목의 원활한 전승을 위해 기·예능 전수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뗏목 제작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뗏목 제작 용어 및 방법, 특히 뗏목 운항과 관련한 기술 전승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영월군 관내에는 뗏목 관련 전통 지식과 민속예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월전통동강뗏목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인원 확충 및 및 보존회 회원들 대상의 뗏목 전승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영월군 전승 뗏목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과제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강원도, 『강원의 민요』, 2003.

강원도, 『강원도 민요의 존재 양상과 위상』, 2004.

강원대학교박물관, 『인제 뗏목』, 1986.

김의숙 외, 『동강 민속을 찾아서』, 푸른사상, 2001.

김의숙 외, 『서강민속을 찾아서』, 집문당, 2003.

김종혁,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한강 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호, 경제사학회, 2001.

김준기, 「한여름 영월동강 뗏목축제」 『내성의 맥』 20집, 영월문화원, 2004.

남강연, 「강원지역 아리랑의 문화콘텐츠 연구」, 세명대 박사논문, 2021.

내제문화연구회, 『남한강학술회의 자료집』, 2001.

- 단양문화원, 『단양의 노래가락과 물박장단들』, 2001.
- 백성현 외, 『과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1999.
- 서울문화사학회, 『한강의 역사문화 재조명』, 1998.
- 엄홍용,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대흥기획, 1995.
- 영월군, 『영월군지』, 2020.
- 영월군, 『동강 뗏목 민속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00.
- 영월문화원, 『영월민속사』, 2006.
- 영월문화원, 『영월문화재대관』, 2006.
- 인제문화원, 『인제 뗏목』, 1985.
- 인제문화원, 『인제 뗏목(증보판)』, 2002.
- 이정재 외,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 이창식 외, 『단양 남한강 민속을 찾아서』, 대선, 2004.
- 이한길 외, 「남한강 영월지역의 뗏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5권 3호, 도서문화연구소, 2013.
- 장정룡 외, 『인제 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 정선문화원, 『정선의 무형문화유산』, 2015.
- 진용선, 『동강 아리랑』, 수문출판사, 1999.
- 진용선, 『정선뗏목』, 정선문화원, 2001.
- 최명환 외, 『강원도 수목민속의 의미와 가치 연구』, 강원연구원, 2019.
- 최영준, 「남한강수운연구」, 『지리학』 제35호, 대한지리학회, 1987.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유역사연구』, 산책, 1999.

○ 부록 1 - 떼꾼 홍원도 구술 기록

채록 내용	뗏목 운행 과정
채록일	2017년 03월 31일
채록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홍원도 자택
채록자	남강연
채록 내용	<p>· 뗏목의 유래 및 사공이 서울 가는 과정</p> <p>우리나라에서 처음 뗏목이 만들어진 것은 육지에서 섬을 가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배는 그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뗏목을 만들어 서울 가려면 산에 서 있는 솔 나무를 톱으로 베고 자르고 곁가지를 다듬어 낸 다음 솔 꺾질을 깨끗이 벗기고 바싹 말린 다음 하산이라고 지게 등짐으로 져서 강가까지 내어놓기도 하고 큰 나무는 목도를 해서 내놓기도 하고 소로 끌어서 내놓기도 한 다음 뗏목을 묶기 시작한다.</p> <p>뗏목을 묶으려면 당타래라는 보조목이 있어야 되고, 보조목은 잡목이어야 되며 보조목 크기는 지름 3cm 정도가 좋다. 길이는 4m 정도가 좋으며 묶는 줄이 있어야 한다. 그 줄은 느릅나무 꺾질이나 뽕 줄이 가장 좋고 새끼줄도 쓴다. 또 떼뭇이 있어야 하는데 뭇의 굵기는 2mm 정도 강철이어야 하고 그 철을 v자 형태로 만들어서 뭇에 길이는 약 73cm 정도가 좋다.</p> <p>뗏목을 묶는 과정은 먼저 뗏목을 물 위에 띄워놓고 당타래 보조목을 뗏목 끝에서 약 10cm 안에 가로로 먼저 놓고, v자 뗏목을 거꾸로 뒤집어 뭇 안에 줄을 넣고 돌망치로 당타래 위를 넘어가며 양쪽으로 뗏목에다 단단히 박는다. 그리고 뗏목 떼가 바르게 하기 위해 등줄이라고 뗏목 위에 대각선으로 붙들어 메고 다음 동과 동 사이에 동새줄 이라고 세 군데를 겹쳐 맨다.</p> <p>묶는 과정이 완성되면 앞과 뒤에 그레를 얹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강다리 안친다고 한다. 강다리는 그레에 좌대다 그레는 방향을 좌우로 조정한다. 차로 말하면 핸들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묶는 과정은 끝났다.</p> <p>서울로 출발 전에 간단히 고사를 지내고 나무 주인을 '목상'이라고 호칭한다. 떼꾼은 '사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도록'을 써야 한다. 도록은 왜 쓰는가 하면 사공이 서울 가는 도중에 뗏목을 주고 막걸리를 바꿔 먹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에 길이와 토막 수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떼꾼의 인건비를 '고전'이라고 하는데 절반을 받는다. 그리고 인사 후에 출발한다.</p> <p>고사 지내고 오전 오후 상관없이 술 한잔하고 출발한다. 나무가 여기저기 베어 놓은 강가에서 매어서 출발합니다. 영월 -</p>

단양 - 목계 - 양평 - 여주 - 팔당 - 서울 도착(광나루. 노랑진. 뚝섬)

크기에 따라 때 한 바닥에 두 사람씩, 먼저 배운 사람이 선배가 되어 앞에서 운전하고 초보자 한두 번 다녀온 사람은 뒤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목상이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바닥 수가 결정된다. 한 바닥이 주로 기준이 한 사이가 12자 한치인데 보통 한 사이가 한 바닥이다 오만 사이면 다섯 바닥이 된다.

옷이 젖으니까 여벌 옷 한 벌 정도 가지고 다닌다. 서울 가는 과정은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사고로 다치기도 하며 죽는 경우도 있다. 즐거움이나 재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집에 부모, 처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비는 한 폰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림으로 즐기는 사람은 곱빼기로 가지고 가는 사람, 한 폰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막집에서 주모와 같이 마시고 아리랑으로 부르고 논다. 즐거움이 기다려지는 장소가 있다. 지금에 팔당땀 그때는 팔당호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술 파는 아가씨들이 뚝뚝선에다 막걸리와 장구를 싣고 와서 뗏목에 부착시키고 ‘오라버니들 술 한잔하고 가세요’ 하면 마른 목도 축이고 장구 소리를 들으며 아리랑도 몇 곡씩 부르며 피로감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광나루 노랑진 가면 목상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고했다고 저녁 식사와 술을 마음껏 마시라고 준다. 그리고 반 인건비를 지불한다.

· 영월 덕포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

물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일에서 15일 걸리고 물량이 작으면 더딘데 한 달씩 걸리기도 한다. 중간에 주막이 있는 지역에 대어 놓고 들러서 자고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출발하는데 팔당호 지역은 밤에도 가지만 나머지 지역은 밤에 자고 낮에만 간다.

· 뗏목으로 서울까지 간 횡수와 힘든 곳

저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15일에서 20일 걸렸습니다. 영월서 출발하면서 첫 번째 난코스는 동강과 서강이 합수되는 ‘부숫돌백이’ 지역과 화력발전소 ‘말등이’라고 하는 곳, 영월 하동에 가면 ‘우여울’ 지역, 목계에 가면 ‘쌍다리빠이’ 지역이 힘든 지역입니다.

· 서울에서 영월로 돌아오는 과정

돈을 받은 후 자고서 이튿날 서울 구경한다고 오전에 나가서 광목이나 옥양목을 조금 사고 점심 식사 후 각자 집으로 간다. 보통 열차로 온다. 그때는 선물 사가지고 오는 것도 몰랐다.

채록 내용	뗏목 제작
채록일	2021년 04월 22일
채록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홍원도 자택
채록자	최명환
채록 내용	<p>· 영월에서 서울까지의 뗏목 운영 경험.</p> <p>두 번 갔다 왔어요. 60년대 초반. 그게 인제 서울에 뗏목이 못 간 게. 팔당댐 건설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을 못 가. 그 댐 시작하면서부터 뗏목이 서울을 못 가고. 열차로 해서. 고삐로 해서 가고 그랬지. 나무. 노량진하고. 뚝섬하고. 처음에는 노량진을 가고, 다음에는 뚝섬을 가고. 물에 따라서 유속이 빠르면 빨리 가니까. 날짜가 많이 안 걸리고. 또 물이 아주 작으면 이십 사오일 걸려서 서울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작으면은 이 나무가 닿아서 안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내려가기도.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끌고 가고. 그래니까네. 이십 한 삼사일 걸려야. 서울 가고 그랬어요. 물이 아주 많으면 못 가지. 아주 많으면 뗏목을 강변에 부착을 못 시킨단 말이야. 유속에 의해서. 부착을 못 시키니까. 못 가고. 어느 정도 물이 줄어야. 그전에 이 강에 나룻배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룻배가 건너고 나서도. 좀 있어야. 서울을 갔었어. 물이 많으면 나룻배도 못 건너거든. 좀 있어야 서울을 갔었어. 나룻배 건너고도. 좀 더 줄어야. 서울 갔었다고.</p> <p>· 뗏목 운송 시기</p> <p>우리 갈 때는 봄에 사월 말일경이나. 그 무렵이 될 거야. 그래서 뗏목이 봄에 일찍 내려가면은 그때는 눈이 많이 쌓였다가 눈이 녹은 물이거든. 제일 빨리 갈 때가 눈 녹은 물에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야. 해마다.</p> <p>한여름에는 위험성이 많지. 왜그러냐면은 대수가 지면은 그냥 놓칠 수가 있거든. 대수가 지면은 가에 붙여 놓아도. 한여름에는 잘 안 가고. 봄하고 가을로다 많이 가고. 좋기야 가을에 추울까 봐 겁이 좀 나지만은 봄에는 따서가지고서 사람이 고생을 안 하니까. 봄이 더 낫지 뭐.</p> <p>· 뗏목 운송 시 숙식 해결</p> <p>뗏목 내려갈 때는 보행 장사꾼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강변이고. 부락마다 주막집이 있었어요. 주막집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p>

프면 시켜 먹고 가고. 자고 가고 그러고 그랬지요. 어두워지면 그 주막집 부근에 부착시켜 놓고. 그 집에 밥 먹고.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먹고. 출발하고 그랬지.

점심은 혹 굶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돈벌이라고 안 굶고 부착시켜 놓고. 주막집에 가서 점심 먹고 가고 그랬지. 싸 들고 가는 거는 안 했어요. 우린 싸 들고 가진 않았어요.

서울에는 여자들이 업주가 여자들 여럿 두고 그러는데 있었는데. 시골 강변에는 바쁘면 임시로 하루나 이틀 일을 시키거나 해도.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씩 두고 그러지는 않았어. 주모들. 여기 떼꾼들에게는 전산옥이라고 이름이 났었어. 전산옥이라고. 주모가 있고. 만약에 요리하는 게 많으면은 급하면은 옆에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 뗏목 운송에 따른 대가

떼꾼이라고. 떼가 망가지기 전에는 옷가지 적실 필요가 없어. 요만치(무릎 아래) 적시고 가다가 떼가 안 내려가면은 하의를 벗고 내려가서 꺼내리고 그랬지. 출발할 때 쓸 돈은 가지고 갔지. 여기서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울 한 번 가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 관계없이.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이상 될 거야. 받기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서울 두 번, 세 번 갔다 오면 송아지 한 마리 살 정도였어. 그래서 떼돈이라 그러는 거. 그 단가가 높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서 떼돈이라 그러는 거야.

· 뗏목 운송 인원 및 구성

2인 1조래요. 원래 2인 1조. 정선에서 영월까지 오는 거는 소규모야. 규모가. 그게 폭이 한 3m 50 내지. 길이가 한 30m 좌우간 그랬고, 영월에서 절구를 해가지고. 영월에 서장이 합하니까. 그 밑으로는 갯벌이 넓고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선에서 내려온 거를 세 개를 묶어가지고. 2인 1조가 되어서 서울 가고 그랬어.

떼를 절구하는 것도 2인 1조로 묶어. 묶는 것도. 떼를 가지고 갈 사람들이 묶지. 본인이 묶어가지고 내려가지. 초보자는 운체나 익숙한 사람. 떼를 타본 사람한테 가서 초보자가 배우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서울 가는 것도 첫 번 가는 사람들은 만날 뒤에 한다고. 뒤 사공한다고. 앞에 물골도 모르고. 이러니까.

뒤 사공 하다가. 뒤 사공을 한 번이나 두 번 해보면. 고 다음에 이제 앞 사공을 하고 그러는 거지. 부자지간에 저 서울 가는 거는 한 개 없구요. 저 위에 장화동에서 김태순이 하고. 그 아들이 김인동이인데. 그 두 부자가 하면은 돈이 오붓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타는 걸 봤어요. 부자가 하는 거는 우째다가 그런 일이 있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안 대들고 그러니 그렇지. 다른 사람이 사정하면 이웃 간에. 의리적으로 이웃 간에 같이 가지. 위험하니 부자지간에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돈에 욕심이 나거나. 옆에 누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만약 예를 들어서 떼가 세 바닥인데. 사공이 세이 밖에 없다. 그러면 세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럴 때는 초보자 원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러지.

· 정선에서 영월까지 내려오는 뗏목과 영월에서 서울 가는 뗏목의 차이

그러니까.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길고 그러지. 그러면 한 40m. 인제 나무를 열두 자 나무를 4m 잡거든. 그러니까. 열두 동 열세 동 잡으면은 뭐 한 50m 나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자 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로 서울 가는 거는. 열 몇 동가리 이래 가지고 가지. 동새를. 그게 인제 나무를 요런 거를 인제. 전부 묶어 한 동새라 그러구. 그걸 총 연결 하면 한 바닥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동새 수가 기준이 아니라. 길이가 30m는 넘어야지. 동새가 보통 4m고, 그리고 3m, 2m 요렇게 나무를 잘러가지고 다녔어. 앞애가 크지. 거기는 사람이 서서 운전을 하니까. 그 뒤에 3m도 있고. 2m도 있고. 그리고 맨 뒤에는 커야지. 서울 가는 거는 옆으로도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정선서 내려온 거 두 개를 붙여서 만들고. 나머지 한 개를 쪼개서 옆으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도 앞으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영월에 가면 서강이 얹치잖아. 그러니까 넓어지지. 바로 합수 위에 영월에 그 정양 석탄발전소 있을 때, 그 삭도가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삭도 있는 부근에서 절구를 했지. 그 덕포. 옛날에 삭도 있는 데라 그랬어. 신동에서 나온 갯물 있잖아. 그 줄 밑에 내려가면은 거서 절구를 했지. 낙화암 조금 위에.

정선에서도 두 사람이 내려오니. 서울 갈 사람들은 세 바닥에서 두 사람만 고르면 되지. 여섯 사람 중에서 둘만 고르는 거지. 나머지는 집으로 가고. 정선에서 오는 거는 영월이 중점이기 때문에. 단가가 딱 얼마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결산보고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선 사람도 서울 가는 사람이 있지. 그 우째다가 두 사람도 맘이 맞는 사람 조를 짜야 되잖아. 그러

니까. 잘 걸리면 정선 사람도 가고, 영월 사람도 가고. 가지고 온 때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어. 영월에서 다시 제작해 가지고 가요.

· 뗏목 제작 재료와 과정

우리 뗏목을 때는 칩. 아니면 느릅나무 꺾데기. 그거하고 칩하고 가지고. 못을 안 박고 질머 맨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이동할 때. 그냥 못을 안 박고. 질머 매가지고 갔다가 그 칩만 끊으면은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내중에 일거리가 없지. 못 박은 거 보다는. 우리는 못 박았지. 서울 가는 거는 거의 다 못을 박았지. 아니. 못이 우리가 하는 거는 그. 'V'자 까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브이자)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새간에다가 칩 줄을 넣고. 저 뭐야. 칩줄을 이게 칩줄이라면 이쪽에 박고. 이쪽에 박고. 이게 칩줄이라면 원래 거기 당타래라는 나무가 있거든. 당타래를 이쪽에서 박고. 이쪽 넘어가서 박고. 또 이쪽으로 와서 박고. 이거(동채)를 하나하나 만들거든. 둘이 양쪽에서. 한 동채를 하나는 이쪽에서 못을 박고. 하나는 이쪽에서 못을 박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를 대어놓고. 저만큼 당타래 한 개씩. 줄 한 개씩 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에 내 박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내 박고. 그래서. 그게 나무가. 굵은 게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한 토막이라도 더 매려고. 그 굵은 거 끼리 이렇게 굵은 거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라면 간격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묶고 이런다고.

이 한 동채라도 앞이 조금 좁아. 왜냐. 그 꼭대기 쪽을 가는 쪽으로 맨다고. 앞을. 앞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이 뒤가 넓어. 예를 들면서 가다가 바위에 좀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도. 요 중간에 부딪치면 그냥 넘어간다 말이야. 뒤는. 뒤가 넓지. 앞 사공은 앞이 좁지만은. 뒤 사공은 뒤가 넓어. 동채마다 앞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개 동채줄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결 줄을 세 군데 묶어요. 앞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때가 구부러져야 하니까. 앞 사공 딱 이 동가리 하고. 이 동가리는 물에 따라서. 간격을 꽤 많이 뒤. 많으면은 한 20cm 이상 나가지. 왜냐하면. 저 앞에 바우가 있는데. 때가 이리 내려가니까. 핸들을 잡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져야. 앞이 구부러져야. 끌려가지. 앞이 안 구부러지면은 바로 내려가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 둘째 것도 간격을 좀 늦춰놓고. 그래서 그레질하면 이게 구부러져야 피해 간다구. 복판에는 몇 동 지나서 그다음에는 짝 묶어도 되는데. 앞에 두 동까지는 좁.

동세하고 동세를 묶는 줄을 동세줄이라 그래. 이거는 등줄이라고 그러구. 나무와 나무에 대는 것을 당타래라 하고, 동세줄도 맹 칩이나 느릅나무. 파가지고. 그래서 칩이 한 바닥. 때 하나 묶자고 하면은 정선에서 묶자고 해도. 한 60kg. 한 짐 들어가야 해. 한 짐. 내려갈 때 여울로 실고 가지. 운제든지. 저 정선서. 내려오는 기나. 정선 가는 기나. 좀 여유로 실고 가는 게. 왜냐 하면. 가다 깨지면 수리를 해야 하나까. 못하고. 줄하고 좀 여유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지.

나무에는 특별한 표시는 없고, 인이라고 나무에 도장을 찍어 놓아요. 그러면 인제 목상이 다르면 도장이 다르거든. 그래 도장을 찍어 놓아요.

유동성이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줄을 지른 거거든. 그건 지르게. 이걸 뽑으면 뽑히고, 나무 새간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안 뽑히는데. 이걸 좀 그냥 뽑아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강다리는 잡목이야. 참나무나 느릅나무나. 이걸 잡목이야.

한쪽만 묶어도 안 되고, 이거를 묶지 않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니까.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는 거지. 그거를 그냥 강다리줄이라고 그러지. 강다리줄.

그레는 소나무. 소나무. 그러니까. 다른 나무 잡목으로 만들어도 되기는 되겠지. 안되지는 않겠지만. 무거워. 다루기가. 소나무보다. 그리고 깎기도 잡목 깎는 게 소나무 깎기보다 힘이 더 들고. 길이가 4m. 아니. 아니. 5m 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제. 여게서 인제. 여기 동세가 이렇다면은 삼분의 이 정도 넘어 와서 사람이 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래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5m 정도 하지. 서울 가면은 그레 같은 거는 버리고 오지.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아. 때 내려갈 때 또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가면 이거 화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레 얹히는 나무가 그렇게 긴 게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당타래 위에 얹어 가지고 하는 거지. 강다리 구멍 뚫어가지고. 강다리 얹히는 나무가 한 뼘. 2m 정도 좌우간 해가지고. 요 그레 얹히는 나무야. 강다리라고 하면 강다리 구멍 뚫은 나무 하면은 이거를 하는 거야. 줄은 칩이나 느릅나무 껍질로 하고. 그리고 못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요 옆에. 그레도 요 옆에 메뚜기라는 걸 옆에다 부착을 시켜서. 그 옆에 가서 양쪽 나무에 딱 부착이 되어야 이게 옆으로 돌지를 않는다고.

· 1960년대 서울에서의 뗏목 처리

그때는 서울에 가면 원목조합이라고 있었거든. 나무 조합이 있었다고. 원목조합이 있어가지고, 목상들이 자기네가 아무리 약아 빠져도. 거기서 나무 팔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원목조합에다 위탁 판매를 해버려. 그래 원목조합이 맡아가지고 구부러진 거는 연료로 팔아먹고, 재목은 집 짓는데 팔아먹고. 그때는 서울에서 이 뒷간. 뒤편으로 나무집을 지었어. 그래서 나무 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무를 다 팔면 목상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서 갈 때는 구분을 안 해가는데, 구불구불 한 거는 집 짓는데 필요가 없잖아. 거기 가서 인제, 때꾼이 분류를 해가지고 가지. 거기 가면 필요가 없잖아. 거 가서 분류를 해가지고 하지. 주로 소나무지 뭐. 참나무는 쓰지를 얹으니까. 안 되지. 참나무는 잘 안 때. 가라 얹어. 흑시나.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우째다가 술값 하려고. 한두 개씩 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있기는.

· 서울까지의 뗏목 운송 과정

원주 정도 내려가면 여울이 있어도. 여기처럼 자주 있지는 않아. 덕포에서 가면 그때 시절에는 충주 쌍다리발 있는데. 쌍다리발 있는 데는 그 비아가 두 개라서 그 피해 가기가 힘들어. 여객 출발하면 발전소 앞에 가 제일 힘든 데여. 그리고 합수머리. 거가 별명이 무슨돌배기여. 왜냐 불이 번적 나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여.

길 만드는 거는 사람이 작게 쓰면은 안되거든.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막에 때가 한꺼번에 여섯 바닥 일곱 바닥 이렇게 잘 때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모태 우리 가서 고치자. 합의하에 가서 고쳐지는 거야. 그제. 때꾼들끼리 자기가 언제 다닐지 모르니까. 젊으니까. 다음 올 때. 좋게 편하게 오기 위해서 우리 저기 가서 돌 하나. 없애자 하면은 없애고 그랬지.

돼지우리 지어라. 그러니까. 이 급류에 가서 잘못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선다고 앞이. 거기 왜냐면은 앞에 안 내려 가는데 뒤에서 미니까. 그래 가들이 돼지우리 지라. 돼지우리 그러지. 때꾼들이 들리지. 그래고. 아들이 돼지우리 지라고 할 때는 급류 옆이 아니여. 부락 앞에 애덜이 나와 놀거든. 그러면은. 그때 시절에도. 짓곳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정선에서 영월까지는 많이 탔거든. 서울은 두 번 갔다 와도. 요 중간에서도. 정선 가기

전에도. 강변에 나무가 있으면 뗏목으로 영월까지 다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어떤 아주머니들이 강에 나와. 그때 강변에 나와 세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 있는 옆에 바짝 가지고. “아주머이 아주머이” 그러면 대답할 것 아니야. “자들이 그거 달래요.” 그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애들한테 욕먹은 거를 아주머니한테 복수하는 거지. 그러면 “이놈으 새끼들 너 때문에.”

내려가면서 고향 사람은 잘 못나지 뭐. 만약에 떼가 여러 바닥 내려가면은 주막집에 가서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지. 하여튼 서울 가는 것도 목상이 큰 산을 사 가지고 별채한 나무가 많으면은 뗏바닥 수가 많으니까 여럿이 가고. 그 나무가 작으면은 많은 사람이 안 가고 작은 숫자로 가고 그러지 뭐.

떼가 많이 내려갈 때는 차 모양으로 같이 가다가 앞에 놈이 못 내려가면 뒤에 게 멈출 수가 없거든. 그러면 부딪칠 수밖에 없지. 떼가 돌에 부딪쳐가지고 줄이 끊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이 해결을 하지. 그런데 앞에 먼저 내려간 떼가 주막집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떼가 부딪쳐서 나무토막이 분산되 가지고. 드문드문 내려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먼저 내려간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이 가서 인제. 가에로 부착을 해놓았다가 그 떼가 오면은 주고 가고.

둥글바위가 거기. 뭐야 그전에 그 바위 저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퉁이에 굴이 하나 있었어. 굴이 그레가지고. 고개를 물이 음 물이 지면은 강이 좋고 나쁘고 음물이 지면은 떼고 배고 그 굴로 많이 들어갔었다고. 그레가지고 그거를 여기 순경들 와 있을 때에 사고 방지로 해가지고. 그 깨 가지고 발파를 해서 깨가지고 굴이 없어졌지. 이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 오른쪽 굴이 있었어.

발전소 앞에는 여울이 샌게 아니고 탄을 때서 전기를 얻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인데. 그 탄때를 실어가기 위해서 발전소 건물 밑으로 들어가서 거는 댐 등이 한 4~5m 되나. 근데 물이 여서 이래 내려가다 경사가 이래 졌거든. 떼가 동세로 얘기하면은 한 절반 내려가면은 뒤가 들려서 팔려 내려가고 그 밑에는 물이 내려가니까. 떼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앞사공은 거 내려 가서 조정을 잘못하면은 떼가 깨지고 뒤잡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정 방향을 잘 조절 해놓고. 여 동세라고 있는데. 세 동세나 네 동세 뒤에 가서 서 있다가. 이 물이 내려가서 물속으로 내려가서 앞이 들리면 그레라는 거를 잡고 이제.

그냥 타 넘어 다녔지. 두 번째 갈 땐가 몇 동가리 뒤집혀 가지고. 때를 뒤집어 놓으니까 보기 더 싫더라고. 그래서 저 밑에 가서 한 동가리를 세 쪼가리로 짜개 가지고. 짜개 가지고. 이게 동가리라면 온동가리 밑에다가 한쪽 머리를 집어넣고. 한 반쪽 당기면 위로해서 뒤집고 그래가지고 내려 갔지.

영월에서 서울 가는 거는 충주 저 뭐야 목행인가. 거개 쌍다리 뿔 있는데. 거기가 아주 힘들었어. 그리고 부싯돌배기라는 데하고. 거기가 엄청 애먹었지. 그래서 부싯돌배기 같은 데는 앞에 그레를 두 개 얹고. 앞에서 두 사람이 하다가 부싯돌배기 내려가면은 그레 한 개 때 치우고 그냥 갔지. 앞에 꺾어 돌아가야 하는데. 못 꺾으면 안 되니까.

팔당호라고. 거개는 급류가 한 군데 있고. 다음 급류까지 가자면은 엄청 거리가 멀고. 이래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잘 안 내려 가거든 그런 데가 있어. 그레. 강변에는 새벽녘에는 바람이 내려 불고. 한낮 지나면은 바람이 치분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인제 일찍 출발하지. 그러는 거야. 낮에는 때가 안 내려 가거든.

· 서강 뗏목에 대한 기억

서강에서 내려오는 거는 뿔. 나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여기 와서 합수하는 데는 나무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서강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서강에는 우리 알기로는 뗏목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옮긴 거는 몰라도. 여 와서 절구 한 거는 없어.

· 동강에서의 뗏목 제작

여기(거운리)에서도 만들고, 조 아래 등글바위 있는 데서도 만들고. 요 들어오다 보면은 안택산 들어가는. 거 잣골이라는 데서도 만들고. 하여튼 강변 산에 나무 좋은 것이 있다 하면은 벌채 해가지고 뗏목으로 서울로 가지고 가고 그랬으니까.

정선에서 여 내려오는 거를 골안떼라고 하지. 골안떼라고 하지. 덕포에서 서울 내려가는 거는 특별한 이름이 없고, 그냥 서울떼라고만 하지. 다른 이름은 없어. 정선에서 여 내려오는 거는 골안떼라고 했어.

일정시대 궁궐 중수할 때. 그때 동강의 뗏목이 제일 처음 내려 갔어. 그때. 때 내려간 사람이. 그때는 궁궐을 중수하는 나무는 굵기도 이렇게 굵어야 하고. 곧기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 그 산

마다 없는데 가 많고. 있어도 한두 개나 이렇거든. 그래서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로 내려간 사람이. 정자 대자 용자 하는 사람이야. 고무래 정자여. 그런데 그 양반이 제일 첫 번 갔는데. 그 양반이 돈 좀 먹었지 뭐. 그 산주한테 가서 나무를 얻는 거야. 얻어. 궁궐 중수한다는데. 거기 협조해 다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얻으면. 한 산에 그런 게 있는 산도 있고. 없는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도 달구. 사람도 여럿이 꺼내가지고 강가에까지 꺼내가지고. 여 와서 묶는데. 그거는 이런 못을 박은 게 아니고, 4m가 필요하면은 약. 4m 50cm 정도 짧라가지고. 나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필요한 나무를.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루더 굴이나 칠딩굴. 그거를 틀어가지고 당타래에다 묶어가지고 갔어. 그 궁궐 할 때는. 그때는 못을 박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서울 갔다주고. 거기서 인제 구멍 뚫은 걸 잘라내야 써 먹으니까. 4m를 써먹을려면 4m 50cm 정도 짧라서. 그래가지고 가져갔어. 우리는 대자 용자 하시는 분 서울갔다 온 뒤에 조금 뒤에 성년이 되었거든. 그래서 그분 살아서 그 집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집 벼도 털어주고 그랬으니까. 그 양반한테 직접 들었어. 아마 지금 살았으면 한 백한 삼십. 이십 정도 될 거야. 그때 연세가 많으셨어. 그래 대자 용자 하시는 분이 여서는 협조하라고 얻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마. 돈 좀 받아먹었을 거야. 거운리 분이야. 그 양반이 자손이 없어. 자손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 벼도 털어주고 그랬는데.

· 동강에서의 목재 운송 - 망강풀이[적심]

적심은 가을에 주로 많이 하지. 가을에. 적심이라는 거는. 그걸 ‘적심’이라고도 하고. 그냥 ‘망강풀이’라고도 하고. 망강풀이. 그러니까. 나무를 강에다 막 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강이 가득 찬다는 말이야. 찰 만자 망강이거든. 그래 놓고 양쪽으로 사람이 몇 사람 내려가고 하면서. 사람이. 나무가 자꾸 가로 붙거든. 그러면 사람이 양쪽으로 내려가민. 사람이 내려오면서 자꾸 밀어 놓고. 또 저. 후미져서 나무가 안 내려 가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배를 한 척 가지고. 그 나무를 후리를 해가지고서. 몰아내서 가져 가고. 가져 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해 본 일인데. 저 와이어 줄. 이런 거를 강을 건내 질러서. 그것도 약간 대각선으로. 강을 건네서 질러 놓고. 땅에다 지팽이 양쪽으로 질러 놓고. 그래놓고 거기다 낭구를 한 토막씩 붙이는 거야. 좀 굵은 나무를 그래 내려오다 나무에 부딪혀 비쭈하게 한 쪽으로 대각선으로 해놓았으니. 물린단 말이야. 그럼 가세에서 자꾸 꺼내면은 다 꺼내. 그래 적심을 망강풀이라고. 강을 채워가지고 간다고 망강이라고.

· **영월 지역의 대표적인 목상**

영월에 정선 사람으로는 김성대라고. 김성대 목상이 컸는데. 그 사람 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연당 가서 잠업을 했어. 근데 그 양반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잠업을 하려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갔거든. 빌려 가서 잠업을 했는데. 나중에 본진만 가지고 아버지를 갖다주었거든. 갖다주고서. 왜 이자를 안 받았느냐. 아들한테. 아버지 돈도 니가 필요해서 꺾간 거는 반드시 이자를 줘라. 그래야지. 아버지 돈이라고 이자 안 주고 써버리면은 잘못하면 길을 잘못 간다 이거야. 김성대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 그 아들이. 그 연당서 잠업하다가. 영월 산림조합 거게도 관계가 있어. 우린 그 아들과 만나고 얘기도 하고. 성대도 알고. 성대 아들도 알고. 그리고 또 전 뭐이더라. 그 사람하고. 정선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목상을 크게 했어요. 정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목상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물길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 인부를 써도 알고서 쓰는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그전에 여기도 나무를 허가를 내서 벌채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어디가 벌채를 해가지고. 허가 안내고 벌채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순경들이 여기 나와 있었어. 파견되어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혼난단 말이야. 걸리면 대판 혼나고. 앞으로 못 땡기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서에다가 목상이 아주. 알아서 조끔 주면. 그 원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랬지.

· **서울에서 영월로 돌아오는 과정**

올 때는 우리 올 때는 열차가 영월 안 들어 왔었어. 그 당시에. 제천까지 열차 타가지고 와가지고. 제천서 버스 타고 와서 영월로 왔지. 들어온 지가 꽤 많이 늦게 들어 왔어.

· **영월읍 거운리에서의 뗏목 전승**

지금 뭐 내가 데리고 축제가 계속해 내려왔으니까. 거운의 젊은이들도 참말로 거의 다 배웠어. 배워가지고. 젊은이들이래봐야. 오십 대고 육십 대고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하지. 때 다 땡 수도 있고, 영월까지 가는 데는 다 하지.

· **사고 난 때꾼에 대한 처리**

때를 타다가 잘못되기도 하는데. 동료들은 그때 시절에 협조는 안 하고. 그래도 고용자는 목상이거든. 목상이 인제 좀 협조를 해줄뿐이지. 나무 장사를 목상이라 그러지.

채록 내용	뗏목 제작
채록일	2021년 5월 12일
채록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흥원도 자택
채록자	최명환
채록 내용	<p>· 뗏꾼 모집 방법</p> <p>목상들이 뗏꾼을 모집을 안 해도, 그게 돈벌이기 때문에 어데 목상이 뗏목 묶어가지고 갈 참이다 하면은, 뗏꾼들이 스스로 찾아가. 그래서 우뉘 때는 사공 숫자가 많아가지고 참여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나무가 떼가 이게 몇 바닥 나온다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덟 바닥 하면 열여섯이 필요한데, 십팔 명이 갈 때도 있거든. 그러면은 떼가 모자라니까, 할 턱 뭐 그것도 인제, 초반에는 서울 갔다 오고, 앞 사공 한 사람, 그 사람 콩무늬를 따라가야. 그 사람, 붙들어야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지. 초보자가 그냥 간다고 목상이 골라 세우는 게 아니야. 해본 사람이 내가 데리고 갈게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가고 그러는 거지. 앞 사공이 목상한테 가기 전에 뒤 사공을 데리고 가. 이 사람 쓰겠다고, 그것도 인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시켜 주어야 되겠거든. 그래 데리고 가는 거야. 사는 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편에 의해서 데려간단 말이야. 주로 이웃에 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를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부탁을 하면 떼가 넉넉하면 데려갈 수도 있고, 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수가 있지만은, 뗏목이 작으면은 그냥 하나면 데리고 가는 거지 뭐, 사공이 쓰는 거지 뭐, 목상이 쓰는 거는 아니야.</p> <p>· 앞 사공과 뒤 사공의 역할 분담</p> <p>앞 사공은 작업 과정을 초보자를 시키 가면서, 시키 가면서 인제, 이게 이 나무가 인제 이게 둘이라면은 인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앞만 꺾으면은 뒤가 횡 자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돌려주어야. 그래 같이 꾸부정하게 해가지고서는 물골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앞 사공이 물길을 당연히 잡지, 뒤 사공은 앞 사공의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있어, 앞이 힘든 장소라고 하면은 앞 사공이 이쪽으로 당기면은 뒤 사공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밀어주면 앞이 빨리 꺾이거든. 그럼 조금 돌아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래 뒤 사공도 눈치가 빨라야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리고 그, 도둑그레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인제 앞에 돌이 있어서 꺾어 돌아가잖아. 그럼 먼저 뒤를 땡기는 사람이 있</p>

단 말이야. 그럼 앞이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도둑그레질이라고 하는데. 앞 사공 모르게 슬슬 하는 거야. 도둑그레질이라고. 이게 바위가 나오니까. 내가 바위에 부딪힐까봐 겁이 나니까. 미리 그 바위를 피할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갈라면은 앞에 거가 먼저 돌아간 뒤에 땡겨야지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앞 사공 몰래 살짝살짝 돌려놓으면 앞 사공은 죽을라고 힘드는 거지 뭐.

· **뗏목에 싣고 가는 도구와 재료**

삿대는 물이 위에서 안 내려갈 때. 삿대가 자라는 데는 땅을 짚고, 때를 밀 수도 있고. 가에 부착할 때나. 새로 출발할 때, 그럴 때 삿대를 쓰는 것지.

때 위에는 삿대하고, 못하고 줄 약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 끊어지면 가다가 매야 하니까.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야.

· **영월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뗏목 운항 시간**

삼사일 걸리도록 물이 많으면 못가. 왜 못 가느냐 갖다가 부착을 못 시킨다 말이여. 유속이 빨라가지고. 강변에 갖다가 부착을 못 시켜. 그래서 한 그래도. 일주일 이상 열흘 갈 궁리하고. 때를 띄우지. 그전에는 안 만들어. 삼사일 안에 서울 갔다 왔다는 거는 공갈이야 공갈. 예를 들어 생각해 봐. 하루에 100리씩 가도 서울을 엿새는 가야 서울을 간단 말이야. 하루에 100리씩 가도. 북한강보다 여기가 더 멀지. 거기는 여기만치 안 걸리지.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잡아야 돼.

· **동강과 한강의 주막집과 숙식**

옛날에는 우리 뗏목 탈 때는 나무 때는 온돌방이라구. 온돌방이야. 그래서 때꾼들 사람 많으면 어떨 때는 비잡게도 자고. 널찍하게. 뗏목꾼이 없으면은 널찍하게도 자지만은. 또 어떤 비자와서 애를 먹고 자기도 한다고. 주막집도 그렇게 널지 않거든. 촌에 맨날 초가집이고. 그랬으니까. 넓지 않단 말이야. 지금처럼 몇 십평 그러지 않고 삼칸땡집에 그저 사칸 겹집에 그 정도가 최고거든 아주. 밥값만 받고 방값은 안 받지. 밥값만 받아. 방은 공짜지. 혹시나 자기네 집에서 다 못 재우면은 이웃에 사랑방 쓰는 집이 있거든. 그러면은. 주인이 가서. 그 사랑방 쓰는 집에 가서. 의사를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아서 다 못 자서 그러는데, 재워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방 있는 집주인이 허락하면 그 집에 가서 인제. 자기도 하고 그래요. 봄에도 타고 여름에도 타고, 가을에도 타고 그러니까.

주막집에서 반찬이 솔직히 고기반찬이라는 게 힘들고. 고치장 된장에 나물이나 채소 뭐 하고. 뭐 그때에 따라서 반찬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수시로 달라지잖아. 그런 거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지. 나물 반찬이 많지. 고기반찬이라는 거는 이제 없고. 만약에 반찬이 좋다고 하면 더덕이나 마늘쫑 가지고 지 담아놔두었던 거 해주면 그게 반찬이 좋은 거야. 그거 지 담는다고 그러거든. 더덕이나 마늘쫑 같은 거는 고치장 단지에다가 담아놔다 먹고 그러지. 그리고 고추는 된장에다 지 담고. 지를 담아도 마늘쫑, 더덕, 도라지 등만 했지. 다른 거는 지 담을 줄도 몰랐고.

· 뗏목의 옷과 신발

평상시에 잘 내려가면은 무릎팍 위에 까지만 걷고 가도 옷이 안 젖어. 그런데 이제. 어대가서 잘못 부딪치면은 옷이 젖고. 급하면은 옷을 벗어 놓고 들어가서 못 견디거든. 옷 입고 들어가 견디고 하고, 바쁠 때는 신발은 뭐 그때 짚새기지 뭐. 올 때도 짚새기지 뭐. 짚새기 신고 기차 타고. 그때는 우리가 아마 고무신도 사 신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 영월에서 서울까지의 뗏목 운행

가다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앞에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뒤에 사람이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고. 앞에 사람이 잘. 실수 없이 잘 가는 데 뒤에 사람이 실수하면 멀어지면 못 만나는 거고 그런 거지. 아침에 같이 떠날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막을. 물막을 잘 아는 사람은 조금 험해도 힘 안 들이고 빨리 가는 데. 물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늦거든. 그래서 가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서울에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올 수도 있고. 같이 못 오고 따로 올 수도 있지만은. 거의 그 서울 가는 거는 거서 하룻저녁 잘 때도 있고.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려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뭐.

목상은 종점에 어데 정해 놓으면은 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한꺼번에 내려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온 패도 있고 내중 온 패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온 패가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도 영업집에서 자는 거지. 거기도 똑같지 뭐. 여 우쪽이나. 하여튼 그때는 강변 부락에 영업집이. 부락마다 있었어. 부락마

다. 도보 행상꾼들도 가다가 인제 자야 되거든. 자야 되니까. 그 부락마다. 거의 주막집이 한 집은 있었다고. 반찬은 서울이 물론 좀 낫지. 여기 시골보다가. 근데 뭐. 아무래도 조금 비싸지. 밥값도 조금 비싸. 그 자는 위치도 사람 많은데 갈수록 조금 낫거든. 자는 위치도. 그래서.

·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는 통 놓기

통짜는 거 알아. 받아 내리는 건데. 이 꼭대기에 나무 놓는데 사람이 있고. 끄트머리에 사람이 조금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도비를 가지고 찍어서 쥐 놓고 하는 거라고. 나무가 많아야 통을 놓지. 나무가 적으면 통도 못 놔. 만든 거는 안 했어도. 나무도 내려도 봤고. 뜯어도 봤고 그랬는데. 원래 통을 큰 산관은. 인제 밑에서부터, 우에서부터. 인제 밑에서부터 치 놓거든. 통을. 치 놓으면 쪼금 놓고. 올라가 놓고. 또 한 단계 올라가 놓고. 놓고. 맨 꼭대기까지 예를 들면 저런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내려도 이 밑으로 단번에 내어 온다구. 통은 치 놓아야지.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놓는 사람들은 이 밑에 놓고. 그 위에 놓을 때는 이 밑에보다 조금 높여가지고 맞춰 놓는다고. 그게 원래는 바닥에는 가느다란 나무 세 개를 놓고 그 위로다고 소품을 대고, 그 위에다가 큰 나무로 품을 댄다고. 그리고 나무 통이라는 걸. 나무가 일곱 개가 연결되서 딱 가는거야. 그래 거기도 받침도 한 것도 나무를 도꾸로 찍어 가지고. 그 새간에다가 돌이고 낭구를 깎아가지고. 꼼짝 못 하게 하고 이런다고.

· 아라리

영월에 내가 맨든거는 영월에 단종대왕 죽을 때 승하시에 시너 빠져 죽은 낙화암이 있는데, 그 군수보고 낙화암을 찾아줄 수 있느냐고. 지그 글씨가 안 보이거든. 그 전에는 덕포에서 건네봐도 흰히 보였거든. 환희 보였거든 낙화암이라는 글씨가. 그래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무래도 운재가는 낙화암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리랑을 지은 게 있어

충절에 고장 영월에는 낙화암이 있는데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보이지 않네요.

이 언젠가는 뗏목아라리가 유행이 되면은 언제 가는 찾을 거다. 그런 생각이야. 그전에 병창에 배 타고 떼 타고 내려가도 덕포에 건너에서 내다봐도 흰하게 보였거든 낙화암이라는 글씨가. 이 세 개가 그리고 등글바위도 거 자연암이라는 우리는 못 봤는데. 그 문화원장한테 들으면은 그 등글바위도 자연암이라는 글씨

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군수들이 역사적으로 남길만한 건대 이 낙화암을 왜 안 찾는지 모르겠어. 왜 안 찾는지.

· 동강에서의 적심

그거는 같이 내려갈 사람들이 거의 지게로 저서 쏜다고. 강에다 막 풀어 놓고 들이밀고. 뒤에서 배를 가지고 줄에다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후리를 해서. 양쪽에서 줄을 달이고. 혹시 바우에 걸리는 데는 배가 가서 뺏겨 냉겨놓고 그랬어. 포리꾼이라고 그러는데. 포리꾼이 다하는 거야. 밀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저 놓아가지고서. 종점까지 가는 거야. 나무가 여울에 걸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인제 하고. 물이 위험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배가 하는 거야. 그냥 물에서 하나. 험한 데서 하나 포리꾼이라고. 포리꾼. 줄 양쪽에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안 내려가고. 나무가 가로 물린단 말이야. 가쪽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양쪽 가에서 내리 달이는 거야. 달이면은 줄이라는 데 나무를 한 토막씩 묶었거든. 나무가 이리 내려 오니까. 나무가 줄에 갇혀서 탄 데서 슬슬 내려오는 거야. 줄을 당기는 사람도 맹 포리꾼이라고. 나무를 같이 내리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야. 그것도 목상이 개별적으로 사람을 쓸 데도 있고, 그 쫓 이력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열매에 아주 대번에 열매에 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행을 해 가지고. 다 쥐 놓고. 가져 내려가고 그러는 거야.

서울페가 못 가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추력으로 역으로 가는 거야. 역에 가서 고삐에다 실는 거야. 때로 갈 때는 뗏목이 가니까 포리꾼이 아니지. 그거는. 뗏사공이 가지고 가는 거지. 그전에는 포리도 없었는데. 나무가 자롬한 걸 묶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공들이 서울도 많이 못가지고 가니까. 강에서 꺼내주는 건대. 그 목적지까지 가면 나무를 꺼내서 차에 실는 사람이 거기 있어. 그 사람들이 실어서 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떼가 내려갈 때는 포리를 안 하지. 포리라는 거는 물이 한 열흘이나 이 정도 흐름이 없는 것을 알아야 포리를 넣는 거야. 물이 많으면은 포리 하면 나무를 다 놓치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물이 더 늘지도 않고. 그냥 한 일주일이나 열흘 팬참을 것이다. 그래야 포리를 하는 거야. 통 놓는 나무는 하마 나무가 굵고. 뗏목을 묶을 거고. 그런 나무는 나무가 생긴 게 많지 않고. 포리한다는 것은 아주 쪼리 거. 화목들어갈 것. 그런 거를 하는 거지. 거긴 건축용도 있고. 화목도 있고. 그렇지만 통 놓고 이러는 데는 화목할 나무는 작고. 건축용으로 많이 쓰고.

뗏목 내려갈 때는 적심은 안 해. 왜냐 물이 늘었다 줄었다 할 시기거든 뗏목이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물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는 고정적으로 한 십일 갈 그럴 경우를 봐서 하니까. 아주 늦은 가을. 늦은 가을에 포리를 많이 하지.

위치에 따라서 그걸 무너뜨리면은 주로 강가에 경사진 곳에 갖다 놓거든. 거서 그냥 굴리면 강까지 내려가도록 설치를 해놓는 거지. 뗏목이 안 내려 갈 때 적심을 하는 거지. 좀 멀리 있는 데는 쥘서 넣기도 하고. 좀 가까운 데는 밀어 넣기도 하고. 쥘서 넣는 것도 맹 포리꾼이 하는거야. 그러니까. 포리꾼이 뗏사공도 될 수 있고. 뗏사공이 포리꾼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여.

· 뗏목 고사

그 사람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막걸리 통자 갖다 놓고서. 술 한 잔 뷔 올리고. 제사 지내고 인제. 떼꾼들 하고 같이 한 잔 하고. 옛날에도 했어. 지금처럼 저 뭐여. 그 잔치처럼 안 하지만은 그냥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포하고 인제 그 달아놓고서는 한 잔 부어서 절하고. 그 술을 물에다 뿌리고서는 인제 사고 없이 보내달라고. 말하자면은 그걸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야. 물 밖에 차리고 절하고. 술을 인제 물에다 뿌리지. 잔 올린 술을 물에다 뿌리고. 보통 돼지머리하고 포하고 실하고. 그 인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인제 나중에 촬영도 오고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것도 놓고 그러지. 그 때는 떡도 우째다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돼지머리, 포 정도, 목상이 하는 거지. 목상이 절하고 잔 올리는 거지. 돈 푼아 놓고 그러는 거는 없어. 같이 먹고 그러는 거야. 물에 인제. 술 한잔 부어 올리면은 쪽 둘러앉아서 한 잔씩 먹는 거지. 출발은 목상이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는 저녁 판에 술을 먹고. 조사 지내고 술을 먹고. 그 이튿날 출발하지. 아침에 술 먹고 잘 출발은 안 하지. 그거를 고사 올린다고 하지. 고사 올린다.

· 뗏목 운송과 관련한 금기

떼꾼들은 쟈매 인사 잘 안 해요. 그리고 나무 있는데 오면은 하마 집하고는 다 거리가 멀고. 가깝지도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갈 때, 나갈 때 그냥 뭐. 수고해요 뭐 그런 거는 하지만은 뭐 잘 갔다와요. 그런 소리는 안 해. 그리고 여자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옛날에 주로 금식이라고 할까. 개고기 안 먹고, 상가집에도 쪼매 잘 안 가지. 본인 명의로 고사를 올릴 때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목상이 하면 목상이 그런 것도 가리고 조심하는 거지. 자기가 인부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주의해야지.

· 사고가 난 뗏목에 대한 처리

뗏목을 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우째다 간혹 있었지. 그러면 목상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목상이 오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오는 거지 목상이 오랏소리를 안 했거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큰 책임은 없지만은 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깐. 목상이 장례를 지내는데 보탬은 해야지. 전적으로 도와줄 그런 거는 아니야. 사공들이 나무 있는 데를 찾아가지. 목상이 누구를 오라 소리는 안 했거든. 목상들도 업은 업이데. 연속적인 업이 아니거든. 임시직이거든.

· 목상과 뗏목과의 거래

물이 작을 때는 이십 일 이상.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물이 좋아야 일주일에서 열흘 가는 거지. 한 번 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면 백만 원, 칠십만 원이면 칠십만 원.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쪼끔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갓다주는 건 똑같아. 좋은 나무나 구부러진 나무나 가져다 주는 거는 똑같이 힘들지. 그러니까. 뗏목사공이 받는 인건비는 똑같이. 그래서 인제. 서울 가면은 그 노량진이나 뚝섬에 갔다 대면은 그 쪽 사람들이 나무를 받아가지고 분류를 할 때. 연료목 따로. 목재용 따로 놓는다고. 그래서 분류하는 거야.

· 뗏목 제작 시기

뗏목 만드는 시기는 목상이.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목상이 시기를 정하는 거지. 사공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지. 만약에 물이 아주 작을 때 하면은 70만 원 하던 거를 100만 원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돼지. 합의해야 해. 가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 한강 소금배

옛날에는 여기도 염선이 올라왔었는데. 소금배가 올라 왔었는데.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 소금배를 가지고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배에 싣고 올라오민. 부락에 돌아 댕기며 판단 말이야. 사면은 그냥 주소 성명 물건명만 적어 놓고 그냥 주고 바로 올라가. 쪽 팔면서 여까지 올라와다가 내려가면서 걸어가지고 가는 거여. 그래 인제 무거운 걸 싣고 올라올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땐 시절에는 돈이. 엄선 다니고 이럴 때는 돈이 별루 없었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바꾸고 그랬지.

· 뗏목 운전 기술

기술이라는 게 물막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 옆에 가로곤치는 게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기술이 쪼끔 늦게 하면은 위험성이 많고, 미리 잘 단도리 할 참이면. 내가 일로 갈 참인데. 여기서부터 잘 인제. 조정을 하면은 그길로 가는데. 좀 늦게 시작하면 피하기에 엄청 애를 먹는 거지. 판단을 빨리 해야지.

· 홍원도의 뗏목 경험

초보자로 두 번 다 뒤 사공을 했지. 엄청이 많지 한 우리 친구 아버지니까. 한 20년 차이 나지 뭐. 김태순이라고. 생각이 나요. 내가 살기가 곤란하니까 서울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했지 뭐. 그때가 20대 후반이지. 26살 때이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여기 정선서 중간중간 내려오는 때는 많이 탔는데. 골안때 많이 탔는데. 서울 가는 거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영월까지 많이 탔지. 그것도 배에다가 목선 배가. 짐을 일톤 싣고 내려가고. 일톤 싣고 올라오고 그랬거든. 그걸 내가 앞 사공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앞 사공을 많이 하니까. 어떤 그 우리보다 다섯 살이나 더 먹은 양반이 김성호라고 떼 매러 가자 이기요. 갑자기. 그래서 골안때는 내가 첫 번 부터 앞 사공을 했단니까. 뭘. 가자고 그러니까. 돈벌이 하자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따라갔지. 우리보다 다섯 살이 더 많은데. 떼를 매어 놓고는 그 양반이 기자고 했으니. 그 양반이 앞 사공 할 줄 알았거든. 묶어 놓고는 나보고 앞 사공을 하라는 거여. 그 양반은 인제. 그 양반이 앞 사공을 안 해봤어. 나이는 나보다 다섯 살이나 많아도. 나는 배를 앞 사공을 많이 한 사람이구. 그러니까. 그래가지구. 그 형하고 갔는데. 하여튼 영월까지 무사히 갔어. 아무 사고 없이. 그러니까. 아 잘한다구. 초보자가 떼를. 내가 배를 가지고 그 전에 가지고 다니던 그게 있으니까. 다 잘했지.

· 동강에서 운영되었던 목선 제작과 운영

목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바다 배하고는 틀리고. 바다 배는 주로 인제 뭐. 이 밀이 이런데. 여기는 바닥이 넓적하고. 앞으로는 뛰어나왔는데. 밀으로는 뽕족하지 않단 말이지. 그

래가지고 거다 싣고 내려갈 때는 두 사람이 가지고 내려가는 데, 올라올 때는 짐을 실었으면 네 사람이 올려야 돼. 배에다 짐을 싣고 올라오니까. 여기서서 뒤 옥수수, 콩 이런 거 싣고 내려가지. 올라올 때는 두 사람이 강변에서 요런 줄을 가지고, 강변에서 다리고. 두 사람은 배에 붙어서 물이 안 되면 배 안에서 샷대를 질러서 슬슬 가다가 급류 여울이라는 데 가면은 둘다 내려서서 배를 붙들고. 배가 가에 안 닿게 바우를 피해가기 위해서 밀구. 그러고 올라왔지.

배 만드는 사람을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짐 짓는 것만 대목이 아니라. 배 만드는 것도 대목이라고 있었어요. 거운에는 없었고. 번재 부근에 엄중완이라고. 영월 등굴바위 주변 번재에 엄중완이라고 그 양반이 대목이었었지. 한 배 만드는데 주인이 협조해 가면서 해도 한 4일. 소나무로 만드는데. 한 4일 걸려.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은 만들기 힘들니까. 꼬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 갔다 오는데. 뱃삯을 얼마큼 받게 하고. 한 부락에 그래서 그런 목선이 두 개 정도 거의 있었어. 목선을 가지고 있는 집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이지. 그냥 배를 영월 한 번 갔다 오면 얼마씩 주는 거지. 뱃사공은 그 물건 임자한테 물건 운송을 시키는 물건 임자한테 고용단가를 받는 거지. 물건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배 주인한테도 뱃삯을 내야 하고, 뱃사공한테도 뱃삯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공한테 물품 주인이. 사공한테 없혀서 냉기기도 하고. 따로도 하고. 그 목선은 오래 했어. 70년대 초까지 했어. 왜냐하면 이 다리를 새마을 사업으로 놓을 때 72년도에 놓았거든. 그때까지 배가 다녔으니까.

거운리로 넘어오는 길은 원래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댕기는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넓힌 게. 그 밀가루 가지고 새마을 사업할 때. 밀가루 가지고 할 때 그때 인제. 길을 뚫어가지고, 그 길이 나면서 배가 없어진 거지.

사람이 지고 가면 열 사람 이상이 지고 내려가야 할 거를 두 사람이 지고 내려가니까. 올라올 때 짐을 실었을 때는 두 사람이 줄을 다리고 두 사람이 배에 붙어 있고. 짐을 안 실었을 때는 배에 한 사람 강변에서 한 사람 그래서 올라오고. 어깨에다 메고 등허리에 걸쳐서 이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이 줄을 이쪽 손으로 당기면서. 그래가지고. 줄은 언제나 배 앞에 매야 돼요. 앞에 약간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휘어진 그 앞으로 배 안으로 쇠장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을 거기다 매가지고, 줄 하나를 매고 두 사람이 끌 때는 종줄이라고 줄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를 더 달지. 줄은 한 개고, 줄은 옛날에는 뭐여, 삼 그거 가지고 삼베 그 바를 가지고 했고, 나중에 나이롱 줄을 가지고 했지. 보통 힘든 거 아니야. 그래도 가다보면은 바위에 배가 닿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소리를 질러, 좀 늦추라고.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우째다가 피하지 못하고 닿는 때가 있거든. 그러면 좀 늦추라고. 줄을 툭툭 치면 돌아다 본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손으로 맞추는 거지. 줄을 매고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밤에도 대충 알거든. 그런데, 이제 그 밤에 끌고 오는 거는, 많지는 않아. 어찌다가 있지.

옛날에는 가마니. 장작을 썰가지고 가마니를 영월읍에다 팔기도 했거든 돈이 아쉬워서. 근데 그 한 번 그날 재수가 없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순깁총이 푹 뿌러져, 식은 밥을 먹는데, 그래서 인제 같이 갈려고 했던 사람보고 나 안 갈테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거라. 나 안 갈테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 때 인제 거운지서도 있었어. 아이 괜찮다고 가자고 가자고 해 그래 출발해 갔는데, 요 밑에 부락. 거 뭐야. 반터널 있지 반터널. 고모탕이 가다니까. 저쪽 건너 강 건너 사람들이 불러, 나를 보고, 그래 대답을 하니까, 가지 말란 말이야. 산 감수가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갖다 파는 걸 아니까, 가지마라 그래. 인제 가서 기껏 기다려 가지고, 어둑어둑할 때 인제, 다시 나서가지고 내려갔어. 저 둥굴바위 내려가는데, 아 이 사람이 털썩 둥굴바위 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같이 내려갔네. 근데 배가 내려가다니까, 읍에서 올라오는 배가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주고받았던 말이야. 그래 옆으로 가다가 다 들었던 말이야. 들었어. 그래서, 저 밑에 마지막 승지목이라는 여울에, 거 인제 내려가는 참인데 불러, 그래 대답을 하니까, 배를 여 갖다 대보라고, 하마 좀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여개도 못 내려가는데, 거개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고, 저 밑에 갖다 댄다고, 그래 갖고 내려와서 그 밑에 갖다 댔어. 갖다 댔다마는, 이제 건을 잡으니까,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래 어떻게 그래 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장작 실은 거 가운데 삼분의 일을 달라는 얘기가야. 그럼 흙 안 잡겠다 그래. 그래 그럼 주마, 주고서는 그래 강변에 갖다 대니까, 그 산 감수 말고 지방 순경이 또 나오네. 나오니까 산 감수가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지금 내가 붙들고 취조 중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영파에 들어 왔다 가라는 얘기에, 불일 보고, 그런다고, 그래 돈은 아수위 죽겠는데, 생각해 보니 안 되겠

어. 리어카를 한 리어카를. 배의 삼분의 일은 그 뭐야. 산 감시원 주고는 우리가 갖다 팔아버렸어. 그 냉기지는. 그래 산 감시원 몫은 주었는데. 아침에 영파에 들어가면 혼날끼고. 그래. 안되겠더라구. 그냥 가자. 바로 가자. 영파에 걸리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들린다고 대답을 했어. 그래. 바로 올라왔어. 올라와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지소에 엄동호라고 순경이 있었거든. 그래 찾아갔지. 사실 벌어먹고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라는 거 안 들어가고 왔다.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되나? 알았어. 그래 저 찌리 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그랬으니까. 무효화 하자 그래서 괜찮아졌어.

채록 내용	옛목 제작
채록일	2021년 7월 23일
채록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흥원도 자택
채록자	최명환
채록 내용	<p>· 옛목 출발에 앞서서 지내는 고사</p> <p>60년대는 강고사. 그 고사라는. 고사 지내는 음식. 사람에 따라서 준비를 더 하고 그랬어. 만약에 서울에 가는 때꾼이 여섯이다. 열이다. 스무 명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때꾼이 많으면 많이 준비하고 적으면 조금하고 그러는 거야.</p> <p>그럼 목상이 하는 거지. 목상이 “서울까지 가는 데에 사고 없이 가 주십시오.”라고 하며 마을 물에 용왕제를 지내는 거야.</p> <p>예전에는 때판에 올려놓지 않았어. 강변에서 강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에는 상도 없었고. 포 한 마리. 실 한 타래. 낭게 [나무]에 매달고, 술 한잔 퍼 올리고 제사 지낸 거고. 그제 목상이 사람을 많이 쓸 때는 나무가 많은 거야. 사람이 많으면 많이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실컷 먹도록 준비하는 거지.</p> <p>사람은 많으면 돼지머리 올리고, 떡을 하는데 팔떡을 해. 떡시루 채 올리고. 돼지머리 놓고, 밤, 대추, 곶감, 복어, 실, 한지를 올려. 한지는 실을 반 갈라서 걸면 걸려서 두 길이가 나와 그러면 나무에 묶는 거야. 포하고 묶는 거야. 살아 있는 나무에 묶는 거야.</p> <p>지내는 것은 강변에서 용왕이고 술이고 음식만 대접하면 되지. 실이고 복어포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 고사 지내는 거지. 그런데 용왕에게 고사를 지내는 거야.</p> <p>그럼, 뭐 때 판에 달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지. 제사 지내는 강가에 웬만하면 나무가 다 있지. 나무가 없는 건 아니야. 어떤 나무인지 문제지.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오래된 나무에 묶고, 생년이 몇 년 안 된 나무에 묶는 게 아니고. 한지에다가 복어랑 같이 실로 묶어 놓아. 나무 밑에는 따로 안 지냈어. 그냥 용왕 제사 지내고, 술 한 잔 부어 놓는 게 다지. 처음에 가서 나무에 복어랑 한지랑 같이 묶고, 상을 차릴 때, 돼지머리 올리고, 시루떡하고, 포하고, 포 올리고 붙으러 매지. 그런데 원래는 포하고 술 안주하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그걸로 안 되니깐 더 준비하는 거</p>

지. 때에 따라서 목상 맘대로야. 자기가 맘껏 준비하는 게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조금 더 들여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조금만 가져가는 사람은 조그맣게 지내거나 안 하고 그러지.

나무에 묶는 것은. 원래 목상이 산에 나무 서 있는 것을 산단 말이야. 서 있는 걸 사서 그걸 베어내서 자르고, 옹이 다듬고 껍질을 벗겨 내지. 그걸 다 해 내려와도 처음에도 벌초할 때도 조그만한 산에도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야. 나무 벨 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을 많이 쓰면은 사고 안 나는 게 목적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판이 끝날 때까지 사고 없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제물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막걸리하고, 뭐 술 하고 조금 준비해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실 매 놓고, 갈 때도 실하고 북어포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낸다고 하면 실, 포는 꼭 들어갔거든. 아이들 돌 때도 실이 들어가는 건 오래 살라고 다는 거야. 끊어지지 말고 오래가라는 거지. 그래서 나무 벨 때도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다 베고 때를 묶어서 갈 때는 제사 지낸 것을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없으니 나무에 묶어 놓고 술 한잔 부어 놓고 가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묶으니까 먼저 묶는 건 아니지? 초는 없고, 향은 피우지. 산 제를 지낼 때는 나물을 그렇게 위시하지는 않아. 불교 쪽에서 위시하지 일상생활에서는 먹는 것이 나물인데 나물을 크게 위시 안 해. 우리가 먹고 가야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떡도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루 조금씩 준비해서 다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먹고 가는 거를 봐야 기분이 좋지. 뭐 누가 하나도 입에 안 드시고 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때는 없었어. 옛날에 없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도 그렇고, 안 올리던 거 많이 올리고. 개인들도 제사를 지낼 때 안 올리던 것도 올리는 것이 세월이 변해서 잘 살아가면서 제물 올리는 것도 많이 변경됐지.

첫 잔은 목상이 올리지.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인부가 사고 나면 안 되고, 나무도 잘 가야 해서 목상이 먼저 올리지. 그게 왕에 대한 절은 죽은 왕에 대한 절은 4배를 하고, 그리고 부처한테는 2번, 3번 이상으로 하고 이러지만, 왕이든 제례든 4배를 해야 해. 용왕이니까 4배를 해야 해. 그래서 일반인 죽으면 2번 하고, 부처한테 가면 3번하고, 왕이나 신한테는 4배를 해야지. 여기 래프팅 업체들이 매년 고사를 지내 자나? 그럼 군수도 올 때도 있는데, 내가 사회를 보면 4배를 시켰지. 목상이 4배를 하지. 때꾼은 연령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헌, 삼헌해서 많은

두 사람이 올리는 거지. 처음에는 축문이 없었는데, 고사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한 해 만들어서 읽었는데. 원래는 축문이 없었는데, 그것도 축 내용이 무사 안일로 서울까지 다녀오라는 내용이 지. 영월 뗏목 축제하면서 한해인가 이듬해인가? 저 위에 경옥이가 축문을 지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읽어.

지금은 강가에 고사를 지내는 데서 목상들한테 4배를 안 시켜. 고사 관에서 시키면 하는데 강가에서는 안 시키더라고. 그전에는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현과 중현은 두 번씩 하고. 그렇지. 두 번씩 하고. 만약에 영월 축제를 하면 군수가 목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땐 광목으로 된 옷은 안 입고, 묶어서 내려갈 때 입고 내려갔지. 작업할 때 안 입다가 한해인가, 언제인가? 입고 작업한 적이 있는데, 안 입었어. 그런데 금년에는 다 입고서 29일에 입을 거야. 준비하는 날부터 입을 거야. 그날 가서 나무 다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레가 원래 새로 깎으려면 힘들지만 깎으려나 모르겠어. 그레를 새로 깎기가 힘들어. 나무도 산에 올라가서 베면 있겠지만 가지고 오려면 힘들어.

음복하고, 남은 건 일반 때꾼들이 먹으면 끝나는 거지. 원래 올린 잔을 강에 뿌리는 거야. 강에다 뿌리고, 부정 배킨다고 하지. 만약에 때 타러 온 사람이 사람 죽은 것을 봤다든지, 혹시나 부인네들이 그 경도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부정을 배킨다고 한 마디하고 강에 뿌리지. 주로 사회를 보는 집사가 뿌리지. 집사는 어디를 가도 일꾼이거든.

시연하는 강가에는 나무가 없어. 그런데 없으면 조금 들어와서 나무 하나 골라서 묶으면 되지. 지금도 등글바위 바로 위에서 해. 물이 아주 많으면 저 밑에 태백산 다리 밑에서 하고, 물이 원만하면 거기서 해. 올해도 그렇게 할 거야.

· 때꾼들의 의복과 신발

그때 광목에다가 바지저고리 입고, 수건이지 띠가 있나 수건 두르고 갔지. 그때는 일반 평상복으로 저 맘대로 입고 갔지. 신발은 짚시기[짚신] 신었지. 우리 할 때는 고무신 신었지. 그전에는 궁궐 중수할 때는 짚시기 신고. 좀 잘 사는 사람은 삼 갖고 만든 미투리 신고 그랬지. 고무신은 그렇게 안 미끄러워.

· 영월 덕포에서 서울 내려가는 뗏목

그러려면 떼가 세 바닥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거는 균하고 절충해야 하는데, 우선 나무가 세 바닥이 되는지 문제고, 일꾼도 세 바닥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야지. 만약에 서울 가려는 떼를 만들려면 서울 갈 떼는 물이 적당하다면 앞뒤 사공이 한 개만 해서 그레 하나씩 달고 갔지만. 그 발전소 밑에까지는 앞 사공이 둘이 하고. 뒤 사공이 혼자하고 내려갔어. 앞 사공이 그레 두 개 달고. 발전소 넘어가서 거 가서 잠깐 떼가 굽을 가 봐.

그러니깐 커브 물에 들어가면 크면 덜 뒤집히고, 덜 넘어가잖아. 그래서 무게가 있으면 물도 그것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크면 그러니깐 나무도 맨 그 나무인데, 한 사람이 힘쓰는 것 보다 두 사람이 힘쓰는 게 더 낫잖아. 그럼 한 명은 내리지. 그럼 내려갈 때 그렇게 힘들었어. 당타래는 굽기는 다 똑같은데, 길게 이어야지. 이어서 만들어 길고 넓게 만들어야지.

· 영월군에서 전승하는 뗏목

그렇지 골안떼 밖에 안 만들었지. 올해를 그대로 하고. 군에 연락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만들기로 해. 내년에 만들면 나무도 준비하고 모든 걸 더 준비해서면 그건 또 영월 내려가서 덕포에서 만들어야 하거든. 서울 가는 뗏목은 나무도 더 들고. 노력도 더 들고. 물자도 더 들고 하니깐 그것을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깐. 영월문화재단에 내년에는 이렇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야지. 그런데 옛날에는 골안떼야. 농사짓다가 이삼일이면 막 만들어서 영월 갔다 왔지만. 서울 간다고 하면 지방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참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랬거든. 서울때 만든다면 노력의 차이가 좀 더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어. 떼의 길이와 넓이가 더 커지는 거지. 그레가 길어지는 게 아니야. 그레는 있는 걸로 해도 되지. 영월 내려가는 데는 사람도 많이 필요 없어. 사람이 서이나 너이면 충분하지.

뗏목축제에서 뗏목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다 죽었지. 제일 처음 할 때는 문산리 사람도 같이 하곤 했어. 지금은 여기 원백이가 영월에서 내려간 건 타 봤지. 흥원백인데 내 사촌이야. 그 사람이 골안떼 타봤지. 타 본 사람이 없지. 이제 젊은 사람이 만들지. 나는 가서 이거 한 지가 20년 정도 되거든. 그러니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잘해. 나는 이제 가서 구경이나 좀 하고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지.

· 화목용 나무로 제작하는 뗏목

그러지 뭐. 전에 나무는 원래. 그전에는 화목하는 것도 있었는데

데. 2m 정도 잘라서 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축제에 쓰니까 노력이 많이 든다고. 화목 하는 것은 안 사고 기다란 것만 사지. 화목하는 건 나무가 굵어져서 건축하는데 못 쓰는 거. 그러면 서울 가면 그때만 해도 후면에는 나무로 집도 짓고 연료로 때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깐 길게 하면 공간이 생기고 나무를 몇 토막 못 묶으니깐 짧게 자르면 굵은 게 덜하잖아 한 토막이라도 더 묶기 위해서 2m 정도로 잘라서 묶고 묶고 하지. 땀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나무를 산 사람이 서울 가서 팔아 먹어서 이익이 남은 가져가는 거지. 원래 서울 가는 땀공은 많이 갖고 가든 적게 갖고 가든 한바닥 갔다 오는 데 일당이 정해져 있으니깐 상관없어.

· 뗏목 제작 기준

그런데 기준이 그때만 해도 만 사이, 만 사이야. 요새 사람도 제재소 가면 사이를 아는데 한 사이가 뭐냐면 길이 4m에 다가 나무 재는 자가 따로 있잖아. 한 치가 4m면 그걸 ‘한 사이’라고 해. 그래서 다섯 치가 되는 나무가 열두 대면 오 오는 이십오라고 해서 스물다섯 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한 토막에 몇 사이 나가느냐지? 분할하는 데 필요한 거지. 서울 가는 데 더 굵은 거나 작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깐 한바닥이 내려가면 한바닥이 만 사이를 기준을 한다고. 그래서 정선에서 내려온 것이 삼천 사이 기준이고. 골안떼는 삼천 사이 기준이고, 서울 가는 때는 만 사이 기준이야. 세 개를 한군데 묶어서 가는 거니깐. 만 사이 기준이야. 골안떼를 세 개를 묶으니깐 만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땀을 세 개를 내려가면 두 개를 옆에 붙이면 되고. 하나는 반으로 잘라서 붙이면 돼.

채록 내용	뗏목 제작
채록일	2021년 9월 17일
채록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홍원도 자택
채록자	최명환, 남강연
채록 내용	<p>· 서강 뗏목에 대한 생각 서강 뗏목은 덕포로 안 올라오지. 그런데 만약에 내려갔으면 아마도 맛밭에서 묶었을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내려온 건 잘 몰라. 가끔 때가 내려왔지. 많이 내려온 것은 몰라. 만약 내려왔다면 밑에 맛밭 가서 각동 앞에서 했을 거야.</p> <p>· 뗏목축제에서 재현된 뗏목 그때도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덕포에는 신호선. 여기 올라와서는 정진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p> <p>· 뗏목을 처음 타게 된 내력 서울 갔다 온 사람 자손은 아니고. 내가 처음 배를 배울 때 가르쳐 준 사람 자손은 살고 있지. 그 사람 아들이 삼 형제인데, 첫째는 죽고, 둘째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때 배를 타자고 했던 안 노인은 섬세에 살고 있어. 건강한지는 모르지만, 올해 92살 정도 됐어. 김성호 아내는 방씨인데 지금 섬세에 살고 있어. 김성호씨는 나한테는 5년 선배이지. 내가 19살 때 돈벌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탔지. 그때만 해도 배를 타고 영월을 여러 번 가긴 했는데, 배를 탄 건 19살 때가 처음이지. 가자 해놓고는 처음 타는 나보고 앞 사공을 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전에 배를 많이 탔으니깐 그렇지.</p> <p>· 거운리에서 운영하던 목선 목선이. 10톤짜리 배가 있었어요. 영월 가면 이제 한 1톤 정도 싣고 오려면 4명이 가고, 내려가는 거면 1톤 정도면 두 사람이 가고 그랬지. 올라올 때 두 사람이 앞에 배에 줄을 묶어서 끌고. 물이 유한 때는 샷대로 저어서 올라오고. 급류 험한 때는 가면 배를 탔던 사람이 물에 내려서 배를 붙들고 밀면서 올라오지.</p> <p>줄은 나이론 줄로 하지. 처음에는 삼베를 꼬아서 했었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나이론 줄이 있어서 그걸로 했어. 목선은 우리가 직접 만들지. 배 만드는 대목이 있어. 마을마다 있었지. 마을에 있어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를 하나 놓고. 빌려줘서 샅을 받기도 했어. 배를 얼마나 아껴서 쓰느냐에 따라 배를 잘 빌려주</p>

고 해. 선원은 당일 수당만 받아. 그래서 너도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앞 사공과 뒷 사공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목선은 앞에는 샷대뿐이고. 그런데 물이 많을 때는 그네를 달아. 물이 많으면 유속이 빨라 샷대질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네를 달아 방향조절을 하지. 가을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대수는. 큰물이 나가는 것은 음력 7~8월에 나가. 기후가 바뀌면서 이제 비 올 때 ‘셋바람’ 분다고 하지. 그때 많이 그래.

목선을 끌 때 힘이 드는데. 무슨 소리를 해. 만약에 급류에 힘이 들 때면. 그때라면 ‘어 썩’ 소리하곤 했어. 어 썩는 같이 힘을 쓰자는 소리야.

비 오면 배에 물 퍼내고, 줄만 묶어 놓고, 장마가 저도 안 올러. 그런데 강에는 파도가 없으니 강가에 묶어 놓기만 해.

· 산판하는 과정

산판을 할 때 그냥 하지 소리는 없었어. 목도할 때는 소리를 했지. 목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목도소리를 잘하는데. 우리는 목도를 많이 하지 않고, 산판에서 목도를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작은 두 사람이 하고. 큰 것은 네 명이 하는데. 네 명도 안 되면 여덟 명이 하기도 해. 나무 길이가 길고 무거우니까 중간에 방망이를 하나 달아서 앞뒤로 묶어. 어깨에다가 목도를 메는데. 왜냐면 굴곡이 심하면 방망이가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힘을 안 쓰고 같이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팔목도는 둘둘. 둘둘 이렇게 서지. 앞뒤는 나무에 줄을 걸어 묶고, 중간에 방망이를 하나 다는 거야. 그리고 방망이 끝에 줄을 묶는 거지. 만약에 꼬부리진 길을 올라가면 앞뒤만 힘을 쓰고 중간은 힘을 못 쓰지. 그런데 방망이를 달면 방망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깐 같이 힘을 쓸 수 있지. 목도를 많이 한 사람은 목에 달걀만큼 불어난 사람도 있어.

찢조는 그 찢는 건 요새는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어. 나무에 바로 하고, 나무가 크면 ‘쓰루’라고 있었는데, 쓰루라고 대가 굵은 게 끝이 들린 게 있다고 그걸로 나무를 옮겼어. 쓰루 쓸 때는 목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라는 것으로 찍어서 나무를 옮겼지. 찢조는 나중이고, 그때는 다 사람이 했지.

준비하자는 것을 ‘허~정’이라고 하지. 허~정하면 준비하고, ‘차’하면 힘을 쓰는 거야. 같이. 허~정~차 하면 힘을 쓰고 일어

나는 거야. 그게 발맞추는 거야. ‘허정차~ 허정차~ 허정차~’하지. 네 명이 해도 목도소리는 똑같아. 발맞추는 노래이니까 발맞추는 시간에 따라 노랫말을 넣지. 그런데 우리는 안 해 봤는데, 때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한바닥에 두 사람이 힘들 때가 있거든. 먼저 내려간 사람이 올라와서 협력하는 수도 있고. 뒤에 내려오는 때가 협력하기도 하지. 힘을 같이 쓰기 위해서 목도하는 소리 비슷하게 하지. 그러니깐 소리는 ‘어썩 어썩’하는 소리인데, 한 사람이 먼저 예를 들어 ‘오대산 산이야 산이야. 밀자 밀자.’ 한 사람이 하면 여러 사람이 어썩하지. 오대산 하면 ‘어썩’, 산이야 하면 ‘어썩’, 같이 힘을 쓰기 위해서 하지. ‘돌이야 돌이야.’ 이러기도 하는데, 메기는 소리는 뭐를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산이야 산이야 금강산 산이야.’ 처럼 하면서 때가 걸려서 밀 때 그렇게 하지.

· 나무를 내리기 위해 통 놓기

우리가 직접 통을 놓은 적은 없고, 통이 있는 데서 나무는 내려봤어. 통을 내가 도비나 망치를 우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가 내려오는지 알지. 통은 여름 겨울이 없어. 주로 겨울에는 안 하고, 봄가을까지 하고 추울 때는 잘 안 해. 물이 있는 골도 없는 골도 있거든. 물이 있으면 좀 뿌리고, 없으면 안 뿌리고 그냥 내리지. 물이 없으면 경사가 지는 것이 낫지. 물이 뿌리는 곳에 경사가 지면 나무가 튕겨 나가기도 해. 비가 오면 잘 내려가다가도 나무가 내려다가 튕겨 나가기도 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데는 경사가 5~6m 정도 돼. 그래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어놔서 망가지지도 않아요. 나무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5~6m 날아가서 떨어져.

· 산에서의 벌목

옛날에는 가정집 부근에서 과일나무 큰 거 오래된 나무를 베면 동티가 난다고 해서 ‘어명이요’하고 나무를 뺐는데. 목줄을 치면은 나무가 죽는다고 동티가 없어진다고 했어. 왜냐면 소목쟁이들이 목줄을 치면 죽는다 이거야.

· 벌목 전 고사

제사 끝나고 한 나무 베고. 그냥 고사 지내고 술 한잔 올리고 나무 베지.

· 강가에 나무 쌓기

장사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나무가 떨어지면 바로 강가야. 나무가 떨어지다 보면 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려가

지 못하게 방어만 해 놓고 거기서 때를 메기도 해. 줄을 든든히 해서 나무에 줄을 총총히 메 놓아. 그러면 나무에 받쳐 놓으면 안 떠내려가지. 그거를 줄을 ‘포리줄’이라고 하는데.

· 적심

‘만강풀이’라고 해서 나무 내려보낼 때 뒤에서 바람 불면 나무가 안 내려가니깐. 강변에 있는 나무를 물에 밀어 넣으면 줄을 당기지. 만강풀이라는 것은 때를 안 묶고 그냥 강에다가 다 쏟아 놓고. 사람이 7~8명이 되면 배에 3~4명이 타고. 또 가역으로 나무 밀어 넣는 사람이 5~6명 정도 되고 내려가지. 나무를 몰면서 내려가지는 거지. 배는 목선이지. 그러니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줄은 덕포에 때 갔다 되고. 강에다가 대각선으로 사람이 일할 쪽을 강변으로 하고. 이쪽을 높이 메고. 그럼, 사람들이 나무를 빼서 차에 싣고 하지. 만강풀이 하는 거는 영월까지 밖에 안가. 때로 갈 때는 만강풀이를 안 해. 그런데 물이 작아서 때가 못가서 기차에 실을 때 하지. 만강풀이가 찰 만(滿)자, 물 강(江)자 쓰지. 한꺼번에 때 열 바닥이고 스무 바닥이고 밀고 내려가니까. 중간에 있으면 잘 내려가지만. 가에 있으면 잘 안 내려가지.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포리도 하고. 또 포리줄이 강변에 복판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서 넘겨 놓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배가 뒤 따라와요. 나무 사이에 사람이 끼면 안돼니깐, 그런데 급류에서 나무가 끼는 게 문제이지.

쇠줄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나무 건지는 위치에 쇠줄을 띄우고 나무를 다른 곳에 떨어질까 봐 겁나니깐 쇠줄을 놓는 거지. 포리줄은 재료가 주로 녹밭줄이지. 그전에는 삼베로 만들기도 했고, 소 다줄 정도 굵기로 만들었지. 소 밭갈 때 다줄 같은 거.

· 급류에서의 대처 방법

특별한 것은 없어. 그런데 급류를 내려갈 때는 손짓으로 해. 앞 사공이 손짓을 봐서 뒤 사공이 힘들 더 쓰지. 이제 손바닥 쪽으로 틀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깐 때는 처음 댔지만. 내려오는 건 구경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했지. 여율이 심하면 소리는 안 지르고 손짓으로 주로 하지.

· 서울에서의 뗏목 해체

해체는 갖고 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인수인계만 하면. 그때 서울의 목상들이 서울에서 팔아먹는 것도 어려운지 서울에 있는 원목조합에 위탁판매를 부탁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해체해서 쌓아 놓고, 집을 짓거나 화목 연료로 팔아먹는 걸로 구

분하지. 나무 개수는 거기 사람들이 하지. 그런데 출발할 때 도록을 쓰지. 나무 토막수를 쓰지. 혹시 가다가 때꾼들이 한 토막 빼서 술 사 먹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도록을 쓰지. 근데 간혹 때 아래에 나무를 몇 토막 숨겨 놔. 그럼 좀 올라다가 뗏목에 신고, 숨겨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 도록이라는 것도 도적 도(盜)자나 마찬가지로. 도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지. 숨겨서 몇 토막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별의 별사람이 다 있어. 자는데 와서 나무가 한 토막 필요하다고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은 나무로 바꿔서 갖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굵은 나무를 갖고 와서 좋은 나무로 바꿔가고, 사공은 술 한잔 얻어먹는 거지.

· ‘돼지우리 지라’의 의미

그거는 강변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짓곳은 욕설을 한다고 할까 그런 식이야. ‘너 가다가 고생 좀 해라.’라는 소리지. 돼지우리가 뛰냐면 때를 묶어 놓은 것도 급류에서 영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라는 소리야. 돼지우리가 주로 토막나무를 갖고 있으니깐 그러는데 돼지우리가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라고 말한다고. ‘돼지우리 지라~ 돼지우리 집 지라’라고 하지. 고생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때꾼들이 그런 구경했어. 애들이 때 내려올 때 강가에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애들이 욕하니깐 우리 욕하긴 그래서 빨래하는 아줌머니 앞에 바삭 내려가면서 “자들이 뭐 좀 달래요.”라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까불어서 욕 먹는다.”라고 했어. 주로 열 살 미만의 애들이 하지. 혹시나 한 20살 되도 산에서 그때 만해도 화목 하려고 뿔나무 하려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는데, 성년이 되도 장난삼아 하는 사람도 있었어. 산에서 나무하다가 때 내려가는 걸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소리는 애도하고 어른도 하는데. 성년이 되면 잘 안 하는데, 애들 중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 뗏목 운행으로 받은 수입

농사일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지. 예를 들어 농사일은 쉽게 얘기해서 남자 성년이 밭갈이 힘든 일을 하면 벼 한 말 받았거든. 방앗간에 찼으면 쌀이 반 말 정도 나오거든. 그런데 때는 잘 갖다 오면 하루에 한 말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깐 그러니깐 때돈 별라는 돈을 많이 별라는 얘기야.

· 만지나루와 주도 전산옥

알지. 우리가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산옥이 안 것도 우리

30~40살 정도 시절에 전산옥이 딸집에서 가서 전산옥이 딸이 김금순인데, 우리보다 4~5살 더 먹었어. 그 집이 요식업을 해서 우리가 배 타고 내려가면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자고 그랬어. 그런데 전산옥이 딸 집에 왔을 때 만나서 막걸리 한잔 대접하고. 대화 좀 했지. 전산옥은 우리 어른 때 사람이거든. 죽은 지 5~6년 밖에 안 돼. 딸 집에서 살았지. 인물이 좋았지. 딸도 인물이 좋았어. 최씨네 집으로 시집갔는데 장사하고 그랬지.

· 아라리

심심하면 소리도 하지. 그런데 소리를 할 기회나 장소는 팔당댐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유하고 폭이 넓어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거 가면 목선 조그만 거 ‘뚝딱선’이라고 하지. 거기다가 장어하고 막걸리하고 신고 배 타고 떼 있는 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막걸리 한 잔 하세요.”하고 하지.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때 말로는 같보나 뭐 그랬는데,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 걸 먹어 보기도 쉽지 않고, 또 여자들 노래도 들어 볼 수 없으니, 좀 더 즐거울려면 앞에 가는 떼가 천천히 가고, 뒤에 가는 떼를 빨리 내려오게 해서 두 떼를 붙여 놓으면 떼꾼이 너이고, 들어온 사람이 돌이면 대여섯 되면은 한잔 먹고 거기도 아리랑도 하고 한마디씩 부르지. 거기는 급류가 없고, 워낙 머니깐 시간을 보낼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 떼판에 올라와서 한마디씩 하고 술도 먹지. 떼꾼은 아리랑밖에 몰라. 다른 건 할 줄 몰라. 그 사람들도 아리랑 하지. 우선 술장사하는 사람도 손님에 맞춰 놀아야 손님들도 즐거워하니깐. 아리랑 하지.

뚝딱선마다 다른데, 고기는 주로 없고, 일반 사람들이 밥먹을 때 먹는 반찬이지. 한 시간 두 시간 까지는 놀 수 있지만 오래는 안 있지. 예를 들어서 막걸리가 천 원이면, 이천 원이면 달라고 하면 이천 원 주지. 돈은 현찰로 주지. 다 먹고 논 다음에 계산하지. 그런데 소문이 잘못나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정당하게 받지. 우리는 소년 시절에 가서 어른들 따라가서 그런 재미를 못 봤지.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소년이 우리 아버지 친구덜이랑 같이 가는데 그게 돼. 안돼 지. 떼꾼들 중에서 술꾼들이 같보라고 하지. 우리 떼 탈때만 하더라도 ‘코대롱’하는 사람도 있었어. 코대롱이 마약이지. 아편 갖고 하다가 아편이 변해서 코대롱으로 많이들 했어.

잘하지는 못해도 남만큼은 하지. 내가 지은 게 뭐냐면 영월에 낙화암이 있는데, 문화원장이나 군수한테 찾자고 하지만 찾지 않아. 그래서 어느 군수고 찾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만들어 불러 봤

지. ‘충절의 고장 영월에는 낙화암이 있는데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부르지. 언젠가 그 아리리를 듣고 해석을 해보면 영월에 낙화암이 있다는 걸 알면 찾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낙화암을 봤는데, 금강정 정각 앞에 낙화암이 있었는데. 한 삼 년 되었지. 선생님(남강연) 만나고 만들었지. 많이 만들었지. 한 20곡 만들었어. 새로운 것도 있지. ‘봉래산 상산봉에는 천문대가 있는데 바람 타고 날라다니는 활공장도 있어요’ 라고 만들어 부른 거야. 옛날 어른들이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지.

원래 아리랑이 시작된 것은 왕씨가 망가지고 이씨가 등극하고 왕씨 시절에 재벌가. 권력가들이 피난이나 도망가면서 정선에 가서 살면서 한이 맺혀서 만들어서 부른 게 아리랑이거든. 그래서 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이고 다 있어도 역사적으로 봐도 강원도 아리랑이 1번이다. 한이 맺혀서 불렀으니까. 아리랑 고개는 산마루 고개가 아니고. 보릿고개와 같은 마음에 고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깐 잘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한이 들자 나 그래서 쫓겨나서 숨어서 사니까 한이 들잖아. 그래서 한이 맺혀서 부른 노래인 거지.

평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덕포에서 안 자지. 안 자고 바로 가고, 동강에서 내려가는 것은 덕포에서 자고. 사실은 정선 아리리가 1번지니깐 정선 사람들이 아리리 하는 것은 우리보다 성인지역이다라고 인정했지. 정선에서 평창 영월까지 번져서 올라왔다고 생각했지. 정선서 먼저 생겼으니까 우리도 번져 나와서 우리도 따라 부르고 만들어 부른 거지.

아리랑은 많지 했지.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리랑은 많이 했지. 가사만 다르지 곡조는 같지. 곡은 다 같이 만들어 부르고 한 거지.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지. 우리가 영월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만들어 부른 거지. 역사적으로 강원도 정선 아리랑이 1번지다 이거야?

때꾼들은 내용이 음양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을 많이 부르지. 예를 들어 사랑이 적인 가사를 많이 불렀지. 예를 들어 가사가 그래도 야한 가사도 있고 억센 가사도 있고 그런데 ‘만첩산중에 참매미 우는 소리는 듣기 나 좋지 다 큰 처녀 한숨 소리는 영 듣기 싫어요’

‘만첩산중에 딱따구리는 생박달 구녕도 뚫는데 우리집에 저명터리구니는 뚫어진 구녕도 못 뚫네’ 이건 주로 여자가 많이 불렀

	<p>지. ‘비탈밭에 매는 저년은 뺨떨어졌지만 저녁에 총각 낭군을 만나면 똑발라진다’라는 노래도 있지.</p> <p>한동안 안 불러서 그런데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 낳던지 못 낳던지 꺾고꺾고 머리 꺾고 한쪽 팔은 곰배팔이 한쪽 다리 수동 다리 /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갔는데 대관령 굽이굽이 부디 조심해요’라고 했지.</p>
--	---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2.07.05.	강원도민일보	영월동강 뗏목축제 '역사 속으로'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2.07.17.	강원일보	[영월]민간단체 동강 뗏목축제 치른다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5.05.02.	강원일보	[토종문화]영월 동강 마지막 때군 흥원도씨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6.06.20.	연합뉴스	영월 동강축제 내달 28일 개최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7.08.07.	주간경향	[유성문의 길]마지막 동강 뗏목꾼 홍원도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8.07.14	동아일보	[강원] “을 피서는 동강에서” 동강축제 31일 개막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8.08.27.	강원도민일보	[생활토론] 영월 동강축제 발전방안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09.07.13.	매일경제	동강에서 ‘텐트치고 고기잡고 물놀이하고 찰칵 사진찍고’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1.07.26.	강원일보	[특집]동강! 여름을 씻다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2.07.28.	강원도민일보	동강축제 전통뗏목 시연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 목
	2013.06.25.	주간경향	[길에서 만난 사람]영월 서강 물길 뗏목과 옛사공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 목
	2013.07.12.	뉴시스	“동강에서 놀고 지고” 2013 영월동강축제 내달 2일 팽파르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6.12.08.	세계일보	[여행] 폭포처럼 흘러내린 시간의 역사
내용	 <p>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with the title "[여행] 폭포처럼 흘러내린 시간의 역사". Below the title is a large photograph of a wooden structure, likely a raft or a historical site. The text below the image discuss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area, mentioning the "영월 뗏목" (Yeongwol Raft) and its cultural value. There is also a smaller image at the bottom of the article showing a view of trees and a sky.</p>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7.07.07.	강원도민일보	영월 동강축제→ 동강뗏목축제로 변경
내용	 <p>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with the title "영월 동강축제→ 동강뗏목축제로 변경". The article discusses the decision to change the Yeongwol Donggang Festival to the Donggang Raft Festival. It mentions that the festival has a long history and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e article also notes that the festival will be held in a more traditional and cultural manner, focusing on the rafting tradition. There is a small image of a raft on the river in the article.</p>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8.08.02.	강원도민일보	떼꾼의 유려한 노젓는 솜씨에 뗏목은 유유히 굽이쳐만 가네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목
	2019.08.08.	강원도민일보	전통 뗏목부터 워터파크까지 ‘다 있는’ 동강이 정답
내용			

구분	년도	언론사	제 목
구분	2020.05.13.	강원도민일보	영월 코로나19 극복 문화행사·팸투어 잇따라
내용	 <p>영월 코로나19 극복 문화행사·팸투어 잇따라</p> <p>영월군은 13일 오후 3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보 후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문화 행사'로 첫 번째 팸투어 행사를 치렀다. 행사에는 영월군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영월군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영월군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p>		

구분	년도	언론사	제 목
구분	2021.06.19.	영월인	영월 동강뗏목보존회 창립
내용	 <p>영월 동강뗏목보존회 창립</p> <p>영월 동강뗏목보존회 창립</p>		

○ 부록 3 : 2005년 뗏목 시연 사진

<p>1960년대 초반(추정) 영월 뗏목</p>	<p>2005년 뗏목 시연1</p>
<p>2005년 뗏목 시연1</p>	<p>2005년 뗏목 시연1</p>
<p>2005년 뗏목 시연1</p>	<p>2005년 뗏목 시연1</p>
<p>2005년 뗏목 시연1</p>	<p>뗏목 모양으로 제작한 튜브</p>

○ 부록 4 : 2021년 그레 및 당타래, 강다리 제작 사진(2021.07.29.)





그레용 나무 껍질 벗기기



그레 제작 시 점심 식사



그레용 나무 다듬기



그레 만들기 위해 먹줄로 표시하기



그레 만들기



강다리 만들기



그레 손잡이 깎기



그레 건조하기

○ 부록 5 : 2021년 뗏목 제작 사진(2021.07.29.)



뗏목 제작을 준비하는 주민들



뗏목 엮을 새끼줄 꼬기



나무와 당타래 연결하기



뗏목 동세 엮기



완성된 동세



강다리 만들기1



동새줄로 엮기 전인 동새들



강다리 만들기2

	
동세 줄로 동세 연결하기	강다리 올리기
	
강다리 고정하기	그레 올리기
	
그레 고정시키기	뗏목 출발하기
	
동강을 내려가는 뗏목	그레를 짓는 사공